

博士學位論文

朝鮮時代 濟州 關聯 漢詩의 研究

嶺南大學校 大學院

漢文學科

韓國漢文學專攻

夫 英 勤

指導教授 金 血 祚

2007年 6月

- 目 次 -

| | |
|-----------------------------|-----|
| ○. 序論 | 1 |
| I. 濟州 關聯 漢詩의 作家와 主要作品 | 8 |
| 1. 收錄 文獻과 實狀 | 8 |
| 2. 重要 作家와 作品 | 16 |
| 3. 類型과 樣式 | 35 |
| II. 濟州 關聯 漢詩의 素材 | 46 |
| 1. 山水와 地理 | 46 |
| 2. 歷史와 古蹟 | 60 |
| 3. 物産과 民衆生活 | 82 |
| III. 赴任官의 漢詩世界 | 100 |
| 1. 淸陰 金尙憲 | 101 |
| 2. 瓶窩 李衡祥 | 117 |
| 3. 石北 申光洙 | 131 |
| IV. 流配客의 漢詩世界 | 148 |
| 1. 桐溪 鄭蘊 | 150 |
| 2. 北軒 金春澤 | 162 |
| 3. 秋史 金正喜 | 173 |
| V. 濟州 關聯 漢詩의 性格과 意義 | 195 |
| 1. 濟州 關聯 漢詩의 性格 | 195 |
| 2. 濟州 關聯 漢詩의 詩史의 意義 | 202 |
| ○. 結論 | 210 |
| 【參考文獻】 | 214 |
| 【附 錄】 | 221 |
| 【英文抄錄】 | 234 |

○. 序論

본고는 조선시대 제주와 관련된 한시들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집필하였다. 이를 위해 조선조 이래 제주 관련 한시를 지은 작가와 그 작품의 양상을 밝히고, 특히 제주를 다녀간 동기와 목적에 따라 작자의 군을 나누어 이들이 남긴 작품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근거로 제주를 소재로 창작된 한시 작품들의 가치를 드러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러한 작품들이 가지는 우리문학사에서의 의의를 밝히고자 한다.

주지하듯이 제주도는 한반도 서남부 해상에 위치한 우리나라 최대의 섬이다. 제주도가 우리나라 최대의 섬이긴 하지만, 그 이국적 풍취나 경관으로 인해 육지인의 주목을 받은 것은 근대 이후, 특히 해방 이후의 일이다. 해방 이후 제주 4·3사태로 역사적 주목을 받기도 하고, 관광산업이 본격적으로 발달한 60년대 이후에 와서야 제주도는 신비의 섬으로 주목을 받았던 것이 역사적 현실이었다. 그리하여 근대 이전에는 비록 우리의 땅이긴 하지만 사람이 주거하기에 적합한 곳이 아니었다.

제주의 관리로 어쩔 수 없어 부임하거나, 혹은 유배로 불가피하게 갈 수 밖에 없는 곳이 제주도였다. 말하자면 자신의 자유의지로 선택하여 관광을 하거나 유람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거리상으로도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위치하고 교통상으로도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 바로 제주였다. 더구나 육지인이 그곳에 장기적으로 사는 것은 더욱 불가능할 정도로 육지의 상황과는 모등 것이 판이하였다. 이것은 문화 문물이 발달하기 이전인 상고 시대로 올라가면 갈수록 더욱 심한 현상이었을 것이다. 근대와 비교적 가까운 1840년, 추사 김정희는 제주도에 위리안치되어 제주도 환경에 대한 소감을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벌레와 뱀까지 따라서 사람을 괴롭힙니다. 반 자[半尺]나 되는 지네와 손바닥만한 거미들이 잠자리에 횡행하는가 하면, 처마에는 새끼 가진 참새가 날

마다 뱀을 경계하여 지저귀곤 하는데, 이는 모두 북쪽 육지에서는 보지 못하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5월 그믐 사이에는 대단히 무서운 비바람을 한 차례 겪었습니다. 이때에 기왓장과 자갈은 공중을 날아다니고 큰 나무는 뽑혀 넘어져서 뿌리가 서로 언했으며, 바다에는 파도가 새까맣게 솟아오르고 그 가운데서는 천둥소리가 일어나는지라, 사람들이 모두 머리를 나란히 하고 무릎을 맞댄 채 서로 꼭 껴안아서 마치 스스로 보존하지 못할 것처럼 여겼습니다.”¹⁾

유배 온 처량한 처지이어서 더욱 그러하겠지만, 추사 김정희가 느낀 제주도에는 육지의 환경과는 너무도 달라서 도무지 정을 붙이고 살만한 곳이 아니었다. 19세기 중반 무렵도 그러하거니와 그 이전에는 더욱 정을 붙이고 살만한 곳이 아니었을 것이다. 제주도민은 어쩔 수 없이 제주도에 정착 적응하고 살겠지만, 육지인이 제주도에 착근하여 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러한 자연 지리적 조건 때문에 제주도 자체 내에는 제주의 환경을 기록할 문자적 교양을 갖춘 사람도 적었거니와 더구나 제주를 소재로 문학 작품을 창작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웠을 것이다. 추사는 일찍이 제주의 풍토와 인물이 개발되지 못한 원시적 황무지 상태이고 섬 오랑캐와 같으며, 그 중 빼어난 인물이 있어도 통감이나 맹자 등 두 종류의 서책만 읽으며, 이들을 지도할 변변한 스승조차 없다고 하여 인문학적 불모지임을 말한 바 있다. 이런 지경이고 보면 제주를 소재로 제주인이 스스로 한시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었다.

제주 관련 한시는 제주도민에 의해서 창작이 거의 전무한 것이 문학사의 사정이었다. 결국 제주 관련 한시는 제주도를 내방한 육지인에 손을 빌어 지어질 수밖에 없었다. 어떤 사정으로 인해 제주도를 방문한 사람들은 육지와는 너무도 다른 자연적 문화적 풍토와 환경을 기록하기도 하고, 또 이를 문학적 작품으로 형상하기도 하였다. 이 문학적 역사적 기록은 그 자체로서도 대단히 소중한 기록이거니와, 이 기록은 다른 문인 학자들에게 제주도를 소개하는 정

1) 『阮堂先生全集』 권3 書牘, 與權彝齋敦仁 참조.

보 제공의 역할도 하였다.

그리하여 제주도의 이국적 풍취를 동경하여 직접 유람할 동기를 제공하기도 하고, 臥遊를 통한 정보를 이용하여 직접 제주도를 답사하지도 않고 제주 관련 한시를 창작하기도 하였다. 현재 문헌상으로 제주 관련 한시는 이미 고려초에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고려초부터 제주 관련 한시가 창작되기 시작하면서 조선조로 들어와서는 더욱 본격적으로 작품이 창작되고 이는 한문학이 종식되는 근대 초기에까지 이어졌다. 특히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제주도를 직접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 문학 창작도 활발하였다.

관료로 제주에 부임하는 목민관, 정치적 사태로 제주에 유배된 謫客, 개인적 사정으로 제주를 유람 및 방문한 사람 등 다양한 목적과 이유로 제주를 찾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게 되고, 상대적으로 문학의 기록이 풍성하게 되었던 것이 문학사의 실상이다.

이들 문학 작품은 그 자체 문학사의 소중한 자료이지만, 한편 특정 지역을 소재로 문학화 하였다는 점에서 하나의 지방문학으로서도 대단히 소중한 자료이다. 지금까지 목민관 혹은 유배객 및 유람객으로 제주도를 찾은 인물로 알려진 사람은 冲庵 金淨을 선두로 白湖 林悌, 葵窓 李建, 桐溪 鄭蘊, 淸陰 金尙憲, 北軒 金春澤, 凝窩 李源祚, 石北 申光洙, 秋史 金正喜, 雲養 金允植 등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제주에 유입되었고, 조선후기 들어 그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다.

제주에 유입된 이들은 지금까지 육지에서 경험하지 못한 제주도 특유의 지리적 환경과 문화적 체험을 하게 되고, 이 경이로운 체험과 생활을 기록으로 남기게 된다. 곧 제주의 삶의 체험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예컨대 冲庵의 『濟州風土錄』, 白湖의 『南溟小乘』, 葵窓의 『濟州風土記』, 桐溪의 濟州 유배 시절 詩, 北軒의 『囚海錄』, 寓庵의 『南征日記』, 石北의 『耽羅錄』, 凝窩의 『耽羅錄』, 淸陰의 『南槎錄』, 秋史의 濟州流配 시절 詩, 瓶窩 李衡祥의 제주 목사 시절 詩, 雲養의 『續陰晴史』 등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이러한 기록은 조선후기 들어 士의 역할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면서 더욱 활발해졌다. 따라서 당시 문인들은 중앙 집중적 집필 태도에서 벗어나 지방의 고유문화에 관심을 보이게 된다. 이로 인해 전문적인 문학인에 의해 개별 작품이 창작되어 제주의 고유한 문화나 환경 전통이 중앙에 알려질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었다. 이것은 그간에 변방으로 치부되어 도외시 되던 지방의 문화가 모든 부분에서 지방과 비교할 수 없는 서울의 문화와 대등한 자리에 놓이기에 시기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위상이 재고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고, 어느 정도 성과도 축적이 되었다. 소재영은 제주의 한문학과 관련된 여러 문인과 서지들을 소개하면서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였다.²⁾ 그리고 다른 제주도의 한문학과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특수한 제주의 상황을 특정 인물이나 작품에 국한하지 않고, 장르와 주제에 따라 접근한 논문들과 유배인의 문학과 관련된 것들이 가장 많은데 이는 유배문학으로 지칭된다.³⁾ 특히 양순필의 유배문학 연구가 상당수에 이른다.⁴⁾ 양순필 외에도 제주 유배문학에 대한 연구는

2) 소재영, <한문학과 제주문학>, 『탐라문화』 15, 1995.

3) 변영미, <제주 한시 연구> (성신여대 석사논문, 1996); 한경희, <제주도 풍토문학 연구—조선시대 내도 문인을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논문, 1991); 박준호, <제주도와 관련된 기행록 및 유기에 대하여>, 『대동한문학』 7 (대동한문학회, 1995); 양순필, <제주도 마애시 소고>, 『이능우 교수 회갑기념논총』 (1990)

4) 참고로 그는 <이조 유배문학 연구>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69)를 시작으로 이진 김정 정은 김춘택 김정희 등 유배문인들의 저술을 통해 제주 유배문학의 다양한 면모를 정리하였다. <조선조 유배문학 연구—제주도를 중심으로> (건국대 박사논문, 1983)와 <제주 유배문학 연구> (제주문화, 1992)는 그 업적들이 집대성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9세기 중엽에 9년 동안 제주에 유배됐던 秋史 김정희에 관한 연구가 많은데 <추사 김정희의 한문서고>, 『탐라문화』 9 (탐라문화연구소, 1989); <추사의 도망시 제문 고>, 『광장』 69 (1979. 3); <추사의 문학세계—제주도 유배를 중심으로>, 『제주도』 80 (제주도, 1986); <추사의 제주유배 인간 고>, 『어문교육』 27 (일조각, 1980); <추사의 제주유배 한시>, 『논문집(인문과학)』 14 (제주대, 1982) 등이 있고 冲庵 김정에 대해서도 <충암의 제주유배 한시 소고—해도록을 중심으로>, 『떡남 김일근 박사 화갑기념논총』 (1985); <충암의 제주유배 한시 소고>, 『논문집(인문과학)』 20 (제주대, 1985); <충암의 제주유배 한시 고>, 『어문론집』 23 (고려대 국어국문학연구회, 1982); <충암의 제주풍토록 소고>, 『어문론집』 22 (1981) 등 다수의 논문을 썼고 葵窓 이진 北軒 김춘택 尤庵 송시열 悔軒 조관빈과 관련하여 <이건의 '제주풍토기' 고>, 『한국언어문학』 16 (한국언어문학회, 1978); <북헌 김춘택의 제주 유배 한시 고>, 『백록어문』 6 (제주대 국어교육연구회, 1989); <우암 송시열의 제주 유배 시 소고>, 『백록어문』 9 (1992); <조관빈의 탐라잡영고>, 『이종출 교수 회갑기념논총』 (1989) 등을 발표했다. 이밖에도 <제주도를 제재로 한 유배가사>, 『제

여러 논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秋史 金正喜, 冲庵 金淨, 桐溪 鄭蘊, 勉菴 崔益鉉 등이 주된 논의 대상이었다.⁵⁾ 이러한 연구의 흐름은 제주 관련 문학의 전체적인 모습을 밝히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 68 (제주도, 1975); <제주 유배문학 서설>, 『논문집』 10 (제주대, 1979); <제주 유배한시 연구>, 『논문집』 16 (제주대, 1983); <제주 유배가사에 나타난 생활상>, 『논문집(인문과학)』 17 (제주대, 1984); <제주 유배 제문 고>, 『논문집(인문과학)』 21 (제주대, 1985) 등에서 제주 유배문학에 대한 다양한 관심을 표출했다.

- 5) 秋史 김정희의 제주 유배에 관련된 연구로는 김일근, <언간에 투영된 추사의 인간론>, 『탐라문화』 6 (탐라문화연구소, 1987); 김봉옥, <추사 김정희의 유배서간 연구> (제주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0); 한창훈, <추사 김정희의 제주 유배기 언간과 그 문학적 성격>, 『제주도연구』 18 (제주학회, 2000); 윤치부, <추사의 제주 유배시 한글편지 쓰기와 읽기>, 『논문집』 30 (제주교육대, 2001) 등이 있고 己卯土禍로 인해 1520년 제주 목에 유배됐던 冲庵 김정에 관한 연구도 이어졌다. 앞의 양순필의 연구 외에 김상조가 <충암 김정희의 ‘해도록’>, 『탐라문화』 17 (탐라문화연구소, 1997)와 <충암 김정희의 ‘제주풍토록’과 규창 이건의 ‘제주풍토기’ 비교 연구>, 『대동한문학』 13 (중문출판사, 2000) 등을 발표했고 강성능은 <충암 김정희의 해도록 연구> (제주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9)를 썼고 桐溪 정온의 유배문학에 대한 연구도 적지 않은 편이다. 고정우는 <정온 유배한시의 초사수용 고>, 『국문학보』 8 (제주대 국어국문학과, 1986); <동계 정온의 유배한시 연구> (제주대 석사논문, 1987); <정온의 유배한시 연구>, 『탐라문화』 8 (탐라문화연구소, 1988) 등을 발표했고 김경희는 <동계 정온의 의식 변모 양상> (제주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4)을 내놓았으며 19세기말에 제주 목에 유배됐던 勉菴 최익현에 관해서도 김경국, <면암 최익현의 한시 연구—유배 한시를 중심으로> (제주대 석사논문, 1990); 한창훈, <면암 유배한시 연구—제주도를 중심으로>, 『백록어문』 7 (1990) 등이 있고 1730년대 대정 현에 유배됐던 梅軒 조관빈에 대해서는 김윤중, <회헌 조관빈의 탐라잡영 연구> (제주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0)가 있고 조선 정조 때 추자도에 유배된 사건을 배경으로 한 가사인 안조환의 『만연사』와 관련해서도 몇 편의 논저가 있는데 윤형덕, <만연사 연구> (단국대 석사논문, 1976); 양순필, <만연사 산고> (제주문화, 1990); 김대행, <절도 적거와 문학의 길>, 『어문학논총』 (학문사, 1993) 등이 그것이다. 이상의 유배문학 이외에도 관련 내방객 문학에 관한 연구 성과들이 있는데 19세기 중엽 제주에 왔던 癡窩 이원조의 문학에 대해 양순필이 <옹와의 ‘영주십경가’고>, 『백록어문』 8 (1991); <이원조의 탐라십요 소고>, 『논문집』 34 (제주대, 1992) 등을 발표했고 역시 來島문인인 白湖 임체에 대해서 다룬 윤치부, <임백호의 ‘남명소승’고>, 『탐라문화』 7 (탐라문화연구소, 1987)가 있으며 줄고로 <석복 신평수의 ‘탐라록’ 고찰>, 『영주어문』 8 (영주어문학회, 2004); <병와 이형상의 한시 연구>, 『한문학연구』 15 (계명한문학회, 1999); <북헌 김준택 ‘수해록’의 한 국면>, 『한문학연구』 17 (계명한문학회, 2002); <지방문학으로써의 석복의 한시>, 『동아인문학』 6 (동아인문학회, 2004); <추사 김정희의 제주 유배시 고찰>, 『영주어문』 11 (영주어문학회, 2006); <동계정온의 제주 유배시 고찰>, 『동아인문학』 11 (동아인문학회, 2006); <정음 김상현의 ‘남사록’ 고찰>, 『탐라문화』 (탐라문화연구소, 2006) <백호 임체의 ‘남명소승’ 고찰>, 『영주어문』 12, (영주어문회, 2006) 등의 다양한 연구가 있다. 그런데 제주 출신 문인에 대한 논문은 매우 적다. 이종문, <고조기론>, 『제주작가』 6 (실천문학사, 2001); 김새미오, <매계 이한우의 시문학고> (제주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9) 정도를 꼽을 수 있을 뿐이다. 이밖에 고전문학 분야의 연구 성과로는 양중해, <익재난고 소악부소수 탐라곡에 대하여>, 『제주도사연구』 3 (제주도사연구회, 1994); 양순필, <탐라죽지사 소고>, 『심전 김홍식 교수 화갑기념논총』 (1990) 등이 있는데 전자는 한역된 고려가요인 <수정사>와 <망북풍선자>를 다룬 것이며 후자는 제주 문사들의 시문을 모아 편찬한 『諸家吟詠集』의 한시 14편을 고찰한 것이다. 고소설과 관련해서는 부산옥, <배비장전의 해학성 연구>. (제주대 석사논문, 1987); 권순궁, <‘배비장전’의 풍자와 제주도>, 『반교어문연구』 제14집 (반교어문학회, 2002) 등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들은 제주와 관련된 문학 전체의 모습을 밝히는데 일정한 기여를 한 것도 사실이지만, 한편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기왕의 연구는 전체적인 장르별 연구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일정한 목적에 따라 연구자 임의대로 연구를 수행하는 문제점을 보여주었다. 그 결과, 특정 작가와 작품만을 선정함으로써 각 연구의 연결 고리가 부족하였고, 이와 함께 전체성과를 가능하여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할 수 없는 한계도 드러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선 이러한 선행 연구의 축적된 연구 성과를 존중하면서도, 기왕에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제주 관련 한문학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분석 연구할 것이다. 다만 논의의 범주를 제주를 다녀간 赴任官, 流配客들이 남긴 작품에 국한하여 연구를 진행하려 한다.

이를 위해 본고가 앞으로 서술할 주된 연구 방법과 주된 진행의 차례는 다음과 같다.

<Ⅰ>장에서 제주 관련 한시 문학의 文獻 收錄의 實狀을 밝히고, 重要 作家와 作品을 드러내어 그것들의 類型과 樣式을 파악하려 한다.

<Ⅱ>장에서는 제주 관련 한시의 詩的 素材들을 山水와 地理, 歷史와 古蹟, 物産과 民衆生活이라는 주제로 분류하여 세부적으로 고찰하려 한다.

<Ⅲ>장에서는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제주에 목민관으로 부임했던 인물들의 한시 작품들을 집중 조명한다. 안무사로 제주를 다녀간 金尙憲, 제주 목사를 지낸 李衡祥, 금오랑으로 죄인을 호송하여 제주를 다녀간 申光洙 등 세 사람을 선정하고 그들이 남긴 작품을 세부적으로 분석 정리하려 한다.

<Ⅳ>장에서는 제주도에 유배객으로 왔던 인물들의 한시 문학을 집중해서 다루기로 한다. 각기 다른 시기에 제주에 유배되었던 鄭蘊, 金春澤, 金正喜 등 세 사람을 선정하고 그들의 남긴 작품을 분석하려 한다.

<Ⅴ>장에서는 선행된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제주와 관련된 한시 작품들이 가지는 性格과 詩史的 意義를 드러내고, 특히 제주 관련 한시를 지방문학의 관점을 가지고 그 가치를 논해보려 한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통해 제주와 관련된 조선시대 한시 작품들이 제주를 배경으로 한 전체 문학의 범주 속에 어떠한 위상과 가치를 지니며, 나아가 한국 한문학 속에 차지하는 詩史的 意義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I. 濟州 關聯 漢詩의 作家와 主要 作品

제주와 관련한 작품은 시대와 장르를 뛰어넘어 지속적으로 창작되었다. 물론 來訪한 목적에 따라 다른 여러 가지의 기록을 남기기도 하였지만, 그들의 작품 소재가 되었던 제주의 이국적인 명승고적과 그에 반하여 변방에 위치한 가난한 민중의 삶은 그들에게 진솔하게 비쳐졌고, 또한 그들은 그것들을 놓치지 않고 문학 작품으로 형상화하였다.

본 장에서는 제주를 다녀간 사람 중에 작품을 남긴 사백 여명의 문인과 그들의 작품, 또한 구체적인 숫자를 파악하여, 한눈으로 살필 수 있게 개황하고, 그 중에 주요 작가들을 내방의 목적에 따라 赴任官, 流配客의 순으로 분류하여 드러내고, 그러한 작품들이 갖는 樣式과 類型을 밝혀 본격적인 논의에 바탕이 되는 배경적인 연구를 진행하려 한다.

1. 收錄 文獻과 實狀

제주와 관련된 한시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에 앞서 선결해야 할 과제가 있는데, 전체적인 연구 대상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그것이다. 물론 전체적인 연구 대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나타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예컨대 현재까지 남아 있는 자료들을 세세히 찾아내기 힘들다는 원천적인 어려움은 물론 이제까지 한국 한문학 연구의 편향성에 따라 대상의 중요성이 평가되다 보니 많은 작품들이 지리멸렬한 상태를 낳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어쨌든 현재의 자료들에 대한 보존이 약한 상태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들이 활성화되지 않아 새로운 자료들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일단 아쉽더라도 지금까지 남아 있는 자료의 일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세분화하여, 대강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二首 이상 제주 관련 한시 작품을 남긴 사람들을 표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濟州 關聯 漢詩의 概況

| 作家 | 作品 |
|-----|-----------------------------|
| 高兆基 | 微時(外 2題 2首) |
| 李奎報 | 濟州太守崔安以洞庭橋見寄以詩謝之三首(外 2題 2首) |
| 金萬希 | 蹈海(外 6題 6首) |
| 高得宗 | 歸觀濟州遇風漂海作(外 2題 2首) |
| 鄭道傳 | 走筆送高少尹(外 1題 1首) |
| 權 近 | 耽羅(外 1題 1首) |
| 申叔舟 | 寄濟州御史姜公遇文(外 4題 4首) |
| 徐居正 | 姜景愚畫屏八幅(外 5題 5首) |
| 申光漢 | 送濟州牧使任錦湖亨秀(外 4題 4首) |
| 金宗直 | 毛羅歌(外 1題 1首) |
| 金 淨 | 『海島錄』 |
| 洪裕孫 | 旌義縣監厚遇有感(外 4題 4首) |
| 李約束 | 題濟州觀德亭(外 3題 3首) |
| 閔 粹 | 耽羅題詠(外 2題 2首) |
| 林亨秀 | 龍頭巖(外 2題 2首) |
| 林 悌 | 『南冥小乘』 |
| 柳思瑗 | 旌義題詠(外 1題 1首) |
| 金忠烈 | 遮歸鎮次林節制韻 |
| 金應南 | 濟州有吟(外 1題 1首) |
| 崔 溥 | 耽羅詞 |
| 沈 演 | 延曦閣(外 4題 4首) |
| 李民成 | 耽羅(外 9題 9首) |
| 李益泰 | 漢拏山(外 4題 4首) |
| 李明漢 | 航海朝天(外 1題 1首) |
| 鄭 蘊 | 斜陽獨酌(外 279題 298首) |
| 金尙憲 | 『南臺錄』 |
| 李 健 | 耽羅人寄橋(外 80題 80首) |
| 肅 宗 | 毛羅地圖(外 1題 1首) |
| 宋時烈 | 耽羅謫所(外 5題 5首) |
| 金鎭龜 | 『東泉唱酬錄』 |
| 李衡祥 | 『南宦博物』 |
| 金春澤 | 『囚海錄』 |

| | |
|-----|--|
| 鄭斗卿 | 觀濟州貢物三首(外 2題 2首) |
| 姜栢年 | 次李濟州元鎮韻(外 2題 2首) |
| 洪宇遠 | 送舍弟熙叔之任耽羅(外 1題 2首) |
| 俞 槩 | 送濟州李致欽(外 1題 1首) |
| 崔錫鼎 | 謝濟州判官朴學季書惠全鮪水茸(外 2題 2首) |
| 林 泳 | 送濟州牧李君瑞喜龍(外 2題 2首) |
| 蔡彭胤 | 寄濟州牧使(外 2題 2首) |
| 李海朝 | 登漢拏山(外 46題 46首) |
| 尹鳳朝 | 禾北浦(外 30題 30首) |
| 姜再恒 | 耽羅姜二子者坐法謫來禮安姜同姓也耽羅有三本姜一自我國一自大元一自西番未知二子者何本而謂之同姓來訪我遂賦長句一篇贈之(外 8題 8首) |
| 趙觀彬 | 漢拏山(外 133題 133首) |
| 金聲久 | 『南遷錄』 |
| 李元鎮 | 『耽羅誌』 |
| 金 敔 | 月臺七星圖(外 5題 5首) |
| 李慶億 | 尊者庵(外 3題 3首) |
| 蔡濟恭 | 蒙賜濟州貢馬(外 1題 1首) |
| 宋相琦 | 蒙賜柚復用前韻示僚友 |
| 韓鼎運 | 山房窟(外 3題 3首) |
| 李 增 | 『南遷日錄』 |
| 金容植 | 白鷗(外 3題 3首) |
| 南九明 | 迎郎曲(外 8題 8首) |
| 任徵夏 | 『南遷錄』 『柑山錄』 『囹圄錄』 |
| 金成鐸 | 漢拏山歌(外 20題 20首) |
| 金樂行 | 耽羅烏(外 2題 2首) |
| 申光洙 | 『耽羅錄』 |
| 金 綴 | 漢拏山(外 6題 6首) |
| 成大中 | 用放翁韻別伯天(外 1題 1首) |
| 李德懋 | 登瀛州七言排律二十韻(外 1題 1首) |
| 朴齊家 | 送萬德攷濟州詩(外 1題 1首) |
| 李承召 | 耽羅題詠(外 1題 1首) |
| 李源祚 | 『耽羅錄』 |
| 金正喜 | 瀛洲禾北鎮途中(外 50題 80首) |
| 曹南窩 | 『筆寫本』 |
| 任觀周 | 山房山(外 4題 4首) |
| 金樂園 | 己亥春(外 1題 1首) |
| 韓昌裕 | 玉溪逍遙(外 1題 1首) |
| 吳廷賓 | 戀師(外 3題 3首) |

| | |
|-----|-------------------|
| 李鼎相 | 『越中漫錄』 |
| 曹墨窩 | 『墨窩詩集』 |
| 趙貞喆 | 『靜軒瀛海處坎錄』 |
| 崔益鉉 | 有客携酒見訪(外 2題 2首) |
| 崔斗燦 | 江海乘槎錄 |
| 鄭敞選 | 答對馬島留番軍官(外 4題 4首) |
| 康聖翊 | 硯(外 1題 1首) |
| 釋慧日 | 濟州(外 3題 3首) |
| 邊景鵬 | 聽蟬(外 1題 1首) |
| 高鳴鶴 | 題吳義士傳後(外 4題 4首) |
| 慎尙欽 | 三泉書堂(外 1題 1首) |
| 吳泰稷 | 登拏山觀海(外 5題 5首) |
| 李啓徵 | 輓李丈(外 1題 1首) |
| 李漢雨 | 『梅溪集』 |
| 劉 淡 | 白鷺吟(外 5題 5首) |
| 金亮洙 | 勤學(外 8題 8首) |
| 高永昕 | 彈琴(外 5題 5首) |
| 吳眞祚 | 秋日(外 5題 5首) |
| 吳卿魯 | 輓李老人(外 1題 1首) |
| 金 洙 | 屏溪棹歌 10首 |
| 金羲正 | 漢拏山(外 1題 1首) |
| 邵必升 | 輓梅溪先生(外 5題 5首) |
| 高景峻 | 巡杯(外 1題 1首) |
| 吳章獻 | 家家橘柚(外 1題 1首) |
| 慎鴻錫 | 明倫(外 3題 3首) |
| 吳邦烈 | 臘(外 4題 4首) |
| 金源中 | 見訪柳佳亭(外 1題 1首) |
| 高性謙 | 三姓穴(外 1題 1首) |
| 金日海 | 放牛(外 1題 1首) |
| 張昶奎 | 江天暮雪(外 1題 1首) |
| 金允植 | 『續陰晴史』 |
| 安宅承 | 雪裏山(外 10題 10首) |
| 宋斗玉 | 潤經堂設宴老人(外 1題 1首) |
| 金熙敦 | 偶吟(外 2題 2首) |
| 金熙璿 | 木枕(外 1題 1首) |
| 文昌來 | 和金草菴饋酒韻(外 3題 3首) |
| 金熙斗 | 三泉齋山餞春(外 1題 1首) |
| 金宜鍾 | 白鹿潭(外 1題 1首) |
| 金熙殷 | 白鷗詩(外 1題 1首) |
| 高仲顯 | 講論(外 1題 1首) |

| | |
|----------|---------------------------|
| 李燦雨 | 與金丈巨卿姜友世現共吟(外 1題 1首) |
| 金炳弼 | 瀛邱(外 4題 4首) |
| 金滢植 | 早梅(外 7題 7首) |
| 鄭晚錫 | 馬羅島(外 1題 1首) |
| 金鐘炫 | 呈瀛雲先生(外 2題 2首) |
| 梁聖廈 | 踏田歌(外 2題 2首) |
| 吳琪斗 | 奉設老親回婚筵(外 1題 1首) |
| 鄭慶龍 | 烽火(外 1題 1首) |
| 崔元淳 | 題三姓祠崇報堂(外 1題 1首) |
| 高炳五 | 壬申春見倭虜築陣地於本縣憤愧而吟(外 3題 3首) |
| 夫祐承 | 春晴(外 1題 1首) |
| 李膺鎬 | 鄉賢祠吟(外 2題 2首) |
| 夫性準 | 賀金旌義汶株晬辰(外 1題 1首) |
| 金大興 | 題瀛軒(外 3題 3首) |
| 金景鐘 | 西歸鎮老人星(外 2題 2首) |
| 金鎔均 | 榴花(外 3題 3首) |
| 金廷彥 | 小春(外 2題 2首) |
| 李容鎬 | 題營門冊室(外 3題 3首) |
| 金景鍾 | 『白首餘音』 |
| 金錫翼 | 『心齋集』 |
| 金汶株 | 『農隱文集』 |
| 安秉宅 | 『浮海文集』 |
| 姜共七(父子間) | 『梧川集』 |
| 姜共七(父子間) | 『我石集』 |
| 金東式 | 聞列郡同胞水害罹災(外 1題 1首) |
| 梁奉洽 | 丹楓(外 2題 2首) |
| 李辰珩 | 初冬書懷(外 3題 3首) |
| 金永昌 | 驟雨(外 3題 3首) |
| 玄癸平 | 靈室奇巖(外 2題 2首) |
| 申癸生 | 採薇(外 3題 3首) |
| 金孟玉 | 梅雨(外 1題 1首) |
| 金淳生 | 怪石(外 2題 2首) |
| 文璉生 | 春晴(外 1題 2首) |
| 金滢植 | 『革菴散稿』 |
| 吳基權 | 七夕(外 1題 1首) |
| 李載廈 | 秋聲(外 1題 1首) |
| 高景洙 | 雪裡松(外 1題 1首) |
| 金勻培 | 『謹齋北學日記』 |
| 失名氏 | 政房瀑布(外 20題 20首) |
| 其他(230名) | 230題 230首 |

<표 1>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제주를 배경으로 한 한시들은 다양한 작가들에 의해 많은 작품들이 꾸준히 창작되었는데, <표 1>에는 대략 1168題 1318首(연작시와 단행본, 문집에 들어있는 시는 일일이 수를 헤아리지 않음)가 소개되었다.

어느 시대이건 제주로 파견되는 관리들이 존재하고, 특히 제주가 유형지로서 장점이 드러나면서 끊임없이 유배객들이 제주로 유입되었다. 따라서 제주 관련 작품들도 그 폭을 넓힐 수 있었다.

이것을 시기별로 보면 고려전기의 高兆基와 高適을 시작으로 후기의 李奎報 등 다섯 사람을 거치면서 실마리를 찾았고, 조선전기 權近 등 삼십 사명의 문인들에 의해 얼마간 일정한 餞別詩의 경향성을 띠더니,⁶⁾ 후기 들어 다양한 이유와 목적으로 내도한 삼백 여명의 작가들에 의해 더욱 활성화되었고, 그러한 영향은 한말까지 지속되었다. 작가들도 내도 목적을 떠나 많은 수의 문인들이 등장한다. 그 중에 두 수 이상의 작품을 남긴 작가만 해도 백 삼십 여명에 이르면, 전체 작가의 삼분의 일에 해당되는 많은 숫자이다. 이것은 제주의 뛰어난 풍광과 이국적인 풍속 그리고 변방의 열악한 환경들이 제주를 찾은 많은 작가들의 마음을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자생한 작가들도 梅溪 李漢雨를 포함해서 백여 명에 이른다. 이들 역시 고향인 제주를 배경으로 활발한 문학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런데 제주 출신 작가들의 분포를 보면 고려 전후기의 高兆基와 高得宗의 경우처럼 제주 출신으로 중앙에 진출하여 활발히 활동하였던 사람들을 제외하고, 거의 찾을 수 없고, 따라서 작품들도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자료의 품귀 현상은 조선 전중기까지 이어진다. 이것은 아마 문적의 소실이 주된 원인이겠지만, 여러모로 어려운 변방의 상황과 특히 개인 문집 발간을 위한 재정적 어려움이 주된 원인일 것이라 생각된다. 물론 조선조 동안 제주에서 책이 발간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

6) 참고로 아직까지 李奎報와 權近이 제주도를 다녀간 기록은 발견되지 않는다. 여기서서는 다만 둘 다 제주 관련 한시 작품을 남기고 있다는 점에 주안하여 편의 상 논의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다. 오히려 활발히 간행사업을 수행했던 자료들이 최근 들어 서지학자들에 의해 많이 밝혀지고 있는 것을 놓고 볼 때, 제주가 문적 간행의 사각지대는 아니었던 것 같다. 오히려 당당히 조선시대 문적 편찬의 한 장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다만 관에서 주도한 문적 사업에 치중되었다는 것이 오늘날 이러한 편중 현상을 낳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당시의 제주 관련 한시 문학 작품에 관해 알기 위해서는 제주를 다녀간 여러 부류의 문인들에 의해 이루어진 문학적 성과들에 기대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조선 후기 들면서 이러한 편중이 얼마간 해소되었다. 제주를 다녀간 來訪客들이 시대를 이어 활발히 작품 활동을 하였고, 제주 토속 문인들 역시 문집 혹은 필사본 등의 자료를 남김으로써 다소나마 제주 관련 문인들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은 현재까지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얼마간 타당한 이유가 될 것이다. 아무튼 연구자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작가들에 의해 창작된 작품들도 다양한 장르를 섭렵하였다. 예컨대 李漢雨를 필두로 십여 명의 작가들에 의해 <瀛州十景>이 악부체를 통해 노래 말로 만들어졌다. 19세기 제주목사로 제주를 삼년 동안 찾았던 李源祚는 <耽羅十謠>, <瀛洲十景>을 동시에 노래하고 있어 특이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비록 제주에 직접 오지 않았더라도 이십 여명의 작가들이 제주로 떠나는 이에게 전별시를 남겼다. 그리고 金淨의 『海島錄』을 필두로 林悌의 『南冥小乘』, 金尙憲의 『南槎錄』, 李源祚의 『耽羅錄』, 金允植의 『續陰晴史』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도의 경험을 단행본으로 남겼다. 더불어 李增의 『南槎日錄』과 같은 일기류, 李元眞의 『耽羅誌』와 같은 역사서 등 다양한 장르가 시도되었다. 특히 제주를 떠나다가 풍랑을 만나 중국을 표류했던 경험을 『漂海錄』으로 남겨, 이후 일정한 문학적 경향성을 낳았던 崔溥에 의해 장편시 <耽羅詞>가 지어지기도 하였고, 제주를 다녀간 기록을 찾을 수 없는 金宗直이 제주를 배경으로 장편시 <毛羅歌>를 지은 것은 매우 특이한 일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제주의 곳곳은 이방인들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하

었다. 따라서 제주의 명승지에는 많은 곳에 이들이 노닐다가 남겨 놓 <磨崖
詩>가 남아 있다.

2. 重要 作家와 作品

제주와 관련된 문학의 양상을 살피려면 그것들의 담당 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심층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예컨대 제주를 다녀간 赴任官들의 면면에 대한 대략적인 고찰을 통해, 본격적인 赴任官들의 문학에 대한 배경을 밝혔다. 그리고 제주가 절해고도로 유배지로써의 적당한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많은 수의 流配客이 제주로 유입되었다. 따라서 남긴 작품들도 제주를 다녀간 어느 경우보다 많다고 할 수 있다. 대강의 현황을 밝혀 流配客 문학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대략적인 개요를 적시하였다.

여기에 개괄한 자료들을 토대로 제주를 다녀간 赴任官과 流配客 중에 제주 관련 작품을 남긴 작가들을 비중을 따라 선정하여 본격적으로 III장과 IV장에서 그들의 작품세계를 살펴볼 것이다.

1) 赴任官의 文學

조선조에 접어들어 제주를 거쳐 간 목사 절제사 방어사 등 중앙에서 파견된 관료 숫자는 대략 삼백 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는 牧民官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한 관료도 있었으며, 한편 孤島의 독재자 행세를 하며 재임 기간 도민을 착취하고, 개인의 사욕만을 일삼으며, 오로지 전직의 시기만을 기다리며, 민심을 외면한 관료도 있었다. 이들 중 일부는 제주도에서 관료 혹은 문인으로서 자신의 체험을 문학작품으로 형상화하기도 하였다. 그 중 중요한 作家群을 언급하면, 대략 李約東, 宋麟壽, 趙士秀, 林亨秀, 李元鎭, 李衡詳, 南九明, 趙貞喆, 李元祠, 金尙憲, 申光洙 등을 손꼽을 수 있을 것이다.

老村 李約東(1416~1493)은 당대 학자들에게 ‘德行文藝 冠于一世(덕행과 문예가 한 세대에서 으뜸이다)’로 평가될 정도로 문예에 뛰어난 인물이다.

그는 1470년에 제주도에 부임하여 관아 이속들의 부정을 단속하고, 민폐를 근절 공물의 수량을 감하여, 백성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 목민관으로서 임무에 충실하였다. 현재 문집 『老村先生實記』가 전한다. 『老村先生實記』에는 제주의 觀德亭을 소재로 지은 <題濟州觀德亭>, 정의현의 靈泉館을 소재로 지은 <題旌義靈泉館>과 <牧濟州時和諸君子送行韻>, <次宣慰使鄭廣元題弘化閣韻> 등 제주 관련 한시 작품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錦湖 林亨秀(1504-1547)는 1545년 乙巳土禍 때, 제주목사로 임무수행 중 파면되고, 양재역 벽서 사건이 일어나자 小尹 윤원형에게 大尹 윤임의 일파로 몰려 絶島安置된 뒤 사사된 인물이다.⁷⁾

그는 1545년에 부임하였으며, 부임 기간 동안 특히 지방민의 교육에 힘써 月溪精舍 金寧精舍 등을 건립하였다. 현재 문집 『錦湖遺稿』가 전한다. 『錦湖遺稿』에는 제주의 상징적 명승지로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각광 받고 있는 龍頭巖을 소재로 지은 <龍頭巖>, 정의현의 객사인 瀛陽館을 소재로 지은 <瀛陽館>, 遮歸防護所를 소재로 지은 <遮歸防護所> 등이 전한다.

斗巖 金應南(1546-1598)은 1583년 동부승지로서 병조판서 李珣를 논핵한 宋應漑, 許筠 등이 유배당할 때, 그들과 일당이라는 혐의를 받고, 제주목사로 좌천되었으나, 그러한 자신의 처지를 극복하고, 목민관으로 이름을 남긴 인물이다. 그는 재임 기간 중 일상을 소재로 지은 <濟州有吟>, 영안관을 소재로 지은 <瀛安館> 등 다수의 한시 작품을 남기고 있다.

敬亭 李民成(1570~1629)은 1605년 이조정랑에 천거되었으나, 鄭仁弘 일당의 반대로 제주 點馬御史가 되었던 인물이다. 현재 문집 『敬亭集』이 전한다. 『敬亭集』에는 제주도로 들어가는 과정과 객관, 방호소, 제주의 관문인 朝天館에 위치하여, 제주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곳에 올라 심회를 달래던 戀北亭, 末峴, 松嶽山, 蓮花亭 등을 소재로 지은 <浮海耽羅>, <海上>, <耽羅>, <雨餘題旌義館壁>, <題朝天館>, <過末峴>, <戀北亭次金御史叔度韻>, <松嶽山>

7) 참고로 『南溟小乘』에서 임제는 금호가 제주의 풍토를 묘사한 시에 자주 차운하고 있다.

<瀛洲途中>, <過蓮花亭> 등 제주 관련 한시 작품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太湖 李元鎮(1594~?)은 1653년에 제주목사로 와서, 제주도 관계 읍지로는 16세기 이후 嚆矢의 저술인 『耽羅志』를 지은 인물이다.

『耽羅志』는 1653년(효종4)에 제주 석학 高弘進의 교감으로 간행되었다. 그 후 정조 연간의 관찬 『濟州邑誌』, 『濟州大靜旌義邑誌』를 거쳐, 헌종 조 이원조의 『耽羅誌草本』에 이르기까지 제주 연구의 기본자료 역할을 맡고 있다.

『耽羅誌』에 주로 인용된 문헌은 『東國輿地勝覽』, 『冲庵風土錄』, 『地誌』 등이다. 특히 題詠 가운데 崔溥의 <耽羅詞三十五絶>과 金宗直의 <耽羅歌十四首>, 金淨의 <牛島歌>, 金綴의 <遊漢拏山記>를 볼 수 있고, 이 무렵 화란인 하멜 일행이 표류하여 와 그 일행을 서울로 압송한 기록도 실고 있다. 그는 재임기간 중에 각종 관아와 방호소, 명승고적을 소재로 <延曦閣>, <觀德亭>, <望京樓>, <友蓮堂>, <愛梅軒>, <拱辰樓>, <演武亭>, <運籌堂>, <瀛安館>, <朝天>, <別防所>, <首山城>, <遮歸城>, <涯月所>, <明月所>, <閱馬牛羊>, <尊者庵>, <同李繡衣登高>, <方巖>, <山房>, <正方淵>, <天池淵>, <登高>, <瀛洲館> 등 다수의 제주 관련 한시 작품을 남기고 있다.

李增(1628~1686)은 1679년 8월에 제주목사 崔寬이 전 목사 尹昌亨과 정의현감의 비행을 上奏하였다. 이에 조정에서 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병조정랑이었던 그에게 按覈과 巡撫의 임무를 주는 한편, 비변사에서는 따로 13조에 이르는 임무를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그는 같은 해 10월 27일 서울을 떠나, 12월 7일 禾北鎮에 도착 입도하여, 다음 해 4월 4일 제주를 떠난 인물이다.

그는 이 기간 동안의 제주의 체험을 淸陰의 『南槎錄』의 체계를 답습하여, 어사의 직책에 대해서는 물론 제주 삼읍의 지리, 풍속, 공납, 물산, 봉수, 무기 체제, 호구와 인구, 방어 시설과 군역의 수, 한라산, 등산 코스, 육지와 제주의 해상로 등을 상세히 기록한 『南槎日錄』을 남겼다. 그 안에는 正方瀑布를 소재로 지은 <正方淵口占>, 白湖의 <迎送郎曲>을 본받아 지었다는 <效林白湖迎送郎曲>, 明倫堂 벽에 걸린 시에 차운한 <次明倫堂壁上韻>, <祭罷登絶頂次

金令丈韻> 등 다양한 제주 관련 한시 작품들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圭峰 沈演(1587~1646)은 병자호란 때 雙嶺 전투에 패한 책임을 지고, 강화가 성립된 이후 임피(지금의 군산)로 유배되었다가, 1638년 재 등용되어, 제주목사로 부임하여, 역대 제주를 다녀간 그 어느 관료보다도 본분에 충실한 목민관으로서 이름을 새긴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재임기간 동안 延曦閣을 소재로 지은 <延曦閣>, 觀德亭을 소재로 지은 <觀德亭>, 防護所인 別防所를 소재로 지은 <別防所> 등 제주 관련 다수의 한시 작품을 남기고 있다.

八吾軒 金聲久(1647~1707)는 1679년에 정의현감으로 부임하였는데, 당시의 체험을 『南遷錄』에 형상화하였다.

『南遷錄』에는 觀德亭을 포함한 각종 官衙들과 防護所, 歲貢馬, 漢拏山을 소재로 지은 <次濟州觀德亭韻>, <西歸所次壁上韻>, <送歲貢馬有感>, <毛興穴次金清陰韻>, <登漢拏山絕頂>, <白鹿潭> 등이 있다. 또한 赴任官으로 재직하면서 느꼈던 심정을 술회한 <新月>, <玩月>, <卽事有感>, <送濟州判官姜聖佐入拜訓練院正>, <戲題>, <遣興>, <詠懷呈李御史> 등과 같이 제주에서의 특별한 체험을 정회로 표출한 제주 관련 한시 작품도 다수 있다.

蘆峯 金政(1670~1737)은 1735년에 제주목사 겸 호남방어사로 부임하여, 2년 6개월의 관직생활을 한 바 있다. 그는 임기를 마칠 때까지 교육문화 시책에 역점을 두어 서당을 건립하고, 延教亭을 세워 많은 인재를 육성하여 제주의 문교를 진흥시킨 바 있다. 뿐만 아니라, 自備穀 수천 석을 요청하여 饑民을 구호하고, 장정들에게 大同米를 면제해 주고, 歲貢을 감면하였으며, 三邑과 九鎭(9곳의 防護所를 말한다.)의 성곽을 구축하는 등 목민관으로서 남다른 자세를 드러낸 바 있다. 그 중에 빼 놓을 수 없는 업적은 三泉書堂 건립과 禾北港의 개설이다. 三泉書堂은 張漢喆, 吳靄, 愼尙欽, 吳泰稷, 安永綬, 金亮洙 등 후세 학자들의 학문적 성취를 이루는 장소가 되었다.⁸⁾

8) 참고로 여기에 소개된 金亮洙는 <勤學>, <樵夫>, <漁舟>, <販魚>, <湖上三月奉別參判崔公贊謙>, <茶煮>, <三月見水仙花>, <戊寅春於大靜加波島冲英艦來侵時贈柳命祿>, <金謫士及兵禮兩裨會飲運籌堂>, 愼尙欽은 <三泉書堂>, <題戀北亭>, 吳泰稷은 <登拏山觀海>, <龍淵夜泛>, <水仙花>, <雪夜>, <蘆花八首(選一)>, <秋興三首> 등 제주 관련 한시 작품을 남기고 있어 이들의 학문적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제주도에 들어올 때, 배를 안전하게 정박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이었다. 지금처럼 문명이 발달하여 동력선으로 내왕하는 것과는 달리 당시는 바람의 방향과 조타수의 경험만을 의지하여, 제주도 연안의 많은 암초들을 피해 정박해야 한다. 따라서 자칫 바람의 방향을 잘못 잡으면 곧바로 표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禾北港의 개설은 당시 유일한 교통 항이던 朝天浦에 대한 부담을 줄이게 되었다. 그가 禾北港을 개설할 때, ‘목사가 돌짐을 져 날랐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헌신하였는데, 결국 현장에서 쓰러져 생을 마감한 인물이다.

현재 문집 『蘆峯集』이 전한다. 『蘆峯集』에는 제주의 官衙와 防護所, 漢拏山, 瀑布 등을 소재로 지은 <延教亭>, <禾北鎮>, <別防鎮>, <月臺七星圖>, <漢拏山>, <正房瀑>, <天池淵> 등 제주 관련 한시 작품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南峰 金緞(1577~1625)는 여러 관직을 두루 거치면서 파면되기도 하였고, 인조반정 후에는 대북으로 몰려 유배를 경험하기도 한 인물이다.

그는 1625년에 제주도에 부임하여 재임 기간 중의 여러 체험을 시로 형상화하였는데, 漢拏山과 白鹿潭, 官衙를 소재로 지은 <靈室>, <白鹿潭>, <登瀛邱>, <觀德亭>, <己酉>, <漢拏山>, <登絶頂> 등 제주 관련 한시 작품이 다수 남아 있다.

鳴巖 李海朝(1660~1711)는 1706년에 순무어사로 제주에 부임하였다. 현재 문집 『鳴巖集』이 전한다.

『鳴巖集』에는 제주의 官衙와 防護所, 瀑布, 임무수행 중 심회, 풍속, 자연적 환경 등을 소재로 지은 <丙戌九月以耽羅試才兼巡撫御史辭朝行至完山主守呂師仲龍潭守伯溫已來待飛飛亭相與劇飲臨分口占>, <泛海>, <朝天館>, <瀛洲客館>, <漢拏祭壇>, <登漢拏山>, <橋林堂>, <客館偶吟>, <山屯牧場點馬留宿村舍>, <驅馬篇>, <觀獵>, <牛島>, <別方鎮樓夜坐>, <城山>, <旌義客舍偶題>, <正方淵>, <天池淵>, <羔屯果園>, <天帝潭>, <摹瑟浦鎮樓望日入>, <旌義客舍遇雪>, <濟州客舍寫懷>, <明月鎮樓夜坐偶題>, <大風>, <朝天館暮坐>,

<冲庵書院>, <望京樓與主牧設小酌>, <喚風亭待風>, <立春日感懷>, <賦六十韻記島中山川風俗> 등 제주 관련 한시 작품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李益泰(1633~?)는 1694년 7월 李基夏의 후임으로 부임하여, 演武亭, 運籌堂을 중수하고, 宣祖의 어필을 모사하게 하여 모든 관문의 액자로 만들어 게시하게 하였고, 文正公 宋時烈을 橘林書院에 배향시킨 인물이다.

그는 재임기간 동안 遮歸鎮, 漢拏山, 天池淵을 소재로 지은 <次板上韻(遮歸鎮)>, <漢拏山>, <登瀛邱>, <次李繡衣天池淵韻>, <次板上韻> 등 많은 제주 관련 한시 작품을 남기고 있다.

寓庵 南九明(1661~1719)은 1711년에 제주 관관으로 제주에 부임하여, 목민관으로 충실하게 도민들을 구호한 인물인데 그의 청렴함은 현재까지도 회자되고 있다.⁹⁾

그는 재임 기간 동안의 행적을 일기체 형식을 빌려 『南征日記』라는 별도의 기록을 남겼는데, 스스로 『南槎錄』에 수록된 시에 차운하면서 淸陰의 영향을 자인하였다. 제주를 묘사한 일기체 작품들의 계승선상에서 중요한 작품으로 생각되고, 기존의 이러한 일기 유들이 필사본으로 남아 있는 반면, 목판본으로 간행되어, 그의 문집 내에 직접 수록된 점과 그가 경주 출신으로 祖子孫 삼대에 걸쳐 대과에 급제하여, 인근 지역에서 문명을 떨쳤던 것도 주목된다. 현재 문집 『寓庵集』이 전한다. 『寓庵集』에는 <毛羅歌>를 반복해서 소재로 활용하여 지은 <補毛羅歌 并序>, <重補毛羅歌>, <又補毛羅歌>등이 있다. 이외에도 제주 여인들의 풍속을 소재로 지은 <迎郎曲>, <送郎曲>와 제주의 특산품인 橘과 防護所, 漢拏山, 주변 풍경을 소재로 지은 <毛興穴古事>, <次南槎錄果園韻>, <曉聞柑橘 進上止次樊川十一韻>, <娼樓曲>, <命祭漢拏山>, <送濟州人歸本島并序>, <送奴北歸待風別刀浦>, <朝天館送小妓>,

9) 참고로 제주목사 정의 대정현감의 직을 마치고 나면 제주 민들이 赴任官을 위해 좋은 말 두 필을 바치는 것이 관례처럼 행해졌는데 寓庵은 극구 사양하였다. 그러다가 마지못해 긴장한 말 대신 노쇠한 말을 받아 타고 오다가 그것마저도 순천에 당도하여 그곳의 사람들에게 주어버렸다. 이러한 그의 청렴성을 기려 당시 주민들이 八馬碑를 수립하였는데 현재까지 남아있다.

<卽事>, <冬栢雪中半開>, 그가 바다를 건너 제주에 부임하는 과정을 소재로 지은 <渡海> 등 제주 관련 한시 작품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韓鼎運(1741~?)은 1807년 3월에 朴宗柱의 후임으로 부임하였는데, 拱辰亭을 중건하고, 東城門에 있는 延祥樓를 중수한 인물이다.

그는 재임 기간 중 山房山을 소재로 지은 <山房窟>, <次壁上韻> 등 제주 관련 한시 작품을 다수 남기고 있다.

凝窩 李源祚(1792~1871)는 1841년에 제주 목사로 부임하여, 삼년간의 임기를 채우고 돌아간 몇 안 되는 인물이다.

1840년 12월에 영국 배 2척이 제주도의 남단 가파도에 침입하여 소를 약탈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조정에서는 강릉부사로 있던 凝窩 李源祚(1792~1871)를 제주목사로 임명하여 민심을 수습하게 하였다. 이에 凝窩 이원조는 1841년 3월 29일 영암에서 발선하여, 윤3월 초하루에 제주의 禾北鎭 포구에 도착한다. 이로부터 약 29개월가량 제주도에 체류하면서 공무를 수행하였는데, 그가 병을 이유로 사직하고 체임되어 떠난 때는 1843년 7월 11일이다. 그는 이 과정의 체험을 그의 문집 『凝窩集』에 남겨 놓았다. 예컨대 그의 문집에는 <僞古文十六言辨>이라는 작품이 들어있는데, 그는 이 글을 짓게 된 동기를 짧게 밝히고 있다.

추사 김정희가 대정에 적거하면서 <僞古文十六言說>을 지어서 보내왔으므로 이 변론을 짓는다.¹⁰⁾

이상의 내용으로 보아 그가 제주 목사로 체임시절 대정에 귀양 와 있던 秋史 金正喜가 古文의 眞僞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여 보내온 것에 답장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상고해봐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그는 이 기간 동안 체험한 것들을 별도의 기록으로 남기고 『耽羅

10) 이원조, 『凝窩集』, 16권, 秋史金正喜, 謫大靜, 著僞古文十六言說, 送示故作此辨.

錄』이라 명명하였다. 『耽羅錄』의 성격에 대해서는 작자의 서문을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는 본서가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해 道路, 家屋, 山川, 民俗, 樓觀, 風土 뿐만 아니라 크게는 錢穀, 甲兵, 작게는 魚果, 畜牧을 다루고 있다고 하였고, 공적으로는 致令, 教條, 사적으로는 問訊, 迎送을 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집필 태도에 대해, 날마다의 사건이나 사안을 중심으로 수시로 기록했다고 쓰고 있다.¹¹⁾

『耽羅錄』은 上, 中, 下로 나뉘어져 있다. 上은 1840년 10월까지의 기록이며, 中은 이듬해인 1842년 11월까지의 기록이며, 下는 1843년 7월까지의 기록으로 되어 있다. 『耽羅錄』에는 詩가 상당량 수록되어 있다. 그 중에는 오언 율시로 된 <耽羅十謠>처럼 제주도의 풍물을 담은 紀俗的인 작품들도 있다.¹²⁾ 그러나 그보다 한층 독자의 관심을 끄는 것은 그의 散文으로, 여기서는 대표적인 두 작품만을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1979字의 짧지 않은 분량으로 이루어진 한편의 <遊漢拏山記>¹³⁾를 들 수 있는데, 이는 독립된 遊記로 볼 수 있다. 등산과 하산의 노정에서 견문한 바의 묘사도 뛰어나지만, 登山이라는 실제적 행위를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學道’로 연결시켜 설명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¹⁴⁾

11) 李源祚, 『耽羅錄序』. 其問道途險夷, 家屋離合, 山川謠俗之異, 樓觀燕遊之勝, 風土寒煖之殊, 大而錢谷甲兵, 小而魚果畜牧, 公而致令教條, 私而問訊迎送, 課日有記, 隨事輒錄.

12) 李源祚, 『耽羅錄』下.

13) 李源祚, 『耽羅錄』上.

14) 작자가 한라산에 등반한 것은 1841년 7월 10일의 일로써 記의 서두는 다분히 신비로움을 띤 한라산에 대한 전례적인 인식을 부정하면서 시작하고 있다. 즉 神仙家들이 한라산을 靈窟이라 여기고 또 好奇者들이 이를 믿어왔으나 보지 못한 진시황이나 한 무제는 속일 수 있어도 산 아래 사는 나무꾼이나 사냥꾼을 속일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사물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위해서는 실제적인 관찰이 요구됨을 지적한 연표인 것이다. 그런 입장에서 작자는 산에 오르는 것을 ‘學道’에 비유하고 있는데 공자 쫓겨야 산에 오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실령 오를 수는 있을지라도 각자의 역량에 따라 얻는 바는 제한된다고 했다. 그 다음은 본격적인 산행의 서술 부분으로 이른 새벽에 출발하여 중산에서 쉬며 일출을 보고 다시 길을 재촉해 초목들이 무성한 산속을 수십 여리 쫓 지나서는 길이 험하여 수레에서 내려 도보로 길을 갔다. 그러다 정상에 조금 못미처 멀리 섬들이 벌려 선 광경을 보고 또 가까이 산들이 중첩된 것을 조망하며 “大道의 門에서 노닐고 성인의 담을 엿보는 것이야말로 진실로 입지가 확실하고 용력이 부지런하지 않다면 어찌 백관의 부유함과 宗廟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겠는가.”라 말하였다. 말하자면 높이 올라야 원대한 안목을 지닐 수 있음을 표현한 것으로 역시 ‘學道’의 견지에서 생각을 피력한 것이다. 이윽고 정상에 올라서는 백록담의 형상과 백록에 얽힌 설화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정상에 물이 있는 것은 그 性은 아니지만 오목(凹)하기 때문에 ‘陰陽相根之

두 번째로 <朴孝子傳>을 들 수 있다. 그는 제주도의 보잘 것 없는 백성인 朴繼崑과 그 자손들의 지극한 효와 충성을 소재로 입전하였다. 이 이야기는 白湖 林悌가 천민인 千德의 남편을 향한 절개를 소재로 활용하여 입전한 <千德傳>의 영향을 받았으리라 짐작된다.

『耽羅錄』의 서술 상의 특징을 보면, 먼저 그날의 일기가 간략히 서술되고, 그 외에 그날 지은 詩 혹은 散文이 첨부되어 있다. 그러나 글의 구성도 면에서는 다소 산만한 편이어서 나열에 그친 감이 있다. 그리고 『耽羅錄』 전체의 성격 역시 서문에서 밝힌 것처럼 종합적이어서, 문예문에 해당하는 詩文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령 같은 공무와 관련된 실용적인 글까지도 방대하게 망라되어 있다. 예를 들어 실용적인 산문으로는 유시문인 <諭三邑大小民人>, 오늘날의 감시 보고서 같은 기록인 <旌義西歸里致死人高順哲覆檢題辭>, 여러 종류의 제문인 <祭海神文>, <祭土神文>, <社稷壇祈雨祭文>, 각종 기문인 <望京樓記>, <橋林堂重修記>, 說類인 <海說>, <山田多澤說>, <屯牛說>, <南極說>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외에도 碑文, 銘文, 序文, 啓文 등 다양각색의 산문이 모두 실려 있다. 최근 들어 이러한 작품들이 그의 삶과 학문에 대한 조명과 함께 얼마간 번역 출간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¹⁵⁾

제주도에 관한 다른 기록과 비교해 볼 때, 『耽羅錄』은 장기간에 걸쳐 쓰여졌기 때문에 분량도 많은 편이고, 체제도 간단치 않다. 따라서 『耽羅錄』은 단순한 기행문이 아닌 하나의 독립된 詩文集類로 파악해도 될 것 같다.

현재 문집 『凝窩集』이 전한다. 『凝窩集』에는 ‘瀛洲十景’을 소재로 지은 <瀛洲十景題畫屏>, 제주의 名勝古蹟, 漢拏山과 그 주변, 防護所, 瀑布, 果園을

妙(음과 양이 서로 뿌리내리는 신묘함)가 있어 그렇다고 설명하고 있다. 『耽羅錄』에 소개된 여러 설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자연 현상에 대한 물리적 이해를 추구하는 작자의 학구적인 태도를 짐작할 수 있다. 다음 하산 길에서는 靈室의 石羅漢을 구경하고 大靜쪽으로 내려와 서남쪽으로 가파 송악마라 지귀도 등을 바라보고 다시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 노숙하게 되었는데 홀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제의 산행을 회상하며 생각에 잠긴 바를 기록하였다. 즉 세상 사람들이 吾道를 고원하여 企圖할 수 없다고 여겨 힘쓰지 않는 것은 마치 어제 중간에서 길을 머뭇거린 것과 같으며 大禮나 奇稗를 보는 것은 오늘 靈室에서 기이함을 찾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15) 퇴계연구소, 『응와 이원조의 삶과 학문』, 역락출판사, 1999.

소재로 지은 <擬見老人星雲暗不果>, <宿西歸鎮曉見老人星>, <詠橘四絕>, <三姓穴>, <重力日見擎頂白雪>, <白鹿潭>, <靈室石>, <都近川獵魚>, <正房淵>, <橋來路中>, <果園冬栢花爛開綠葉紅萼無異陽春極爲奇絕>, <滯宿水望村>, <瓷瓶貯水插兩芙蓉>, <次吳生泰稷水仙花十絕>, <倚斗亭> 등 제주 관련 한시 작품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그 밖에 금석문에 남아 전하는 관인들의 작품들도 중요한 연구의 대상이 된다고 하겠다. 예컨대 한내의 訪仙門만 하더라도 洪重徵의 <登瀛丘>, 金永綏의 <喚仙臺>, 漢鼎運 <次壁上韻>과 李義謙, 漢昌裕, 金綴 등 십여 명의 磨崖石刻詩들이 남아 있어, 그들의 문학을 짐작케 하고 있다.

2) 流配客의 文學

조선조의 제주 유배는 현실적으로 무거운 죄인의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사화나 당쟁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기회가 오면 사태가 반전되어 재 등용될 수도 있다는 의식이 작용하여, 본인이나 수용자인 도민의 입장에서조차 결코 절망하거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무게가 얹힌 과객으로서 대우하였음을 알 수 있다.

冲庵 金淨(1486~1521)은 1519년 己卯土禍의 여파로 제주도에 유배된 뒤 비록 두 해를 합쳐 10개월여의 유배 생활 끝에 사사되었지만, 제주도에 미친 그의 학문적 영향은 지대하였다.

그의 유배 체험기인 『濟州風土錄』은 기본적으로는 地理誌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유배객인 金淨의 자화상도 은연중에 그려져 있어서 기골한 운명을 살았던 작가의 내면세계도 살펴볼 수 있는 작품이다.

그는 옛 제주 성 동문 밖 금강사 옛터에서 고독한 유배 생활을 하였다. 그의 사후 백여 년이 지난 1578년 判書井 우물가에 冲庵廟가 세워지고, 이것이

橘林書院이 되어, 그 후 圭庵 宋麟壽, 淸陰 金尙憲, 桐溪 鄭蘊, 尤庵 宋時烈을 함께 모시는 五賢祠로 이어져, 제주도민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기에 이른다. 특히 그는 제주의 특산물 중에서 꿀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였다. 꿀에 대해서는 9종의 품종이 있다고 하고, 그 특징과 각 품종의 등급까지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꿀은 육지에서 나지 않고 오로지 제주에서만 생산되는 것으로 성균관에서 이를 놓고 과거까지 치렀던 물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冲庵은 꿀에 특히 주목했던 것으로 보인다.¹⁶⁾

현재 문집 『冲庵先生集』이 전한다. 『冲庵先生集』에는 그의 유배 생활을 읊은 『海島錄』이 남아 있다. 그 안에는 37제 44수의 시가 들어 있어, 그가 유배 기간 내에 담담하고 약간은 달관된 것 같은 심정을 엿 볼 수 있다. 예컨대 “남자가 세상에 태어나 큰 바다를 건너 이 기이한 지역을 밟고, 기이한 풍속을 보는 것도 세간의 기이하고 장한 일이다. 오고 싶다고 해도 올 수 없고, 그 만두고자 해도 면할 수 없는 것은 명운에 정해진 것 같으니 무슨 말을 하겠는가”¹⁷⁾라며 유배 초기 이상을 실현해 보겠다는 꿈이 좌절된 마당에 더 이상의 삶은 별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절망감에서 벗어나 절해고도 제주 유배를 세간의 기이하고 장한 일이라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극복해 가는 과정을 자세히 드러내었다.¹⁸⁾ 어머니를 두고 가는 죄스러움과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절을 소재로 지은 <臨絶辭>, 우도의 달밤을 소재로 지어 『稗官雜記』나 『惺叟詩話』에서 우도 달밤의 절경을 꿈속인 양 묘사하고 있다는 극찬을 받은 <聞方生淡牛島歌>, 유배 생활의 고독을 소재로 지은 <晚望>, <去國>, 유배지에서의 자신의 담담한 심정을 소재로 지은 <寄山池>, <寓興>, 그의 제주 유배 시절 제자 가운데는 제주 교수 金良弼과 文世傑이 빼어났는데 文世傑의 요절을 소재로 지은 <悼文士豪>등 제주 관련 한시 작품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16) 김상조, <충암 김정 의 「제주풍토록」과 규창 이건의 「제주풍토기」 비교 연구>, 대동한문학 13집, 2000.

17) 김정, 『濟州風土錄』. “男兒落地, 橫截巨溟, 足踏此異區, 見此異俗, 亦世間奇壯事. 盖有欲來不得, 欲止不免者. 似亦命數前定, 何足與言”

18) 김상조, <충암 김정 의 「해도록」 연구>, 『탐라문화』 제 17호,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997.

篠叢 洪裕孫(1431~1529)은 1498년 戊午土禍 때 잡혀 국문을 당하고, 제주에 유배되어 관노가 되었다가, 1506년 中宗反正으로 풀려난 인물이다. 현재 문집 『篠叢遺稿』가 전한다.

『篠叢遺稿』에는 정의 현감의 넉넉한 대우를 소재로 지은 <旌義縣監厚遇有感>, 유배지에서의 심회, 주변을 소재로 지은 <茅亭謁>, <海島述懷>, <居海錯漢之廬>, <泛海> 등 제주 관련 한시 작품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葵窓 李健(1614~1662)은 선조의 일곱 번째 아들인 인성군의 아들로 아버지 인성군이 1628년 柳孝立이 大北의 잔당을 규합하여 모반을 꾀한 것이 발각되고, 그가 왕으로 추대된 사실이 발각되어, 난이 진압된 후 죽었다. 그는 이 일에 연좌되어, 제주도로 15세에 귀양 와서, 8년 동안의 유배를 거친 인물이다.

그는 유배 과정에서 보고 느낀 것, 전해지는 이야기, 토속, 물산 등에 대하여 상세히 기록한 『濟州風土記』를 남겼다.

현재 문집 『葵窓集』이 전한다. 『葵窓集』에는 제주의 물산과 명승고적, 유배객의 심정 등을 소재로 지은 <耽羅人寄橋>, <聞大靜官舡致敗>, <上戀北亭>, <上朝天館>, <上望京樓>, <上漢孛山>, <月夜登戀北亭次板上韻>, <別刀浦待風遣憫>, <放舡至中洋遇送風還碇于別刀浦>, <泛海水疾之苦>, <詠隻鷗>, <七夕>, <次人韻>, <秋思>, <八月十五夜>, <九日>, <除夕>, <乞管城子>, <有感呈舍兄>, <清明>, <送奴還京>, <自遣>, <感春>, <八日>, <望隣家鞦韆>, <望鄉>, <呈舍兄病中>, <寓意>, <次同病韻>, <秋日雜詠>, <中秋既望酒醒卽吟>, <寄舍弟病中>, <歸夢>, <秋怨>, <九日>, <述懷贈弟>, <遣憫>, <謝兄贈詩>, <贈盲人>, <次人韻>, <次舍兄病中遣寄韻>, <附元韻>, <閑居>, <次人歸夢韻>, <山中>, <次舍兄韻>, <有感>, <聞改定配于襄陽感而作之>, <祖席贈歌妓>, <寓懷>, <霽後>, <述懷>, <海望>, <放舡至洋中又值飄風而還> 등 제주 관련 한시 작품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尤庵 宋時烈(1607~1689)은 주지하듯이 1689년 왕세자가 책봉되자, 이를 시 기상조라 하여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제주에 안치되고, 몇 달 후 국문을

받기 위해 상경 도중 남인의 책동으로 정읍에서 사사된 인물이다. 현재 『宋子大全』이 전한다.

『宋子大全』에는 유배과정과 심회를 소재로 지은 <耽羅舟中>, <耽羅謫所>, <耽羅道中寄示畏齋玄石>, 萬德寺를 소재로 지은 <萬德寺次朴生韻>, <萬德寺次安生韻>, <李濟州挽> 등 제주 관련 한시 작품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默齋 申命圭(1618~1688)와 寒竹堂 申銍(1642~1725)은 양 대에 걸친 부자 적격으로 제주와 인연을 맺게 된다. 申命圭는 1662년에 禾北港으로 입도하여, 대정현 延來村(서귀포시 예래동) 李愛吉의 집에 머문 동안의 제주 체험을 『默齋記聞錄』으로 남겼다.

『默齋記聞錄』에는 한시 작품은 수록되어 있지 않고, 목장에 관한 기록이 주를 이룬다. 그리고 유배 생활의 모습과 제주의 인정, 풍습, 견문 등이 담담하게 기술되어 있다. 경신환국으로 그는 진도의 곽이재의 집으로 이배되었다. 그의 정치적 복권은 아들 申銍의 끈질긴 부친 구출 작전의 결과로 알려져 있다. 申命圭가 기른 대표적 제자로는 나중 문과에 급제한 정의 사람 吳廷賓을 들 수 있다.

申銍의 체류 기간은 부친이 6년여의 유배 생활을 한 데 비하면 불과 2년의 짧은 기간이었다. 그는 부친 유배 시에 한번 찾아왔던 이곳을 이번에는 1722년에 임인무옥에 반기를 들었다가, 84세 고령으로 유형수가 되어, 안덕면 감산리에 적거된 것이다. 그는 ‘樂而忘憂 怡然自得(도를 얻는 즐거움으로 세상에 대한 근심을 잊고 음양의 조화 속에 저절로 얻는다)’의 시구를 써 붙이고, 세사에 초연하며, 이곳의 빼어난 풍광을 벗 삼아, 제자들을 가르치기에 몰두하였다. 이 사실은 趙觀彬의 『悔軒集』 가운데도 확인된다. 이 지역에서 뒷날 학자들이 많이 배출된 것도 이들 부자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현재 『寒竹堂集』이 전한다.¹⁹⁾

19) 필자는 『寒竹堂集』의 실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다만 제주에 통제사로 왔던 이수민에 대한 만사인 <李統制挽詞>가 남아 있다.

霧山 金成鐸(1684~1747)은 1737년 스승인 李玄逸을 신원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정의현에 유배된 뒤, 광양에 이배되어 배소에서 죽었다. 그의 아들 九思堂 金樂行이 제주에서부터 모시다가 시신을 수습하여 고향으로 돌아갔다. 현재 문집 『霧山集』이 전한다.

『霧山集』에는 아들의 시에 화답한 <和晉兒玉溝歌>, <和晉兒南海歌>, <和晉兒述懷詩>, <和晉兒耽羅烏歌>, 유배지 주변과 漢拏山, 喚風亭, 심회, 학자적 소신을 소재로 지은 <謫中述懷>, <漢拏山歌>, <自旌義到濟州>, <次故瀛州伯金公三泉書堂韻>, <寄堂中儒生>, <次濟州喚風亭板上韻>, <初度日>, <感吟>, <謫露紀行二首>, <渡海念卯君及濟兒歸事有吟>, <夢還家鄉>, <二十七日夜夢登經筵密邇天顏感而賦之>, <二十七日夜夢拜戀氏有不安節覺後不勝憂思吟成一絕>, <冬至日次康節詩>, <讀心經附註有感二絕>, <我有家七章>, <作鄉書將付濟州便吟成二絕> 등 제주 관련 한시 작품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圃巖 尹鳳朝(1680~1761)는 1727년 丁未換局으로 老論이 숙청당할 때, 앞서 1725년 方萬規가 탕평을 배척하는 상소문을 올린 일에 관련하여 과직당하고, 삭주에 유배, 이어 정의현에 안치되었다. 현재 문집 『圃巖集』이 전한다.

『圃巖集』에는 제주도로 유배되는 과정과 毛興穴, 橋林書院, 禾北浦, 望洋亭, 유배 시절 심회를 소재로 지은 <浦口乘船>, <自寶吉島發船向耽羅>, <舟行一晝夜曉泊瀛島>, <宿濟州城中夢拜尤庵先生先生己巳會配是島豈或有相感者否>, <毛興穴次清陰先生韻>, <謁橋林書院感五先生舊事五首>, <又賦>, <夜酌>, <除夕次朔州除夜韻>, <守歲無寐又志感八首>, <正月十二夜舟人執風生移行李出禾北浦>, <禾北浦>, <少病後獨坐>, <望洋亭觀海四首>, <上元夜出城樓> 등 제주 관련 한시 작품들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西齋 任徵夏(1687~1730)는 제주와 인연이 많았다. 1680년 제주목사로 왔던 任弘望은 그의 조부이고, 1689년 己巳土禍로 유배 왔던 金鎭龜는 장인이며, 따라서 1706년 유배 왔던 金春澤은 매부가 된다.

그는 1725년 사헌부 장령으로 기용되었을 때, 시무 6조의 소를 올려 탕평책

을 반대하면서 소론을 배척하다가, 順安으로 유배되었고, 1727년 소론이 집권하면서, 대정현 柑山村으로 위리안치 되었다.

현재 문집 『西齋集』이 전한다. 『西齋集』에는 『南遷錄』과 『柑山錄』, 『囹圄錄』으로 구분하여, 각각 25, 20, 19수의 작품이 들어있다. 말과 대정 길목을 소재로 지은 <屯馬>, <大靜道中>, 자신의 謫居地였던 감산리를 소재로 노래한 <柑山七歌>, 제주의 뛰어난 풍광을 소재로 지은 <濟州雜詩20首>, 瀛州館과 別島, 楚山館을 소재로 지은 <題瀛州館壁上>, <別島題壁>, <楚山館題壁>, 자신의 심회를 소재로 지은 <漫吟>, <對境>, 가까이 있는 다른 유배객과 주고받은 <答隣囚> 등 제주 관련 한시 작품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梅軒 趙觀彬(1691~1757)은 1731년 대사헌에 재직 중 신임사화의 전말을 상소하여 소론의 영수 李光佐를 탄핵했다가, 당파심에 의한 사감으로 대신을 논척했다는 죄로, 대정현에 유배되었던 인물이다. 현재 문집 『梅軒集』이 전한다.

『梅軒集』에는 유형지의 사회, 풍물, 인정 등을 읊은 竹枝詞類의 특이한 작품으로 시상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耽羅雜詠22首>, 제주의 산물과 풍속, 유배객의 심회, 漢拏山, 유배지 주변을 소재로 지은 <濟州牧>, <馬屯>, <到配大靜邑底次秦州詩韻>, <拈韻書卽事>, <卽事>, <迎春>, <效古歌述懷>, <島中有思美獄感恩川書此寓戀闕之忱>, <夜坐次他集韻>, <雜詠>, <次他集韻書卽事>, <遣懷>, <入島後風色甚惡無往來船尙未傳越海消息家人之憂鬱可知也書此寓歎>, <書懷>, <次他集韻書卽事>, <雜詠>, <夕後散步口號>, <睡後次農巖集韻>, <土俗>, <登屋後小坡夕眺>, <觀圍墓>, <書卽事>, <拈韻口占>, <二月初二日亡室再忌也書此寓悼亡之懷>, <書懷>, <睡後書六言>, <客懷>, <述懷又用前韻>, <夜坐以唐詩遠客坐長夜爲韻>, <春早>, <夜坐>, <渡海後尙無鄉信頗覺紆鬱以韋蘇州詩風波朝夕遠音信往來遲爲韻>, <次秦州詩韻書卽事>, <漫書>, <次他集韻書卽事>, <閒興>, <次他集韻書懷>, <拈韻口號>, <二月十七日亡弟再忌也書此志哀>, <入島後欲卽上漢拏絕頂居人云山上甚寒非夏日不可登宜少遲也余故中止而山在眼中殊覺神往口號古體詩十六韻>, <得鄉書>, <漫興次他集韻>.

<夕後散步次他集韻口號>, <夜坐>, <老人星歌>, <睡後>, <拈韻遣懷>, <自慰>, <枕上聽雨>, <閒興>, <歸意>, <拈韻書卽事>, <次他集韻書卽事>, <漢拏山>, <登漢拏絕頂口號>, <遣悶>, <新寓卽事>, <效栗谷集感君恩體書首尾吟>, <偶書遣懷>, <苦蠅>, <追次伯氏寄海中韻>, <次金掌令士寬寄示韻>, <古劍歌>, <遣懷>, <次他集韻書卽事> 등 제주 관련 한시 작품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靜軒 趙貞喆(1751~1831)은 1777년 姜龍輝 등이 정조를 시해하려고 한 사건에 연루되어, 28년(제주 유배 12년) 간의 지루한 세월을 견뎌내고, 해배되어 복권되자마자, 제주목사가 되어, 고향처럼 제주를 다시 찾았던 인물이다.

그는 유배시절 오랜 귀양살이의 괴로움을 달래기 위해, 한 향리의 딸인 洪娘과 사랑에 빠진다. 이를 눈치 챈 정적인 남인계 목사 金禧耆(1724-1795)는 洪랑을 불러 가혹한 형벌을 가하였으나, 그녀는 끝내 정헌과의 관계를 자백하지 않고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한다. 일설에는 ‘趙貞喆이 고문당하여 초죽음이 되자 洪랑이 그를 자신의 집에 데려가 오줌을 받아 먹여 살려내고, 그녀는 죄인을 구한 죄목으로 잡혀 처형되었다’고도 한다. 靜軒은 자신을 구해준 洪랑의 죽음을 못 잊어 해배 후, 제주목사를 자원하여 찾아와, 洪랑의 무덤 앞에 통한의 비를 세우고 명복을 빌었다. 그녀의 무덤은 지금 금덕리 木啄旨에 洪義娘之墓로 보존되고 있다. 洪娘과 靜軒 사이에는 딸이 하나 있어, 그녀가 밀양박씨와 결혼하여, 그 후손에 의해 무덤이 돌보아지고 있다.

현재 문집 『靜軒瀛海處坎錄』이 전한다. 『靜軒瀛海處坎錄』에는 洪랑과의 소재로 지은 <題洪娘墓>, <獄中悲恨>, <洪娘發靱絕>, 유배기간 동안의 체험을 소재로 지은 삼백여수의 제주 관련 한시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勉庵 崔益鉉(1833~1906)은 주지하다시피 大院君을 하야시키고, 고종이 친정하는데 일조를 했지만, 부자의 사이를 이간했다는 규탄을 받던 중에, 상소문의 내용이 과격 방자하다는 이유로 1873년 제주도에 유배되었다. 그는 이 기간 동안 한라산 등반의 경험을 山水遊記 형태의 <遊漢拏山記>를 남겼다.

그는 평소 한라산에 오른 이가 소수인데다가 제주 사람들이 한라산에 대해

虛誕한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안타깝게 여기고 있었다. 그러다가 유배가 풀리자, 1875년 3월 27일 漢拏山을 등반하게 되었던 것이다.

<遊漢拏山記>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는 서두에서 위와 같은 遊覽의 動機를 밝히고, 이어 제주의 남문을 나서서 訪仙門과 주변에 피어난 철쭉을 감상하고, 죽성에서 하룻밤을 묵게 된다. 날씨가 어찌될까 노심초사하며 험준한 길을 따라 가다가, 마침내 白鹿潭 정상에 도착하게 된다.

(가)

여기에 이르니 비로소 상봉이 보이는데 흙과 돌이 서로 섞이고 평평하거나 비탈지지도 않으며 원만하고 豐優한 봉우리가 가까이 이마 위에 있었다. 정상에 가까운 곳에는 초목은 나지 않았고 오직 푸른 이끼와 덩굴 풀만이 석면에 깔려 있어서 앉아 휴식을 취할 만하였다. 높고 맑은 전망이 확 트여서 해와 달을 끼고 비바람을 거느릴 뿐만 아니라 의연히 진세의 일을 잊고 홍진에서 벗어난 뜻을 가질 만했다.²⁰⁾

(나)

위로는 별자리를 바라보고 아래로는 세상을 굽어보며 왼쪽으로는 해돋이를 바라보고 오른쪽으로는 서해 바다를 접했으며 남으로는 소주 항주를 가리키고 북으로는 내륙을 끌어당긴다.²¹⁾

위의 글 (가)은 白鹿潭을 바로 앞에 두고서 그 풍광을 묘사한 대목이고, 글 (나)는 漢拏山 정상에 올라 호연한 기상으로 사방을 조망하고 있는 대목이다.

이후의 여정을 살펴보면, 한차례 더 露宿하고, 靈室과 千佛巖의 웅장한 모습을 완상하면서 성으로 돌아온 것으로 되어 있다. 정상에 오른 후 하산하기까지 사흘이 소요되었다. 전반적으로 여정의 서술이 자세하고, 주변 경관의 묘사가 치밀하여, 마치 화폭을 펼친 듯 선명하게 유람의 전모를 그려 놓았다.

路程의 서술 뒤로는 이론적인 後記가 이어지고 있다. 그는 ‘形局說’을 빌려

20) 崔益鉉, 『勉庵集』, 「遊漢拏山記」. 始見上峰, 土石相雜, 不平不陴, 圓滿豐厚, 近在額上. 草木不生, 惟青苔蔓香, 被在石面, 可坐臥. 高明廣闊, 眞可以日月而駕風雨也, 依然有遺世出塵之意.

21) 崔益鉉, 『勉庵集』, 「遊漢拏山記」. 上逼象緯, 下俯人境, 左顧扶桑, 右接西洋, 南指蘇杭, 北控內陸.

漢拏山에 대한 근거 없는 낭설을 비판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가 우리 변방의 영토로서 중요한 군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으며, 산출물의 공리적인 면에서도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측면은 이제까지의 여러 紀行錄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점으로 지정학과 경제적 면에서 제주도가 지닌 일정한 가치를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는 유배기간 동안 자신의 심회와 新豊里를 소재로 지은 <有客携酒見訪>, <過新豊村>, <過吳義士廟> 등 제주 관련 한시 작품을 다수 남기고 있지만 구전되었고, 『勉庵集』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雲養 金允植(1835~1922)은 1896년 아관파천으로 親露 내각이 성립되자, 민비 시해의 음모를 사전에 알고서도 방관했다는 탄핵을 받고, 이듬 해 제주도에 종신 유형되었고, 다시 知島로 이배되었다가 1907년 특사로 풀려났다. 그는 애초부터 제주의 풍토를 기록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지만 『續陰晴史』를 남기고 있어, 제주도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그가 제주도에 終身定配를 언도받은 것이 1896년 12월 21일이고, 智島로의 이배가 결정되어 山地浦를 떠난 것이 1901년 7월 10일이다. 따라서 그가 제주도에 생활한 것은 5년 6개월이 된다. 그는 함께 終身定配를 언도 받은 전 판서 李奎瑞와 더불어 제주에 입도하였다. 이미 옥중에는 전년도 3월에 종신, 혹은 10년 유배의 언도를 받은 徐周輔, 鄭丙朝, 金經夏, 李範疇, 李台璜 등이 수감되어 있었고, 1898년 4월에는 새로 개화파에 속했던 呂圭亨, 李源兢, 安沂中等이 10년 유배의 언도를 받아 제주로 정배되어 왔다.

그는 李奎瑞와 더불어 수감된 지 40일 만에 보석이 되어, 제주읍 교동에 있는 金應斌의 집으로 옮겨졌다. 1898년 여름에는 ‘炊飯澣濯之任(밥하고 빨래하는 일)’에 충당하기 위해 娶妾하여 ‘義室’이라 하였다. 동시에 李允成의 집을 850양에 구매하여 독립하게 되었다. 1899년 6월에는 득남하여 이름을 ‘瀛駒’라고 하였으니 자기 친 자식에게 이런 이름을 붙인 것으로 보아, 참담했던 당시 그의 심정을 알 수 있다.²²⁾

현재 문집 『雲養集』이 전한다. 『雲養集』에는 觀德亭, 三泉齋, 判書井, 橘林書院의 遺墟에 세워진 敬信齋와 三姓穴등의 경관을 소개하기도 하고, 沙羅峯을 소재로 지은 <沙峯落照>, 龍淵의 장관을 소재로 지은 <龍淵夜帆>, 瀛邱의 봄을 노래한 <瀛邱春花> 등 제주 관련 한시 작품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그는 유배생활의 심심풀이로 ‘橘園’이란 詩社를 만들어,²³⁾ 李承五, 李容鎬, 韓善會, 鄭丙朝, 徐周輔, 黃炳郁, 鄭顯龜, 李喜奭 등의 시를 모아 吳慶林이 시축 첫 머리에 매화를 그리고, 李承五가 예서로 『橘園雅集』이라 쓴 시집을 펴내기도 하였다.

22) 강제언, <제주도 유배기의 김윤식>, 『탐라문화』 제7호,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988.

23) 참고로 조선시대 제주 지역에서도 지역의 문인들이 詩社를 결성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주목을 중심으로 결성하였지만 제주 전 지역의 문인들이 모여들어 제주를 대표하는 瀛吟詩社, 세화 구좌 방면으로 결성되었던 漢東詩社, 서귀포 지역을 중심으로 결성되었던 瀛陽詩社와 正方詩社, 정의현을 중심으로 결성되었던 日觀詩社, 대정현을 중심으로 결성되었던 漢西詩社, 明月防護所를 중심으로 결성되었던 雙溪詩社 등을 들 수 있다.

3. 類型과 樣式

전술한 바와 같이 제주 관련 한시 문학 작품들은 내방 목적에 상관없이 매우 다양한 양상을 띠고 지속적으로 창작되었다. 이러한 작품들 중에는 비슷한 양식으로 형상화된 작품들도 많은데, 이 장에서는 그것들의 樣式과 類型을 밝히려 한다.

우선 제주 관련 한시 작품에서는 제주에 직접 오지 않고도 제주 관련 한시 작품을 남긴 작가들이 여러 명 있다. 그들의 작품을 보면, 李奎報가 崔安이 글을 부쳐 온 것을 소재로 지은 <濟州太守崔安以洞庭橋見寄以詩謝之三首>, <次韻濟州守崔安以前所寄詩韻問訊兼貺青橋三首>처럼 일상을 다룬 작품들도 있지만, 대부분 제주로 가는 이들을 송별하는 작품들이 주를 이룬다.

예컨대 鄭道傳이 장군인 高少尹을 송별하면서 지은 <走筆送高少尹>, <送高將軍奉使還鄉>, 權近의 <送濟州牧使李君元恒詩序>, 申叔舟의 <寄濟州御史姜公遇文>, <寄濟州安撫使汝良>, <寄金濟州好仁>, <寄濟州金按撫好仁>, <寄濟州節度金同年好仁>, 徐居正의 <送濟州李判官之任兼簡李按撫同年>, <送濟州牧使金同年好仁>, <寄濟州崔敬差(2首)>, <送濟州節度使梁公詩序>, <寄濟州崔敬差>, <寄濟州崔敬差溥二首>, <寄濟州姜分臺遇文李敬差健>, 金宗直의 <次李濟州赴任詩卷>, <次李節度使赴鎮韻> 등 다수의 제주 관련 한시 작품이 그것이다.

조선시대에는 아마 벗이 원행을 할 때, 주위의 여러 벗들이 전별시를 짓고 이것을 묶어 시집으로 만들었던 것 같다. 예컨대 花山 權柱의 『燕行別章』 등이 그것이다.²⁴⁾ 제주의 벼슬살이도 대마도나 연행과 똑 같다고 할 수는 없겠

24) 임노직, <花山 權柱의 燕行別章 해제>, 『국학연구』 창간호, 2002, 한국국학진흥원. 참고로 이 시집은 권주의 종손가에 전해 오는 것으로 1501년 권주가 하정사로 명나라에 갈 때 성현, 박한주, 안침, 신항, 류순, 양희지 등 당시 명유들로부터 받은 친필 서문과 이별을 아쉬워하고 장도를 격려하는 뜻을 담은 시문을 엮어 놓은 것이다. 대마도 행차 시에도 홍귀달의 서문과 김감의 발문으로 편집된 같은 형태의 시집이 있다.

으나, 아무튼 여러 위험이 뒤 따랐다. 따라서 친구가 赴任官으로 제주에 들어갈 때 여러 벗들이 시로 전별하였는데, 이 때 지은 시를 모아 시집을 만들었던 것 같다. 구체적인 작품이 남아 있는 것을 원형의 모습으로 확인하지는 못하였지만, 여러 문집 속에 이러한 사실을 추측할 수 있는 시집의 서문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아, 다소나마 이런 실상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 남아있는 대마도 전별시집과 연행 전별 시집의 구성 형태를 살펴보면, 각각 다른 사람의 序跋文이 있고, 그 안에 여러 동료들의 전별시들이 편집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제주로 가는 원행에 지어주는 전별 시집의 모습을 가상해 보면, 權近이 제주로 가는 李元恒을 전별하는 시집의 서문인 <送濟州牧使李君元恒詩序>를 짓고, 그 안에 여러 문인들의 다양한 작품들이 편집되어 있는 시집이 있었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리고 徐居正이 제주로 가는 梁公을 전별하는 시집의 서문인 <送濟州節度使梁公詩序>를 짓고, 그 안에 李承召의 <送濟州梁牧使> 등과 같은 작품들이 편집되어 있었다는 추측도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실제로 제주어사로 떠나는 李慶億에 대한 전별시집이 제주국립박물관에 전시되었던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제주와 관련된 시들에 대한 또 다른 의미 부여가 가능하리라 본다.

또 다른 유형으로 제주 관련 한시 작품을 남긴 여러 문인들에 의해 ‘瀛洲十景’이 시로 지어졌다는 것이다. 조선후기에 제주 목사로 와서 삼년의 임기를 수행한 李源祚는 <瀛洲十景>과 <瀛洲十謠>를 동시에 시로 남기고 있어 특이한 경우라 할 것이다.

古來로 아름다운 풍광에는 반드시 그를 品題하여 입증하는 멋진 시문이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입증하는 시문이 없는 풍광은 속류의 놀이터에 지나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어떤 지역이 풍광으로 소문이 났어도 그 경치를 읊은 名文이 없다면, 이는 주위에 경관을 賞嘆하는 문사의 내용이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실상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평을 면치 못

한다. 예컨대 鄭民秀가 박연폭포를 시로 형상화함으로써 박연폭포를 모르는 이가 없게 되었으며, 朱文公이 『武夷悼歌』를 지으면서 ‘무이구곡’이 천하에 알려졌다. 그리고 평양의 嬋娟洞은 하나의 북망산에 불과하지만, 尹坡潭, 權石洲, 柳冷齋 등의 절창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졌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瀛洲十景은 梅溪 李漢雨(1818~1881)가 제주의 경관을 品題하여, 열 곳을 골라 새로이 시적인 이름을 붙이고, 시를 지어 절경임을 형상화한 이래로 도내 외의 대가들과 후대 시인들이 그 시에 차운하여 佳句와 名聯을 많이 남겨, 지금에 와서도 제주의 대표적 명승지로 꼽히게 되었다. ‘瀛洲十景’을 소재로 작품을 남긴 사람들로써 金亮洙, 金昌鉉, 李容植, 金羲正, 劉淡, 金桂斗, 高永昕, 高永夏 慎鴻錫, 金熙斗, 金滢植 등을 꼽을 수 있다.²⁵⁾

梅溪 이전에도 제주의 경치를 品題한 이가 없지 않다. 1694년에 목사로 왔던 冶溪 李益泰는 朝天館, 別防所, 城山, 西歸所, 白鹿潭, 靈谷, 天池淵, 山房, 明月所, 翠屏潭을 瀛洲十景으로 꼽았다. 그 보다 조금 뒤인 1702년에 목사로 왔던 瓶窩 李衡祥은 漢拏彩雲, 禾北霽景, 金寧村樹, 坪垞渚烟, 魚等晚帆, 牛島曙靄, 朝天春浪, 細花霜月을 濟州八景으로 꼽았다. 순조 철종 연간에 영평리에 살았던 小林 吳泰稷(1807-1851)은 拏山觀海, 瀛邱晚春, 靈室晴曉, 紗峰落照, 龍淵夜泛, 山浦漁帆, 城山出日, 正房瀉瀑을 제주의 팔경으로 여겨, 절구 두수씩을 지었으나 濟州八景이라 이름 붙이지는 않았다.

이러한 탐승의 자취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왔다. 전술한 것처럼 梅溪는 제주에서 가장 풍광이 뛰어난 산수 열 곳을 골라 <瀛洲十景>이라 제목을 붙였다. 열 곳 이름 역시 <城山出日>, <紗峰落照>, <瀛邱春花>, <正房夏瀑>,

25) 참고로 이들은 瀛洲十景 외에도 제주 관련 한시 작품들을 많이 남기고 있는데 李漢雨(1818-1881)의 <失鶴>, <楮旨七星屏>, <樂志>, <雪夜>, <待舟>, <題秋史先生壽星草堂>, <京館聞吳銀溪運柁過鏡湖製送挽詞三首>, <感興>, <偶吟>, 金昌鉉(1827-1875)의 <耽羅竹枝詞>, 金羲正(1844-1916)의 <和栗下韻>, <漢拏山>, 劉淡(생몰 연대 미상)의 <白鷺吟>, <和梅溪韻>, <瀛洲>, <組練>, <處女家>, <行路難>, 高永昕(1841~1914)의 <彈琴>, <木棉花>, <漢拏山>, <感雪詩>, <煮茶>, <運壽堂>, 慎鴻錫의 <明倫>, <賀漂船生還>, <水仙花>, <瀛邱春花>, 金熙斗(1864-1904)의 <穴祭>, <三泉齋山餞春>, 金滢植(1886-1927)의 <夜泊閑山島謹次李忠武公刀字韻>, <春日與三從時範共賦十首>, <早梅>, <山居>, <輓洪君>, <朝鮮文藝社與崔梅下先生共賦>, <述夢>, <妍妍行> 등이 그것이다.

<橋林秋色>, <鹿潭晚雪>, <靈室奇巖>, <山房窟寺>, <山浦釣魚>, <古藪牧馬>와 같이 각각의 특징을 잘 살릴 수 있는 시어를 골라 이름을 지어 붙이면서 대구까지 맞추었다. ‘瀛洲十景’의 차례를 매김에 있어서도 치밀함을 보였다. 해가 뜨고 짐(세월의 흐름)에 따라 봄 여름 가을 겨울 경치가 변해가는 경관을 드러내려 하였다.

거의 같은 시대인 1841년에 제주목사로 왔던 凝窩 李源祚는 <瀛洲春花>, <正房觀瀑>, <橋林霜穎>, <鹿潭雪景>, <城山出日>, <紗峰落照>, <大藪牧馬>, <山浦釣魚>, <山房窟寺>, <靈室奇巖>으로 차례 매겨 사계절에 따라 제주 특유의 경치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더욱 완벽한 대구를 구사하였다.

창작된 연대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凝窩의 品題를 梅溪가 바꾸었는지, 梅溪의 品題를 凝窩가 바꾸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瀛洲十景’의 차례와 명칭이 다른 것으로 보아 별개의 작품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蘭谷 金亮洙(1828~1887)는 제주도 조천 출신으로 勉庵이 유배 왔을 때, 從遊하기도 하였던 인물이다.²⁶⁾ 그는 ‘瀛洲十景’의 차례를 제주 삼읍 즉 제주, 대정, 정의의 경계에 따라 차례를 바꿨으나 “후인이 평하기를 釣魚보다 觀魚가 좋다”라는 비평을 소개하면서도 끝내 제목을 바꾸지는 않았다.

그 외에도 별도의 소제목으로 구분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편의 長篇詩들이 남아 있다. 崔溥의 <耽羅詞>, 金宗直의 <毛羅歌>, 南九明의 <補毛羅歌>, <重補毛羅歌>, <又補毛羅歌>, 金昌鉉의 <耽羅竹枝詞>, 趙觀彬의 <耽羅雜詠 22수> 등도 제주 관련 한시 작품들의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유형으로 제주에 들어온 이유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더라도 얼마간 함께 한 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수창한 작품들이 많이 있다. 주지하듯이 申光洙가 금오랑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風雨로 발이 묶인 45일 동안에 수창한 작품을 모은 『耽羅錄』은 이미 잘 아는 사실

26) 참고로 제주 관련한 <勤學>, <樵夫>, <漁舟>, <販魚>, <湖上三月奉別參判崔公贊謙>, <茶煮>, <三月見水仙花>, <戊寅春於大靜加波島冲英艦來侵時贈柳命祿>, <金謫士及兵禮兩裨會飲運籌堂> 등의 한시 작품을 남기고 있다.

이고, 같은 시기에 유배 온 金春澤과 任徵夏의 처남 매제 간의 수창시와 金聖鐸이 스승인 葛菴 李玄逸의 신원을 주장한다는 빌미로 인한 유배 길을 그의 아들인 金樂行이 수행하였다. 이들 두 부자의 제주 유배시기 동안의 화창시인 金聖鐸의 <和晉兒玉溝歌>, <和晉兒南海歌>, <和晉兒述懷詩>, <和晉兒耽羅烏歌> 등의 작품도 어쨌든 제주를 배경으로 하여 창작된 작품의 한 類型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상에서 제주 관련 한시들의 類型과 樣式에 대하여 적시하였다. 그런데 제주를 찾은 사람들은 이유와 상관없이 매우 기이한 체험을 하게 되고, 이러한 기행의 체험을 기록으로 남긴 사람들이 많았다. 이러한 기록은 부분적으로 시로 표현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일기체의 형식을 빌려 그때그때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록들의 유형을 살피는 것도 제주 관련 한시 작품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제주를 다녀간 많은 사람들은 赴任官, 流配客이건, 어느 시대건, 가리지 않고 자신의 체험을 출발에서 마침까지 기록으로 남기려 하였다. 지금까지 발견되어 연구되는 자료들만 놓고 볼 때도 이러한 현상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제주 관련 기행기록들은 얼마간 공통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아마 어디를 기행한다는 것이 남의 기행한 것을 사전에 참고해서, 자신의 기행에 반영하고, 기행 후에도 얼마간 그 전의 기행기록을 참고하여, 자신의 기행과정을 기록하려는데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제주에 관한 기행기록 중 冲庵 金淨(1486~1521)이 쓴 『濟州風土錄』과 葵窓 李健(1614~1692)의 『濟州風土記』, 雲養 金允植(1835~1922)의 『續陰晴史』는 유배 생활 중에 견문한 제주도의 여러 풍토를 기록한 것이다. 淸陰 金尙憲(1570~1650)의 『南槎錄』과 寓庵 南九明의 『南征日記』, 李增(1628~1686)의 『南槎日錄』, 凝窩 李源祚(1792~1871)의 『耽羅錄』은 관리로 파견되어, 공무를 집행하는 여가에 둘러 본 제주도의 풍광을 주로 그린 기록물이다. 그리고 白湖 林悌(1549~1587)의 『南溟小乘』은 순수 여행을 목적으로 내방하여, 자신

의 여행 체험을 남긴 것이다. 勉菴 崔益鉉(1833~1906)의 <遊漢拏山記>는 유배시의 기록이지만 일종의 遊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제주를 묘사한 기행 유의 작품들을 시대적으로 나열할 때, 제주도와 관련된 기록 가운데 역사 기록이 아닌 개인이 남긴 기록으로는 冲庵 金淨(1486~1521)이 쓴 『濟州風土錄』이 최초의 자리에 놓인다. 그 다음으로 白湖(1549~1587)의 『南溟小乘』이 놓이고, 이후로는 淸陰(1570~1650)의 『南槎錄』, 葵窓 李健(1614~1692)의 『濟州風土記』, 寓庵 南九明의 『南征日記』, 凝窩 李源祚(1792~1871)의 『耽羅錄』, 勉菴 崔益鉉(1833~1906)의 <遊漢拏山記>의 순이다.

주지하는 것처럼 冲庵은 中宗 14년의 己卯土禍(1519) 후 錦山에 장배 되었다가, 다시 珍島를 거쳐 1520년 8월에 濟州道에 이배되어 濟州城 동문 밖 금강사에 安置된다. 그때부터 1521년 10월 17일 36세로 賜死되기까지의 유배 생활을 토대로 제주도의 풍토와 문화 일반에 관하여 세세하게 기록한 것이 『濟州風土錄』이다.

그 대략적인 내용을 보면, 제주도의 특수한 기후 조건과 그것에 따른 가옥 구조, 풍속, 특히 蛇神과 무당의 피해, 관원의 횡포, 토지 경작의 양상, 동물과 조류, 토산물에 대한 설명이 상세하고, 자신의 유배 생활에 대한 정신적 所懷도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기록들은 그의 삶의 연장선에 놓여 있었다.

유학적 이데올로기에 충실하고자 했던 冲庵으로서 아직 유학적 교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제주 사회에 대하여 냉담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유교적인 이데올로기를 고집하지 않고, 백성의 교화에 유리한 불교에 대하여 얼마간 유연한 자세를 보인 적도 있다. 하지만 원천적으로 그는 잡귀 숭배와 뱀 숭배가 성행하는 것을 매우 비판적으로 말하여, 잡귀 숭배에 대하여서는 죽을 때까지도 깨닫지 못한다고 혹평하였다. 뱀 숭배에 대해서도 심히 미혹되어 가소롭

다27)고 하여,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어쨌든 『濟州風土錄』에서는 제주도의 風土와 風物을 주로 다루고 있다. 그 사안에 따라 대략 다음과 같이 단락을 구분해 보기로 한다.

- 1) 해양성 기후로 안개와 바람이 잦고 여름은 찌는 듯 덥고 답답하다.
- 2) 초가집에 방바닥을 파서 온돌을 대신하기 때문에 풍토병이 많다.
- 3) 무당이 많고 폐해가 극심하며 淫祀 등 여러 미신이 횡행한다.
- 4) 토속적 신앙으로 뱀을 숭상하여 감히 쫓아내거나 죽이지 않는다.
- 5) 말소리가 가늘고 높아 마치 침으로 찌르는 것 같다.
- 6) 짐은 지고 머리에 얹지 않으며 절구는 있으나 방아가 없다. 옷도 손으로 두드리며 풀무는 밟지 않고 손으로 체를 부린다.
- 7) 당시 제주도는 아직은 미개한 사회이며 관원들의 횡포도 대단히 심하다.
- 8) 중은 주로 대처승이며 사람들을 겁박하여 괴롭힌다.
- 9) 한라산이 중앙에 위치하여 한눈에 모든 바다를 보기가 어려우며 돌이 많고 토질이 척박하다.
- 10) 물이 귀하며 많이 갖고 가려고 반드시 나무통으로 길어간다.
- 11) 분토에 흔한 산물이 귀한 경우가 많으며 소 값은 쌀 대신 맛이 없고 소금도 귀하다.
- 12) 제주도에는 특산물이 많으며 굴의 종류에는 무려 9종이 있다.

이상 몇 대목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16세기 제주도의 풍토 풍물에 대해 대강이나마 짐작해볼 수 있겠다. 이는 열 달 동안에 걸친 제주도에서의 유배 생활이 冲庵에게 생활 체험적인 自然理解를 가능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하겠다. 이 작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살피면, 16세기의 제주는 토속적인 무속이 성행하였고, 도민들의 의식주 수준 역시 대단히 낙후된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白湖 林悌(1549~1587)는 대과에 급제한 직후인 그의 나이 28세 때, 1577년 11월 초순에 제주도를 향하여 출발하였다. 그는 제주도를 여행하는 동안의 다양한 체험을 통해 『南冥小乘』이라는 日記體의 紀行 詩文을 남겨놓았다. 그는

27) 김정, 『濟州風土錄』 23권, 酷崇祠鬼至死不悟.....俗甚忌蛇....惑甚可笑.

여기에서 渡海의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여러 가지 풍물들을 소개하였다.

다음은 제주도로 가는 험한 뱃길에 고생하는 대목이다.

백여리쯤 갔을 때 바람이 마구 뒤집고 바다가 험악하여 큰 물결이 하늘을 쳐서 돛대꼭지가 잠겼다 드러났다 하여 半空의 뜬 구름과 더불어 서로 오르내렸다. 배 안의 사람들이 온통 토하고 일어나지 못하는 자가 절반이 넘었다. 나 역시 선실로 들어와서 누웠더니 마치 그네를 탄 것 같았다.²⁸⁾

문명이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한 요즘에도 제주 바다를 건너는 것은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었다. 험난한 파도와 싸우는 모습을 뱃머리가 구름에 닿을 정도로 높이 솟구쳤다고 하고, 배안의 혼잡한 광경과 자신의 모습을 여과 없이 생생하게 형상화하였다.

白湖는 그로부터 약 4개월가량을 유람하다가, 이듬해 3월 초순에 귀로에 올랐다. 『南明小乘』에 나타난 白湖의 대략적인 일정은 다음과 같다.

- 1) 1577년 11월 3일에 楓浦를 출발하여 康津 莞島 白島를 경유하여 11월 9일 朝天館에 이른다.
- 2) 11월 10일에 望京樓에서 부친을 뵈다.
- 3) 11월 19일에 金淨의 謫居 舊址를 찾아가다.
- 4) 11월 22일에 관광에 나서 金寧포 성산 우도 등을 둘러보고 24일에 西歸浦 防護所에 투숙하다.
- 5) 11월 25일 천지담 천제연 존자암 등을 구경하다.
- 6) 11월 26일 송악산에서 遊賞 晚早里 石窟을 구경하고 明月 防護所에서 묵다.
- 7) 11월 27일에 망해정 都近川을 돌아보고 제주로 돌아오다. 郭支里의 私奴 連斤의 처인 千德의 守節談을 쓰다.
- 8) 이듬해(1578년) 2월 5일 한라산 등반을 작정하고 詩를 짓다.

28) 林梯, 「南溟小乘」, 11월 9일, 行白里許, 風顛海惡, 大浪擊天, 危檣出沒, 與半空浮雲, 相互低昂. 舟中人之嘔吐, 不起者過半. 余亦入臥蓬底, 如在秋千上.

- 9) 2월 10일에 한라산 등반에 나서 尊者庵에 들어가다.
- 10) 2월 11일에 五百將軍洞을 구경하다.
- 11) 2월 12일에는 구름이 깊어 존자암에 머물며 白雲名篇을 짓다.
- 12) 2월 15일 한라산 정상에 오르고 頭陀寺와 雙溪菴을 거쳐서 하산하다.
- 13) 2월 16일에 제주로 돌아와 부친을 뵈다. 冲庵遺墟를 돌아보고 迎送曲을 짓다.
- 14) 2월 그믐날 別刀浦에서 부친과 작별하고 楸子島 黃魚浦에 닿다.
- 15) 3월 5일 고향에 도착하다. 5일 후 다시 北征길에 오르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4개월간의 제주도 여행 중에서 기술된 일자는 한 달을 조금 넘는데 불과하다. 그러나 담고 있는 내용 자체는 상당히 풍부하다. 제주도과 관련된 중요한 자료를 담고 있을 뿐 아니라, 그의 삶과 문학을 이해하고, 인생관 내지 자연관을 살필 수 있는 소중한 자료로 활용할 만하다.

葵窓 李健(1614~1692)의 『濟州風土記』는 여러 가지 점에서 다른 작품과 비교할 만하다. 우선 앞의 작품들은 죽음을 앞둔 절박한 유배자의 심정에서 지어져 누군가에게 보내진 것이고, 체재 기간이 길어야 반년 남짓에 불과하다. 葵窓 李健의 작품은 무려 8년이라는 긴 세월을 제주도에 머물렀고, 이후 유배된 처지에서 풀려나, 여유로운 심정으로 창작된 것이다. 작자들의 당시 처지도 葵窓 李健은 같은 유배자의 처지지만, 왕족이라는 신분과 자기의 직접적인 죄가 아닌 아버지 인성군의 죄에 연좌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로운 여건에서 체험한 것을 기록하였다. 그런 반면 기록은 불과 19면이라는 짙막한 분량에 지나지 않는다. 冲庵 金淨의 『濟州風土錄』의 분량도 16면 정도이지만, 체류한 기간이 10개월이라는 이유가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淸陰 김상헌 『南槎錄』은 6개월여의 체류기간에 비해 총 103면(제주도에서의 기록은 73면)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濟州風土記』는 상대적으로 매우 짧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을 보자.

탐라 한 섬은 호남의 동이요 영남의 남쪽에 있어서 바다에서 떨어진 것이 수 천리요 남쪽으로는 일본과 유구가 그 바다를 같이 하고 있다. 들어가는 데는 서북풍이 필요하고 나오는 데는 동남풍을 이용하게 된다. 만일 순풍을 만나면 한 조각 돛배라도 아침에 출발하여 저녁에 당도할 수 있으나 순풍이 아니라면 아무리 빠른 송골매나 새매의 날개가 있다고 해도 건널 수가 없다. 파도는 동남풍에는 낮고 서북풍에는 매우 높다.²⁹⁾

이것은 『濟州風土記』의 서두 부분에 해당되는 渡海記이다. 범선으로 바다를 건너던 시대에 濟州道로의 항해에는 順風과 風向이 절대적인 요건임을 알게 하는 동시에 渡海의 危難한 실상을 토로한 부분이다.

葵窓 李健의 『濟州風土記』는 그 체재 상 冲庵 金淨의 『濟州風土錄』과 마찬가지로 일자 별로 서술되어 있지 않고, 사안에 따라 적고 있다. 아래와 같이 대략 13단락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겠다.

- 1) 제주도의 지리적 위치와 제주도를 왕래하는 당시의 상황
- 2) 제주도에 散在한 뱀과 독특한 풍속이라 할 뱀 신앙의 一面
- 3) 무더위 속에서도 어려움
- 6) 물동이를 지는 등 제주도 여인의 독특한 풍습
- 7) 제주산 橋의 종류와 굴의 進獻 민정들을 징발하여 한라산 上峰에서 얼음을 캐오게 하는 관의 횡포
- 4) 제주도의 목축 상황과 牧養하는 이의 어려움
- 5) 제주도의 농경 상황과 보리를 주곡으로 하는 농경
- 8) 해산물과 잡녀들의 풍습 그리고 관원들의 횡포
- 9) 神堂과 神祠 등 민간 신앙에 관한 풍속
- 10) 제주도의 동물식물의 현황
- 11) 高 梁 夫 三姓神話
- 12) 金萬鎰의 屯馬에 관한 기술

29) 李健, 「濟州風土記」, 耽羅一島, 正在湖南之東, 嶺南之南, 隔海數千里, 南與日本琉球同其海. 其入也, 必以西北風, 其出也, 必以東南風. 若得順風, 日片孤帆, 朝發夕渡, 不得順風, 雖有鷹鷂之翼, 星霜之變, 無以可渡而海波, 東南低, 北西高.

13) 제주에서의 流配的 狀況과 解配된 作자의 心懷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葵窓 李健은 『濟州風土記』를 통해 8년의 긴 세월 동안 유배된 처지에서 견문한 17세기 濟州의 풍토 및 諸狀況을 해배된 이후 여유로운 마음으로 형상화하였다.

II. 濟州 關聯 漢詩의 素材

제주 관련 한시의 일반적 현황을 詩的 素材를 가지고 조금 더 세분화하여 실상에 접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제주와 관련된 한시들은 다양한 작가들에 의해서 많은 작품들이 남아있는데, 주로 제주만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을 소재로 활용하였다. 이를테면 제주만이 가지는 독특한 山水地理에 주목하기도 하고, 제주의 歷史와 古蹟에 관심을 가졌으며, 物産과 民衆生活을 소재로 활용하여 작품 활동을 하였다. 이들은 (자신들이)來島한 목적이나 이유에 따라 창작활동을 하기도 하고, 혹은 이와는 상관없이 나름의 창작활동을 하기도 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러한 작품들 속에 다양하게 제주를 소개하기도 하고 묘사도 하였다.

이 장에서는 濟州 관련 漢詩를 山水地理, 歷史와 古蹟, 物産과 民衆生活이라는 소주제를 가지고 분류하였다. 그리고 그 대강을 드러내고, 각각의 주제에 해당되는 소재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하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다양한 작품들을 소개하기 위하여 부록에 제주 관련 한시작품들을 총 망라해서 수록하였다.

1. 山水와 地理

조선의 선비들은 風光이 좋은 산수자연의 모습을 보면, 마치 꽃을 찾아 모여드는 나비처럼 찾아들어 자신들의 감흥을 쏟아내었다. 이에 산수자연에 관한 수많은 작품들이 남겨져 있다.

제주에 들어온 많은 시인묵객들은 이유에 관계없이 제주의 이국적인 풍취에 감동되었다.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 그냥 지나침이 없이 누구나 가릴 것 없이 紙筆墨에 자연스럽게 손이 갔다. 제주도에서의 견문과 체험은 육지의 그것과

는 매우 다른 이것은 단순히 경치가 주는 아름다움을 감상할 뿐만이 아니다. 그들이 제주에 감동하여 시를 지은 것은 그것을 통해 자신을 수양하는 도구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의 빼어난 山水地理의 絶勝들은 자연스럽게 이러한 시인묵객들의 수양의 도구가 되기도 했다.

제주의 모든 곳이 絶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중에 특히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곳은 漢拏山을 포함한 주변, 漢拏山에서 바라다 보이는 바다, 정상에 내린 눈, 白鹿潭의 모습, 靈室 주변의 풍경, 五百將軍洞 등이다. 이러한 장소들을 포함한 수많은 漢拏山의 빼어난 모습이 시인에 따라 달리 읊어졌다. 그 외에도 城山, 山房山, 松岳山, 龍頭巖, 龍淵, 都近川과 곳곳에 산재한 많은 폭포들, 제주 주변의 빼어난 섬들은 시인 묵객의 손을 비껴갈 수 없었다.

제주의 산수지리를 소재로 지은 작품은 순수 자연의 이국적 소재를 가지고 지은 작품들이다. 숫자로 보면, 漢拏山과 白鹿潭, 그리고 그 주변을 작품의 소재로 활용한 것이 가장 많다.

이렇듯 漢拏山을 소재로 한 작품이 많은 것은 우선은 漢拏山이 제주의 상징이라는 표면적인 이유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풍수지리적인 측면에서는 본토의 태백준령을 이어받아 국운이 하나로 모여진 곳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작품 군을 살펴보면, 직접 漢拏山, 白鹿潭, 漢拏山의 길목으로 가장 길이가 짧은 등반로이기도 하고, 기암절벽이 유명한 靈室溪谷, 漢拏山 속에 들어있는 암자로 제주를 찾았다가 漢拏山을 오르는 과정에서 여러 시인 묵객들이 잠시 묵어가기도 했던 암자인 尊者庵, 漢拏山 정상에서 바라다 보이는 광활한 바다, 漢拏山 중턱의 御乘生을 소재로 지은 작품 등 제주 관련 한시 작품이 다수 남아 있다.

이러한 작품들을 표로 분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소재별 분류

| 作家 | 作品 |
|-----|------------------|
| 姜師孔 | 漢拏山賦 |
| 高永夏 | 漢拏山 |
| 高永昕 | 漢拏山 |
| 權近 | 漢拏山 |
| 金麟厚 | 漢拏山 |
| 金萬希 | 漢拏山 |
| 金錫翼 | 漢拏山 |
| 金聲久 | 登漢拏山絶頂 白鹿潭 |
| 金成鐸 | 漢拏山歌 |
| 金應洙 | 遊漢拏山 |
| 金宜鍾 | 白鹿潭 |
| 金 敔 | 漢拏山 |
| 金 緞 | 登絶頂 漢拏山 靈室 白鹿潭 |
| 金義正 | 漢拏山 |
| 文昌來 | 漢拏山 |
| 吳章獻 | 御乘生 |
| 吳泰稷 | 登拏山觀海 |
| 李健 | 上漢拏山 |
| 李慶億 | 尊者庵 靈室遇雨 |
| 李源祚 | 重九日見拏頂白雪 白鹿潭 靈室石 |
| 李元鎭 | 尊者庵 |
| 李益泰 | 漢拏山 |
| 李增 | 祭罷登絶頂次金令丈韻 |
| 任觀周 | 白鹿潭 |
| 趙觀彬 | 登漢拏絶頂口號 漢拏山 |
| 玄癸平 | 靈室奇巖 |

이 같이 많은 시인들에 의해 제주 관련 한시 작품이 다수 남아 있다. 특히 漢拏山과 白鹿潭은 제주도를 찾은 문인이면 거의 누구나 시적 소재로 읊은 곳이다.

다음에 몇몇 문인의 작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怪異神人湧北巒 한라산 북쪽에서 신인이 용출한 일 괴이하다
 誰知淑氣此中蛻 이곳에 신령한 기운 서린 줄 그 누가 알았으랴!
 標連南極星羅拱 꼭대기는 남극에 이어져 서서 공수하고
 根壓東荒地軸盤 뿌리는 동쪽 거친 땅을 눌러 지축의 반석이 되었네.
 蟄湫有龍雲易暗 큰 용이 못에 웅크려 있어 구름이 쉬이 일어나고
 點峰餘雪夏猶寒 남은 눈이 봉우리에 점 찍혀 있어 여름에도 시원하다.
 熊狐豹虎難容跡 곰 여우 표범 호랑이 있어 인간의 발걸음이 어려우니
 惟見溟鵬九萬攢 오직 구만리를 나는 큰 봉새들만 볼 수 있네.³⁰⁾

金麟厚(1510~1560)가 漢拏山을 노래한 작품이다. 작자는 漢拏山을 우리 민족의 영산으로 국운이 모여 있는 곳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그는 漢拏山의 당당한 위용을 묘사하였다. 마치 용이 승천을 준비하듯이 구름이 자욱하게 휘감고 있는 정상 모습의 드러내고 있으며, 맹수들이 서리고 있어 오직 봉새만이 볼 수 있는 신령한 산으로 묘사하고 있다.

아직까지 그가 제주를 다녀간 구체적인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도 분명치 않다. 그러므로 이 작품은 직접 漢拏山을 보고 지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작품의 의의를 폄하할 수 없다.

주지하듯이 조선의 많은 시인묵객들이 燕行을 하지 않고도 중국을 다녀온 것처럼 쓴 작품들이 많다. 작품의 대상을 설정하여 특정 소재를 마치 목도한 양 그리고 있다. 금강산과 관련된 많은 작품들도 직접 가보지 않고 묘사한 것이 많은 것을 보면, 이 작품에 대하여 의미를 낮게 책정하는 것은 무리일 것 같다. 오히려 직접 보지 않고도 이렇게 묘사할 수 있는 시인의 자질을 높이 사야할 것이다.

30) 金麟厚, <漢拏山>.

頂上寒潭自在清 정상의 찬 못 본래부터 말끔하건만
 洵盤難濯俗人纒 쟁반 같아 속인의 갓끈 씻기가 어려워
 仙翁且莫回吾駕 선옹이여! 내 수레를 돌리지 말아다오!
 曾是前身玉界行 나도 전생에는 선계에서 노닐던 사람이니³¹⁾

八吾軒 金聲九(1641~1707)의 白鹿潭을 소재로 지은 작품이다. 그는 제주 판관으로 왔다가, 漢拏山에 올라 白鹿潭을 돌아보며 지은 것이다. 1구에서는 白鹿潭의 맑은 물을 묘사하고 있다. 2구에서는 白鹿潭을 신선들이 노니는 장소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3구와 4구에서는 자신이 마치 신선이 된 듯이 그곳이 신선이 노닐던 장소 같은 신비로움에 감동하며 신선인 양 노래하며 白鹿潭의 신비로운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제주에는 여러 가지 絶勝이 있지만, 그 중에서 곳곳에 산재해 있는 폭포들이 각각의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와 관련된 많은 한시 작품의 소재로 활용하였다. 이것은 아마 힘차게 떨어지는 폭포의 모습에서 활기찬 기맥의 흐름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正方瀑布는 제주의 폭포 중에서 바다로 직접 떨어져 절경을 지닌 폭포이다. 이러한 正方瀑布를 소재로 지은 시는 다음과 같다. 李源祚의 <正房淵>, 李翊漢의 <正房淵>, <正方淵>, <正房瀑>, 李增의 <正方淵口占>, 李海朝의 <正方淵>, 金壽翼의 <正方淵>, 失名氏의 <正方瀑布> 등이 있다.

제주의 폭포 중에 아담하고 운치가 있어, 현재까지 각광받고 있는 天池淵瀑布를 소재로 지은 시로는 다음과 같다. 金倣의 <天池淵>, 李元鎭의 <天池淵>, 李海朝의 <天池淵>, 李選의 <天池淵> 등이 있다. 제주의 폭포 중에 두 번째의 위용을 자랑하며, 나름대로의 경관을 간직한 天帝淵瀑布를 소재로 지은 시는 다음과 같다. 李海朝의 <天帝潭>, 高衡博의 <天帝淵>, 任觀周의 <天帝淵> 등이 있다.

31) 金聲久, <白鹿潭>.

이와 같이 제주의 산수 풍광과 관련한 한시 작품이 다수 남아 있다. 그것은 제주의 곳곳에 산재한 폭포들이 제주를 다녀간 문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하였기 때문이다.

다음의 몇몇 문인들의 작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雷動飛泉海作淵 우레 치며 나는 물줄기 바다에 못을 만들어
恍然光景浩無邊 황홀한 광경 넓기가 한량없네.
更看壁上青蓮句 다시 절벽 위의 이태백 시구를 올려다보고
閣筆銀河落九天 은하수가 구천에서 떨어진다는 말에 붓을 던지네.³²⁾

제주목사로 부임하였던 金壽翼(1600~1673)이 정방폭포를 소재로 지은 작품이다. 그는 1636년 병자호란 때에 인조를 남한산성으로 호종하여 항전을 주장하였으나, 치욕적인 화의 성립 후에 斥和論者로서 스스로 근신하였다. 1649년 제주 목사로 부임하였으나 탐관오리로 탄핵 받아 嶺南에 유배되기도 하였다. 그는 서귀포에 있는 正方瀑布를 찾았다. 그는 육지에서 바다로 바로 떨어지는 정방폭포의 웅대한 모습에 감동을 받고 이를 작품으로 형상화하였다.

작자는 1구에서 正方瀑布의 모습을 처음 마주 대하고, 그곳의 위용에 놀린 듯 우레 소리를 내며 바다로 떨어진다고 표현함으로써 그 황홀한 모습의 여운을 남기려 하였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2구와 3구에서는 폭포 아래로 내려가, 밑에서 올려다보는 正方瀑布의 웅장한 모습을 감동적으로 그려내었다. 그는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폭포의 모습이 ‘마치 은하수가 구천에서 떨어지는 듯하다’고 폭포의 벽에 새겨진 이태백의 시구에 동의한다고 하면서 마무리하였다.

제주에 거침없는 남성의 기상을 드러낸 正方瀑布가 있다면, 여인의 소담스런 모습에 비유될 수 있는 天池淵瀑布도 있다.

32) 金壽翼, <正方淵>.

白龍低首下長空 백룡이 머리 낮춰 긴 하늘을 내려왔나
 半壁青山霹靂雄 푸른 산 중턱에 웅장한 뇌성벽력.
 一躍前溟通萬里 앞바다로 뛰어들면 만 리 길로 통할 듯
 世人誰識造化功 세상사람 그 누가 조화의 신비를 알까!³³⁾

제주에 유배 왔던 李選(1632~1692)이 天池淵瀑布를 소재로 지은 한시 작품이다. 그는 송시열의 문인으로 스승과 운명을 함께하여, 1689년 기사환국으로 서인이 실권하자 기장에 유배되었다. 그리고 유배 도중 죽은 스승의 운명처럼, 자신도 배소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그 역시 제주에서의 뚜렷한 행적은 남아 있지 않다. 그의 스승이 제주에 유배될 때, 그가 배행했는지의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작자는 1구와 2구에서 天池淵瀑布를 찾고 소담스런 외형의 모습에 상관없이 폭포가 가지는 웅장한 모습을 급하게 묘사하였다. 그리고 3구에서는 바다로 바로 떨어지는 正方瀑布와 달리 폭포에서 떨어진 물이 얼마간 내를 건너야 바다로 갈 수 있는 것을 한번 뛰면 바다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적인 신비로움으로 승화시켰다.

제주의 서부지역은 한라산이 잘 보이지 않는 곳이 있을 정도로 제주도에서도 가장 외진 곳이다. 따라서 산세와 어우러지는 뚜렷한 絶勝이 드문데, 해안과 맞닿은 곳에 나지막한 山房山이 있고, 그 속에 굴이 있으며 기암절벽이 지금까지도 絶勝으로 꼽힌다. 따라서 한시 작품의 소재로 적극 활용되었다.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하면 다음과 같다. 직접 山房山을 소재로 작품을 지은 李元鎭의 <山房>, 吳廷賓의 <山房山(二首)>, 具齡錫의 <山房山>, 任觀周의 <山房山> 등이 있다. 山房窟을 소재로 지은 작품으로는 韓鼎運의 <山房窟>, 元相堯의 <山房窟>, 鄭運經의 <山房窟> 등이 있다. 이처럼 제주도의 서부지역

33) 李選, <天池淵>.

을 대표하는 山房山 역시 그곳을 다녀간 많은 문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하였다.

다음의 몇몇 작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四海環千里 사면에 바다가 천 리를 둘러 있고
三山鼎半空 삼신산 반공에 솟아 있네.
乃知仙子所 신선 사는 곳
天作一壺中 하늘이 만든 병 속임을 알겠다.³⁴⁾

이 시는 특이하게도 평안도 龜城 출신으로 순조 때, 대정 현감을 지낸 元相堯(생몰연대 미상)의 작품이다. 그는 1806년 7월 李宅觀의 후임으로 대정현을 맡았다가, 1809년 1월에 대정을 떠났다. 그는 1807년 5월에 임지에 가까운 산방산을 찾아, 암벽에 山房窟의 모습을 시로 지어 바위에 새겨 놓았다.

작자는 1구와 2구에서 산방산을 찾고 우선 그곳의 모습을 작은 한라산처럼 받아드렸다. 그리고 3구와 4구에서는 그 안에 들어 있는 山房窟을 한라산 정상에 백록담으로 묘사하고 선향으로 인식하였다. 이것은 아마 제주에서도 가장 외진 서부지역에 우뚝하게 서 있는 山房山의 모습을 단절된 것으로 보지 않고 끝없이 이어지는 신비로운 기운으로 인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은 山房山을 묘사한 작품이다.

石勢龍頭壓 바위가 용머리 누르고
禪居鳥夢空 선방이 새 등지를 빼앗았네.
霧雲生瀉底 내뿜는 물 밑 맑은 구름 솟아나고
靈液滴房中 신령스런 물방울 방 안에 똑똑 떨어진다.³⁵⁾

34) 元相堯, <山房窟>.

35) 具齡錫, <山房山>.

이 시는 충청남도 海美 출신으로, 1820년 2월 朴師濂의 후임으로 정의 현감을 맡았다가, 1823년 3월에 임기를 마치고 제주를 떠난 具齡錫(생몰연대 미상)의 작품이다. 그는 재임 중에 유생들에게 학업을 권장하기도 하였다. 1822년 3월 따뜻한 봄 날 山房山을 찾아, 그곳의 절경을 오연 절구로 짓고, 시 구절을 바위에 새겨놓았다.

작자는 1구에서 山房山을 둘러보고 온통 바위로 둘러싸인 외형적인 모습을 묘사하였다. 2구에서는 그곳 바위 동굴 안에 스님이 거처함을 자연과의 조화를 깬다고 짜증을 내었다. 3구에서는 그도 잠시 山房山의 웅장함에 도취된 듯 굴 아래로 떨어지는 물방울을 신비롭게 쳐다보았다.

현재 행정구역으로 오라리 부근은 漢拏山으로 들어가는 입구이다. 이곳에 경치가 빼어난 계곡이 있는데, 바로 ‘瀛洲十景’ 중의 한 곳인 瀛邱이다. 기암절벽이 좋아 제주를 찾은 수많은 관리들이 틈틈이 이곳을 찾아 풍류를 즐기고, 바위에 시를 새겨놓았다. 예전에는 이곳을 신선의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여겼다. 이곳 역시 제주 관련 많은 한시 작품의 소재가 되었다. 작품으로 구현된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李益泰의 <登瀛邱>, 金綴의 <登瀛邱>, 金炳弼의 <瀛邱>, 李義謙의 <登瀛邱>, 洪重徵의 <登瀛邱>, 李源達의 <登瀛邱>, 梁應祥의 <瀛邱>, 洪重徵의 <登瀛邱>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제주 관련 한시 작품이 다수 남아 있다. ‘瀛邱’는 漢拏山의 입구며, 신선계로 들어가는 길목으로 여겨지던 곳이다. 많은 시인들은 ‘瀛邱’에 대한 작품을 다수 남기고 있다.

다음의 작품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雙溪直下漢拏中 한라산에서 두 줄기 냇물 바로 내려
 會合臺前燕尾洞 대 앞에서 바로 모여 연미 마을로 흘러든다.
 岩面噴潭磨似鏡 못에 비친 바위는 갈아 놓은 거울인 듯
 石門跨壑臥如虹 돌문은 골짜기를 걸터앉아 무지개가 돌린 듯하네.

落霞殘照秋容淡 석양에 노을 내려 말끔한 가을 경치
 琪樹懸崖暮色紅 벼랑에 매달린 나무엔 저녁노을 빨갱다.
 絕境天慳應有意 빼어난 경지를 하늘이 아끼는 것은 뜻이 있으니
 淸遊此日是仙翁 오늘의 놀이로 내가 바로 신선이 된 듯하네.³⁶⁾

이시는 제주목사로 부임했던 李益泰(1633~?)가 瀛邱를 소재로 지은 작품이다. 그는 조선조의 문신이며, 자는 大裕, 전주 태생으로 본관은 延安이다. 1694년 7월에 李基夏의 후임으로 제주에 도임하고, 1696년 9월에 제주를 떠났다. 재임 중인 1694년에 演武亭, 運籌堂을 중수하였고, 1695년 봄에 文正公 宋時烈을 橘林書院에 배향한 인물이다. 그는 瀛邱에 올라 그곳의 절경을 작품으로 형상화하였다.

작자는 1구와 2구에서 신선의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인 瀛邱에 와서, 漢拏山에서 흘러내린 물이 이곳 瀛邱의 계곡으로 흘러드는 것이 마치 漢拏山의 기운이 한곳으로 모인다고 여겼다. 그리고 계곡과 어우러진 바위의 모습을 통해 신선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확신하였다. 그리고 5구와 6구에서 얼마동안 그곳에 걸터앉아 바다로 지는 반대편 석양의 모습을 인간세상의 모습인 양 관망하다가, 자신이 이제 막 신선이 된 듯이 그곳과 동화되려 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제주도를 대표하는 絶勝이며, 수호신 역할을 하는 龍頭巖은 그곳을 소재로 활용한 작품이 그 위상과 상징성에 비해 얼마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龍頭巖은 지금도 제주를 대표하는 산수지리로서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작품으로 남아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林亨秀의 <龍頭巖>, 吳泰稷의 <龍淵夜泛>, 任觀周의 <龍淵> 등 제주 관련 한시 작품이 다수 남아 있다. 이처럼 제주의 상징물이라 할 수 있는 龍頭巖은 제주를 찾은 많은 시인묵객들에 의해 형상화되었다.

36) 李益泰, <登瀛邱>.

주지하듯이 白湖 林悌(1549~1587)가 제주도 여행길에 오른 것은, 당시 濟州 牧使로 있던 부친 林翥를 만나 뵙기 위해서였다. 白湖는 대과에 급제한 직후인 그의 나이 28세로, 1577년 11월 초순에 제주도를 향하여 출발하였다. 이 여행길의 여러 체험을 통해 『南冥小乘』이라는 日記體의 紀行 詩文을 남겨 놓았다. 『南冥小乘』은 산수유기적 성격이 중심이지만 風物誌的 성격도 아울러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그러한 면의 일단을 11월 27일자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이 부분에서 제주도의 위치와 두 개의 縣 및 三鎭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³⁷⁾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하여 지정학적으로 요충지임도 아울러 밝히고 있다.³⁸⁾ 또한 토질 및 동물 분포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민간의 풍속과 특이한 語音, 해산물과 과일 등 특산품에 대해서도 언급이 미치고 있다.³⁹⁾ 그리고 그는 제주의 명소를 다녀보고, 그것에 대한 솔직한 느낌을 시화하기도 하였다.

海畔巘岈石 바닷가에 삐죽삐죽 높이 솟은 돌인데
 龍頭漫設名 용두암 이름은 부질없이 지었구나.
 洪濤日夜擊 커다란 물결이 밤낮으로 때리니
 猶作風雷聲 마치 바람과 천둥소리 같구나.⁴⁰⁾

이 시는 白湖가 제주도의 명소 중에 하나인 龍頭巖의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龍頭巖은 제주를 대표하는 곳으로 현재까지 제주의 상징적 이미지로 받아들여지는 곳이다.

작자는 전반부에서 소문이 무성한 龍頭巖의 위상을 한번 보고 실망한 듯 빼

37) 林悌, 「南冥小乘」. 島在國之正南 而漢拏山峙其中, 張左右翼如一字橫浦, 濟州一鎭在北而際海, 與頭無岳相對, 旌義縣在右翼之南, 大靜縣在右翼之南 而三鎭爲鼎足之勢, 各據北東西南三隅.

38) 林悌, 「南冥小乘」. 所蓋島間於中原倭島 而倭寇之往來中原也, 必由濟州楸子之間 則島之東西, 爲要衝而防護之緊不在南, 可乎.

39) 林悌, 「南冥小乘」. 11월 27일.

40) 2월 16일, <龍頭巖>.

죽빠죽 바닷가에 높이 솟은 돌부리에 지나지 않는 것을 승천하는 용의 이미지를 살려 龍頭巖이라고 한 것은 너무 과칭이 아니냐는 의문을 가진다. 그러나 그도 잠깐 커다란 물결이 설 새 없이 부딪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물보라와 천둥소리 같은 파도 소리가 용의 승천하는 기상을 느끼기에 충분함을 깨닫고, 거침없고 호방한 자신의 이미지로 받아들인다.

이러한 白湖의 작품은 제주와 관련한 개별적인 작품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그는 표면적으로 비록 급제 후 부친을 만나러 내방했지만, 그의 제주의 행적을 살펴보면, 순수하게 여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赴任官, 혹은 流配客으로 제주를 다녀간 사람들과는 매우 구별되는 점이다. 아직까지 白湖가 제주를 다녀가고, 제주 관련 한시 작품을 남긴 사례를 적시해서 제주 관련 한시 작품의 한 흐름으로 파악하기에는 자료와 역량이 부족하여 별도의 구분을 두지 못하였지만, 이후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될 것이다.⁴¹⁾

이처럼 제주의 상징인 漢拏山과 그 주변, 漢拏山으로 들어가는 입구였던 瀛邱, 龍頭巖, 正方瀑布를 위시한 많은 폭포들, 山房山 등은 다양한 작가들에 의해 다양한 소재로 활용되어 각각의 특유한 모습이 시로 형상화되었다.

이상에서 논의한 작품 외에도 제주 관련 한시 작품에는 제주의 다양한 산수 지리를 소재로 지은 작품이 많이 남아 있다. 직접 제주, 길목, 정의, 조천, 성산의 모습, 제주 인근의 섬, 제주도 내의 각종 산과 봉우리, 제주의 곳곳에 산재한 사찰과 암자, 제주로 들어오는 과정과 뱃길, 제주에 내린 눈과 비, 제주 계절의 변화, 제주의 계곡, 제주의 기암괴석, 선비의 문방사우, 살아 가면서의 일상, 제주의 金寧 萬丈窟을 소재로 지은 작품 등 제주 관련 다수의 한시 작품이 남아 있다. 이것들을 표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2> 소재별 분류

41) 참고로 관료나 유배객이 아니면서 제주를 내방했던 문인으로, 유배객인 아버지 金聖鐸을 끝까지 배행했던 金樂行과 제주목사였던 아버지 李源祚를 따라 내방했던 李鼎相의 경우를 들 수 있다.

| 作家 | 作品 |
|-----|------------|
| 康聖翊 | 硯 |
| 高得宗 | 歸觀濟州遇風漂海作 |
| 高永昕 | 感雪詩 |
| 高溶基 | 秋江 |
| 高益吉 | 訪書房有詩 |
| 高兆基 | 書雲巖 山莊夜雨 |
| 郭期壽 | 方巖 |
| 權近 | 耽羅 |
| 金萬希 | 蹈海 |
| 金秉旭 | 江雪 |
| 金淳生 | 怪石 |
| 金永昌 | 團扇 驟雨 喜晴 |
| 金鎔均 | 小春 |
| 金應南 | 濟州有吟 |
| 金廷彥 | 小春 |
| 金宗直 | 毛羅歌 |
| 金昌震 | 楸子島懷古 |
| 金昌鉉 | 耽羅竹枝詞 |
| 金浹 | 屏溪棹歌 十首 |
| 金滢植 | 山居 |
| 睦長欽 | 朝天 |
| 文璉生 | 春晴二首 |
| 閔粹 | 耽羅題詠 |
| 夫祐承 | 春晴 |
| 釋慧日 | 濟州 逝川庵 妙蓮寺 |
| 申癸生 | 金寧萬丈窟 |
| 佚名氏 | 島 紗羅烽 怪石 |
| 安宅承 | 怪石 雪裏山 |
| 梁甲錫 | 松岳山 |
| 梁奉洽 | 溪聲 |
| 梁聖廈 | 筆 踏田歌 |
| 吳啓默 | 葛山 地歸島 墨 |
| 吳仁煥 | 詠月 |
| 吳霑 | 夜靜海濤三萬里 |
| 吳廷賓 | 秋晴 |
| 吳周彥 | 地 |
| 吳泰稷 | 雪夜 秋興三首 |

| | |
|-----|----------------------------|
| 吳亨純 | 過旌義廢邑 |
| 劉淡 | 瀛洲 |
| 柳思瑗 | 旌義題詠 |
| 尹鳳朝 | 舟行一晝夜曉泊瀛島 自寶吉島發船向耽羅 |
| 李健 | 海望 |
| 李觀命 | 題瀛州圖 |
| 李民歲 | 耽羅 瀛洲途中 朝天 過末峴 松嶽山 浮海耽羅 海上 |
| 李逢春 | 秋水 |
| 李承憲 | 宿新豐書齋 |
| 李源祚 | 橋來路中 |
| 李元鎮 | 方巖 同李繡衣登高 登高 |
| 李昶羲 | 留新豐戀鄉而吟 |
| 李漢雨 | 雪夜 待舟 題秋史先生壽星草堂 |
| 李海朝 | 城山 牛島 |
| 任觀周 | 蒼川 |
| 林悌 | 旌義題詠 |
| 張昶奎 | 江天暮雪 |
| 鄭岏 | 朝天 |
| 鄭晚錫 | 馬羅島 |
| 崔溥 | 耽羅詞 |
| 韓昌裕 | 玉溪 玉溪逍遙 |

2. 歷史와 古蹟

제주도에는 고대국가 시절 이곳을 배경으로 세 신인이 태어나, 국가의 기틀을 다졌다는 탐라국 개국 신화가 엄연히 존재한다. 따라서 그것을 바탕으로 탐라의 역사가 이해되다 보니, 이러한 것들이 시의 소재로 적극 활용되었다. 그리고 조선조 들어, 제주가 유배지로서의 지리적 잇점을 갖고 있어, 지속적으로 유배객들이 들고 났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레 유배의 역사가 형성되고, 이것은 시의 소재가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제주 관련 한시 작품을 남긴 대표적인 작가 군은 제주로 부임했던 赴任官과 流配客들이다. 赴任官들은 자신이 주로 머물렀던 官衙, 公廨, 防護所들을 자연스럽게 작품의 소재로 활용하였다. 유배객 또한 관청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 마찬가지로 이러한 소재를 적극 활용하여 창작활동을 한 바 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三姓穴은 탐라국 개국 설화의 현장으로, 제주도의 역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닌 장소이다. 따라서 제주 관련 한시 작품을 남긴 작자들은 三姓穴을 소재로 활용하여 무엇보다 창작활동을 많이 하였다. 金聲久의 <毛興穴次金淸陰韻>, 李源祚의 <三姓穴>, 金聲久의 <毛興穴次金淸陰韻>, 南九明의 <補毛羅歌 并序>, <重補毛羅歌>, <又補毛羅歌>, 高性謙의 <三姓穴>, 崔元淳의 <題三姓祠崇報堂>, 夫性準의 <三姓祠>, 尹鳳朝의 <毛興穴次淸陰先生韻> 등과 같이 제주도의 설화가 남긴 현장을 역사적 소재로 부각시켜 많이 다루었다. 이처럼 탐라 역사의 상징인 三姓穴은 제주 관련 한시 작품을 남긴 많은 시인들에 의해 형상화되었다.

전술한 것처럼 과거급제 후 부친을 만나 뵙기 위해 제주를 내방했던 白湖林梯(1549~1587)는 제주의 여러 곳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三姓穴을 찾았는데, 그곳의 느낌을 다음의 시를 통해 드러내었다.

昔有三異人 옛날에 세 분 이인이 계셨는데
 湧出於茲島 이 섬에서 솟아서 나오셨네.
 古穴餘鼎分 옛날의 구멍은 솔밭처럼 나뉘어졌는데
 埋沒生春草 과문혀 없어지고 봄풀만이 자라네.
 (缺)
 奇蹤問未能 기이한 발자취 묻지도 다 못하여
 日暮牛羊道 우양이 가는 길에 해가 저무네.⁴²⁾

주지하듯이 三姓穴은 탐라국의 역사를 대변해주는 상징적인 장소이다. 고대 국가 시절 한 왕조의 기운이 모아져 금방이라도 몽클몽클 솟구칠 것 같아, 이곳에서 탐라국을 열었던 三乙那의 모습을 상상하기에 충분하다. 그런데 세월 앞에 봄풀만이 무성한 모습에서 얼마간 무상함을 드러내었다. 길재 선생이 ‘산천은 의구하되 인결은 간 데 없다’며 몰락한 고려왕조의 모습을 돌아보며 안타까워했던 것처럼, 白湖 역시 역사의 뒀안길에서 비상감이 온 몸으로 파고들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후에도 제주도에 대한 문학적 소재로 자주 등장하는 것이 바로 三乙那다. 耳溪 洪良浩(1724~1802)도 三乙那를 소재로 記文을 남기기도 하거니와,⁴³⁾ 조선조 후기에 이르기까지 三乙那는 주요한 문학적 소재가 되었던 것이다.

주지하듯이 조선조 이후 제주의 역사는 유배로 점철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의 유배지로 전락하였다. 따라서 유배객 중 제주의 五賢으로 숭앙받고 있는 金淨, 鄭蘊, 宋時烈을 배향된 橘林書院을 찾고, 느낌을 시로 남긴 작품들이 있는데, 李海朝의 <橘林堂>, <冲庵書院>과 尹鳳朝의 <謁橘林書院感五先生舊事五首> 등 제주 관련 한시 작품을 다수 남기고 있다. 이처럼 조선시대 들어 제주도가 유배지로 각광받으면서 제주에 유배 왔던 유

42) 2월 16일, <毛興穴>.

43) 진재교, 『이조 후기 한시의 사회사』, 제3부 2장 <이계(耳溪) 홍양호론(洪良浩論)>, 소명출판, 2001.

배객들의 흔적이 곳곳에 산재하였는데, 제주를 찾은 문인들에 의해 작품의 소재로 활용되었다.

白湖의 인생을 돌아 볼 때, 그는 1577년 알성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예조정랑 겸 지제교를 지내다가, 동서 양당의 싸움을 개탄하고, 명산을 찾아다니며 짧은 여생을 마쳤다. 봉건적 권위에 반항했던 인간으로서 자유분방한 인생 자세를 견지했으며, 시문을 통해서 그 만의 낭만성을 나타내려 하였다.

다음은 그가 冲庵 선생의 謫居地를 찾아가서 지은 것이다.

痛哭冲菴老 충암 선생의 묘전에 통곡한다!
平生學孔周 평생토록 공자 주공을 공부하였네.
經綸空消志 세상을 건지려는 그 뜻이 헛되어
炎瘴竟孤囚 무더운 곳에 외로운 죄수 되었던가!
故國魂千里 혼백은 멀리 고향으로 갔으나
荒城迹一丘 황폐한 성에 한 둔덕 흔적이 남았구나.
賢侯新廟貌 어진 원이 새로 세운 사당에
遠客此來遊 멀리서 온 나그네 와서 노니네.⁴⁴⁾

12월 9일 冲庵 金淨이 귀양 와 살던 옛터가 매우 경치가 좋다는 말을 듣고 그곳을 둘러보고 지은 오언 율시이다. 冲庵은 1519년 기묘사화 때 조광조 등과 함께 투옥되었다가 금산에 장배 되고, 다시 제주에 안치되었으며, 얼마 있다가 사사되었다. 白湖는 冲庵이 평생토록 주공과 공자의 가르침을 공부하여 세상을 건질 꿈을 키웠으나, 오히려 그것이 빌미가 되어 죄수의 몸으로 고향 멀리 절해고도에서 세상을 떠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애도의 시를 지었다.

작자는 제주에 도착하여, 제주를 여행함에 있어, 冲庵의 묘소에 참배하는 것으로 여정을 시작하고 있다. 이상한 일이다. 즐거운 마음으로 어려운 뱃길을

44) 12월 19일, <五言長律>.

마다하지 않고, 건너온 제주에서 그가 처음 찾은 곳은 적막한 한 귀양인의 묘소이다. 물론 冲庵의 生平은 당시 사람이라면 누구나 본받고 싶은 특이한 삶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얼마간 이해도 되지만, 일반인들이 여행하는 과정과 비교할 때 너무나 다른 모습이다. 나아가 白湖가 경건히 참배하는 모습에서 비장미까지 느껴진다. 그렇다면 白湖의 제주 여행은 들뜬 나그네의 번잡한 행차라기보다, 그간의 삶을 돌아보고, 세속을 버리고, 앞으로의 자연에 묻힐 삶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잡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白湖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친 조부 林鵬(1486-?)이 조광조의 신원을 위해 자진 투옥되려 했던 사실을 계승하려고, 조광조와 뜻을 같이하다가 이곳에 유배되어, 결국 사사된 冲庵의 묘소에 참배했던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제주에 온 시인들은 그들에 눈에 비친 모든 것들을 소재로 시를 지었다. 그 중에서 관리들이 늘 머물면서 집무를 보고, 틈을 타서 쉬는 관아의 모든 公廨들은 좋은 소재가 되었다. 대표적인 公廨로는 東軒客館, 尊敬閣, 延曦閣, 弘化閣, 觀德亭, 望京樓, 友蓮堂, 愛梅軒, 延教亭, 拱辰樓, 演武亭, 運籌堂, 鄉社堂, 日觀軒, 倚斗亭, 靈泉館, 瀛安館, 潤經堂, 明倫堂을 들 수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수의 작품을 남기고 있는 公廨로는 望京樓가 있다. 이곳 역시 많은 문인들이 소재로 활용하여 작품을 남겼다. 현재까지 남아 있는 작품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3> 소재별 분류

| 作家 | 作品 |
|-----|-----|
| 金永綬 | 望京樓 |
| 羅寅永 | 望京樓 |
| 睦仁培 | 望京樓 |
| 朴長復 | 望京樓 |
| 白泳鎭 | 望京樓 |

| | |
|--------|-----------|
| 安慶運 | 望京樓 |
| 梁憲洙 | 望京樓 |
| 李健 | 上望京樓 |
| 李東(秉)淵 | 望京樓 |
| 李元鎭 | 望京樓 |
| 李海朝 | 望京樓與主牧設小酌 |
| 任承烈 | 望京樓 |
| 鄭岐源 | 望京樓 |
| 趙羲純 | 望京樓 |
| 許濯 | 望京樓 |
| 洪重徵 | 望京樓 |

이처럼 제주를 찾았던 많은 시인들은 이곳에 올라 떠나오기 전을 회상하고 돌아갈 날을 기약하며 이곳을 작품으로 형상화하였다.

다음의 작품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千里離家物外遊 멀리 집을 떠나 낯선 땅을 노니는데
 關東餘興又瀛洲 관동의 흥취 끝에 다시 영주여!
 耽羅古跡三神穴 탐라시대 고적은 삼성혈이 남아있고
 橘柚風光百尺樓 귤림의 풍광 속에 높직한 다락이로다.
 滄海虞憂添夜杵 넓은 바다의 근심거리는 방아소리가 더해주고
 故鄉消息問歸舟 고향의 소식은 돌아오는 배에 묻는다.
 回頭北闕知何處 머리를 돌려보면 임금님 궁궐은 어디인지
 未覺孤雲望裡浮 무심히 바라보는 외로운 구름 속이겠지.⁴⁵⁾

이 시는 경력 미상인 許濯이 지은 시이다. 시의 소재인 望京樓는 그야말로 제주에 부임한 관리들이 틈만 나면 올라가, 북쪽을 바라보며,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드러내고, 가족을 그리던 장소이다. 喚風亭이 제주를 떠나기 직전에 머

45) 許濯, <望京樓>.

물며 바람을 살피던 곳으로, 제주를 다녀간 많은 사람들이 빨리 돌아가고픈 심정을 드러내는 소재로 사용했다면, 望京樓는 재임 중에 틈틈이 올라 자신의 심회를 드러냈던 장소이다.

작자는 우선 望京樓에 올라 제주를 소개하였다. 제주 고대 역사의 상징인 삼성혈과 제주만의 산물인 꿀을 가지고 제주의 특성을 형상화하더니, 저물녘 거세지는 파도 소리를 방아소리로 형용하고, 항구를 드나드는 배의 모습을 통해 고향을 그리워하였다. 그리고 구름에 가려진 저 먼 곳이 임금님이 계신 대궐이겠지 하는 상상력으로 君恩을 형상화하였다.

그리고 역시 비슷하게 작품의 소재로 활용된 公廨로 觀德亭을 들 수 있다. 현재까지 남아 있는 작품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4> 소재별 분류

| 作家 | 作品 |
|-----|------------|
| 金錫哲 | 觀德亭 |
| 金聲久 | 次濟州觀德亭韻 |
| 金壽翼 | 觀德亭 |
| 金綴 | 觀德亭 |
| 閔暉 | 觀德亭 |
| 沈演 | 觀德亭 |
| 沈連源 | 觀德亭 |
| 李民成 | 觀德亭 |
| 李約束 | 題濟州觀德亭 觀德亭 |
| 李元鎭 | 觀德亭 |
| 李希雍 | 觀德亭 |
| 鄭麟趾 | 觀德亭 |
| 趙士秀 | 觀德亭 |

이처럼 지방 관아의 대표적인 公廨였던 觀德亭은 제주를 찾았던 많은 시인들에 의해 작품으로 형상화되었다.

다음의 작품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海國千年百萬兵 바다 속 나라는 천년토록 백만의 군사
 亭前觀德亦風情 정자 앞서 덕을 보는 것도 멋이로구나.
 山橫刀岳穿空碧 한라산은 비스듬히 푸른 하늘을 뚫었고
 泉出嘉羅徹底清 가락 천에 샘이 솟아 밀이 보여 말끔하네.
 朝暮烟中城四面 사면을 두룬 성엔 아침저녁 연기 자욱
 古今人裏角三聲 군사들 속에서는 예나 이제나 고각소리.
 將軍申令分明在 장군의 엄한 명령 분명히 있어
 誰道轅門事不平 군문에 공평치 못한 일 있다고 누가 말하랴?⁴⁶⁾

이 시는 제주목사로 부임하였던 閔暉(생몰연대 미상)가 관덕정을 소재로 지은 작품이다. 그는 1479년 문과 별시에 병과로 급제하여 벼슬이 대사헌에 이르렀고, 행정을 함에 청렴하고 검소하였다. 1498년 2월 정인운의 후임으로 제주에 도입하고, 1500년 8월에 上護軍으로 제주를 떠나기까지 청렴하고 공정하게 목민관으로서의 임무를 완수하였다.

작자는 1연에서 제일 먼저 변방의 병사들이 조련에 여념이 없는 모습을 통해 觀德亭의 본래의 기능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2연에서 조금 가라앉은 듯 조용히 제주의 모습을 묘사하고, 또 3연과 4연에서 다시 군사들의 활기찬 병영의 모습을 드러내고 지방관의 모습을 엄정하게 형상화하였다.

주지하듯이 지방관은 지방 행정을 다스리는 것은 물론 군사적 임무도 동시에 수행하였다. 특히 사방이 바다로 둘러 있어 왜적의 침입이 빈번하고, 또한 중앙 정부와 교통하기 어려웠고, 전라감영과도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자체적인 군사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던 제주 목사에게 군사를 훈련시키고 조련하는 것은 매우 일상적인 일이었다. 그리고 이 시의 소재인 觀德亭의 용도는 물론 지방관이 자신의 덕을 살피는 일상적인 의미도 있지만, 군사들을 모아 연

46) 閔暉, <觀德亭>.

회를 베풀어 그들을 위로하고, 그 자리에서 활쏘기 대회를 열기도 하였던 역사적인 장소였다. 작자는 이러한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 觀德亭을 소재로 시를 지었다.

조선 후기 들어 제주목사가 모든 정사를 맡아 보았던 곳이 延曦閣이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곳을 소재로 작품 활동이 이루어졌다. 현재까지 남아 있는 작품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5> 소재별 분류

| 作家 | 作品 |
|-----|-----|
| 宋龜浩 | 延曦閣 |
| 沈東臣 | 延曦閣 |
| 沈樂洙 | 延曦閣 |
| 沈演 | 延曦閣 |
| 沈英錫 | 延曦閣 |
| 尹深 | 延曦閣 |
| 李養鼎 | 延曦閣 |
| 李元鎭 | 延曦閣 |
| 鄭曙 | 延曦閣 |
| 鄭必寧 | 延曦閣 |
| 崔啓翁 | 延曦閣 |

이처럼 제주의 모든 정사가 처리되던 역사적인 장소 延曦閣은 제주를 찾은 많은 시인들에 의해 작품으로 형상화되었다.

다음의 작품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耽羅節制大將軍 탐라의 절제사 대장군이
 八月鳴弓瘴海雲 바다 바람에 팔월에도 활을 쏜네.
 痛飲百杯仍百中 일백 잔 마시고도 백 번 쏘아 모두 맞히니
 鯨波不動日西曛 넓은 바다 물결 고요하고 해가 기운다.

九十韶光病裡過 봄 석 달 따뜻한 날을 병으로 보내었고
 黃簾深鎖使君家 사또의 방에는 황림을 깊이 드리웠네.
 忽驚佳節當今夕 오늘이 좋은 명절임에 문득 놀라서
 強把閑愁坐晚衙 억지로 괜한 시름에 저물 녘 관아에 앉았다.⁴⁷⁾

이 시는 제주목사로 부임했던 沈演(1587~1646)이 정무를 보던 延曦閣을 소재로 지은 작품이다. 그는 1624년에 李适의 난이 일어나자 인조를 공주까지 호종하여 내시교관이 되었다. 정묘호란 때에 다시 왕을 모시고 강화에 들어가 조지서별제 의금부 도사를 지냈으며, 1633년 광산 현감으로 부임, 목민관의 일에 충실하여 주로 승격시켰다. 1638년 제주목사로 부임하여 牧民官의 일에 충실하여 후대의 牧民官의 모범이 되었다. 당시 유풍이 오랜 세월 전해져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인물이다.

작자는 첫 번째 시에서 牧民官의 일상을 고요한 제주의 모습으로 형상화하고, 이어 두 번째 시에서 오랜 병중에도 자신의 소임을 깨닫고, 괜한 시름에도 몸을 이끌고 관아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지방관의 소임을 인식하였다.

제주의 객관에는 제주 목의 瀛洲館, 정의 현의 瀛陽館, 대정 현의 瀛安館을 들 수 있다. 현재까지 남아 있는 작품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6> 소재별 분류

| 作家 | 作品 |
|-----|--------------|
| 金大興 | 題瀛軒(辛亥因回祿重構) |
| 金應南 | 瀛安館 |
| 宋斗玉 | 題東軒 |
| 沈演 | 瀛安館 |
| 李慶億 | 客館東軒(瀛洲館) |
| 李亮載 | 瀛安館 |

47) 沈演, <延曦閣(二首)>.

| | |
|-----|-----------------------------------|
| 李民晟 | 兩餘題旌義館壁 |
| 李約東 | 題旌義靈泉館 靈泉館 |
| 李元鎭 | 瀛安館 |
| 李翊漢 | 瀛安館 |
| 李海朝 | 濟州客舍寫懷 旌義客舍偶題 旌義客舍遇雪 瀛洲客館 客館偶吟 |
| 林亨秀 | 瀛陽館(旌義客舍) |

이처럼 제주를 찾았던 시인이라면 누구라도 머물렀던 제주의 역사적인 현장인 客舍들은 작품으로 형상화되었다.

다음에 몇몇 문인들의 작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形勝三分邑 땅의 형국이 세 고을로 나누어졌는데
 城池一島東 섬의 동쪽에 성지를 쌓았네.
 方音驚頓別 사투리는 너무도 달라서 놀라지만
 民俗喜有同 백성들의 풍속은 육지와 같아 반갑다.
 日落林鴉定 해 떨어져 까마귀 떼도 제자리 찾으니
 天寒夜戍空 추운 날씨에 밤 수자리는 비어 있다.
 坐看蒼海月 앉아서 바라보니 푸른 바다의 달이
 來照酒樽中 술잔 속으로 슬며시 비쳐온다.⁴⁸⁾

이 시 역시 제주목사로 부임했던 林亨秀 (1504~1547)가 정의현의 객관인 瀛陽館을 소재로 지은 작품이다. 그는 1545년 乙巳土禍 때 제주 목사로 쫓겨났다가 과면되기도 하였다. 결국 1547년에 良才驛 壁書 사건이 일어나자, 小尹 尹元衡에게 大尹 尹任의 일파로 몰려 絶島安置된 뒤 곧 사사된 인물이다.

작자는 서두에서 셋으로 나뉜 전통적인 제주의 모습을 드러내더니, 알아들을 수 없는 사투리에서 얼마간 이질감도 있었지만, 육지와 비슷한 제주의 풍

48) 林亨秀, <瀛陽館(旌義客舍)>.

속을 통해 국토의 남단임을 인식하였다. 낮 동안 설쳐대던 갈매기 때도 잠잠한 시각, 얼마간 수자리 서는 병사들의 한가한 모습 속에서도 변방의 객관에 앉아 마음을 달래며,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담담하게 형상화하였다. 작품 내에서 남방의 중요한 군사적인 기지로서의 제주는 외적의 침입과 그 방어로 인한 역사가 있는 곳이다. 따라서 이러한 군사들의 모습을 형상화하는 것은 곧 제주라는 지역의 역사적 특수성과 연관된 것이다.

다음은 대정현의 객관인 瀛安館을 노래한 작품이다.

瀛海漫天未見涯 신선의 바다는 하늘에 닿아 끝을 볼 수 없고
蓬山東去路非賒 봉래산 동쪽 가는 길은 멀지 않네.
瑤臺笙鶴月明夜 요대에는 피리 부는 학 달 밝은 밤에
開盡碧桃天樹花 많은 나무에 벽도화가 피어 있는 듯하네.

孤島蒼茫海一涯 외로운 섬은 아득한 바닷가에서
東風回首故園賒 동풍에 아득히 먼 고향으로 머리를 돌리네.
遙知漢北春猶早 한강 북쪽에는 봄이 아직 일러
窓外寒梅未着花 창밖에 매화꽃은 아직 피지 않았겠지!

雁書昨夜下天涯 지난 밤 고향 편지가 하늘 끝에 떨어지니
千里雲濤望不賒 머나먼 구름 파도를 바라보니 멀지 않네.
白首青春朝北闕 백수 청춘에 궁궐에 들어갔더니
更堪扶病看鶯花 병을 안은 관리가 되어 앵화를 보네.⁴⁹⁾

이 시는 제주목사로 부임하였던 金應南(1546~1598)이 대정현의 객관인 瀛安館을 소재로 지은 세 수의 작품이다. 그는 1583년 동부승지로 병조판서 李珥

49) 金應南, <瀛安館>.

를 논핵한 三司의 宋應漑, 許錡 등이 도리어 유배당할 때, 그들과 일당이라는 혐의를 받고 崔汝霖의 후임으로 제주 목사로 좌천되었다 그는 이후 牧民官의 일에 충실하여 1585년 우승지로 승차되어 4월에 제주를 떠나니, 도민들이 追思碑를 세워주었던 인물이다.

작자는 첫 번째 시에서 瀛安館의 모습을 선향으로 묘사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시에서 고향을 그리워하였다. 세 번째 시 마지막 구에서 대궐에서 지내던 일을 회상하고 처연한 심정을 이곳 객관에 풀어놓았다.

주지하듯이 주나라 靈王의 태자인 王子喬는 직간하다가 폐위되어 서인이 되었다. 작자는 王子喬가 이후 笙簧을 불어 봉황의 소리를 내며, 伊水와 洛水 사이에서 노닐면서 흰 학을 타고 다니며 緱氏山 꼭대기에서 살았다는 고사인 笙鶴이라는 시어를 활용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주나라 穆王이 西王母와 놀던 瑤臺를 시어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역사적인 고사를 인용하여 제주의 역사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제주 관아의 부속 公廨인 弘化閣 역시 시의 소재로 활용되었는데, 崔海山の <弘化閣>, 金泰廷의 <弘化閣>, 李約東의 <次宣慰使鄭廣元題弘化閣韻>, <弘化閣> 등 제주 관련 한시 작품이 다수 남아 있다. 이처럼 弘化閣 역시 제주를 찾은 많은 문인들에 의해 작품으로 형상화되었다.

다음의 작품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 |
|---------|---------------------------------|
| 曾聞海上岳無頭 | 일찍이 바다 위에 머리 없는 산이 있다고 들었는데 |
| 好枕青山海帶州 | 푸른 산을 베개 삼고 바다로 떠 두른 고을일세. |
| 香透疎簾知近橘 | 향기가 성긴 발로 스며들어 굴 받이 가까이 있음을 알겠고 |
| 風生虛閣覺今秋 | 빈 누각에 바람이 스쳐가니 가을임을 알겠네. |
| 伊誰不肯當時樂 | 누군들 이때의 행락을 즐겨하지 않겠는가마는 |
| 却恐多添異日愁 | 문득 훗날 근심이 많이 겹쳐질 것을 두려워하네. |
| 細柳甘棠無箇事 | 세류영과 감당 같이 백성을 위하지 않았는데도 |

傍人錯道武陵侯 옆 사람들은 잘못 알고 무릉후라고 칭하네.⁵⁰⁾

이 시는 鮮初의 문인인 李約東(1416~1493)이 관아의 弘化閣을 소재로 지은 작품이다. 그는 1470년 제주 목사에 발탁되어, 관아 吏屬들의 부정을 단속하고, 민폐를 근절 공물의 수량을 감하여, 백성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 목민관의 일에 충실하였다. 제주 목사로 있다가 떠날 때 가지고 있던 채찍도 그곳의 물건이라 하여 두고 오니, 후에 도민들이 채찍을 그려 그의 청렴함을 기념했으며, 경사에도 밝았고 金宗直과도 교유가 두터웠던 인물이다.

작자는 시의 전반부에서 한라산과 곶을 통해 제주의 이국적인 모습을 묘사하였다. 그리고 한나라의 周亞父가 細柳에 진을 쳤을 때, 군영의 규율이 엄격하여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던 일에 유래한 고사인 細柳營의 고사로 제주 목사의 일을 인식하기도 하였다. 또한 주나라 召公 奭이 백성을 위하여 일하다가 팔배나무 밑에서 조금 쉬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를 경애한 나머지 그 나무를 건드리지도 자르지도 않았다는 甘棠의 고사로 목민관으로서의 임무를 인식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무릉도원을 보았던 어부가 그 고을 태수에게 그 말을 하자, 사람을 시켜 그 곳을 알아오게 한 태수를 뜻하는 武陵侯라는 시어를 가지고 자신의 포부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작자들은 ‘愛梅軒’ 또한 관심을 두고 이를 적지 않게 창작한 바 있다. 직접 愛梅軒을 소재로 지은 작품으로는 李元鎭의 <愛梅軒>, 李翊漢의 <愛梅軒>, 金泰廷의 <愛梅軒> 등 제주 관련 한시 작품이 다수 남아 있다. 이처럼 愛梅軒 역시 남아 있는 작품이 적지만 제주를 찾은 문인들에 의해 작품으로 형상화되었다.

다음의 작품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日日孤襟向北開 날마다 북쪽을 향해 외로운 마음을 펼쳐 보는데

50) 李約東, <弘化閣>.

五雲何處望蓬萊 오색구름 자욱하니 어느 곳이 봉래산인지!
 玉京消息春來少 서울 소식은 봄이 들면서 적어지고
 惟有寒潮寂寞回 싸늘한 파도 소리만 적막하게 들려올 뿐이다.⁵¹⁾

이 시는 1710년에 제주 목사로 부임하였다가, 이듬해 나주 목사를 거친 이후 환달했던 李翊漢(1659~?)이 愛梅軒을 배경으로 지은 작품이다.

이 시의 소재인 愛梅軒은 弘化閣 동쪽에 있던 창건 연대 미상인 건물이다. 작자는 도가에서 말하는 천제가 살고 있는 곳인 玉京이란 시어를 임금이 살고 있는 곳으로 활용하여,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애절하게 표현하고 있다.

작자는 서울로 돌아가고픈 심정을 그대로 드러내었는데, 답장 없는 기약 없음에 낙담하고 있다. 그러다가 가느다란 빛조차도 세월이 지나면서 적막한 파도소리에 묻혀버린다고 탄식하였다.

‘拱辰樓’와 ‘日觀軒’도 작품이 소재가 되었는데, 李元鎮의 <拱辰樓>, 申纘의 <拱辰亭>, 南涑의 <日觀軒>, 李羽晉의 <日觀軒> 등 제주 관련 한시 작품이 다수 남아 있다. 이처럼 남아 있는 작품이 다른 公廨들에 비해 적은 수이지만 제주를 찾은 문인들에 의해 작품으로 형상화되었다.

다음의 작품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瀛洲山出海之東 바다의 동쪽에 영주산이 빼어나 있음은
 天地空虛積氣籠 천지의 공허한 곳 기운을 쌓아 막으려 함인지.
 浩浩無邊水波巨 끝없이 넓고 넓은 바닷물이 저와 같이 크니
 盈盈不泄是誰功 담고 담아도 새지 않음은 누구의 공덕인지.
 魚龍莫測千尋窟 천 길이나 깊은 물 속 어룡은 헤아릴 수 없고
 鴻鵠能騰萬里風 홍곡이 만 리를 바람 타고 나는 곳.
 別界烟霞新構屹 별천지의 경치를 찾아 우뚝 새 집을 세우고

51) 李翊漢, <愛梅軒>.

憑欄北望彩雲紅 난간을 의지하여 북쪽을 바라보니 상서로운 구름이 떠있네.⁵²⁾

銅魚低壓六鰲巔 동어가 물을 뿜어 여섯 마리 자라가 떠받쳤던 산을 눌러버린

滄海迢迢夢日邊 까마득한 푸른 바다 임금계신 곳 꿈꾸네.

九月園霜催橘柚 구월이라 굴 밭의 굴유에는 서리를 재촉하고

三時山霧降神仙 세 계절 안개 낀 한라산에 신선이 내려오는 듯하네.

暝生每喜平安火 저녁에는 평안한 봉연불이 올라 매양 기쁘고

風起遍愁供奉船 바람이 일면 조공 바치러 가는 배가 근심되지만.

寄語洛城多少子 서울에 있는 여러분들께 기별할 말은

迷津何處不蠻烟 나루터를 잃은 사람에게는 어느 곳인들 남쪽 풍광이 아니겠느냐고!⁵³⁾

앞의 시는 제주 향교의 교수로 있는 동안, 여러 公廡의 기문을 남긴 申纘(생물연대 미상)이 拱辰樓를 소재로 지은 작품이다. 拱辰亭은 제주성 北水門의 문루이다. 효종 1651년에 목사 李元鎭이 창건하고, 1807년에 목사 韓鼎運이 중수한 곳으로 역사적인 유래가 있는 현장이다.

뒤의 시는 1781년 7월 宋重鉉의 후임으로 정의 현감의 직분을 맡았다가, 같은 해 12월 지평을 제수 받아 떠난 李羽晉(1741~?)이 日觀軒을 소재로 지은 작품이다. 뒤의 시에서 작자는 은나라 때에 만든 물시계에 금으로 용의 입을 만들어 붙여, 물을 토하게 한 데서 유래된 銅龍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물을 토해내는 기구인 銅魚를 소재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발해의 동쪽 머나먼 곳에 큰물이 있고, 그 가운데 岱輿, 圓嶠, 方壺, 瀛洲, 蓬萊 다섯 산을 자라가 지고 있다는 뜻인 六鰲라는 시어를 기억해 내기도 하였다.

두 작품의 작자들은 한결같이 시의 전반부를 통해 제주의 풍광을 묘사하고 물산을 소개하고 있지만 그러한 풍광 속에는 역사적인 과거가 중첩되어 있다.

52) 申纘, <拱辰亭>.

53) 李羽晉, <日觀軒>.

제주 관아의 公廨 중에 시적 소재가 되었던 것으로 七星臺도 있었다. 七星臺를 소재로 지은 작품으로, 金 倣의 <月臺七星圖>, 李漢雨의 <楮旨七星屏> 등 제주 관련 한시 작품이 다수 남아 있다. 이처럼 七星臺 역시 지극히 적은 수의 작품이 남아 있지만 시로 형상화되었다.

다음의 작품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故都遺跡日荒涼 옛 도읍지의 유적이 날로 황량하여진 것은
着處人爲搃毀傷 사람들 때문에 모두 허물어졌네.
往復平坡昭一理 있었다가 없었다 하는 것 한 가지 이치이니
滿城星月復先光 성 안에 있는 칠성도가 다시 빛 불 날 있으리라!⁵⁴⁾

이 시는 제주목사로 부임했던 金 倣 (1670~1737)이 七星臺를 소재로 지은 작품이다. 그는 제주 목사로 재임 중에 良役의 여러 가지 폐단을 개선하기에 힘쓰는 등 牧民官으로서의 치적을 많이 남겼던 인물이다.

작자는 1구에서 역사적으로 도읍지였던 이곳에서 얼마간의 무상감을 느낀다. 지난날의 역사적인 七星臺에 흔적이 자취조차 가물가물해졌기 때문이다. 月臺七星圖는 나라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기 위하여 북두칠성 모양으로 일곱 군데에 단을 쌓았다고 하여 七星臺라 불렀던 역사적인 장소이다. 『耽羅誌』 古跡條에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七星圖는 州城내에 있는데 석축의 자취가 있다. 三姓이 처음 나와서 탐라를 삼도로 나누어 차지하고, 북두성 모양을 본떠서 축대를 쌓고 나누어 여기에 살았으며, 따라서 七星圖라 불렀다.⁵⁵⁾

54) 金 倣 <月臺七星圖>.

55) 이원진, 『耽羅誌』 <古跡條>, 濟州邑內, 有石築舊址七介所, 高粱夫三乙那, 分點一二三徒, 倣北斗形, 築臺分居故 大村城內云.

옛날에는 州城내의 일곱 곳에 石築舊址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 중심지에 七星洞이란 지명만이 남아 있다. 작자는 바로 이러한 과거의 역사적 흔적이 자취도 없이 사라진데 대해 매우 안타까움을 드러냈던 것이다. 그러나 후반부에 가면 이내 이치에 대한 깨달음으로 달관된 심정을 드러내었다.

이외에도 제주 관아에 속한 公廨로 喚風亭이 있다. 이곳을 소재로 지은 작품으로 金成鐸의 <次濟州喚風亭板上韻>, 李海朝의 <喚風亭待風>, 李起渙의 <禾北喚風亭遇雪> 등이 있고, 運籌堂을 소재로 지은 작품으로 李元鎮의 <運籌堂>, 高永昕의 <運籌堂>, 金亮洙의 <金謫士及兵禮兩裨會飲運籌堂> 등이 있다. 演武亭을 소재로 지은 작품으로 李元鎮의 <演武亭>, 李源達의 <演武亭> 등이 있으며, 延教亭을 소재로 지은 작품은 金 儼의 <延教亭>, 望洋亭을 소재로 지은 尹鳳朝의 <望洋亭觀海四首> 등이 있다. 蓮花亭을 소재로 지은 작품은 李民成 <過蓮花亭>이 있다. 潤經堂을 소재로 지은 작품으로 南壽賢 <潤經堂>, 宋斗玉 <潤經堂設宴老人> 등이 있다. 友蓮堂을 소재로 지은 작품은 李元鎮의 <友蓮堂>이 있다. 이처럼 제주의 많은 公廨들은 제주를 찾았던 많은 시인들에 의해 다양한 모습으로 형상화되었다.

제주에 산재한 防護所는 모두 아홉 곳이다. 이들은 제주의 외적 방어와 관련한 역사적인 장소들이다. 禾北鎮, 朝天所, 戀北亭, 別防鎮, 首山城, 西歸所, 遮歸鎮, 涯月鎮, 明月鎮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역사적인 장소들이 역시 제주 관련 한시 작품의 소재로 활용되었다.

그 중에서 朝天館과 그 곁에 세워진 戀北亭을 소재로 지은 작품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7> 소재별 분류

| 作家 | 作品 |
|-----|------|
| 愼尙欽 | 題戀北亭 |

| | |
|-----|----------------------|
| 李健 | 上戀北亭 月夜登戀北亭次板上韻 上朝天館 |
| 李民成 | 戀北亭次金御史叔度韻 題朝天館 |
| 李選 | 戀北亭 |
| 李元鎮 | 朝天 |
| 李海朝 | 朝天館 朝天館暮坐 |
| 鄭實 | 戀北亭 |
| 趙誠立 | 戀北亭 |

이처럼 제주로 들어오고 나가는 관문이었던 朝天館은 戀北亭과 더불어 제주 관련 한시 작품을 남긴 많은 시인들에 의해 작품으로 형상화되었다.

다음의 작품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路入瀛洲兩腋輕 영주로 들어오니 양쪽 겨드랑이가 가벼워
 冷然笙鶴引三清 생학이 시원스럽게 삼청의 경지로 인도하는 듯.
 回首劫灰飛已盡 머리를 돌려 보니 겹회는 멀리 날아가 버렸고
 碧桃花下訪安生 벽도화 꽃 밑으로 안기생을 찾아가네.⁵⁶⁾

이 시는 1604년에 救荒御使로 제주를 다녀간 趙誠立(1568~1638)이 戀北亭을 배경으로 지은 작품이다.

작자는 1구에서 제주의 길목인 朝天館에 도착하여, 처음 마주 대한 제주의 이국적인 모습을 마치 신선의 세계에 들어온 양 받아들였다. 그는 작품에서 笙鶴, 三清, 碧桃花와 같은 신선의 세계, 혹은 도가와 관련된 시어를 구사하였다. 그 중에서 安生은 진나라 때의 도사인데, 장수하였으므로 百歲翁 혹은 千歲翁이라 부르기도 한다. 진시황이 東遊하였을 때 만나 도가의 설을 이야기하였고, 신선이 되어 봉래산으로 들어갔다는 安期生을 가리킨다.

別防所는 현재 행정구역으로 구좌면에 설치된 防護所로 이곳 역시 작품의 소재로 활용되었다. 李元鎮의 <別防所>, 金 倣의 <別防鎮>, 李海朝의 <別方鎮

56) 趙誠立, <戀北亭 (朝天防護所)>.

樓夜坐>, 沈演의 <別防所> 등이 그것으로 이처럼 제주의 역사와 연관된 한시 작품이 다수 남아 있다. 제주를 찾은 많은 시인들에 의해 작품으로 형상화되었다.

다음의 작품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絶島三秋後 멀리 떨어진 섬에 가을 지난 뒤
孤城十月中 외로운 성엔 시월 달 접어드네.
烟沈殘日暮 안개가 끼면서 날도 저물고
霜重衆山空 서리가 거둑 내려 여러 산이 공허하네.
行役身將老 행역에 몸은 점점 늙어가고
留連歲又窮 떠나지 못한 신세에 또 한해가 가네.
寒潮打荒堞 싸늘한 조수가 성 머리를 치는데
窓外正天風 창밖에는 북풍이 부네.⁵⁷⁾

이 시는 전술한 것처럼, 제주에서 牧民官으로서의 행적이 분명한 沈演(1587~1646)이 제주 목사로 있으면서 관아의 別防所를 순회할 때 이곳을 소재로 지은 작품이다.

작자는 이 시 전반을 통해 변방 제주의 암울한 모습을 드러내는데 활애하였다. 겨울로 접어드는 시기, 힘겨운 하루하루에 온산을 덮은 서리는 황량함을 더하고 있다. 변방 牧民官의 소임을 다하려는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 섬 안은 흉년으로 힘들어 하고 있다. 싸늘한 파도가 성을 때리는 동안 스산하게 북풍이 몰아치고 있는 힘겨운 변방 백성들의 삶을 처절한 심정으로 짙진하게 묘사하였다.

제주목사로 부임했던 金 儼은 유일한 제주의 길목이던 조천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주 목 인근에 禾北港을 개설하였는데, 이곳 역시 제주 관련 한시

57) 沈演, <別防所>.

작품의 소재가 되었다. 이곳을 소재로 지은 작품으로, 南九明의 <送奴北歸待風別刀浦>, 李健의 <別刀浦待風遣憫>, <放舡至中洋遇送風還碇于別刀浦>, 金傲의 <禾北鎮>, 尹鳳朝의 <正月十二夜舟人執風生移行李出禾北浦>, <禾北浦>, 朴成珩의 <禾北鎮>, 宋載恒의 <禾北鎮> 등 제주 관련 한시 작품이 다수 남아 있다. 이처럼 늦게 개항하였지만 禾北浦 역시 이곳을 찾은 많은 시인들에 의해 작품으로 형상화되었다.

다음의 작품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吹送長風動去橈 느린 바람 불어오면 노 저어 떠나는 배
 海程千里正迢迢 천리 바닷길이 아득하기만!
 由來此地腸堪斷 옛 부터 이곳은 애간장 끊는 곳
 故使鎮名又別刀 그래서 진 이름이 이별시키는 칼이란다.⁵⁸⁾

이 시는 경력 미상의 朴成珩이 제주 목으로 들어가는 포구 중 하나인 禾北鎮 防護所(禾北浦 혹은 別刀浦라고 불리기도 함.)를 배경으로 지은 작품이다.

작자는 이 시의 전반을 통해 이별에 아파하는 애간장 타는 심정을 드러내는데 할애하였다. 특히 이 시의 소재가 되는 禾北浦의 또 다른 이름인 別刀浦의 의미를 시어로 활용하여 단절의 심정을 드러내었다.

여기에서 배경이 되고 있는 禾北鎮은 구 화북 초등학교 자리이다. 관원의 迎送이 모두 이곳에서 이루어졌고, 그에 따른 유적지가 많이 남아 있다. 출항하기에 앞서 候風했던 喚風亭도 이 부근에 있었다.

제주 관련 한시 작품을 남긴 시인 묵객들은 遮歸鎮 역시 시적 소재로 적극 활용하여 창작 활동을 하였는데, 李益泰의 <次板上韻(遮歸鎮)>, 柳思瑗의 <遮歸鎮次林節制韻>, 李元鎭의 <遮歸城>, 林亨秀의 <遮歸防護所>, 金忠烈的 <遮歸鎮次林節制韻> 등 다수의 제주 관련 한시 작품이 남아 있다. 이처럼 제주에

58) 朴成珩, <禾北鎮>.

서 가장 큰 규모였던 遮歸鎮은 이곳을 찾은 많은 시인들에 의해 작품으로 형상화되었다.

다음의 작품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殘樓崩堞介荒丘 쇠잔한 다락 무너지는 성첩 아주 거친 언덕
瘴雨蠻烟未肯收 장기어린 비 남쪽 지방 연기 쉬이 걷히지 않네.
客子光陰槐已夏 나그넷길 세월 흘러 이미 여름이 되었는데
田家契濶麥遲秋 농가 살이 고생스러워 보리걷이기도 늦어가네.
殊方骨肉誰青眼 먼 지방에 있지만 가족들 누가 청안으로 보며
未路勳名自白頭 공명 찾아다니다 보니 머리는 저절로 희어져.
多病漸嗟筋力減 병든 몸 근력이 점점 덜해짐을 한탄하노니
此生那復聖恩酬 이 세상에서 어찌 다시 성은에 보답할꼬!⁵⁹⁾

이 시는 전술한 것처럼, 제주에서의 행적이 분명한 林亨秀(1504~1547)의 작품이다.

작자는 이 시 전반을 통해 고달픈 변방 목민관의 심정을 뽐진하게 묘사하였다. 전반부에서 쉴 새 없이 변방의 이곳저곳을 돌아보느라 이곳까지 왔지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모습에서 평생을 功名을 쫓았다고 회상하였다. 다만 마지막 구절에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자신의 소임을 君恩에 비유하여 다짐하고 있다.

이 작품의 배경이 된 遮歸鎮에는 明月樓가 있어 유명하였다. 제주에는 防護所가 아홉 곳인데, 이곳은 그 중 가장 重鎮인 萬戶鎮이다. 이것은 조선조 제주도를 행정구역 상 濟州牧, 大靜縣, 旌義縣으로 나누었고, 군진으로 일선 변방의 鎮처럼 규모는 작지만 아홉 개의 防護所를 두었다. 그 중에 萬戶가 관장하

59) 林亨秀, <遮歸防護所>.

던 遮歸鎮이 있었으므로, 지금처럼 제주의 규모를 三邑 만으로 파악함이 무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 속에 遮歸鎮과 같은 萬戶鎮도 그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여 포함시켜야만 실질적인 전체 제주의 규모가 파악될 것이다.

이 외에도 西歸鎮을 소재로 지은 李源祚의 <宿西歸鎮曉見老人星>, 金聲久의 <西歸所次壁上韻>, 金景鐘의 <西歸鎮老人星> 등의 작품이 있고, 涯月所를 소재로 지은 李元鎮의 <涯月所>, 李翊漢의 <涯月鎮> 등의 작품이 있다. 또한 明月所를 소재로 지은 李翊漢의 <明月鎮>, 李元鎮의 <明月所>, 李海朝의 <明月鎮樓夜坐偶題>, 沈演의 <明月鎮> 등의 제주 관련 한시 작품이 다수 남아 있다. 이처럼 제주에 산재한 아홉 곳의 防護所는 제주를 찾은 많은 시인들에 의해 한시 작품의 소재로 적극 활용되었다.

이 밖에도 제주도의 역사와 고적을 작품화한 것이 남아있는데, 제주 향교 明倫堂을 소재로 지은 작품으로 金良弼의 <明倫堂>, 李增의 <次明倫堂壁上韻>이 있고, 柳佳亭을 소재로 지은 작품으로 金源中의 <見訪柳佳亭>, <別柳佳亭> 등의 작품이 있다. 각종 서당과 책실을 소재로 지은 愼尙欽의 <三泉書堂>, 金熙敦의 <水隱齋>, 李容鎬의 <題營門冊室(3首)>가 있으며, 首山城을 소재로 지은 李元鎮의 <首山城>이 있고, 秦史를 소재로 지은 吳邦烈的 <詠秦史> 등이 있다. 봉수대를 소재로 지은 작품으로 鄭慶龍의 <烽火>, 천마각, 제단, 관아를 소재로 지은 金大興의 <跣蛛網>, 金鎔均의 <登瀛洲摩天閣>, 李海朝의 <漢拏祭壇>, 尹鳳朝의 <上元夜出城樓>, 趙觀彬의 <濟州牧>, 趙泰采의 <耽羅題詠>, 趙觀彬의 <到配大靜邑底次秦州詩韻> 등이 있다. 倚斗亭과 老人星을 소재로 지은 李源祚의 <倚斗亭>, 李禮延의 <倚斗亭(依斗亭)>, 李熙의 <倚斗亭>, 張寅植의 <老人星> 등 제주 관련 한시 작품이 다수 남아 있다. 이처럼 제주의 또 다른 많은 역사와 고적은 제주 관련 한시 작품을 남긴 많은 시인들에 의해 작품의 소재로 활용되기에 충분한 요건을 가지고 있었다.

3. 物産과 民衆生活

제주도는 본토와 떨어져 역사 지리 등 많은 부분에서 다른 것들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이국적 환경을 바탕으로 길러진 문화와 풍속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제주도의 이국적인 物産은 조선조 제주도를 다녀간 시인 묵객의 눈에는 매우 신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또한 이것을 시적 소재로 적극 활용하여 작품 활동을 하였다.

육지와 다른 제주만의 물산 가운데는 말과 꿀이 있으며 오늘날은 육지 어느 곳에서도 흔히 볼 수 있지만 수선화도 중요한 물산 중에 하나이다. 그 가운데 말은 군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꿀은 제주를 대표하는 진상품으로 제주에 유배 왔던 桐溪 鄭蘊이 龍卵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수선화는 秋史 金正禧가 자신의 작품 속에서 자주 언급했던 것이다.

구체적인 작품 군을 살펴보자. 직접 꿀을 소재로 지은 작품으로는 李源祚의 <詠橘四絶>, 高鳴鶴의 <厥包橘柚>, 吳章獻의 <家家橘柚>, 正祖大王的 <詠橘>, 宋相琦의 <蒙賜柚復用前韻示僚友>, 失名氏의 <橘> 등이 있다. 말을 소재로 지은 작품으로는 金聲久의 <送歲貢馬有感>, 李元鎮의 <閱馬牛羊>, 李海朝의 <驅馬篇>, <山屯牧場點馬留宿村舍>, 蔡濟恭의 <蒙賜濟州貢馬>, 趙觀彬의 <馬屯>, 金日海의 <放牛> 등이 있다. 이처럼 제주를 대표하는 물산인 꿀과 말은 제주를 찾은 많은 문인들의 시적 소재가 되었다. 이러한 제주의 특산물인 말과 꿀은 단순한 물산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이러한 물산을 공물로 바쳐야 하기 때문에 이 때문에 제주 민들은 또 다른 고통을 받기도 한다.

진술한 것처럼 아버지 인성군의 죄에 연좌되어, 제주에 유배 왔던 葵窓 李健(1614~1662)은 제주의 물산 중에 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제주도의 공마에 대해 시로 읊기도 하였다.

海中牧役最爲苦 외딴 섬에 말을 기르는 부역 가장 힘드니
 顛坑墜江猶不評 구덩이에 빠진 거나 강물에 떨어진 거나 가리지 않네.
 通判但知充馬數 제주 통판 다만 말의 숫자 채움만 알아
 不論流血害蒼生 피 눈물 나는 백성의 괴로움 개의치 않네!⁶⁰⁾

조선시대를 통틀어 가장 치열했던 전란은 임진왜란이었다. 치열했던 왜란을 겪으면서 조선 정부는 군마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따라서 제주도에 貢馬를 더 늘이도록 강력하게 요구했고, 이에 貢馬를 담당하는 관리들은 군마의 숫자를 늘리기 위하여 많은 무리한 일도 서슴지 않았다. 國馬場에서 기르던 말이 죽으면 온갖 계책을 내었다. 가죽으로 받지 않고, 꼭 말로 받아서 그 숫자를 채우려고 했다는 것도 그런 폐해 중의 하나이다. 제주 민들은 말로 인한 엄청난 고통을 받았던 것이다. 작자는 바로 그런 장면을 여실하게 보여주려 하였다. 말은 제주의 물산이지만, 이는 자연적으로 나는 물산이 아니다. 정책적으로 제주에서 말을 기르도록 했던 것이다. 1구에서는 바다 가운데 섬에서 말을 기르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말하고 있다. 2, 3구에서는 말의 숫자만 채우기에 급급했던 당시 貢馬의 폐단에 대해서 묘사하였다. 건장한 말만이 아니라, 부상당한 말이나 죽은 말조차 숫자로 채워 넣기에 급한 제주통판의 부조리한 행위를 그려내었다. 4구에서는 이러한 부조리한 행위에 고통 받는 것은 제주 민임에도 불구하고 통판은 이러한 제주민의 고통을 이해하지 않으려 한다고 묘사하였다.

얼마 뒤 제주안무사로 내려온 淸陰 金尙憲에 의해 이러한 폐해가 적나라하게 고발되는 계기를 낳는다. 어쨌든 貢馬의 폐단이 얼마나 가혹했던지, 葵窓은 친척을 죽여 죽장을 면하려고 하는 상황을 기록하고, 시로 남겼다. 그는 좋은 종마를 관가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눈을 멀게 하고, 관가에서 말을 징납하기 위하여 말 기르는 집의 처를 가두고, 자식을 때리는 등 하지 않는 일이 없는 현실을 백성들의 고통에 초점을 맞추어 드러내려 하였다.⁶¹⁾

60) 이진, 『葵窓集』 122권. <有歎>.

61) 김상헌, 『南槎錄』, 11월 18일, 壬子.

또 다른 작품을 보자.

經秋行色海山隈 가을이 지난 바다와 산을 두루 다녀
闕盡閑中鬣角回 한가히 말과 소를 둘러보고 돌아왔네.
白馬似驅潮水入 흰 말떼를 몰면 조수가 밀려드는 듯
靑牛疑引板車來 검은 소는 널 수레를 끌고 가는 듯하네.
壯嫌泛駕堪磋耳 젊어서는 가마 띄우기 꺼려하여 험뻑했는데
老免充蟻却幸哉 늙어서는 왕개미에 붙여짐을 면했으니 다행스럽네.
更叱初平群臥石 다시 황초평이 돌 무리를 꾸짖어 양으로 변하게 하듯
慚無五穀大夫才 오고대부의 재주 없음이 부끄럽구나!⁶²⁾

이 시는 제주목사로 부임 했던 李元鎮(1594~?)이 말과 牛羊을 소재로 지은 작품이다. 그는 1653년 제주 목사로 있을 때 하멜 등 和蘭人이 표착하자 이들을 서울로 압송했으며, 『耽羅誌』를 편수하기도 하였다.

작자는 우선 제주의 산야를 널리 돌아다니며 방목되고 있는 마소들의 한가로운 모습을 묘사함으로 시작하여, 소떼들을 潮水에 비유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고는 마소와 관련된 여러 고사들을 인용하였다. 黃初平이 어려서 양을 치다, 도사를 만나 金華山에 들어가 40년간 도를 닦아 신통력을 얻었다. 훗날, 그의 형이 기르던 양들을 어디에 두었느냐 물었을 때, 그는 쌓여 있는 하얀 돌을 꾸짖어 수백 마리의 양으로 변화시켰다는 고사를 인용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진나라 穆公이 다섯 마리 양의 가죽으로 초나라의 죄수가 된 百里奚를 속죄하여, 국정을 맡긴 고사를 인용하였다.

제주를 대표하는 물산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곁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따라서 제주를 찾은 많은 문인들에 의해 작품으로 형상화되었다.

62) 李元鎮, <閔馬牛羊>.

洞庭佳種又幽鄉 동정호의 좋은 종자 조용한 고장에 심어져
 十月霜風箇箇黃 시월 서릿바람에 알알이 노랗다.
 海外遙傳千里色 머나먼 바다 밖에서 좋은 빛을 전해 와서
 盤中新供一包香 한 보자기 향기가 소반 위에 새로 올려 졌네.
 親頒璧水君恩大 친히 성균관에 나누어주니 임금님 은혜 크다 하고
 每薦丹門聖孝長 매양 종묘에 천신하여 군왕이 길이 효도하네.
 瓊實也從南極至 옥 같은 열매가 다시 남쪽에서 오면
 遐邇長享各分嘗 멀고 가까운 곳에 나누어주어 길이 맛보게 하여야지.⁶³⁾

이 시는 正祖大王(1752~1800)이 제주의 대표적인 진상품인 귤을 소재로 題詠한 작품이다.

正祖는 귤을 한량없는 임금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매개체로 인식하기도 하고, 전통적인 효도의 대상으로 파악하였다.

작자는 제주에서 바쳐진 특산품인 귤을 공물로 받고, 중국 동정호에서 나는 귤이 국토의 남단인 제주에서 수확되어, 노랗게 익은 모습으로 향기롭게 소반에 놓인 모습을 기꺼운 듯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그것을 성균관에 나누어 주기도 하고, 종묘 제례에 제물로 바치기도 하더니, 다음에는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누려는 다짐을 통해 군왕의 길로 형상화하였다.

제주를 대표하는 물산 중에는 말과 귤 이외에 선비들이 자신을 수양하는 도구로 애지중지하였던 수선화를 들 수 있다. 수선화는 조선후기 들어 제주에서 찾은 대표적인 물산이다. 새로운 소재에 목말라 하던 조선조 문인들의 마음을 달래주기에 충분한 소재였다. 수선화를 소재로 지은 작품으로는 吳廷賓의 <水仙花>, 吳泰稷의 <水仙花>, 金左根의 <咏水仙花>, 愼鴻錫의 <水仙花>, 失名氏의 <水仙花>, 金亮洙의 <三月見水仙花> 등이 있다. 이처럼 제주만이 가지는 독특한 수선화는 제주 관련 한시 작품을 남긴 여러 문인들에 의해 시적 소

63) 正祖大王, <詠橘>.

재로 활용되었다.

다음의 작품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氣味高爭富貴家 기품과 풍미는 고상하여 탐스런 꽃과 다툴 만하지만
自持寒素去繁華 한미하고 소탈함을 지녀 화려한 꽃과는 거리가 있어
窓前葆得春風滿 창 앞에 더부룩이 자라 봄바람 가득 채워 주는데
想見仙山一種花 생각해 보면 신선이 사는 산 속에서 옮겨 왔겠지!

玉潔冰清出衆芳 옥과 얼음같이 맑아 모든 꽃에 뛰어나
梅花蘭蕙強和光 매화와 난초를 그 빛에 어울리게 한다.
出門一笑知何處 문 밖 어느 곳에서 웃고 있음을 알겠는데
伊人宛在水中央 그 사람은 완연히 물 가운데 있었구나!

盈盈脉脉洛妃來 정을 품고 바라보며 洛妃가 오는 듯한데
擎出金壺玉手開 부드러운 손을 펴서 금 술잔을 받쳐 든 듯.
好是月明相見處 달 밝은 때 바라봐 예쁜 멋을 찾아보면
一團風味個中催 한 가닥 멋스러운 맛은 그 속에서 드러나네.⁶⁴⁾

이 시는 金祖淳의 아들이며, 순조의 비인 純元王后의 동생인 金左根(1797~1869)이 제주 水仙花의 멋을 소재로 지은 세 수의 작품이다.

그의 제주에 관한 행적으로는 제주향교의 啓聖祠 창건에 대한 윤희를 얻어낸 사실이 있다. 그에 인연하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인지 자세하지 않지만, 제주에 影堂(영정을 모셔 두는 사당)이 있었다.

작자는 첫 번째 시에서 수선화가 기품 있는 꽃이지만, 소탈한 미덕을 갖추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더부룩하게 자란 모습을 통해 신선의 세계로 형상화하

64) 金左根, <咏水仙花>.

였다. 그리고 두 번째 시에서 얼음같이 맑은 수선화가 매화와 난초와도 얼마든지 어울릴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자기를 향해 환하게 웃는다면서 일체감을 드러내었다. 그리고 마지막 시에서 수선화가 가지는 진정한 아름다움은 달빛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은은한 자태라면서 수선화의 모습을 다양한 시각으로 형상화하였다.

水仙花는 수양하는 선비들이 가장 애지중지하던 꽃 중에 하나이다. 그 모습이 무성하던 잎이 다 시들고 나면 새로이 꽃을 피운다. 마치 자신을 닮는 선비들이 삶의 군더더기를 다 털어내고서야 진정한 우주 간의 이치를 깨우치는 것 같다. 제주에 유배 왔던 秋史 金正禧 역시 황량한 제주에서 水仙花를 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찾았다고 하면서 여러 편의 찬양시를 남겼다.

일반적으로 차를 마시는 것은 어느 시대이건 관계없이 수행의 과정으로 인식되어, 다도는 문화적 한 부분으로 계승되었다. 예컨대 徐居正의 『太平閑話滑稽傳』에서 陶隱 李崇仁은 차의 효용을 수행의 과정에서 중요하게 인식하였다.⁶⁵⁾ 제주 관련 한시 작품에도 이를 소재로 창작된 작품이 있다. 작품으로는 金亮洙의 <茶煮>, 高永昕의 <煮茶>, 失名氏의 <煮茶> 등이 그것이다. 이처럼 예나 지금이나 차와 문화의 관련성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끈끈한 것이었다. 따라서 다도를 문학작품으로 형상화한 것은 어느 정도 보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역시 제주 관련 작품을 남긴 많은 시인들도 이것을 가지고 문학작품으로 승화시켰다.

다음 작품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紙幌繩床擁土爐 종이 휘장 노끈으로 엮은 걸상 흙 화로를 껴안고
松風吹散碧烟孤 솔바람 불면 흩어지는 파란빛 외로운 연기.
幽人自得供佳味 은자는 좋은 차 맛 스스로 얻을 때에

65) 徐居正, 『太平閑話滑稽傳』, <自樂處>, 陶隱曰 “山房淨室, 明窓淨几, 焚香對僧, 煮茶聯句, 此足樂也” (도은이 말했다. 산방의 청정한 방, 밝은 창가 깨끗한 책상, 향을 사르고 중과 마주하여 차를 끓이며 연구를 달지. 그것이 가장 즐거운 일이야.)

始識仙方此外無 이것 말고 신선되는 방법 없음을 비로소 안다네.⁶⁶⁾

金亮洙(1828~1887)는 제주도 조천 출신으로 勉菴이 제주에 유배 왔을 때 從遊하면서, 차를 소재로 이 시를 창작하였다. 金亮洙는 1874년에 김치용과 함께 사마시에 합격하여, 관리로 환달하지는 못하였지만, 당시 제주의 문풍을 창도한 대표적 인물로 꼽힌다.

위에서 작자는 차를 끓이는 과정을 고즈넉하게 드러내고, 차를 마시는 것이 학문 수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였다. 심지어 이것이야말로 신선의 세계로 인도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하였다.

이 외에도 제주 관련 한시 작품에는 삶의 주변을 감상하고 되돌아보는 시들이 많이 남아 있다. 이러한 작품 속에는 물산, 혹은 풍속과 관련한 제주민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것이 많다. 현재까지 남아 있는 작품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8> 소재별 분류

| 作家 | 作品 |
|-----|----------------------|
| 嚴昕 | 答趙濟州李任寄韻 |
| 姜琦爽 | 和李梅溪韻 |
| 高士進 | 慟哭奉挽祖父主 |
| 高順欽 | 陪遊 [○] 先生共賦 |
| 金樂行 | 記濟州城形 |
| 金亮洙 | 湖上三月奉別參判崔公贊謙 |
| 金文植 | 與遊 [○] 詞伯共拈 |
| 金聲久 | 新月 |
| 金淳生 | 小春 秋日卽事 |
| 金容植 | 次梅溪韻 |
| 金宰鎬 | 客中端午與文夢篆昌來共賦 |
| 金鐘勛 | 初月 |

66) 金亮洙, <茶煮>

| | |
|-----|--------------------------------|
| 金贊遠 | 與枕泉李夏準共賦 |
| 金弼遠 | 陪避礙先生共賦 |
| 金滢植 | 輓洪君 春日與三從時範共賦十首 朝鮮文藝社與崔梅下先生共賦 |
| 金弘鉉 | 山中卽事 |
| 夫斗琳 | 七夕憶避礙先生 |
| 成石璘 | 濟州都按撫使金廷雋携詩卷來索和人詩韻 |
| 申翊聖 | 訊海外謫人 |
| 梁國恒 | 褒李斯文啓徵 |
| 梁璨休 | 初月 |
| 吳基權 | 七夕 |
| 吳秉杓 | 追賀文淵社建立後 |
| 吳廷賓 | 戀師 |
| 劉淡 | 和梅溪韻 |
| 柳瀟 | 寄濟州令公 |
| 尹鳳朝 | 上元夜出城樓 |
| 李健 | 七夕 清明 |
| 李安訥 | 寄贈濟州金緻判官 |
| 李源祚 | 果園冬栢花爛開綠葉紅萼無異陽春極爲奇絕 次吳生泰稷水仙花十絕 |
| 李辰珩 | 秋夕 |
| 李昌廈 | 陪郭儁宇先生與諸益 |
| 李海朝 | 立春日感懷 |
| 鄭澈 | 寄瀛洲使君 |
| 鄭太戊 | 仲秋玩月 |
| 玄癸平 | 秋夕 |
| 玄舜圭 | 弔吳君大鉉斥洋教 |

이처럼 다양한 제주의 물산과 풍속은 제주민의 삶을 드러낸 것이 많았다. 제주를 찾은 시인들은 이러한 물산과 풍속에 얽힌 제주민의 삶에 대한 다양한 한시 작품을 남겼다.

어느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서 민중의 삶은 중요한 한시 작품이 소재가 되었다. 특히 제주도는 변방에 위치하여 공권력이 고르게 미칠 수 없었던 한계 때문에 제주에 파견되는 관리 중 일부는 고도의 독재자 행세를 하면서 민중을 착취하고 괴롭혔다. 따라서 이러한 고단한 제주도 민중이 삶은 자연스럽게 시의 소재가 되었다.

조선조에 제주의 여인들은 제주로 들어오는 군사를 맞이하고 보내면서, 끊임

입없는 인연 속에 인고의 세월을 보냈다. 이러한 모습은 이방인에게 이색적인 체험으로 받아들여졌고, 이것을 소재로 지은 林梯 <迎郎曲>, <送郎曲>, 南九明 <迎郎曲>, <送郎曲>, 李增 <效林白湖迎送郎曲> 등 제주 관련 한시 작품이 다수 남아 있다.

白湖가 제주도를 여행하며 남긴 기록인 『南溟小乘』의 2월 16일자 기록에는 <迎郎曲>, <送郎曲> 등이 詩가 실려 있어 주목된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환경으로 남성들이 배에 생업을 매달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조난을 당하여 목숨을 잃는 경우도 허다하였으므로, 여성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제주도만의 독특한 풍속을 취재한 작품으로 紀俗的 경향의 시로 포괄할 수 있는 것이다.⁶⁷⁾ 곧 짝을 이루지 못한 여인들이 매년 3월이면 화장을 하고, 술을 들고서, 援兵赴防하러 섬에 들어오는 남정네를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살다가, 8월 罷防할 때, 그들과 슬픈 이별을 한다는 내용이다. 耽羅의 일부다처의 현상과 <迎郎曲> <送郎曲>의 기사가 『芝峰類說』 가운데도 이미 보이는 것을 보면, 그런 풍습이 오래 전승되어 오는 듯하다.⁶⁸⁾

다음은 附記되어 있는 白湖의 <迎郎曲>, <送郎曲>이다.

| | |
|---------|-------------------------------------|
| 三月三日桃花開 | 삼월이라 삼진날 복사꽃 활짝 피어 |
| 雲帆片片過海來 | 돛단배를 두둥실 바다를 건너와서 |
| 妍粧調笑別刀浦 | 단장 곱게 하고 벨뚫개서 노닐다가 |
| 岸上斜陽連袂廻 | 헤지는 언덕위로 팔짱끼고 돌아온다네. ⁶⁹⁾ |

| | |
|---------|---------------------|
| 朝天館裏泣愁紅 | 朝天館안에서 연분홍 눈물 적시는데 |
| 黃帽催行理短蓬 | 사공은 어서가자 돛을 바삐 올리네. |

67) 김명순, 『조선후기 한시의 민풍 수용 연구』, 보고사, 2005.

68) 이수광, 『芝峯類說』, 風俗, <林梯之送郎曲>.

69) 2월 16일, <迎郎曲>.

東風不道娘娘態 마과람이 새 각시 심사를 아랑곳 앓고
吹送飛舟度碧空 배를 얼른 날려 碧空으로 떠가누나.⁷⁰⁾

앞의 것은 <迎郎曲>에 해당되고, 뒤의 것은 <送郎曲>이다. <迎郎曲>은 삼월 삼짇날에 복사꽃이 흐드러질 때, 돛단배를 통해 들어오는 병사들을 마치고 바다에 나갔다가 물귀신이 된 줄 알았던 낭군이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온 양반가이 맞이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당시 제주 여성의 삶의 애환을 느낄 수 있다.

<送郎曲>은 살아 돌아올 기약 없는 사지의 뱃길로 보내는 장면이 포착되어 있다. 눈물 콧물 흘러가며 애절하게 헤어지는 상황을 포착해서 그렸다. 헤어지는 이들의 마음은 아랑곳 앓고 사공은 돛을 올리고 바쁘게 떠난다. 남편을 태운 배는 미끄러지듯 시야에서 사라지고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원하며 바라보는 아낙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지키고 서있는 모습이 보일 듯하다.

작자는 앞의 <迎郎曲>에서의 화사하고 들뜬 분위기와는 달리 <送郎曲>의 기약할 수 없는 이별에 아쉬워하는 모습을 대조적으로 드러내 시상을 고조시킴으로서 이국적인 풍물을 세상에 알리려 하였다.

1679년 濟州按察兼巡撫御使로 임명되어 제주를 찾았던 李增(1628~1686)과 1711년에 제주 관관으로 부임하였던 南九明(1661~1719)이 역시 똑 같은 소재로 시를 남겼는데, 이 시와 더불어 당시의 제주의 모습을 대비시켜 볼 수 있는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든다.

다음을 보자.

三時出望別刀堡 삼시 세 때 벨돛개 보루에 올라 바라보니
簇簇商帆何處浦 상선들 뿅뿅이 어느 포구로 가는가!
同類相呼促理粧 친구들을 서로 불러 몸치장을 재촉하면

70) 2월 16일, <送郎曲>.

櫓聲東入朝天浦 노 짓는 소리 동쪽의 조천포로 들려오네.
 炎海極天風浪多 먼 남쪽 끝 바다 풍량이 많은데
 郎君行李今如何 임의 행장은 지금 어떻게 꾸렸는지!
 從前好事入春夢 앞서는 좋은 일로 봄꿈을 꾸었는데
 枉被傍人作笑囨 잘못되어 곁 사람들의 비웃음만 끌어들었네!⁷¹⁾

전술한 것처럼 이 시는 1711년에 제주 관관으로 부임하였던 寓庵 南九明 (1661~1719)의 작품이다. 그는 목민관으로서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던 인물이다.

앞서 말했듯이 이 시는 寓庵이 제주의 여인들이 제주로 파견되어 들어오는 군인들을 마치 낭군인 양 맞이하고 보내는 과정에서의 삶의 애환을 절실히 표현하였다.

다음 작품을 보자.

瀛洲三月好花開 영주의 삼월 달 봄꽃이 피면
 兒女凝粧候客來 질게 화장한 아녀자들 손님 맞으러 나온다.
 盃酒情親笑語欸 술잔에 정 담았으나 웃음소린 서먹해
 黃昏携手與同歸 황혼에는 손잡고 함께 더불어 돌아가네!
 妾顏安保似花紅 머물러 있을 때는 첩의 얼굴 꽃같이 빨강다가
 每向津亭泣去篷 나룻정자에 나갈 때마다 떠나는 거룻배에 눈물짓네!
 三月逢君八月別 삼월이면 임 만나고 팔월이면 이별하니
 自君之別霜闈空 이별한 뒤부터는 빈 규방에 서리지네!⁷²⁾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 시 역시 濟州按覈兼巡撫御使로 제주에 왔던 李增

71) 南九明, <迎郎曲> <送郎曲>.

72) 李增, <效林白湖迎送郎曲>.

(1628~1686)이 위의 두 시와 똑 같은 소재로 지은 작품이다.

작자는 白湖와 寓庵의 뒤를 이어 같은 소재로 시를 읊고 있다. 이 세 사람의 시는 한 가지 소재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계승한 작품인데, 당시 제주의 모습을 대비시켜 볼 수 있는 좋은 자료라 할 수 있다.

1, 2구는 제주 여인이 외지인을 맞이하는 장면을 묘사했다. 삼월이 되어 제주에 배가 들어올 때에 제주의 여인들이 외지에서 오는 사람을 맞이하려고 분주히 단장하고 맞이한다. 낯설기도 하지만 묘한 애처로움이 느껴진다. 3, 4구는 낯선 이방인과 만남의 과정을 묘사했다. 여인들이 낯선 사내들 앞에서 술 따르고 그들 앞에서 웃지만 그러나 낯가림에 그 웃음소리는 어딘가 어색하다. 그러다 이내 이방인과 낯가림도 어느 순간 사라지고 서로 친밀한 정이 돈독해져서 저녁 황혼 무렵에 함께 집으로 돌아간다. 5, 6구는 이별장면을 묘사했다. 그렇게 함께 여러 달 지내다 이별을 할 때면 여인은 포구에서 이방인 남성을 떠나보내며 눈물짓는다. 7, 8구는 작자의 시선이 보인다. 3월이면 낯선 이방인을 맞아 함께 지내다가도 8월이면 떠나보내야 하는 제주 여인의 비극적인 운명에 대해 마음 아파하고 있다.

당시 제주의 민중은 바다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많았다. 바다는 그들의 삶의 터전이면서 애환이 담긴 곳이다. 고기를 팔고, 전복을 따며, 고사리를 캐는 과정은 실상을 모르고 보면, 어느 정도 낭만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변방의 고달픈 민중들이 사는 치열한 삶의 현장인 것이다.

이러한 민중의 삶을 소재로 지은 작품으로는 다음과 같다. 제주목사로 부임했던 李衡祥과 제주도에 유배 왔던 金春澤의 <潛女歌>의 전통을 이은 듯한 吳箕南의 <潛婦>, 失名氏의 <潛水女歌三十九韻> 등이 있다. 전복을 캐는 고달픈 해녀의 삶을 소재로 지은 작품으로는 失名氏의 <採鰓>이 있다. 고사리를 캐는 시골 아낙을 소재로 지은 작품으로는 失名氏의 <採薇>가 있고, 어느 부둣가에서 비린내 나는 생선에 묻혀 살아가는 여인을 소재로 지은 작품으로는 金亮洙의 <販魚> 등이 있다. 이처럼 자맥질을 하며 살아가는 잠녀, 고사리

를 캐는 아낙, 고기를 파는 아낙 등 제주의 民衆은 많은 문인들에 의해 작품으로 형상화되었다.

다음 작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腥風吹動海門開 비린 냄새 질펀한 바다 시장 열리면
村女相催犯曉回 이른 새벽 시골 아낙 서로 재촉하네.
折取蘆枝三尺許 석자쯤의 갈대가지 꺾어서
貫魚纔了貫錢來 고기를 다 꿰고 나면 돈 꾸러미 온다.⁷³⁾

전술한 것처럼 제주 출신으로 과거에 합격하였으나, 후진을 훈도하는데 일생을 바쳤던 金亮洙(1828~1887)가 魚市場에서 고기를 파는 아낙을 소재로 지은 작품이다.

작자는 이 시의 소재로 쓰인 고기를 파는 아낙의 모습을 통해 고달픈 변방 민중의 삶을 씩진하게 묘사하였다. 하루 종일 질펀한 비린내 속에서 삶을 보전하려는 처절한 변방 아낙의 모습을 시인은 얼마간 비분강개함도 느끼면서 자신의 삶과 대비하였다. 몇 푼의 돈에 매달려 이리저리 휘둘릴 수밖에 없는 어시장 아낙의 모습은 일견 당시 변방 아낙의 고달픈 삶의 모습을 대변하는 듯 보인다.

이 작품에서 고달픈 어촌의 상황이 잘 묘사되었는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기약 없는 삶의 굴레가 느껴진다.

잠녀들의 採鮑하는 고통도 시의 소재로 활용되었다.

彼娘紅髮爲誰容 저 아가씨 무엇 때문에 머리가 바래졌는고
慣學滄浪自取從 푸른 물결에 익어서 저절로 그렇게 되었네!
身寄一匏風泛泛 바람이 잔잔하면 몸을 태왁에 의지하고

73) 金亮洙, <販魚>.

手將百貝月溶溶 몇 마리 전복을 따고 나면 어느새 달이 떴네!
 食貪水石經三歲 먹고 살기 위해 수석을 헤치며 삼년을 보내고
 錯貢春秋入九重 철따라 대궐에 조공을 바쳐야 하네!
 圓滿固非倉卒得 소라 전복이 창졸간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서
 嘗之不忍到心胸 가슴 속 몽클하여 차마 먹지 못한 이도 있었네!⁷⁴⁾

이 시는 작자가 밝혀지지 않은 전복을 캐는 과정을 소재로 지은 작품이다.

전복을 캐는 것은 해녀들의 일상이고, 어쩌면 당연한 노동의 현장이다. 하지만 관리들의 백성들에 대한 거둬들이는 착취로 벌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백성들의 힘으로 극복하기에는 그 고리가 너무 두껍다. 머리가 바래고, 달이 뜰 때까지 쉬지 않고 전복을 따지만, 기본적인 생활도 유지할 수 없는 제주 해녀의 삶의 애환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작자는 작품 전반에서 하루 종일 고달픈 삶의 현장으로 내몰리면서도 그것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잠녀들의 삶에서 어려운 변방 민중의 삶을 대비하였다. 국가의 주요한 세수원이면서도 정당한 대우를 받기는커녕 끝없는 착취 속에 새벽부터 밤늦도록 쉴 새 없이 일을 해야 한다. 기본적인 생활도 영위하지 못하는 잠녀의 삶은 고달픈 민중의 삶을 대변하는 듯 보인다.

조선조에는 제주의 여인 중에 굶주린 제주의 백성을 구제한 萬德이 있었고, 趙貞喆을 구한 義女 洪娘이 있었다. 이들은 당시 제주 관련 한시 작품을 남긴 많은 문인들에 의해 작품의 소재로 활용되었는데, 趙貞喆의 <題洪娘墓> <獄中悲恨> <洪娘發鞞絶>, 朴齊家の <送萬德攷濟州詩>, 金炳潞의 <題烈婦光山金氏閭>, 鄭在三의 <題烈婦金氏閭>, 高錫九의 <題吳門烈婦閭> 등이 그것이다.

조선후기 관에서도 할 수 없었던 백성들의 기근을 구제한 萬德의 일은 대단한 반향을 일으켰는데, 무엇보다도 그녀가 속박 받는 제주의 여인이었다는 사

74) 失名氏, <採鰓>.

실과 맞물려 일정한 경향성을 띠면서 창작되었다.

다음 작품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萬德瀛洲之奇女 만덕은 영주의 기특한 아녀자라
六十顏如四十許 나이가 육십인데 얼굴은 사십 세로 보여.
千金糴米救黔首 천금으로 사들인 쌀로 모든 백성 구원하니
一航浮海朝紫禦 배를 타고 바다 건너 임금님께 인사드렸네.

但願一見金剛山 다만 금강산 한 번 보는 것이 소원이라 함으로
山在東北烟霧間 동북쪽의 안개 속의 산을 보여주려고.
至尊啣肯賜飛驒 임금께서 기꺼이 빠른 역말 내려주시니
千里光輝動江關 먼 곳의 화려한 빛이 바닷가 사람들을 격동시켰네.

登高望遠壯心目 높이 올라 멀리 보아 눈과 마음 씩씩했는데
飄然揮手還海曲 표연히 손을 휘두르며 섬으로 들어가네.
耽羅遠自高夫良 탐라는 아득히 고 양 부로부터 시작된 나라인데
女子今始觀上國 여자로서는 처음으로 서울을 구경했네.

來如雷喧逝鵠舉 올 때는 우뢰같이 떠들썩했고 고니가 높이 날듯
長留高風灑寰宇 높은 품격 오래 머물러 환우에 물 뿌렸네.
人生立名有如此 사람이 이름 드날림이 이와 같으니
女懷淸臺安足數 여회청대 쌓은 것을 어찌 운수로만 돌릴 것인가!⁷⁵⁾

이 시는 李家煥(1742~1801)이 제주의 기근을 사재를 털어 구제하려 하였던 萬德을 소재로 지은 네 수의 작품이다.

75) 李家煥, <送金萬德>.

작가의 제주와의 연관 점은 현재까지 보이지 않으며 따라서 萬德과의 인연도 알 수 없다. 다만 여기에 소재로 등장하는 萬德은 제주에서 사재를 털어 제주 민의 기근을 구제했던 사실이 알려져, 당시로는 금지되었던 제주 여성의 出陸 금지를 뚫고 서울에 와서 머무르며 금강산을 구경하기도 하였다. 아마 이 때 그녀의 모습을 보고 느낀 감회를 남긴 것 같다. 참고로 당시 영의정이었던 채제공은 萬德을 소재로 입전하였으니 그의 문집에 <萬德傳>이 전한다.

작자는 첫 번째 시에서 萬德이 제주의 기민을 구제한 공으로 대궐에 초대되었을 때 그녀를 처음 보고 흥분된 첫 느낌을 묘사하였고, 두 번째 시에서 萬德이 금강산을 구경하였던 일을 얘기하였고, 세 번째 시에서 당시 제주 여인 으로서는 법으로 금기시 되던 물으로의 외출을 마치고 돌아가는 상황을 재현 하듯이 설명하였다. 마지막 시에서 이러한 희대의 일을 마치고서의 개인적인 느낌으로 마무리하였다.

이와 더불어 죽음으로 趙貞喆을 구해 낸 제주 여인 洪娘 역시 제주 관련 한 시의 주요한 소재가 되었다.

瘞玉埋香奄幾年 옥이 묻히고 향기가 묻힌 지 몇 년일런고
 誰將爾怨訴蒼旻 누가 그 원통함을 저 하늘에 호소하라!
 黃泉路邃歸何賴 어두운 황천길을 무엇을 힘입어 갔으며
 碧血藏深死亦緣 무슨 인연으로 파란 피를 머금고 죽었는가!
 千古芳名蘅杜烈 꿈 취 같은 짙은 향기 오랜 세월 전해져
 一門雙節弟兄賢 한 집안에서 언니와 아우의 절개가 모두 뛰어났네!
 烏頭雙鬢今難作 젊은 나이의 두 기둥을 높이 세우기 어려우니
 靑草應生馬鬣前 봉분 앞에는 응당 푸른 풀만 싹트겠지!⁷⁶⁾

76) 趙貞喆, <題洪娘墓>.

이 시는 제주에 목사와 유배라는 상반된 이유로 내방했던 靜軒 趙貞喆 (1751~1831)이 유배 시절 자신을 구해준 洪娘을 위해 지은 작품이다.

그는 당시를 회상하듯이 한 서린 마음을 풀어주려 하였다. 작품의 전반부에서 자기를 대신한 죽음에 보답하려는 듯 대신 비분강개함을 토설하고, 후반부에서 이러한 자신을 위한 희생이 영원할 것이라며 축원하였다. 이 시와 관련된 더 이상의 얘기는 이미 전 장에서 자세히 서술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이 외에도 제주 민중의 고달픈 삶을 소재로 지은 작품이 있다. 금오랑으로 제주를 찾았던 申光洙의 <濟州乞者歌>에 영향 받은 작품과 나그네의 고달픈 시름, 배를 짜는 아낙의 삶, 제주의 어부들과 초부들의 삶, 제주의 처녀, 무속, 여러 가지 일상을 소재로 지은 작품들이 다수 남아 있다. 현재까지 남아 있는 작품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7> 소재별 분류

| 作家 | 作品 |
|------|-------------|
| 高才湜 | 五賢壇懷古 |
| 金亮洙 | 漁舟 樵夫 勤學 |
| 金琳奎 | 客中秋夕 |
| 金萬希 | 月浦釣叟 |
| 金炳弼 | 乞人 |
| 金容植 | 歸帆 |
| 金滢植 | 妍妍行 山居 述夢 |
| 金熙璿 | 木枕 商船 |
| 南九明 | 朝天館送小妓 |
| 女流宋氏 | 鮑作嘆 |
| 女流洪氏 | 偶吟 |
| 閔粹 | 旅愁 |
| 夫達善 | 望鄉 |
| 愼鴻錫 | 賀漂船生還 明倫 |
| 失名氏 | 巫鼓 巫祝 搗衣 麥浪 |

| | |
|-----|------------|
| 梁元橋 | 秋日卽事 |
| 吳啓默 | 筆耕 |
| 吳邦烈 | 臘 |
| 柳京寶 | 漁翁 |
| 劉淡 | 組練 處女家 行路難 |
| 尹鳳朝 | 浦口乘船 |
| 李健 | 泛海水疾之苦 |
| 李源祚 | 都近川獵魚 |
| 蔡洙馨 | 漁父 |

이 같이 제주민의 절곡된 삶은 제주를 찾은 많은 시인들의 입을 통해 꺾인
하게 묘사되어 다양한 작품으로 형상화되었다.

이상에서 말한 바와 같이 많은 시인들이 제주의 물산, 민중들의 삶과 관련
된 작품을 남기고 있다. 제주의 물산과 관련한 작품은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이국적 풍물을 노래하기도 했지만, 말과 같은 경우는 貢馬를 기르느라고
고통 받는 제주 민들의 애환에 대해 읊기도 하고 貢馬의 수를 채우기에 급급
한 제주 통관을 비판적으로 노래하였다. 제주 민중들의 삶과 관련된 작품들은
제주 민들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하면서 그로 인하여 낯선 이방인들을 맞아
정을 주고 이별을 해야만 했던 제주 여성들의 애환, 목숨을 걸고 바다 속에
뛰어 들어가 자맥질해야 하는 잠녀의 삶의 고통을 노래하였다.

이같이 제주 관련 한시는 육지와 떨어진 낙후된 삶 속에서 고통 받는 제주
의 애환을 드러낸 작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赴任官의 漢詩世界

앞선 논의에 의해 제주 관련 한시의 概括的인 狀況과 作者, 詩的素材가 어느 정도 드러났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내도한 赴任官 중에 제주 안무사 金尙憲, 제주목사 李衡祥, 금오랑 申光洙가 제주에 머무르는 동안 지은 작품을 세부적으로 고찰하여, 赴任官들에 의해 지어진 제주 관련 한시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것이다.

전술한 것처럼 제주를 다녀간 赴任官들은 매우 많다. 제주목사, 대정현감, 정의현감, 제주판관, 그리고 안무사, 금오랑, 어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국가의 공무 수행을 위해 제주를 다녀갔다. 이들은 임기에 따라, 맡은 임무에 따라 혹은 기상 상황으로 체류한 기간이 다를 수밖에 없었다. 아무튼 이들은 제주에 머무르는 동안 제주와 관련된 수많은 한시 작품을 남겼다.

우선 제주와 관련한 한시 작품을 남긴 모든 赴任官들의 작품을 분류해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었다. 첫 번째, 淸陰 金尙憲의 『南槎錄』은 민란으로 흥흥해진 민심을 달래기 위하여 안무사의 소임으로 내도하여, 제주의 민정을 돌아보고 기록한 작품을 거론한 것이다. 이를테면 일기체 형식을 빌려 자세히 기록한 기행 작품인데 이것을 고찰하여, 그것의 가치를 밝히고자 한다. 두 번째, 제주목사를 지내는 일 년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개혁을 시행하고, 특히 『耽羅巡歷圖』, 『南宦博物』을 통해, 당시 제주의 여러 가지 모습을 고찰할 수 있게 하여, 현재까지 주목받고 있는 瓶窩 李衡祥이 남긴 시문을 고찰하려 한다. 마지막으로 특정 지방의 紀俗과 풍토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작품의 소재로 활용하는 것은 조선후기 문인들의 주요한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에 石北 申光洙는 정점에 놓여 있다. 따라서 石北 申光洙가 금오랑으로 내도하여, 풍랑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제주에 체류하였던 45일 간에

지은 시를 모아 『耽羅錄』이라 명명한 작품을 분석하려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赴任官들의 한시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이 어느 정도 드러날 것이라 생각한다.

1. 淸陰 金尙憲

淸陰 金尙憲은 1596년(선조 29) 庭試文科에 병과로, 1608년(광해군 즉위) 文科重試에 을과로 급제하여 직제학을 역임하였다. 그는 서인으로 仁祖反正에 가담하지 않은 淸西派 영수였다. 그는 1624년(인조 2) 다시 등용되어, 대제학을 거쳐 이조판서를 역임하였다. 1636년 병자호란 때는 척화를 주장하다가 파직되고, 두 차례나 심양에 잡혀갔으며, 1645년 귀국 후에는 좌의정 영돈령부사를 역임하였다.

그가 제주 按撫御使를 배명하여 제주에 입도한 것은, 그의 나이 32세로 성균관 전적으로 있을 때였다.

조선조 역대의 국내 기행 시문은 수백 편에 이르지만,⁷⁷⁾ 그 중에서 제주도 기행문으로서 전해오는 것은 수편에 불과하다.⁷⁸⁾ 그것은 범선이 유일한 渡海 수단이었던 시대에 제주의 바다 길이 매우 험난한 지리적 여건에 기인한다. 비록 제주가 호기심의 대상이 된다하더라도, 여러 사람들이 자유롭게 내도하여 다양한 기행문을 남기기에는 열악한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많은 제약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행문을 비롯하여 여타 제주에 대한 기록은 관료, 유배객들에 의해 제한적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淸陰 金尙憲은 문학적으로나 역사 자료적 가치로 보아 빼어난 기행문을 남기고 있는 셈

77) 소재영 김태준 편, 「여행과 체험의 문학(국토기행)」에는 부록에 역대 국내 기행시문으로 249편의 목록이 수록되어 있다.

78) 시대를 16, 17세기로 한정할 때 여행이라는 이름에 부합되는 제주기행문으로써는 1557년(선조 10)의 임제의 「南溟小乘」과 1601년(선조 35)의 김상헌의 「南槎錄」이 전해오고 있다.

이다. 그는 제주 안무어사로서 제주 체류 6개월 동안의 기행 체험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거니와 그는 제주에 이르는 노정과 도해의 상황, 자연적 환경과 풍속 및 민정에 대하여 소상히 기록하고 있다.

이제까지 『南槎錄』에 대한 연구는 임홍선의 <김상헌의 남사록>을 시작으로 진행되어, 최근 들어 이상순에 의해 <청음 김상헌의 남사록 고찰>이라는 성과가 있었지만 『南槎錄』이 가지는 지방문학적 가치를 소략하게 기술한 한계를 보여준다.⁷⁹⁾

따라서 여기에서 우선 『南槎錄』이 가지는 기행수록의 특징을 밝히고, 그의 제주와 관련된 작품 분석에 들어가 노정과 도해의 과정을 추적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제주의 독특한 자연환경이나 풍속에 대한 기록들을 들여다보고, 그것들이 가지는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1) 紀行收錄의 特徵

『南槎錄』은 淸陰 金尙憲의 제주 기행문이다. 1601년(선조 35) 제주에서 吉雲節, 蘇德裕 등의 반역모의가 탄로되어, 이들 주모자를 비롯하여 20여명의 연루자가 서울로 압송되고, 그 중 일부는 처형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조정에서는 제주 도민의 안무를 위하여 성균관 전적 김상헌을 어사로 차견하게 된다. 이때 안무어사의 임무로는 제주 도민에 대한 교서의 선포와 한라산 신에 대한 치제 그리고 비변사에서 마련한 전 현직 수령들의 현명 여부 조사, 국마와 목자의 실태 조사, 민정 시찰 구역에 대한 분명한 원칙 수립 등의 17개 조목이 있었다. 그는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일기체의 형식을 빌려, 그 날의 상황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그가 제주를 다녀간 6개월 동안 미 기록 일수는 귀

79) 임홍선, <김상헌의 남사록>, 『논문집』 23집, 제주교육대학교, 1994.
이상순, <청음 김상헌의 '남사록' 고찰>, 충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8.

로인 영암포에서 서울에 이르는 12일에 불과하고, 나머지 169일 간은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기행문의 요체는 기행체험을 새로우면서도 진실하게 드러내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기행체험의 신기한 맛과 기행 관련한 진실한 내용이 결여되었을 때, 그 기행문은 존재 가치를 상실하기 마련인데 『南槎錄』은 이러한 기행문의 특성을 잘 살리고 있다. 또 기행문은 여행이나 유람과 관련이 있는 글이기 때문에 항상 특정 지방의 색깔과 접하게 된다. 그러한 과정에서 작자는 가능한 그 지방의 이색적인 소재를 찾으려 하고, 또 이를 표현해 보려 한다. 이 과정에서 작자는 주관적인 감흥에 젖기도 한다. 기행문은 객관적인 서술이지만 주관적일 수도 독단적일 수도 있다. 그래서 자칫 왜곡된 표현이나 때로는 오해와 편견도 수반하기 쉬운 법이다. 그러나 『南槎錄』에서는 전편을 통해 지나친 과장, 정확성을 상실한 관찰, 독선적인 판단 등을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주관에 치우친 생각을 바로잡으려 하였다.⁸⁰⁾ 예컨대 冲庵이 제주 도민을 일컬어 ‘이로움만을 찾는 일을 일삼고 염치가 무엇인지 모른다.’고 하였는데, 淸陰은 ‘내가 지방민을 보니 밖으로는 어리석고 굼뜬 것 같으나 속으로는 공교로운 지혜가 있으며, 말하는 것을 들으니, 말에 조리와 의리가 있어 사람을 감동시켜 경청하게 한다.’라고 하여 冲庵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였다.

淸陰이 『南槎錄』 수록에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서술하는 소재에 대하여 이전 기록을 상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적인 문장으로 진실성을 확보하려는데 있었다. 그러면서 대목 대목에서 자기의 주관적 견해를 피력하였다. 예컨대 그는 9월 22일자 일기에서 冲庵의 『濟州風土錄』, 白湖의 『南溟小乘』, 錦南의 『漂海錄』 등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그 자료에 기록된 것과 자신이 직접 체험하거나 보고 들은 것을 바탕으로, 제주도의 기후, 역사, 지리, 풍속, 토산 등에 대하여 광범하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80) 임흥선, <김상헌의 남사록>, 제주교육대학교 『논문집』 23집, 1994.

- 가) 『지지』 풍속은 추위와 더위를 잘 견딘다.(하략)⁸¹⁾
- 나) 『풍토록』 한라산 꼭대기에 올라 남극노인성을 굽어보면 밝기가 셋별과 같다.
일명 고남이라고 한다.(하략)⁸²⁾
- 다) 『충암록』 이 읍의 풍토는 유별나고 모든 일이 다르다.(하략)⁸³⁾
- 라) 임자순의 『남명소승』 섬은 우리나라 정남에 있는데 한라산이 그 가운데서 좌우 양쪽 날개를
펴 한일자로 가로놓였다.(하략)⁸⁴⁾
- 마) 『표해록』 제주 사람 손효기가 말하기를 “우리 고을은 멀리 큰 바다 가운데 있다.” 하였다.(하략)⁸⁵⁾

위의 가)~마)는 9월 22일의 기록이다. 그는 여러 기록들을 참고하여 객관적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조금 더 자세한 제주의 실상을 후세에 남기려 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볼 때 淸陰은 제주 안무사로 출발하기 이전까지 제주에 대하여 남겨 놓은 선인들의 기록을 박람한 다음 미리 기록해 두고, 혹은 꼭 필요한 자료들은 행장에 꾸러 넣어 가지고 와서, 필요할 때마다 내어 보고 참고하였던 것 같다. 이러한 그의 철저한 작가 정신은 일정 부분 牧民官의 자세와 무관하지 않다.

이 『南槎錄』의 기술을 통해 그가 보여준 작가 정신 속에서도 淸陰은 지방 문화에 대한 객관적인 시선두기를 하려고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그가 당시 제주에 만연한 다섯 가지의 폐단을 숨김없이 세상에 드러낸 것은, 당시 제주의 실상을 알려주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2) 作品의 世界

『南槎錄』은 1601년(선조 35) 8월 10일에 제주 안무사의 배명을 받고, 13일

81) 9월 22일, 『地誌』, 風俗 耐寒耐暑(下略).

82) 9월 22일, 『風土錄』, 登漢拏山絕頂 俯觀南極老人星 大如明星 一名孤南(下略).

83) 9월 22일, 『冲庵錄』, 此邑風土 別是一區 事事殊(下略).

84) 9월 22일, 『林子順 南溟小乘』, 島在國之正南而漢拏峙其中張左右 翼如一字橫鋪(下略).

85) 9월 22일, 『漂海錄』, 濟州人 孫孝枝曰我州 邈在大海中(下略).

서울을 출발하여, 이듬해 1월 25일 朝天館을 출발, 2월 1일 영암의 於蘭浦에 도착하고, 14일 서울에 도착하여, 복명할 때까지의 전 과정을 일기 형식을 빌려 소상히 기록한 기행문이다.

그는 제주 해로를 직접 체험하고 느낌을 소상히 설명하였다 그리고 제주 안무사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의 여러 곳을 순행하면서 군사 시설, 행정 시설의 위치, 설치 연혁, 규모 등을 기록하였고, 제주에서 구전되는 설화 자료들을 수록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과정에서의 느낌들을 60여 편 200여 수의 시와 제주와 관련 있는 문무 관원 20인의 시를 수록하였다. 또한 제주의 주요 건축물의 위치와 굴과 토산품의 종류와 진공수를 자세하게 기록하였다.

이러한 기록들을 토대로 淸陰의 노정과 도해의 상황을 자세히 분석하고, 제주가 지닌 독특한 자연 환경과 풍속들을 소개하고 있다. 그가 제주 안무사의 임무를 수행하며, 조사하는 과정에서 생생하게 체험한 백성들의 실정을 기록하고 있거니와 다음은 그의 愛民意識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路程과 渡海의 狀況

淸陰은 1601년(선조 35) 8월 10일 제주 안무사를 배명하고, 이 달 13일 서울을 출발하여, 지금의 용산, 수원, 진위, 직산, 전의, 공주, 은진, 완산, 금구, 정읍, 장성, 나주, 영암에서 숙박하고, 같은 달 29일 제주의 바닷길을 도해하기 위한 전초기지였던 강진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그는 9월 1일부터 같은 달 20일 까지 강진과 해남에서 候風하며, 도해의 시점을 기다리다가, 다음 날 발선 毛老, 獨巨, 草島, 竹島, 漁蘭, 於蔚, 應巨, 馬索, 長苦, 非島를 지나 廣鵝島에 이르러 해중 선상에서 일박하고, 22일 다시 발선하여, 원래 기착지였던 朝天館에 배를 대지 못하고, 涯月浦에 상륙하였다. 도착한 다음날부터 곧바로 업무에 들어가서, 12월 26일까지 안무사의 임무를 수행하고, 봄이 되어 바람이 잦아들

기를 기다린 다음 발선하라는 주위의 권고에 대하여 복명을 늦출 수 없다면 서,⁸⁶⁾ 같은 달 27일부터 다음해 1월 24일까지 朝天館에서 候風하였다. 다음 날 출발하여 귀로하던 중 풍랑으로 선상과 초란도 암석 아래, 추자도, 당포 선상 등에서 유숙하다가, 다음달 1일 영암의 어란포에 상륙하고, 같은 달 14일 서울에 도착 복명하였다.

위의 기록에서 그 당시 서울에서 제주에 이르는 대략적인 노정을 알 수 있다. 17세기에 오면 일부 『漂海錄』에 남아 있는 것 외에 해로에 대한 뚜렷한 체험이나 기록은 많이 남아 있지 않다. 그의 제주 해로에 대한 지정학적 설명은 기행의 귀중한 간접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리고 그는 어사의 행차 규모에 대하여 소상한 기록을 남겼다. 이 때 어사의 행차 규모를 보면, 좌선 1척, 전라수사가 내놓은 호송선 4척, 제주 관관의 영후선 4척, 전라병사가 제주 원군을 보내는 병선 2척 등 모두 9척이었다. 그리고 어사를 호송하는 일행은 香陪吏, 隨陪, 馬頭, 守從人, 奴子, 軍官, 濟州領船 이하 38명이었다.

보통 제주의 뱃길은 바람을 타면 하루 만에 도착할 수도 있는 그리 먼 해로는 아니었는데, 청음이 제주에 도착하고, 귀경하는 뱃길은 총 8일이 소요되었다. 이것은 순전히 바다에서 보낸 시간이고, 도해에 앞서 후풍하는 약 50일을 포함하면 그의 뱃길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긴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그는 빨리 복명하고픈 심정을 시심에 드러내었다.

| | |
|---------|--------------------------|
| 南雪曾聞到地消 | 남쪽 눈 땅에 떨어지면 녹는다고 들었는데 |
| 如何此日恣灑礫 | 어찌하여 오늘은 멋대로 쏟아지는가! |
| 臘前農讖堪豐稔 | 그믐 전에 눈 내림은 농참에 풍년든다 하였고 |
| 歲後梅花不寂寥 | 세후의 피는 매화는 적막하지 않구나! |

86) 12월 27일, 食後發行出, 東門州人故老等, 咸聚于道邊, 告於馬前曰 “卽今歲暮, 風日險惡, 此時, 雖商賈船, 決不可渡海, 請少遲數日, 待立春之後, 下館候風, 未爲晚也” 余答, “以使事已竣, 不可坐此淹留之意”

| | |
|---------|---------------------------------------|
| 堂浦青烟生白屋 | 당포의 푸른 연기 흰 지붕 위로 일어나고 |
| 擎峯玉骨聳寒宵 | 한라봉 고운 모습 찬 하늘에 우뚝하네. |
| 孤舟欲發山陰興 | 외로운 배 떠나려니 산음의 흥취 일어나네 ⁸⁷⁾ |
| 極目滄溟萬里遙 | 바다 끝 바라보니 만 리 가득 아득하네. ⁸⁸⁾ |

이 작품은 淸陰이 제주 안무사의 임무를 마치고, 주위의 만류를 뿌리치고 귀경하려고 朝天館에서 머무르며 지은 것이다.⁸⁹⁾ 작자는 기구에서 마음대로 되지 않는 뱃길을, 온화하여 눈이 내려도 땅에 닿기 전에 녹아버린다고 들은 제주의 하염없이 내리는 겨울눈에 비유하여 자신의 발목을 붙잡는다고 푸념하였다. 그것도 잠시 안무사의 본분으로 돌아가 나의 발목을 잡는 눈일지라도 백성들의 삶을 넉넉하게 해줄 서설이라 이해하고, 매화의 그윽한 자태를 통해 평상심을 회복하였다. 나아가 온통 새하얀 마을 지붕에서 피어오르는 평안의 연기를 저 우뚝한 한라산이 감싸준다는 덕담도 잊지 않았다. 그렇지만 결구에서 자신의 행로가 가로막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아득한 현실이 빨리 회복되기를 소원하였다.

당시 淸陰이 배를 탄 시점이 가을에서 겨울 사이이니 곧 바다 길이 가장 때를 만나기 어려운 시기였다. 이 점을 감안하더라도 거의 두 달에 육박하는 시간을 도해에 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도해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자료로 그가 제주를 출발하기 전 조정에 요청한 흥미로운 기록이 남아 있다. 그는 애초 비변사에 이번 공행에 한어와 왜어 통역 각 한 사람씩을 동행하도록 해 달

87) 진(晉)나라의 왕자유(王子猶)라는 사람이 눈 오는 밤에 산음 땅에 있는 친구 대안도(戴安道)를 찾아갔다가 문 앞까지 가서 주인을 찾지 아니하고 모두 돌아가며, “흥이 나서 왔다가 흥이 다하니 돌아간다.”고 하였다.

88) 1월 13일, <雪中遣興>.

89) 참고로 조천관과 그 곁에 세워진 연복정을 소재로 지은 작품으로, 李健 <上戀北亭>, 愼尙欽 <題戀北亭>, 李健 <月夜登戀北亭次板上韻>, 李選 <戀北亭>, 李民成 <戀北亭次金御史叔度韻>, 趙誠立 <戀北亭>, 鄭實 <戀北亭>, 李元鎮 <朝天>, 李健 <上朝天館>, 李海朝 <朝天館>, 李海朝 <朝天館暮坐>, 李民成 <題朝天館> 등 제주 관련 한시 작품이 다수 남아 있다.

라는 주청을 올렸으나 윤희를 얻지 못하였다는 기록에 이어,⁹⁰⁾ 다음과 같은 錦南의 『漂海錄』의 일절을 인용하고 있다.

崔錦南의 『漂海錄』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이 공사나 사사로 제주를 왕래하다가 더러 바람을 만나 행방불명이 된 자가 셀 수 없이 많다. 이 어찌 모두 물에 빠졌겠는가. 섬 오랑캐 나라에 표류해 들어 갈 것 같으면 다시 돌아오기를 바랄 수 없게 되고 비록 더러 중국의 영토에 표착해도 역시 해변 사람들의 오인으로 왜적이라 하여 귀를 잘라 상을 타니 누가 그 실정을 판별하겠는가. 우리나라도 中朝의 제도에 따라 높고 낮은 모든 사람에게 호패를 주고 또 통역 한명을 제주에 두어 사신과 삼 읍 수령을 받들게 하며 왕래할 때 항상 같이 다니게 하여 장래에 대한 생각을 해 두면 이런 걱정을 모두 면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⁹¹⁾

위의 내용으로 보아 淸陰은 제주로 떠나기 이전 바다 길에 대한 많은 자료를 박람하고, 혹시 자신에게 벌어질지 모를 漂海의 상황으로 인해, 임무를 수행하지도 못한 채 허무한 상황을 연출하지나 않을까를 염려하였다. 위의 『漂海錄』 일절의 제시는 비변사에서 통역자 대동을 주청한 이유의 간접적인 설명이면서, 제주 바다에 대한 인식 내지 도해의 어려운 실상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그는 배를 타서 도해하며 겪었던 긴박한 체험을 적나라하게 표현하였다.

(上略)

나는 여러 가지로 판단하지 못하고 속히 배를 돌리라고 명령을 내렸으나 선인들은 모두 불편하다고 하였다. 잠깐 사이에 풍세가 더욱 급해지며 엄청난 파도가 배를 누르는데 물이 봉옥에 가득하고 파도를 따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금방이라도 침몰할 것 같았다. 바람과 물이 서로 부딪혀 물거

90) 8월 10일, 本司, 又啓請給送軍官二人, 漢倭通事各一人, 都監砲手二名, 答曰不可.

91) 8월 10일, 按崔錦南漂海錄, 我國人爲公爲私, 往來濟州, 或遭風無去處者, 不可悉數, 是豈盡沈於海波乎? 若漂入島夷者, 無復望還, 雖或漂至中國之界, 亦爲邊人所誤認, 誣以倭賊, 折減受賞, 誰能辨其情乎? 中朝制, 凡上下人員, 各給號牌, 又置通事一員於濟州, 凡奉使臣及三邑守令往來, 常時帶行, 以圖憂慮然後, 庶免此患云.

품을 뿜고 비를 이루는데 배 안의 사람들은 눈을 뜰 수도 없었다. 이렇게 되면 어찌할 수 가 없다. 崔錦南이 말한 ‘내닫고 찌르고 다닥질하고 날뛰고 소리는 천지를 찢는다.’는 것이 참으로 맞는 말이다. 사공들은 또 한쪽 돛을 내렸다. 격군 가운데 제주 본 바다 사람도 또한 배 멀미를 하는 자가 많아서 모두 토하고 싸고 뒹굴고 짜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 다만 하늘을 향하여 염불을 할 따름이다. 나는 이종일과 같이 친히 지휘를 하는데 마침 배 멀미를 하지 않는 8~9명이 있어서 상아 대를 잡기도 하고 키를 운전하기도 하고 안에 저장한 널판을 치우기도 하고 나무 통으로 분담을 정하여 물을 퍼 내었다. 배가 왼쪽으로 기울면 물이 왼쪽에서 들어오고 바른쪽으로 기울면 바른쪽으로 들어와 한번 숨 쉬는 동안에도 뒤집힐 것 같은 기세였다. 이 배가 새로 만든 배이고 물건들이 모두 단단한 것이었기에 잘못되기를 면했지 만약 썩은 판자와 밧줄을 신고서 요행으로 건너기를 바랐다면 어찌 고기밥이 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⁹²⁾

(下略)

위의 기록은 淸陰이 강진에서 배를 띄워 제주로 입도하는 22일의 과정을 담은 것이다. 그는 도해의 과정에서 심한 풍랑을 만나 이틀 동안 사지를 돌아다니다가 겨우 涯月浦로 상륙하는 과정을 여과 없이 사실 그대로 드러내었다.⁹³⁾ 이 기록을 보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너무도 선명하게 마치 체험하는 것처럼 긴박한 정황을 느낄 수 있도록 잘 묘사되어 있다.

(2) 自然環境과 風俗

淸陰은 『南槎錄』 곳곳에서 제주의 독특한 자연 환경과 풍속에 대하여 피력하고 있다. 물론 그의 임무에 속한 국마, 목자의 실태조사와 호구 실태 조사

92) 9월 22일, (上略)余未及多辨, 速令回船而船人, 皆云不便. 俄頃之間, 風勢漸急, 駭浪壓船, 水滿篷屋, 隨濤上下, 載汎載沒. 風水相射, 噴沫成雨, 舟中人, 不能開眼. 到此地頭, 將無可奈何. 崔錦南, 所謂奔衝激躍聲裂天地者, 眞實狀也. 沙工等, 又落一帆. 格軍中濟州土人, 亦多有水疾者, 皆嘔洩顛仆, 罔知所爲. 但向天念佛而已. 余與李宗一, 親自檢督, 適有不爲水疾者八九人, 或執篙, 或運舵, 或撤去藏中板木, 或以木桶, 分曹括水. 舟左傾則水從左入, 右傾則水從右入, 覆敗之勢, 決在呼吸. 賴是新造之船, 什物, 亦皆堅緻故得免, 臭載若如腐板朽索, 僥倖望濟者, 安得不爲鯨魚之食也(下略).

93) 참고로 에월소를 소재로 지은 李元鎮 <涯月所>, 李翊漢 <涯月鎮> 등 제주 관련 한시 작품이 다수 남아 있다.

등과 같이 속속들이 제주에 대한 현재 상태를 조사하려다 보니 덤으로 얻어지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淸陰은 실제로 체류한 9월 22일에서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우천이나 기타 자연적인 요인 등 다른 요인이 없는 한 쉬지 않고 제주의 곳곳을 이 잡듯이 돌아다녔다. 비록 雨天時라 할지라도 향교에 나가 강학을 통해 제주의 유생들을 점검하고, 그들과 대화를 통해 많은 제주의 정보들을 접할 수 있었다.

예컨대 그는 『地誌』에 기록되어 있는 제주에서 산출되는 물품들을 소개하였다. 그 중 해산물의 한자식 명칭 곧 銀口魚(은어), 海菜(미역), 玉頭魚(옥도미), 刀魚(칼치), 古道魚(고등어), 行魚(멸치), 烏賊魚(오징어) 등의 기록과 제주의 사투리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숲을 꽃이라 하고, 산을 오름이라 하고, 손톱을 굽이라 하고, 입을 굴레라 하며, 굴레는 녹대라고 하며 또 가달이라고 한다고 소개하였다. 뿐만 아니라 金寧 廢縣의 자리를 고증하였고, 제주의 바닷가 일대를 돌아가며 쌓은 만리장성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 제주의 역사 지리와 관련하여 매우 특이한 기록이라 여겨진다. 그 중에서 『南溟小乘』에 ‘동정에는 굴이 있으나 매화가 없고, 서호에는 매화는 있으나 굴이 없는데, 이제는 동정호와 서호가 눈앞에 함께 있구나’며 제주의 풍물을 이채롭게 표현했던 林悌의 얘기를 소개하였고,⁹⁴⁾ 굴을 소재로 시를 짓기도 하였다.

두 수중 한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 |
|---------|---|
| 金橘經秋正飽霜 | 금귤은 가을 지나 넉넉히 서리 맞았는데 |
| 噴人霏霧怯初嘗 | 입안 가득한 시큼함 맛보기 겁나네. |
| 懷中數日餘香在 | 품속에 며칠 두었는데도 향기가 여전하니 |
| 幾度思歸感陸郎 | 몇 번이나 돌아가고픈 생각에 육랑이 애달팠던가! ⁹⁵⁾ |

94) 10월 15일, 余虐曰“洞庭, 有橘而無梅, 西湖, 有梅而無橘, 今者洞庭西湖, 俱在眼前”

95) 10월 22일, <新橘>.

꺾을 소재로 한 시들은 우리 선인들의 작품 속에 많이 남아 있다. 그 중에서 직접 제주의 꺾을 소재로 활용하는 것은 그리 흔한 일은 아니다. 다만 麗朝 이규보의 靑橋 세 수에서 출발하여,⁹⁶⁾ 桐溪 정온은 태수가 꺾을 보내온 것을 보고, “둥글게 생긴 진기한 과일 크기 주먹만 한데/ 거친 껍질 연한 속살은 본래부터 타고난 것이네./ 처음에는 용의 알이 주궐에서 왔다고 여겼더니/ 다시금 반도가 선계에서 온 것인가 의심한다오./ 눈앞에 마주대하자 온몸에 향기가 젖어들고/ 목을 넘어가자 오장육부에 목은 병이 낫는구려./ 효자의 품속에서 떨어졌던 일 돌이켜 생각하니/ 천년의 깊은 정성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한스럽구나(珍果團團大似拳/ 麤皮軟肉本天然/ 初疑龍卵來珠闕/ 更訝蟠桃自羽仙 / 照眼一身香臭濕/ 經喉五腑宿痼痊/ 翻思孝子懷中落/ 千載深誠恨未傳)”라고 읊었는데⁹⁷⁾ 제주의 꺾을 노래한 작품 가운데 대표작으로 꼽을 수 있다. 그런데 예시한 작자들의 꺾에 대한 인식은 꺾이 가진 외형적인 인식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고, 淸陰 역시 이러한 범주에서 대상을 이해하는 듯하다. 그러나 이후 그는 ‘제주 백성들이 제주의 귀한 토산물인 꺾마저 민고의 원인으로 받아들였다. 진공을 빙자한 수탈이 극심하였기 때문에 민가에서는 꺾유를 독약과 같이 보고 재배하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나무를 가진 자는 잘라 버려서 관의 시달림에서 벗어나려 한다’⁹⁸⁾면서, 당시 제주 민의 꺾에 대한 인식을 여과 없이 전달하는 것을 보면 많은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실제로 이후 꺾의 폐해를 직접 목도한 그는 자세한 꺾의 진공 수를 들어가며 부당함을 비판하였다.

그는 『地誌』 혹은 『冲庵錄』, 『南溟小乘』, 『漂海錄』에 수록되어 있는 기록들을 이용하여 자주 제주의 풍토를 소개하였다. 그 중에서 『風土錄』을 인용한 부분을 예를 들어 든다.

풍토록에서 지독하게 귀신에 제사를 숭상한다. 『漂海錄』에서도 또한 말하기를 선인들은 최공이 바

96) 이규보, <次韻濟州守崔安以前所寄詩韻問訊兼貺靑橋三首>, 『동국이상국집』 3권.

97) 정온, <太守送橋>, 『桐溪集』.

98) 김상헌, 『南槎錄』, 10월 23일 丁亥.

다에 표류한 것을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은 탓으로 돌렸다했는데 민속이 음사를 숭상하는 것은 옛날부터 그런 것이다. 또 말하기를 남자 무당이 대단히 많다. 내가 주아에 머물고 있는데 어느 날 객사 밖의 민가에서 굿을 하는 소리를 들었다. 곧 무당을 잡아오게 하니 잘난 척하고 교만스런 남자였다. 이유를 물으니 ‘이 땅의 풍속이 옛날부터 여자 무당은 없고 대개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기도하는 일은 모두 남자가 합니다.’ 한다. 이는 틀림없이 신라 화랑의 유풍일 것이다.⁹⁹⁾

淸陰은 무당을 혹신하는 제주의 풍속을 『風土錄』에 소개된 錦南의 『漂海錄』의 내용까지 끌어들이어 소개하였다. 여기에서 제주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살필 수 있다. 늘 상 바다에 의지하여 불확실한 삶을 유지하는 섬사람들은 마음이 불안하고, 이러한 불안감은 무속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100여년 뒤에 瓶窩 李衡祥이 제주 목사로 와서 200여 곳의 신당을 철폐하여, 백성들의 불안한 마음을 빌미로 또 다른 착취를 일삼는 무당들을 생활 현장으로 되돌려 보낸 바 있다. 이는 문화적 측면에서 다양한 지방의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몰지각한 처사라는 후세 향토 사학자들의 혹평을 받았다. 이 후 무당들은 주문을 외면서 병와를 저주하였지만, 그가 남긴 『耽羅巡歷圖』에 의거하여 濟州牧官衙址가 복원된 것을 보면, 그의 정책은 제주민을 위한 것이었음을 상할 필요가 있다.

(3) 濟州 民의 實情

淸陰에게 주어진 어사의 사목 17개조를 검토해보면, 폐막 조사에 큰 비중이 두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에서 반역의 변이 모의되고, 또 도민 중에서 거기에 추종하는 무리가 생겨난 것은 민심이 관에서 이반되어 있던 사회적 상황에 큰 원인이 있었다. 따라서 도민의 위무를 위하여 폐막을 조사하고, 민생

99) 10월 22일, 風土錄, 酷崇祀鬼. 漂海錄, 亦云船人, 以崔公漂海, 歸咎於不爲祀神之故. 俗尚淫祠, 自古而然. 又云男巫甚多. 余留州日, 聞客舍外民家, 作巫事則拿致巫人, 一偃蹇男子也. 問其故, “土俗, 自古無女巫, 凡祀鬼禱神之事, 皆男巫爲之云” 此必新羅花郎之遺風.

의 질고를 풀어주는 것은 어사의 중요한 의무가 아닐 수 없었다. 이런 까닭에 『南槎錄』에서는 비교적 많은 대목의 폐막에 대한 언급이 발견된다.

우선 淸陰이 제주민의 실정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의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그의 성품이 드러난 부분에 대한 고찰을 통해, 그의 愛民意識의 근거를 살피려 한다. 『南槎錄』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로 보아, 淸陰의 성품은 강직하면서도 인정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생각된다.

다음의 기록들을 통해 일단을 살펴보기로 하자.

가) 이번 행은 다른 때의 사명과 같지 않고 향축과 교서가 있으므로 수령과 더불어 講禮 할 수 없다.¹⁰⁰⁾

나) 사신으로서의 임무를 마쳤으므로 여기에 더 머무를 수 없다.¹⁰¹⁾

다) 선인들이 와서 하소연하기를 본도는 연달아 흉년이 들어 사람들이 많이 굶주리니 뱃사람들이 올 때에 토산품을 팔아 육지의 물건과 바꾸어 돌아가 처자식을 살리고자 하는데 오늘 여기에 도착한지가 며칠이 안 되어 교역할 틈도 없이 곧바로 출발해 버리면 무리들의 바람이 크게 어그러지니 오히려 바라건대 7-8일 정도 머물렀다가 출발해 주십시오. 부득이 하여 본 현에 머물렀다.¹⁰²⁾

라) <고기밥이 된 것을 조문한다.> 시를 지어 기록하지 않는다.¹⁰³⁾

가)는 淸陰이 처음 제주성에 도착하던 날 밤, 제주의 관리가 목사와 더불어 대면의 예를 가질 것을 요청했을 때, 명분으로 어사의 위엄을 보인 대목이다. 나)는 淸陰이 안무사의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려 할 때, 주변에서 바람이 심한 겨울보다는 잔잔한 봄을 기다려 출선하라는 권고에 대하여 이유 없이 복명의 시기를 늦출 수 없다며 거절한 내용인데,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 강직한 그의 성품을 느낄 수 있다.

다)는 제주로 도해하려 할 때, 함께 할 뱃사람들이 무역하기에 기일이 촉

100) 9월 22일, 今行, 與他使命, 不同, 香祝教書, 在前, 不可與守令, 講禮.

101) 12월 27일, 使事已竣, 不可坐此淹留之意.

102) 8월 13일, 船人等, 來訴曰 “本島連歲凶, 土人, 多飢餓, 舟中人來時, 或賣土產藿物, 欲質糧於陸地, 歸活妻子, 今到此未數日, 不暇交易, 道行若發, 群望大缺, 伏望姑停七八日發行云” 不得已仍留本縣.

103) 12월 18일, <弔魚腹> 不錄.

급하니 얼마간 말미를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그들이 생업을 도모할 수 있게 해준 대목이다. 라)는 12월 18일 전 관관의 호송선 한척이 침몰하여, 정부 42명과 우마 23두가 모두 빠져 죽었다는 보고를 받고, 그날 일기 끝에 시제를 쓰고 나서 이 엄청난 사건을 소재로 시를 짓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껴 '기록하지 않는다.'는 한마디 말로 대신하였는데, 이러한 두 가지의 정황에서 그가 백성을 아끼고 그들을 사랑했던 인정스런 모습을 엿 볼 수 있다.

그런데 제주는 해외에 위치하여 사안마다 조정의 감독권이 적절하게 미치기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관의 가림주구가 어느 고장보다 극심했지만 도민은 이를 하소연할 길마져 없었다. 이러한 사정을 淸陰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행실을 삼가지 않는 무리가 스스로 해외임을 믿고 함부로 탐욕스럽게 빼앗고 백성을 대할 때에 걸핏하면 이치에 맞지 않은 일을 행하니 섬의 모든 사람들이 원통한 마음을 품고 있으나 펴지 못하고 한번 서울에 가서 조금이라도 괴로운 사정을 위에 알리고자 하지만 수령이 자기의 악행이 알려짐을 싫어하여 물건을 가지고 가는 자를 제외하고는 섬 밖으로 나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¹⁰⁴⁾

관료들의 가림주구가 제한 없이 자행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들은 심지어 자신의 악행을 숨기기 위하여 여러 가지 명목으로 제주의 백성들을 마치 죄인처럼 가두고, 부도덕한 행위를 일삼아 백성들의 삶을 힘들게 하였다.

이제 구체적인 기록들을 가지고 이 문제를 구체화시켜 서술한다. 淸陰은 『南槎錄』에 橘柚의 폐해에 대하여 상세히 수록하였다. 심지어 그는 제주 감귤류의 진공수를 상세히 소개하였다. 그것을 종류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04) 9월 22일, 武吏之不謹者, 自恃海外, 恣意貪割, 涖民之際, 動行無理之事, 一島之人, 抱冤莫伸, 皆願一至京城, 少達悶迫之情而守令, 惡其流播己惡, 陪持進上者, 外禁不許出.

<표 1> 濟州 柑橘類 進貢數

| 구분 | 본주 | 장원서소납 세전세후 | | 대정 | 정의 | 계 |
|-----|--------|---------------|------|------|------|-------|
| | | | | | | |
| 유자 | 960 | 280 | | 180 | 175 | 1595 |
| 감자 | 29470 | 500 | 500 | 530 | 525 | 31525 |
| 금귤 | 1420 | 1000 | | 500 | 500 | 3420 |
| 유귤 | 2800 | 700 | | 400 | 390 | 4290 |
| 동정귤 | 3040 | 2000 | | 750 | 740 | 6530 |
| 산귤 | 540 | | 500 | | | 1040 |
| 청귤 | 530 | | 2000 | 50 | 750 | 3330 |
| 당유 | 결실에 따라 | | | | | |
| 계 | 38760 | 4480 | 3000 | 2410 | 3080 | 51730 |

<표 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관리들에 의해 조직적인 수탈이 행해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수량이 전혀 천재지변에 대한 고려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음 기사에서 실상을 확인할 수 있다.

진공하는 수가 이렇게 광범위하고 많은데 결실이 잘 안되었을 때에는 매년 7-8월에 목에서 군관들로 하여금 촌가를 순시하며 궂유가 있는 곳에서 붓으로 하나하나 점을 찍어 장부에 기록하고 가을이 되어 궂이 익는 날에 장부와 대조하여 수납한다. 바람과 비에 손상을 입었던지 까마귀나 참새가 쪼아 먹은 것이 있으면 집 주인에게 그 나머지를 요구하고 그렇게 못할 때는 장부에 적힌 대로 바치도록 하였다. 105)

위의 기록으로 보아 당시 進貢品과 관련하여 궂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했었는지를 알 수 있다. 제주 특산물인 궂이 오히려 민생을 도탄에 빠트린 원인이 되었으니 마치 구조적 모순이라는 느낌마저 준다. 이 후 北軒 金春澤과 潛女의 대화에서도 이러한 피해는 이어진다. 潛女가 전복을 따는 이유를 밝힌 대목을 보면 가족이 헤어지지 않고 같이 살기 위해, 일 년 내내 전복을 따야 하

105) 10월 23일, 進貢之數, 如此其廣大而或所結實數, 不足之時, 每歲七八月, 牧使軍官, 巡視村家, 有橘柚處, 以筆筒箇傍點而記簿, 至秋橘柚熟之日, 按簿考納. 或被風雨所損, 烏雀所殘則徵其餘於家主, 如不得應徵, 依簿隨之.

는 고달픈 삶을 얘기하면서 전복이 많이 나는 절기에는 일정한 수량만을 세금으로 받고, 더 이상 받지 않아 과잉 생산되게 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전복을 헐값으로 만들어 관리들이 사람을 시켜 싸게 사들였다가, 전복이 나지 않는 절기에 일정한 수량을 세금으로 바치게 하여, 미치지 못하는 潛女들에게 헐값으로 사들인 전복을 강매하여, 潛女들의 생활 기반을 무너뜨렸으니 만약 세금을 내지 못하면 자식을 팔아야 하는 고통을 강요했던 상황을 연상하게 만든다. 이것은 저 震澤 申光河가 북쪽 지방을 돌아보며 목격한 어느 거지 부부가 남편이 구걸한 음식을 아내가 나눠달라는 요구에 남편이 돌로 아내의 가슴을 내리치는 상황을 묘사했던 것을 연상시킨다. 역사의 연속선상에 놓고 볼 때, 결국 이러한 폐단들이 누적되어 이후 더 이상 치유될 수 없는 상황 하에 놓이게 되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결국 그는 제주의 유생들과의 대화에서 다섯 가지 제주의 폐막을 도출해내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다.

제주 객사에 머물면서 오랫동안 빈 객사를 지키자니 심심하기가 날로 심해져서 교생들을 불러 본도의 고사를 묻다가 얘기가 제주의 오대 폐막에 미쳤다.¹⁰⁶⁾

淸陰은 12월 18일 제주 객사에 있다가 무료함을 달래려고, 교생들과 얘기도중 제주의 오대 폐막의 정황을 듣고, 이것을 여과 없이 기록하였다. 삼 읍의 수령이 모두 그 관할 지역 안의 벼슬아치나 백성이 가지고 있는 말을 장부에 올려서, 혹은 戰馬라 부르며 혹은 應求라 하면서 억지로 빼앗는 ‘封送馬之弊’, 삼 읍의 수령들이 또 소를 가진 사람을 장부에 올려놓고, 이것을 생물가라고 하는데, 장부를 보고 끌어와서는 때려 죽여 잡아먹는 ‘生物價之弊’, 본주의 군관들이 위세가 수령보다 더하여, 부도덕한 짓을 가리지 않는 ‘營軍官之弊’, 본주에서 매년 사냥으로 잡은 노루와 사슴을 進上人이 上京할 때 억지로 떠 맡

106) 12월 18일, 留濟州客舍, 久寓空館, 無聊日甚, 招校生等, 問本島故事, 仍及弊癘.

겨, 무리한 요구를 하는 ‘京貿易之弊’, 마지막으로 임금님께 진상할 좋은 말을 선발하는 점마들이 바쁜 농번기에 일을 벌여, 민생을 도모하지 못하게 하고, 한번 점찍은 말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앗는 ‘京點馬之弊’이다.

이러한 폐단으로 인하여 한 고을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의 기반을 뿌리 채 뽑혀서, 더 이상 주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기도 한다. 더러 이로 인해서 민란이 발생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32세의 젊은 나이로 민심을 위로하는 제주 안무사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그는 남쪽 변방 도서벽지의 참혹한 현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자연스럽게 만났다. 그는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당시 생생한 체험들을 기록으로 남겼다.

2. 瓶窩 李衡祥

瓶窩 李衡祥(1653~1733)은 肅宗 朝의 학자이자 문인이다. 그는 朱子學的 名分論에서 파생된 禮訟, 이와 맞 물려 진행된 정권 다툼 등 사상적, 정치적으로 폐쇄성이 가장 심각했던 시기에 일생을 살면서, 여러 방면에 걸쳐 많은 업적을 남겼다. 性理學은 물론 天文, 地理, 禮樂, 幽經僻書, 稗史小說에 이르기까지 관통하여, 남긴 저서만도 142종(326책)에 이른다.

현재까지 瓶窩에 대한 연구는 그가 남긴 작품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¹⁰⁷⁾ 따라서 여기에서는 기존의 연구를 수용하고 『瓶窩先生文集』 1~4권 가운데 제주 관련 한시 작품을 중심으로 그의 작품 속에 투영된 제주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107) 강진섭, 『瓶窩 李衡祥의 漢譯歌曲 小考』, 『국어국문학』 제102호, 1989.
김영숙, 『象村과 瓶窩의 樂府研究』, 『어문학』 제46호, 1985.
백원철, 『瓶窩樂府小考』, 『공주사범대학 논문집』 제22집 별책, 1984.
유명중, 『涵溪 鄭碩達의 李瓶窩 理氣說 批判』, 『유교문화』, 1988.
송민선, 『瓶窩 李衡祥의 禮論에 관한 研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진갑근, 『瓶窩 李衡祥의 詩經意識에 나타난 反朱子의 要素』, 『한국의 철학』 제21호, 1994.
진갑근, 『瓶窩 李衡祥의 字學序說』, 『복현한문학』, 1993.

이러한 논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예비적으로 그의 文學에 對한 認識과 學問的 性向에 대해 살피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의 牧民官으로서의 姿勢 및 現實認識, 現實에서의 挫折과 自然回歸 등에 주목해서 그의 시 세계에 대해 밝히려 한다.

1) 文學에 對한 認識과 學問的 性向

瓶窩의 한시를 직접적으로 고찰하여 그의 관료로서의 자세와 현실에서의 좌절을 통한 自然回歸의 모습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이전에 그가 문학을 어떻게 이해하였으며, 그의 작품의 근거가 되는 그만의 학문적 성향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瓶窩의 글 가운데 자신의 文學論을 본격적으로 피력한 것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그의 文集 곳곳에서 그의 文學論을 엿볼 수 있는 단편적인 언급들이 발견될 뿐이다. 이를 통해 단편적이거나 문학에 대한 瓶窩의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

| | |
|-------|--------------------------------------|
| 道學功程在 | 도학은 그 공정이 있고 |
| 文章事業奇 | 문장은 기특한 사업이다. |
| 爾心如自篤 | 네 스스로 이에 독실하면 |
| 人稱我有兒 | 남들이 나더러 아들 잘 두었다 하리! ¹⁰⁸⁾ |

| | |
|-------|--------------------------------|
| 四海皆兄弟 | 온 천하가 모두 형제인데 |
| 文章況可友 | 더구나 문장을 벗할 수 있음에랴! |
| 從來磨憂處 | 예부터 연마하는 그 곳이 |
| 道德爲淵藪 | 도덕의 집중지가 되었다네. ¹⁰⁹⁾ |

108) 『瓶窩集』, 卷1, <課兒>.

109) 『瓶窩集』, 卷1, <會友>.

위의 작품에서 작자는 도학의 심오한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 학문의 절차가 중요하며, 文章하는 일도 그리 평범하고 용이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곧 道學과 文章에 같은 비중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道學 공부나 文章 공부를 모두 독실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친구를 사귄데는 文章이 좋은 중계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文章을 주고받는 가운데 道와 德을 쌓게 된다고도 하였다. 여기에서 瓶窩는 道學과 文章 공부를 대립시켜 보지 않았음이 분명하며, 상당히 개방적인 文學觀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아들에게 文章 공부에 힘쓰도록 勸勉하는 것은 文章을 士의 보람 있는 일로 여기는 사고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¹¹⁰⁾

지나친 말들을 장황하게 늘어놓았으니 느낌이 없을 수 없다만 老眼이라 오히려 명백히 해득할 수 없구나. 앞길이 구만 리 같은데 기로에서 방황해서는 아니 된다. 혹 이치를 따지고 분석함에 있어 투철하지 못한 구석이 있기 때문인가. 말이 精한 것이 글이며 글의 華가 科體이다. 異端이나 雜術을 막론하고 이 마음이 먼저 정해지면 여러 이치가 모두 나의 胸中에 있는 것이 된다. 비록 老佛莊列이 저마다 미묘하다 해도 一語에도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¹¹¹⁾

위 글은 瓶窩가 難澁하게 창작하고 있는 曹仲吉의 시작 태도에 대해 신랄하게 지적한 편지이다. 瓶窩는 지나친 말들을 장황하게 늘어놓은 그의 그릇된 태도를 끄집어내어 바로잡을 것을 충고하였다. 나아가 앞길이 구만 리 같은 사람이 자신의 길을 다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충고하고, 혹 이치를 궁구함이 모자란 데에 원인이 있지 않은가 지적하였다. ‘마음이 정해지면 모든 이치가 胸中에 있게 되어, 老佛莊列의 미묘한 것에도 현혹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여 創作에 앞서 마음으로 이치를 터득할 것을 강조하였다.

110) 백원철, 『瓶窩樂府小考』, 『공주사범대학 논문집』 제22집 별책, 1984. p. 182-183.

111) 『瓶窩集』, 卷11, <答曹仲吉>. “且有長語盡聲, 非不感也, 老眼, 猶不能明白解得. 萬里前程, 不當於岐路彷徨. 或於格致上, 未透耶. 言之精者, 爲文, 文之華者, 爲科體. 勿論異端雜術, 此心先定 則衆理, 皆腔裡物. 雖老佛莊列之自謂微妙, 不宜一語或眩.”

선생은 항시 장부의 사업이 文辭나 字句 사이에 마음을 쓸 필요가 없다고 여겼을 것이다. 그런 때문에 처지에 따라서 붓을 쥐고 할 말만 전달하고는 그만 두었다. 오직 그 총명은 못 성현의 말씀을 모두 기억하고 心學의 조예도 그 근원을 만났다. 그리고 書牘으로 남의 질문에 답한 것이나 雜著로 理數를 논변한 것들은 天理와 人事를 유관하게 다루고 법도의 범위 내에서 진리를 심도 있게 규명한 것이었는데 풍부하면서도 혼란스럽지 않고 상세하면서도 번쇄하지 않았다. 요컨대 字句를 고르고 문장을 구성해 만든 것이 아니고 菽粟裘葛이 그 알맞은 것을 얻었을 뿐이다.¹¹²⁾

위의 내용처럼 瓶窩는 文辭나 字句 사이에 마음을 쓰지 않고, 처지에 따라 간결한 어조로 성현의 말씀을 통해 心學의 근원을 찾는데 몰두하였다. 따라서 書牘이나 雜著에서 볼 수 있듯이 瓶窩는 天理와 人事를 有關하게 다루고, 진리를 심도 있게 구명하려 하였다. 내용은 풍부하고 상세하게 서술했지만, 형식은 혼란스럽거나 번쇄하지 않게 하려 하였다. 즉 음식과 의복을 제철에 따라 이용하면 아무리 먹거나 입어도 싫증나지 않는 것처럼, 字句를 조작하지 않고, 꾸밈없는 순수함을 추구하려 하였다.

다음 시를 보자.

觀物有術要當觀物理 사물을 관찰하는 데는 방법이 있으니 반드시 사물의 이치를
관찰하여야 하니
理亦苦苦探蹟便不是 이는 또한 괴롭게 탐색하면 문득 옳지 않다.
芽甲根核已識其所然 잎 돋고 뿌리 뻗고 씨 생기는 것 이미 그런 이치 있음을 아노니
況於事務上亦足推類 하물며 사무 상에도 족히 유추할 수 있음에랴!
彼所謂山川風月花鳥 저 이른바 산 내 달 꽃 새 같은 것도
並與禮樂文學如此止 모두 예악과 문학으로 더불어 이와 같은 이치가 있는 것이네.
一或戀着終犯玩喪戒 한 번이라도 집착하는 마음이 생기면 마침내 玩喪의 경계를

112) 『瓶窩集』, 卷1, 체제공, <序文>. 先生, 蓋常以爲丈夫事業, 不必役心於文辭字句間. 以故 隨遇撈管, 取足以達其辭而止 而惟其聰明該貫, 博極羣聖賢言, 心學造詣, 又從以左右逢原. 書牘之答人叩問, 雜著之論辯理數, 出入於天人之際, 幽眇於繩墨之內, 豐而不孛, 詳而不瑣. 要之, 非摛擢組織以就者 而菽粟裘葛, 得以適其宜而已.

범하게 되나니

我聞明鏡物過無遺累 나는 듣건대 밝은 거울에는 물건이 지나더라도 누를 남기지
않는다 하네.¹¹³⁾

이 시는 형식면에서 매우 이례적인 9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아마 그가 다양한 형식을 모색한 데서 기인한 것 같다. 작자는 사물을 관찰하는 데 있어 이치를 관찰해야 하며, 괴롭게 탐색하지 말고, 자연스런 일상 속에서 이치를 찾아야 한다고 하였다. 산, 내, 바람, 달, 꽃, 새와 같은 것도 禮樂과 文學으로 더불어 정한 이치가 있으니, 지나치게 집착하여 마음에 누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였다. 그는 이러한 觀物의 자세를 토대로 작품 외적인 요소에 구애 받지 말 것을 주장했다.

音韻의 경우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또한 末端일 뿐입니다. 마음에 진실로 그것을 해득하면 音韻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올발라 모든 吟詠이 발할 때 자연히 조화를 이룰 따름인데 어찌 일찍이 쓰르라미처럼 쓸람쓸람하고 귀뚜라미처럼 귀뿔귀뿔하는 것으로써 돌아가며 서로 宮이 되는 것으로써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¹¹⁴⁾

이것은 李萬敷(1664~1732)에게 답한 편지의 일부분이다. 음과 韻의 배합이나 高低 抑揚 등은 詩歌를 읊조리는 데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로 다루어졌다. 하지만 그는 音韻과 같은 외부적인 요소에 구애됨은 마음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그는 진실한 마음으로 그것을 해득하여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그가

113) 『瓶窩集』, 卷2, <觀物>.

114) 『瓶窩集』, 卷7, <答李仲舒>. “至於音韻, 於治心, 亦末耳. 心誠解之, 流出亦正, 凡於吟詠之發, 自然諧協而已, 易嘗以蜚螻蜚啾, 責之以旋相爲宮乎”

詩歌를 읊는 데 있어서 音韻의 조화를 부정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그는 문학의 독자적 가치를 인식하였으나, 지나친 形式美를 추구하는 행위를 비판하고, 형식에 매이지 않고 사물의 이치를 궁구해서 간결한 어조로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려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2) 牧民官의 姿勢와 濟州 風俗의 形象

瓶窩는 다양한 시들을 남기고 있다. 그는 앞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문학의 독자적 가치를 인식하였으나, 지나친 形式美를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으므로 형식에 매이지 않고, 사물의 이치를 궁구해서 간결한 어조로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려는 작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서는 瓶窩의 제주 관련 시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적인 면모를 “牧民官으로서의 姿勢 및 現實認識”, “現實에서의 挫折과 自然回歸”란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牧民官으로서의 姿勢 및 現實認識

瓶窩는 그의 나이 51세까지 內外 職을 두루 거쳤다. 이러한 관직 생활을 통해 그는 적극적으로 현실에 참여하였다. 하지만 그는 여러 外職을 전전하면서 많은 고통을 겪었고, 모함으로 인하여 투옥되기도 하는 등 현실과 이상과의 괴리 속에서 좌절을 겪었다. 예컨대 그는 제주 목사 시절 여러 차례의 상소를 올려 부조리한 현실을 바로잡으려 하였다.¹¹⁵⁾ 특히 <濟州民瘼狀>에서 그는 제주의 부조리한 관행을 여섯 가지 대목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하고, 변통을

115) 이형상, 『瓶窩集』, 17 권, <濟州民瘼狀> <濟州請繼後給案狀> <濟州請祀典變通狀> <再度>.

촉구하고 있다. 그리고 그가 남긴 『耽羅巡歷圖』와 『南宦博物』에는¹¹⁶⁾ 당시 제주의 모습과 물산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그는 제주 목사로 부임하여 직접 여러 가지 개혁을 시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제주에 유배된 같은 소론계의 吳始復(1637~?)을 두호한다는 이유로 일 년 만에 탄핵되어, 임기도 마치지 못하고 파직되어 돌아오면서 현실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다.

그렇다면 瓶窩의 牧民官으로서의 姿勢 및 現實認識에 대해 구체적인 作品을 통해 일단을 밝혀 보고자 한다.

辛巳年 겨울에 濟州牧使에 제수되었는데 도착하여서는 耽羅의 속된 풍속을 변혁할 생각으로 세 곳의 읍에 있는 聖廟를 보수하고 이름 있는 선비를 선발하여 訓長으로 정하여 학업을 독려하게 하였고 高氏 良氏 夫氏 三姓의 祠堂을 세웠다. 同姓 間의 婚姻과 異姓이라도 가까운 친척간의 婚姻과 婚禮 때에 交拜하지 않는 자와 妻를 두고 妻를 취하는 자 남녀가 함께 목욕하거나 여자의 나체 등은 조례를 만들어서 금하고 그 밖에 스스로 專制할 수 없는 것은 모두 狀啓를 보내어 보고했는데 그 조목이 14가지였고 임금이 모두 允許하였다. 도민 7백 명이 巾浦에 모여서 임금의 은혜에 절을 올리고 공에게 와서 인사를 올렸다. 공은 이에 淫祠에 대한 폐단을 샅샅이 말했더니 모두들 ‘공의 명령이 있는데 어찌 감히 따르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하고 나와서는 스스로 서로 전달하여 神堂 129곳 및 두 곳의 寺刹을 일시에 불사르고 천 개에 가까운 불상을 바다에 던져 버렸으며 무당들은 그들의 안상을 불사르고 農으로 돌아갔다. 전날에는 관에서 민가의 牛黃을 취했기에 임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은 그 주머니가 펑 두둑했는데 공이 도착하자 심약(약채를 심사 감독하는 관원)이 몇 개의 牛黃을 가지고 관청에 들어왔기에 공은 말하기를 ‘백성의 소가 牛黃을 지녔으면 백성이 스스로 취해야지 관이 무엇 때문에 관여하리오’ 하고는 드디어 종전의 법을 고쳐버렸다.¹¹⁷⁾

116) 참고로 『南宦博物』에서 제주의 山水 地理, 歷史와 古蹟, 物産과 人物 등에 대해 『邑誌』 형태의 기록을 남기기도 하였고, <荒服願戴歌>, <毛羅歌>, <牛島歌>, <耽羅詩> 등의 제주 관련 한시 작품을 남겼다.

117) 『瓶窩集』, 卷18, <行狀>. 除濟州牧使, 至則思有以革耽羅陋俗, 修三邑聖廟, 選有儒名者, 定訓長課學, 建高夫良三姓祠. 條禁同姓之婚, 異姓切親之婚者, 婚禮時不交拜者, 有妻取妻者, 男女同浴 女子裸體者, 其餘, 非可以自專者, 并馳啓以稟, 其目十四, 上皆允之. 島民七百人, 會巾浦拜天恩, 來謝于公. 公仍備言淫祠之弊, 咸曰“公有命 其敢不承” 出而自相告語, 神堂一百二十有九及二刹, 一時火之, 投佛像于海, 近千巫覡, 皆焚其案而歸之農. 前時, 官取民牛黃, 準瓜者 其囊頗潤, 公至, 審藥, 持數部入監, 公曰“民牛有黃, 民當自取, 官何與焉” 遂革其規.

위 글은 瓶窩의 濟州牧使 時節 치적에 대하여 <行狀>에 약술된 내용이다. 그는 耽羅의 陋俗을 개혁하고, 미신을 타파하여, 백성들을 미혹하지 않도록 하려 하였는데, 그가 현장에서 儒敎的 精神을 실천하려 하였음을 알 수 있다.¹¹⁸⁾ 특히 위 글에 언급되어 있듯이 瓶窩는 관에서 民의 牛黃을 취해 사복을 채우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결국 제도를 개혁하여 백성의 피해를 묵과하지 않으려 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그가 牧民官으로서 백성을 위하려는 강한 집념을 느낄 수 있다. 그는 과감한 제도의 개혁을 통해 백성들의 생활을 개선하려 하였던 것이다.

瓶窩가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이러한 부조리한 現實을 認識하였는가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조명할 수 있다. 그 역시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현실에 참여하였는데, 그럴 때마다 외부의 제약에 의해 심한 좌절을 겪어야만 했다.

그러나 그는 외면의 작용에 의한 내면의 갈등을 겪으면서도 자신의 소임에 충실하려 하였다. 다음 시를 통해 그의 牧民意識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 | |
|-------|----------------------|
| 兵馬水軍使 | 나는 병마 수군사로 |
| 耽羅節制營 | 탐라의 절제영에 왔네. |
| 一官前後倅 | 한 벼슬로 앞과 뒤에 부임한 목사요 |
| 三邑古今氓 | 세 읍은 고금의 백성일세. |
| 太宰曾云謫 | 태재는 일찍이 귀양 왔다 일렀으나 |
| 孤臣此亦榮 | 나는 이것 또한 영광으로 여기네. |
| 人皆欣我至 | 사람들은 모두 내가 옴을 기뻐하고 |
| 吏或笑相迎 | 아전들은 혹 웃으면서 서로 맞이하네. |
| 斲石看遺愛 | 새긴 빗돌에는 유애의 자취 보겠고 |

118) 이 점에 대해 제주 향토 사학자인 진성기 박사는 다른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데 「濟州道 巫俗 論考 (南國의 巫俗)」, (제주민속연구소, 1996. p.135)에서 “지역성을 무시하고 민간신앙에 대한 이해 없이 민의를 옳게 수용치 못했던 처사”라고 비판하였다.

| | |
|-------|-------------------------------------|
| 華扁記短行 | 아름다운 편액에는 시구 적혀 있네. |
| 逢新惟問俗 | 새로 만난 사람들에게 풍속 물어보고 |
| 話舊却飛觥 | 옛 이야기 하면서 술잔 서로 나누네. |
| 六十年風在 | 육십 년 전 유풍이 아직도 있어 |
| 八千戶役平 | 팔천 호의 부역이 공평하기 그지없네. |
| 空將當日蹟 | 속절없이 당일의 사적 잡아 가지고 |
| 留感后生情 | 후배의 마음에 감명을 남기누나. |
| 蔽芾甘棠詠 | 우거지고 우거진 감당을 노래하니 ¹¹⁹⁾ |
| 依倚皓月清 | 어렴풋이 보이는 흰 달빛이 깨끗하기도 하네. |
| 功曹廳上韻 | 공조의 당청 위에 걸린 시 |
| 攀和涕交橫 | 화답하려 하니 눈물이 앞을 가리네. ¹²⁰⁾ |

瓶窩가 濟州牧使 時節, 濟州鄉射堂에서 牧使 沈演(1587~1646)의¹²¹⁾ 시를 보고서 次韻한 것이다.¹²²⁾ 여기에서 작자는 兵馬水軍使로 耽羅節制營에 와서 목민관의 소임을 다했던 沈牧使를 칭송하고, 沈牧使의 목민관으로서의 자세를 본받고자 하였다. 작자는 沈牧使가 귀양 왔다 말한 그 장소에서 자신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백성들이 자신을 기쁘게 맞이하고 아전들 역시 웃으며 맞이한다는 시구를 통해, 이러한 그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 결국 그는 沈牧使와 차별화하는 상황의 반전을 통해 가능성을 나타내려 하였다. 작자는 돌에 새겨진 자취와 扁額의 시구들을

119) 『詩經』, 「召南」, <甘棠>. 蔽芾甘棠, 勿剪勿伐, 召伯所茇.

120) 『瓶窩集』, 卷1, <濟州鄉射堂次沈牧使韻>.

121) 圭峰 沈演(1587-1646)은 병자호란 때 雙嶺 전투에 패한 책임을 지고, 강화가 성립된 이후 임피(지금의 군산)로 유배되었다가, 1638년 재 등용되어 제주목사로 부임하여 역대 제주를 다녀간 그 어느 관료보다도 제주 민을 위한 선정을 베풀어, 본분에 충실한 목민관으로서 이름을 새긴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재임기간 동안 연희각을 소재로 지은 <延曦閣>, 관덕정을 소재로 지은 <觀德亭>, 방호소인 별방소를 소재로 지은 <別防所> 등 제주 관련 다수의 한시 작품을 남기고 있다.

122) 참고로 향사당은 관덕정의 부속 건물인데, 직접 관덕정을 소재로 활용하여 지은 작품으로, 金聲久 <次濟州觀德亭韻>, 李元鎮 <觀德亭>, 金緞 <觀德亭>, 金壽翼 <觀德亭>, 沈演 <觀德亭>, 李約東 <題濟州觀德亭>, <觀德亭>, 趙士秀 <觀德亭>, 李希雍 <觀德亭>, 閔暉 <觀德亭>, 沈連源 <觀德亭>, 金錫哲 <觀德亭>, 李民成 <觀德亭>, 鄭麟趾 <觀德亭> 등 제주 관련 한시 작품이 다수 남아 있다.

살펴보기도 하고, 풍속을 물어보고 술자리도 같이 하며, 좀 더 구체적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 몰입하려 하였다.

瓶窩에게 沈牧使는 이상적인 牧民官으로 받아들여졌다. 비록 육십 년 전의 遺風이라지만 그의 정치적 역량은 지금까지도 팔천 호의 負役이 공평하리만큼 그에게 감명을 주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이미 이루어진 성과를 뛰어넘기 어렵다는 현실인식은 보통의 경우 좌절, 내지는 현실 안주를 택하게 하기도 하지만, 瓶窩는 선정의 자취 속에서 자신의 사명을 거듭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瓶窩는 文王의 선정을 널리 편 召伯의 행적을 찬양한 『詩經』 <甘棠>편을 끌어와 沈牧使를 周나라의 外治를 공고히 했던 召伯에 비유하면서, 그 자신 沈牧使의 선정에 다가가려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를 외면하였다. 항상 그의 목민관으로서의 자세는 외부의 제약에 의해 좌절을 겪어야만 했다. 전술한 것처럼 그는 이듬 해 6월 제주에서 귀양살이하는 같은 소론계의 吳始復(1637~?)을 斗護한다는 지탄을 받아 임기도 마치지 못한 채 파직되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현실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 | |
|-------|---------------------------------|
| 寧作鼓刀人 | 차라리 백정이 될지언정 |
| 不爲珠履客 | 벼슬아치 되지 않겠네. |
| 身閒志亦泰 | 몸이 편하면 뜻도 편안한데 |
| 何獨關泉石 | 어찌 유독 천석에 관계하라. ¹²³⁾ |

위의 시에서 작자의 극심한 감정 표출을 살필 수 있다. 이것은 당시 정치현실과 관련이 있다. 결국 그는 극심한 당쟁 속에서 많은 염증을 느꼈던 것이다. “차라리 백정이 될지언정 벼슬아치는 되지 않겠다”라고 한 구절에서 세상을 향한 강한 그의 불만이 드러나고 있다. 제주목사에서 파직되면서 순간순간 표

123) 『瓶窩集』, 卷1, <浩然亭>.

출 충동을 느꼈고, 입안을 맴돌았던 말이다.

瓶窩는 이러한 과정에서 현실에 대한 끝없는 회의를 품게 되었다. 결국 이러한 현실에 대한 懷疑는 그로 하여금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현실인식의 토대를 마련하게 하였다.

이상에서 혼란했던 시기에 관직 생활을 하면서 瓶窩가 느꼈던 심정에 대해서술하였다. 그는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도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現實參與 姿勢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결국 극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시대 상황이 그로 하여금 많은 懷疑를 가지게 하였음을 살필 수 있었다. 아울러 그러한 과정에서 제주목사로 있을 때의 생생한 체험은 그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지을 때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한다.

(2) 現實에서의 挫折과 自然回歸

瓶窩는 자신에게 많은 시련을 안겨준 현실을 떠나 결국 自然回歸라는 길을 선택하였다. 瓶窩의 自然回歸는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반발이며, 黨爭 아래의 용기 있는 결단이었다.

조선후기의 老論에 의한 권력 집중은 상대적으로 많은 소외 계층을 양산할 수밖에 없었다. 少論에 속해 여러 外職을 전전하며 누차의 모함 속에서 자신을 보전해 가던 瓶窩에게 있어, 自然回歸는 어떻게 생각하면 불가피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인천 태생이며, 少論系인 그가 왜 南人들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영천으로 ‘落鄉’한 것일까? 그의 <言行錄>에는 “선생계 선 畿湖 地方은 서울이 가까우므로 벼슬을 그만두고 물러나 쉴 만한 고장이 못 된다고 생각하고, 오직 嶺南은 서울과 거리가 멀 뿐 아니라 산수가 아름답고, 더구나 선현들의 遺風善俗이 가히 모범이 될 만한 고장이라 해서 항상 뜻을 두었더니, 경주부윤을 그만두고 돌아갈 때, 영천성의 山川風光과 巖崖絶壁

이 그야말로 城市이면서도 山林의 雅趣가 있음을 발견하고, 여기에 행장을 풀고 淸溪위에 집 한 채를 지은 후 그 정자는 浩然이라 하고, 누각은 二養이라 하였다”라고 하여 그가 영천에 卜居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하였다.¹²⁴⁾ 이 외에도 영천은 교통의 요충지로 교류와 정보 교환이 유리하다는 점과 그 자신 南人들과의 유대 관계가 돈독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실지로 그는 그의 姪壻이자, 孤山 尹善道の 손자인 尹斗緒(1668~?)와 활발히 교류하였고, 李麟佐의 난 때, 南人들과의 유대 관계가 돈독하다고 판단되어, 慶尙下道 召募使에 임명된 것은 이러한 점을 반증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직접적인 作品 分析을 통해 그의 시가 가지는 自然回歸의 성격을 규명해 보기로 하겠다.

| | |
|---------|-------------------------------|
| 瀛州一役却身疲 | 제주 목사 벼슬 치름 하도 괴로워 |
| 投拔歸來意更癡 | 사포 내고 돌아오니 멍청하구나. |
| 魚鳥不猜知舊狎 | 새와 고기는 친구 사귄 시샘이 없고 |
| 菊梅相雜覺新移 | 국화랑 매화랑 섞여 옮겨 심음 알겠네. |
| 秋崖掃石雲生袖 | 가을 언덕에 돌을 쓰니 구름이 소매위로 솟아오르고 |
| 夜檻呼樽月滿危 | 밤 난간에 술동이를 대하니 달이 잔에 가득하도다. |
| 多少溪翁迎我笑 | 얼마의 늙은이가 날 맞아 웃으면서 |
| 浩然琴鶴問何遲 | 호연한 자유 생활을 왜 늦었냐고 묻네. |
| 一塵不到處 | 티끌 한 점 끼어들지 못하는 곳에 |
| 萬慮未生時 | 온갖 잡념 떠오르지 않는 때로다. |
| 太空怕寂寂 | 태공은 텅 비어서 적막도 해라 |
| 我亦欲無爲 | 나 또한 無爲하려 하네. ¹²⁵⁾ |

124) 『瓶窩年譜』, <言行錄>, p. 226. 先生, 以畿湖近京師, 非退休之地, 獨嶺南, 遠而多佳山水, 且有先賢有化, 常欲居之, 東都投拔之行, 見永陽郡城, 山川淸遠, 巖崖周遭, 以爲有城市山林之趣, 遂稅車而止, 築室臨溪上, 亭曰浩然, 樓曰二養.

장단구를 통해 자신의 심회를 표출하고 있다. <還寓>란 제목이 붙은 위의 두 작품은 파직되어 浩然亭으로 돌아온 직후의 심정을 그린 작품이다. 작자는 宦路의 어려움에 대해 “벼슬 치름 괴로워서 온통 멍청할 정도이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였다. 어쩌면 瓶窩의 관직 생활 모습이 늘 이랬었는지도 모르겠다. 항상 부푼 마음으로 임지에 다다라 地方官으로서 행정 처리에 골몰하다가 결국 당쟁에 휘말려 지칠 대로 지친 모습으로 돌아오곤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한 발짝만 물러나면 새와 물고기 국화와 매화를 친구 삼아 가을 하늘을 바라보다, 밤이 되어 달빛을 맞으며 술잔을 들고 있노라면 浩然한 자유 생활을 버리고 이제까지 무엇을 했을까하는 의문이 절로 생긴다. 온통 텅 비어 적막한 곳, 세속의 티끌 한 점 온갖 잡념이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어지고, 아무 생각 없이 이것을 즐기려는 생각이 절로 나는 것이다. 위의 작품은 그의 나이 51세 歸去來 직전의 심정을 나타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그는 맞지 않는 현실과 부딪히는 과정 속에서 자연을 동경하게 되고, 終局에는 歸去來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그의 심정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구체화된다.

| | |
|-------|------------------------------|
| 山是三神一 | 산은 삼신산 중의 하나요 |
| 檀爲太白餘 | 단향목은 태백의 여종인데! |
| 吾將千古意 | 내가 천고의 뜻을 가지고 |
| 晨夕六絃於 | 조석으로 육현에 노네. ¹²⁶⁾ |

이 시는 그가 ‘歸去來’한 직후인 54세 때의 작품이다. 그는 宦路의 역경 속에서 온갖 고뇌에 지친 자신의 심신을 아침저녁으로 거문고를 연주함으로써 달래고 있다. 瓶窩의 거문고는 그가 제주목사 시절 한라산의 단향목으로 만들

125) 『瓶窩集』, 卷1, <還寓>.

126) 『瓶窩集』, 卷1, <檀琴>.

어, 파직되어 돌아올 때, 詩抄 몇 권과 함께 가지고 왔던 것이다. 이것은 그의 관직 생활의 청렴성을 대변하는 물건이다. 瓶窩는 세상을 떠난 지 63년이 되던 正祖 20년에 조정으로부터 清白吏에 錄選되었다. 실지로 瓶窩는 이 거문고에 많은 애착을 가졌으며, 지금도 그의 유물관에 남아 있다. 이렇듯 그를 위로해 주던 거문고를 연주하며, 당쟁의 현실을 떠나, 참된 자기로 돌아가려 하였다. 결국 그의 귀거래는 그가 제주 목사로 재임 시절 어쩔 수 없는 현실을 체험하고, 인식한 뒤로 끊임없이 그를 괴롭혀온 화두를 풀기 위하여 선택한 방법이였다.

따라서 그는 이 순간 참된 자기를 발견하려는 작업에 충실할 수 있었다.

| | |
|---------|---|
| 搏飯喚羹飽卽休 | 밥 먹고 국마시고 배부르면 쉬니 |
| 此心常足更何謀 | 이 마음 늘 만족한데 다시 무엇을 도모하랴. |
| 經綸在室規宜大 | 경륜이 가정에 있으니 규모를 크게 해야 마땅하고 |
| 坐臥隨時養亦優 | 앉고 누움을 때에 따라 하니 양생하는 것 또한 넉넉하다. |
| 無事可當王謝貴 | 일없으니 왕사의 부귀에 해당될 만하고 |
| 有書寧羨泰恒遊 | 책이 있으니 어찌 태항의 놀이 부러워하랴. |
| 茲歡倘使朱門覺 | 이 즐거움 만약 주문에서 깨닫게 한다면 |
| 夢裡浮榮恐不求 | 꿈속의 뜬 영화는 아마도 구하지 않을 듯싶네. ¹²⁷⁾ |

위의 시 수련에서 작중 화자는 마음의 평화를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있다. 이제까지의 복잡했던 현실에서 벗어나 外物에 구애됨이 없는 심적인 만족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承句에서는 자신이 이제부터 해야 할 일에 대해 자각하였고, 또한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자신 있게 표현하고 있으며, 경련에서는 현실에 대한 근심걱정이 사라지고, 책과 함께 할 수 있는 지금, 어떠한 富貴와

127) 『瓶窩集』, 卷2, <處窮>.

놀이도 부러울 것이 없다고 하였다. 마지막 結句에서 부질없이 현실의 욕구를 좇고 있는 무리들을 향해, 만약 지금 자신의 평안한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구름 같은 榮華를 구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우회적으로 자신의 달관된 심리상태를 드러내었다.

이상에서 그가 현실을 떠나 歸去來하여 自然에 沈潛한 이후의 삶을 살펴보았다. 그는 제주목사를 지내는 동안 체험을 통해, 歸去來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실천한다. 이후 확립한 修道人의 자세를 통하여, 자연에 동화된 상태에서 한 올 한 올 그간의 결과들을 풀어 놓았다. 결국 그는 강호를 완상의 공간과 비방과 획책에 대한 도피처, 明哲保身을 위한 일시적인 피난처로 삼지 않고, 그가 외직을 전전하며 끊임없이 소망해 오던 수양에 대한 갈망을 실현하기 위한 面壁의 장소로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3. 石北 申光洙

주지하듯이 石北은 弱冠時부터 “文名動一國(문학적 명성이 한 나라를 풍동시킨다)”이라 할 만큼 일세를 풍미했던 詩人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락한 남인 출신으로 西人이 장악하고 있는 치하에서 출사할 길이 없었다. 따라서 그는 50세까지 고향인 韓山에서 가난한 선비 생활을 보내던 중 英祖의 탕평책의 일환인 蔭補로 영능 참봉에 제수되고, 52세 때에는 金吾郎의 명을 받고, 耽羅에 들어가게 되었다. 石北은 耽羅에서 45일 동안 머무르며, 100여 수의 시를 지어 『耽羅錄』이라 명명하였는데, 200년 전 耽羅에 전해지던 신화 전설과 언어 풍속을 상세히 기록하였다.

주지하듯이 耽羅는 신화 전설과 풍속이 내륙과 매우 다른 고장이었다. 石北은 이에 대해서 풍속지적으로 고찰할 수 있게 다양한 기록들을 남겼다. 또 제주를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 밖에 위치하고 있어서 중앙 관서에서 행정권

이 미치지 못하여, 관리들의 권한이 어디보다도 많았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었다. 石北은 가난한 선비로 50세까지 향리에서 보냈고, 출사 이후에는 지방관을 전전하던 미미한 南人으로 조금 더 밀착된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 백성의 고충과 관리들의 가혹한 처사를 자세히 체험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는 조선후기 제주의 사회상을 사실적으로 조명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록하였다.¹²⁸⁾

현재까지의 石北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전개되어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¹²⁹⁾ 하지만 이러한 성과 이면에 그에 대한 개별 연구가 약부 작품에 편중되어, 일정한 방향성이 표류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자는 그의 문학성, 특히 시재가 완전히 녹아 있는 『耽羅錄』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부분적이긴 하지만 오히려 전체를 응축시켰던 그의 역작 『耽羅錄』의 모습이 다소나마 밝혀지고, 이에 따라 그의 문학 전체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더하여 조선후기 탐라의 적나라한 모습을 다시 한 번 세상에 드러내어, 탐라라는 지역적 한계 속에 면면히 이어졌던 여러 문인들의 기록들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의 한 방향을 설정하려 한다.

우선 그의 사실 지향적 민풍 반영의 문학의식을 밝혀, 적극적인 작가의 시대정신을 드러내고, 이것을 바탕으로 그의 風流意識, 官僚意識, 愛民意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耽羅錄』의 세계를 살피려 한다.

1) 民風의 寫實的 形象

어떠한 문인의 문학작품이건 작가 개인의 평생 동안 경험적 소산물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문학작품이라는 것이 모

128) 참고로 李玄煥의 『蟾窩雜著』에는 『耽羅錄』을 비평한 <瀛洲唱和錄序>가 들어있다.

129) 이가원, <石北文學 研究>, 『동방학지』, 1958.

이경수, <石北詩 研究>, 국문학 연구회, 1978.

이기현, <石北 申光洙의 「金馬別歌」 연구>, 한국한문학회연구 제17집, 1994.

정 민, <石北 申光洙의 生涯와 詩>, 『石北 申光洙 詩選』, 평민사, 1993.

이기현, <石北 申光洙 文學 研究>, 보고서, 1996.

두 작가가 처한 환경의 범위 속에서 잉태된 응축물이기 때문이다.

石北은 평생을 다채로운 문학적 명성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락한 남인이라는 신분적 한계 속에 가난하고 불우한 삶을 살다가, 인생 말기에 당평책의 일환으로 조성된 분위기 속에 벼슬살이를 하게 된다. 『耽羅錄』 역시 그가 금오랑으로 제주에 갔다가 風雨로 뱃길이 45일 동안 막혀, 제주를 벗어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창작된 역작이다. 따라서 『耽羅錄』 속에는 가난하고 불우했던 과거 속에서 체득된 자신의 경험들을 토대로 고통 받고 있는 제주민의 생활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그것들에 대한 기록을 남기려 하였다.

우선 그는 이국적 물색을 노래하였다.

| | |
|-------|--------------------------------|
| 久我南中客 | 오래도록 남도의 나그네 되어 |
| 頗於土俗詳 | 토속을 자세히 알게 되었네. |
| 方音多細急 | 방언은 가늘고 급한 것이 많고 |
| 夷姓半高良 | 성씨는 고씨 양씨 태반이네 |
| 只見蜂房石 | 돌 위의 벌집 같은 현무암은 보았지만 |
| 虛聞馬尾裳 | 말총치마 헛소문이었네. |
| 北人如問事 | 북쪽 사람들이 지방의 일들 물어보면 |
| 歸作話頭長 | 들려줄 얘기 많기도 하구나 ¹³⁰⁾ |

이 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작가는 이국적 풍물에 대하여 생소한 북쪽 지방 사람이지만, 객관적인 시각으로 여러 가지 이 지방만의 특색을 시화하였다. 즉 제주의 방언, 성씨의 분포, 풍토, 산물 등에 대하여 특이한 사실로 받아들였다. 이러한 石北의 자세는 사물에 대한 배타심을 버리고,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여, 이국적 물색을 사실 그대로 기록하려는 개방화된 인식의 틀에서 비롯된 것이다. 石北은 이러한 인식의 토대 속에 당시 사회의 모순된 모습을 문학에 담으려 하였다.

130) 신광수, 『石北集』 권7, <土風>.

白頭蠻家女 새하얀 머리 섬 여자들
 焦髮蠻家兒 푸석한 머리 섬 아이들
 累累爲羣十數人 웅기종기 떼를 지은 수십 명의 거렁뱅이
 皆着半鞞黃狗皮 하나 같이 옷도 못해 입고 털 빠진 개가죽 둘러썼네.
 一身枯黑皮粘骨 검게 타서 여윈 살갓 뺏골에 달라붙고
 飢不成音細如絲 목소리도 배고픔에 실낱같이 가느다랗게
 口稱使道活人生 “사또님 사또님 불쌍한 인생 살려 주옵서.”
 乞飯公庭日三時 관아 문전 앞에서 하루 세 때 구걸을 하는데
 赤棍牌頭噴如雷 곤장 든 패두놈 벼락같이 소리치며
 曳出門外鳴聲悲 대문 밖으로 끌어내니 부르짖는 소리 애달퍼라.

<中略>

况復風雨北船阻 게다가 또 풍우로 육지 배 오래 막혀
 米貴絕無如今春 올봄 같이 쌀이 귀한 해 언제 다시 있었으랴!
 近聞髮帽涼臺不論直 근자에 들리는 말이 잣과 양태 값이 헐값이라
 富者但用小米三升得 부자들 좁쌀 석 되면 그걸 사서 쓴다네.
 此邦富者能幾何 이 고장 부자라야 기껏 몇 명이나 되랴.
 又失今農亦溝壑 금년에 또 실농하고 보면 마소가진 이들도 견디기 어려워리.....
 耽羅乞兒聞我言 탐라의 거리지들 내 이르는 말 듣더니
 一時掩面啼向北 일시에 얼굴들을 가리고 북쪽 하늘 바라보고 울먹이며
 北方雖遠父母邇 북녘은 아무리 멀어도 마음은 지척이나 다름없사오니
 萬里明見耽羅國 머나먼 탐라땅 밝게 밝게 굽어 살피시리.....131)

조선후기 文學史에 있어서 주목할 만 한 점은 민풍을 노래한 악부시가 풍부하게 지어졌다는 점이다. 이 시기 樂府詩 또한 당대의 시대정신을 반영한 결

131) 신광수, 『石北集』 권7, <濟州乞者歌>. 참고로 시 번역은 임형택의 『李朝時代 敘事詩』에 들어있는 것을 그대로 원용하였음을 밝혀둔다.

과 조선적 냄새를 물씬 풍기는 것이 많고, 당대의 삶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담고 있는 것이 많다.¹³²⁾ <濟州乞者歌>는 조선후기 詩史的 변화의 한 양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 飢寒이 완전한 섬나라 백성들의 전신이 바짝 말라 검게 그을렸고, 기맥이 소진해 버린 목소리는 실오라기처럼 가늘면서 “사람을 살려다오.”라는 구호를 부르짖었다. 또 그들은 관아에 三時로 들어와서 호소하였으나, 악착같은 당시의 관리들은 아랑곳 하지 않을뿐더러, 민정을 暗察하는 직책을 지닌 소위 暗行御史들도 정당한 보고가 없었고, 관아의 牌頭들이 도리어 赤棍으로 그들을 구타하는 사실을 목격한 작자는 국가의 政化가 이에 미치지 못함을 慨嘆하고 자기가 먹던 片肉과 餘飯을 그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

이러한 그의 비분강개함은 다음 작품에서 더욱더 구체화 된다.

| | |
|---------|-------------------------------|
| 耽羅女兒能善泐 | 탐라의 여자애들 자맥질을 잘하나니 |
| 十歲已學前溪游 | 열 살이면 벌써 헤엄치기 배워 시냇물에 나가 논다네. |
| 土俗婚姻重潛女 | 이 고장 풍속이 잠녀를 둔 부모들 혼인말 나면 |
| 父母誇無衣食憂 | 우리 딸은 의식 걱정 없다 자랑삼아 이야기한다지. |
| 我是北人聞不信 | 나는 육지 사람이라 그런 말 듣고 믿기지 않았는데 |
| 奉使今來南海遊 | 이번에 제주도 건너와서 남쪽 바다 노닐어 보니 |
| 城東二月風日暄 | 제주성 동쪽 이월달 날씨도 화창하여 |
| 家家兒女出水頭 | 집집마다 계집애들 물머리로 나오는데 |
| 一鍬一笊一匏子 | 호미 한 자루 다래끼 하나에 뒤옹박 하나 차고서 |
| 赤身小袴何曾羞 | 은 잠뱅이 맨살이 드러나도 부끄러울 게 무엇이랴. |
| 直下不疑深青水 | 깊고 푸른 바다 서슴없이 곧장 뛰어들어 |
| 紛紛風葉空中投 | 가을 바람에 낙엽이紛紛히 떨어지듯 |
| 北人駭然南人笑 | 육지 사람들 놀라는데 섬 사람들 깔깔대누나. |

132) 이기현, <石北 申光洙의 「金馬別歌」 研究>, 한국한문학회연구 제17집, 한국한문학회, 1994.

<中略>

金玉達官庖 금관자 옥관자 벼슬아치의 주방
綺羅公子席 비단옷 입은 귀공자의 식탁
豈知辛苦所從來 상위에 진진히 쌓인 음식 고통이 서린내력 어찌 알까보냐!
纔經一嚼案已推 겨우 한입 대보고 벌써 상을 물린다네.
潛女潛女 잠녀야, 잠녀야.
爾雖樂吾自哀 너희 즐거워 보여도 나의 마음 슬프도다.
奈何戲人性命累吾口腹 남의 생명을 가볍게 여겨 어찌 나의 입과 배에 누를 끼치랴!
嗟吾書生 애달프다, 나 같은 서생은
海州青魚亦難喫 해주 청어도 먹기 어렵나니
但得朝夕一蠶足 아침 저녁 끼니에 해채 한 접시면 족하단다.¹³³⁾

<潛女歌> 는 제주도 해녀들이 해산물을 채취하는 광경을 묘사한 악부시이다.¹³⁴⁾ 장단구를 사용하여 제주 처녀들의 삶의 참 모습을 사실대로 포착하였다. 다분히 낭만적인 정취를 자아낼 수 있는 이국적 풍물이었지만, 생계를 위해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작업하는 광경에 감탄하고, 이를 현실적으로 묘사하는 한편 그러한 생산물이 육지의 양반들에 의해 수탈됨을 批判한 작품이다.¹³⁵⁾ 李家源은 <潛女歌>에 대하여 “이에는 潛女の 전면적인 생활 실태를 곡진하게 묘사하되, 그들을 貪利輕死의 가없는 苦海에서 구출치 못함은 오로지 金玉庖와 綺羅席의 일부 귀족 계층의 갖은 淫逸과 착취로 이 불균형의 사회를 조성하였으며, 이에 기인한 모든 비극은 쉽게 한 개의 서생인 石北으로서는 만회하기 어려움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였음은 아니겠지만, 그의 충군애국적인 불타는 사상을 갑자기 억제하기에는 어려웠던 것이다”라며 비분강개한

133) 신광수, 『石北集』 권7, <潛女歌>. 참고로 시 번역은 임형택의 『李朝時代 敍事詩』에 들어있는 것을 그대로 원용하였음을 밝혀둔다.

134) 참고로 잠녀를 소재로 지은 吳箕南 <潛婦>, 失名氏 <潛水女歌三十九韻>, 失名氏 <潛水女答歌三十九韻>, 失名氏 <探鰈> 등 제주 관련 한시 작품이 다수 남아 있다.

135) 이경수, <石北詩 研究>, 국문학회연구회, 1978.

석북의 심정을 드러내었다.¹³⁶⁾ 이 당시 잠녀들의 고통에 대하여 樊巖 체제공은 <萬德傳>에서 “더구나 耽羅의 연인들은 바다를 건너 물에 오를 수 없는 것이 당시 국법으로 정해져 있었다 한다”며 당시 제주 여인들의 구속된 삶을 꼬집었다.¹³⁷⁾ 실제로 제주도는 땅이 척박한데다 바다로 둘러싸인 곳이기 때문에 潛女들의 바다 일이 섬사람들의 의식을 해결하는 생계의 방편이었다. 따라서 이들의 삶은 당시 제주 구성원들과 일정 부분 궤를 같이할 수밖에 없었다.

아무튼 潛女들이 바다 속에 들어가서 해산물을 캐는 장면은 한편 생동감이 있다. 제주도의 전형적인 풍토성과 활기찬 노동 현장은 건강한 삶의 모습이다. 갈고리, 종다래끼, 뒤옹박 등의 작업 도구를 하나씩 들고, 벌거벗은 몸에 조그만 잠방이 하나만을 걸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潛女의 모습을 작자는 있는 그대로 그려냈다.

潛女의 모습은 北軒 金春澤의 <潛女說>을 연상케 하는데, <潛女歌>는 이 작품과 함께 潛女の 작업 과정에 대한 光景을 그린 대표적 작품이다.¹³⁸⁾ 潛女の 바다 일에 대한 감탄은 곧 연민의 정으로 表出된다. 감탄이 연민의 정으로 바뀌는 순간 육지와 대조적으로 생명까지 무릅쓰고 일을 해야 하는 潛女の 신고한 삶이 드러나고 있다. 때로는 이무기의 밥이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바다 일을 해야 하는 것이 潛女の 삶이다. 운명적인 바다 일보다 더 사나운 인간들이 그들의 勞動力을 빼앗고 있음을 놓치지 않았다. 이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만을 생각하는 벌벌 층이다. 潛女の 목숨을 건 해산물의 내력을 모르는 벼슬아치의 주방 장면을 통해 潛女の 비극적 상황이 보다 부각되고 있다. 대조적 현실을 통해서 모순에 가득 찬 현실을 폭로하고, 백성들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는 고관대작의 파렴치한 삶을 적나라하게 비판했다.

시대는 다르지만 石北 역시 몰락한 남인의 시각으로 현실의 절감을 통해,

136) 이가원, <石北文學 研究>, 『동방학지』, 1958.

137) 체제공, 『樊巖集』 권55, <萬德傳>, 蓋耽羅女人之禁 不得越海而陸 國法也.

138) 김춘택, 『北軒集』 권13, <潛女說>.

중앙 정부의 변방 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였다. 따라서 그는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 당시 제주의 피폐한 현실을 사실적 민풍 반영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나라에는 樂府가 없다”¹³⁹⁾는 극단적 언급을 하면서까지 악부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가진 진정한 樂府를 창작하려 했던 그가 樂府體의 특성을 살려 자세히 드러내려 하였다는 것이다.¹⁴⁰⁾

이것은 안대희가 18세기 한시사의 흐름에서 三淵의 과도기적 역할을 중요하게 평가했던 것처럼, 石北 역시 이러한 조선후기 큰 詩史的 흐름에 동참하고 있는 듯 보인다.¹⁴¹⁾

2) 作品의 世界

樊巖 蔡濟恭은 젊은 시절부터 晩年까지 石北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 平生知友였다. 그는 누구보다도 石北의 시재를 높이 인정하였다.

| | |
|-------|------------------------------------|
| 當世知名士 | 당세에도 이름난 선비 많지만 |
| 無如申聖淵 | 신 석복 따를 자가 정녕 없구나. |
| 詩不今人似 | 시는 지금 사람과 같지 않고 |
| 交能古全道 | 사귄에는 옛 법도 온전히 하였네. ¹⁴²⁾ |

이 작품을 통해 樊巖이 石北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石北의 시재 또한

139) 신광수, <關西樂府 竝序>, 『石北集』 권10, 東國無樂府.

140) 안대희, 『韓國 漢詩의 分析과 視覺』,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0.

141) 안대희, <18世紀 韓國 漢詩 史 研究>, 소명출판, 1999, 참고로 작자는 삼연의 시를 평하면서 “三淵이 일상의 평범한 사실을 平澹하게 그린 시에 대하여 표면적으로 주어진 생활의 단면을 평담하고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이지만, 그 심층에는 시인의 철학적 내면을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곧 인식적 깨달음을 바탕으로 하여, 주변 사물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려 하였다고 말하면서, 三淵이 제기한 변화는 詩史的으로 볼 때 혁명이었다. 그것은 낭만주의로부터 사실주의로의 전환을 뜻하는 것이며, 중세의 보편주의에서 근대적인 개별 주의로의 전이, 중화주의에서 조선주의로의 전이라는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다.

142) 채제공, 『樊巖集』 권4, <憶申聖淵>.

탁월한 수준에 올라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石北은 이러한 그의 시재를 가지고, 英祖 40년(1764) 金吾郎으로 제주에 들어가, 45일 동안 머물면서 적지 않은 시를 지었는데, 여정을 형상한 것까지 합쳐 『耽羅錄』이라 명명하였다. 모두 100여수에 이르는 『耽羅錄』에는 제주의 風俗과 풍토성을 그린 것이 많으나, 異國的 정취 속에 그의 風流意識이 드러난 작품과 官僚意識 및 愛民意識을 형상화한 작품들이 적지 않다.

다음에서 石北이 제주를 형상한 작품을 몇 가지 주제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1) 風流意識의 具顯

石北은 역시 시인답게 제주로 향하는 뱃머리에서 바라다 보이는 한라산의 모습을 시로 형상화하였다. 이것을 가지고 특이한 그만의 행적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유야 어떻건 제주를 다녀간 수많은 문인들에 의해 남겨진 작품들 속에서 당시 제주의 정취를 엿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직접 石北의 시를 통해 이러한 정취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 |
|---------|--------------------------------|
| 靑靑天水有無間 | 푸른 바다 끝이 없는 듯 |
| 使者孤舟向百蠻 | 이내 몸 외로운 배 저어 남으로 향하네. |
| 一片白雲南極外 | 남녘 끝에는 한 조각구름만이 떠 있는데 |
| 艸工道是漢擎山 | 사공이 한라산이라 말하네. ¹⁴³⁾ |

그야말로 지극한 서경적 시각을 가지고 제주의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배를 타고 제주로 들어올라치면 아득한 제주 섬 가운데 우뚝 솟은 한라산 허리를 구름이 감싸고 있는 모습이 마치 미인이 치마를 종아리 위로 살짝 치켜 올린

143) 신광수, 『石北集』 권7, <至半洋望漢擎山>.

듯 은은하게 느껴진다. 이 작품에서 작자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바다 밖에서 바라다 보이는 신비한 제주의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그리고 그는 <初度日值春分州妓綠壁間病餉橋以詩謝贈>, <獻贈少妓碧桃月>, <別時船上贈一絕>, <贈綠壁弟子月蟾>, <楸子前洋夕望漢孛山> 등에서처럼 이별의 정한을 노래하기도 하였다.

그중 <贈綠壁弟子月蟾>을 보자.

| | |
|---------|--|
| 蘇小家中學舞娘 | 소소의 집 안에서 춤을 배운 아가씨 |
| 隨孃送客到橫塘 | 노파따라 연인이 임 보내려 횡당에 이르렀네. |
| 津亭落日相思曲 | 진정에서 해가 질 때 상사별곡 부르나니 |
| 不待明朝已斷腸 | 이튿날 아침 되지 않았는데 벌써 애가 끊어지네. ¹⁴⁴⁾ |

이별의 정한을 노래하고 있다. 蘇小의 집에서 춤을 배웠다는 것은 그만큼 춤을 잘 추는 여인임을 의미한다. 소소는 흔히 名妓의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 여인이 임을 보내려고 橫塘까지 따라 왔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送別宴의 자리에 참석했다는 뜻에 다름 아니다. 送別宴에서 기녀들이 춤과 노래를 하고 있다. 기녀 月蟾의 相思別曲이 너무나도 애절하여, 이별의 시간인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벌써 애가 끊어진다고 읊었다. 도도한 풍류 속에서 이별의 정한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다.

(2) 官僚意識의 透映

조선은 三綱五倫이 사회를 지탱하는 이념으로 작용한 나라이다. 국왕은 신하와 백성들 역시 임금의 백성으로 임금은 이들을 통솔해야 한다. 이러한 것을 위계질서로 제시한 것이 君爲臣綱이다. ‘綱’이란 그물코를 꿰어 놓은 밧줄

144) 신광수, 『石北集』 권7, <贈綠壁弟子月蟾>.

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물눈은 수백 수천 개나 되지만 밧줄 하나만 당기면 끌려오게 되어 있다. 군주는 수많은 백성과 신하를 거느린다. 오륜 중에서 군주와 신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주지하듯이 君臣有義다. 이것은 임금과 신하가 지켜야 할 도덕적 의무를 뜻한다. 상하의 수직적 질서에서 보다 강조되는 것은 임금에 대한 신하의 태도이다. 그러므로 조선조에는 ‘臣事君以忠’이 무엇보다도 강조되었다. 不忠은 곧 滅族의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임금에 대한 충성이 나라를 지탱케 한 근본적인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에 강조되었고, 이것이 하나의 이념으로 굳어져 벼슬의 여부를 떠나서 모든 일을 君恩으로 돌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耽羅錄』에서도 君恩이 자주 언급되었다.

| | |
|---------|------------------------------------|
| 山出三州拱天文 | 산이 세 고을 위를 솟구쳐 하늘의 꾸밈 끌어안고 |
| 帝座常時呼吸聞 | 옥황상제 호흡소리 항상 들리네. |
| 穆王八駿應渡海 | 목왕의 팔준마는 응당 바다를 건널 수 있고 |
| 麻姑一鹿今留雲 | 마고할미의 사슴 지금 구름 속에 머물러 있네. |
| 銀臺咫尺不可到 | 은대가 지척이건만 오를 수 없고 |
| 藥草慳秘何由分 | 약초는 깊이 감춰져 캐낼 수 없네. |
| 南極老人若堪摘 | 남극 노인성을 딸 수 있다면 |
| 北歸吾將持贈君 | 돌아가서 임금님께 드리고 싶구나. ¹⁴⁵⁾ |

三神山의 하나가 한라산이거니와, 위에서 도교적 상상력이 풍부히 발휘되고 있으며, 그 속에 임금에 대한 지극한 충심을 담았다. 옥황상제의 숨소리가 언제나 들릴 것 같은 한라산이다.¹⁴⁶⁾ 주나라 穆王의 팔준마가 바다를 건넜다는

145) 신광수, 『石北集』 권7, <望漢擎山吳體>.

146) 전술한 것처럼 제주의 산수지리를 소재로 지은 작품들은 크게 순수 자연의 이국적 소재를 가지고 지은 작품 군과 육지와는 다른 물산을 소재를 활용하여 창작된 작품 군으로 나눌 수 있다. 순수 자연의 이국적 소재로 지은 작품 중에는 한라산과 백록담, 그리고 그 주변을 작품의 소재로 활용한 것이 숫자로 보아 가장 많은데 구체적인 작품 군을 살펴보면, 직접 한라산을 소재로 지은 金萬希 <漢擎山>, 李益泰 <漢擎山>, 李源祚 <重力日見擎頂白雪>, 金聲久 <登漢擎山絕頂>, 金仁政 <漢

것은 곧 石北 자신이 남해 바다를 건너 제주에 머물고 있음을 말한다. 자신을 穆王에 비유함으로써 신화적 세계 속에 들어가고자 했다. 그러므로 새 발톱 같은 손톱을 한 미모의 여인 마고의 사슴이 한라산에 머물고 있다고 했다. 한라산을 仙郷으로 인식했음이다. 神仙들이 살고 있는 은대에 올라가 그들과 仙遊를 즐기고 싶는데 올라갈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임금의 萬壽無疆을 생각했다. 그러므로 장수의 심상을 지닌 南極老人星을 따다가 임금님께 바치고 싶다고 토로했다. 충심의 직접적 표출이다.

임금에 대한 忠心을 직접적으로 표출했음에도 시적 분위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것은 풍부한 문학적 상상력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곧 도교적 상상력이 작품의 미적 예술성을 유지케 했다. 이러한 경향은 <漢拏山歌>에서 특히 잘 나타나 있다.¹⁴⁷⁾ 여기서 ‘君王不使我求仙/ 我欲爲君而採藥(군왕께서 나에게 선약을 구하라고 하지 않았지만/ 나는 임금 위해 선약을 캐려 한다)’이라고 했다. 임금을 위해서 불로불사약을 캐어 바치고 싶은 간절한 심정의 표출이다. 임금에 대한 신하의 직접적 충심의 표출임에도 불구하고, 시적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현실적 욕망이 비현실적 세계 속에 구현됨으로써 문학성을 높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련의 작품들은 제주의 자연을 미적으로 포착하면서 한편으로 여기에 자신의 관료로서의 자세를 투영시켰다.

이러한 君恩은 자칫 짐작으로 바뀌기도 하였다. 탕평책의 일환이라지만 지

拏山>, 金綴 <登絶頂>, 金綴 <漢拏山>, 李增 <祭罷登絶頂次金令丈韻>,文昌來 <漢拏山>, 金成鐸 <漢拏山歌>, 李健 <上漢拏山>, 趙觀彬 <登漢拏絶頂口號>, <漢拏山>, 金麟厚 <漢拏山>,權近 <漢拏山>, 姜師孔 <漢拏山賦>, 高永夏 <漢拏山>, 金應洙 <遊漢拏山>, 金義正 <漢拏山>, 高永昕 <漢拏山>, 金錫翼 <漢拏山>, 백록담을 소재로 지은 李源祚 <白鹿潭>, 金聲久 <白鹿潭>, 金綴 <白鹿潭>, 金宜鍾 <白鹿潭>, 任觀周 <白鹿潭>, 한라산의 길목으로 가장 길이가 짧은 등반로이기도 하고, 기암절벽이 유명한 영실 계곡을 소재로 지은 李源祚 <靈室石>, 李慶億 <靈室遇雨>, 金綴 <靈室>, 玄癸平 <靈室奇巖>, 한라산 속에 들어있는 암자로 제주를 찾았다가 한라산을 오르는 과정에서 여러 시인 묵객들이 잠시 묵어 가기도 했던 암자인 존자암을 소재로 지은 李元鎮 <尊者庵>, 李慶億 <尊者庵>, 한라산 정상에서 바라다 보이는 광활한 바다를 소재로 지은 吳泰稷 <登拏山觀海>, 한사산 중턱의 어승생을 소재로 지은 吳章獻 <御乘生>등 제주관련 한시 작품이 다수 남아 있다.

147) 신광수, 『石北集』 권7, <漢拏山歌>.

금의 벼슬살이는 그 자신에게 생계가 달린 문제였다. 그는 모처럼의 벼슬살이가 풍우로 인해 수포로 돌아가지나 않을까 전전긍긍하였다.

가)

| | |
|-------|-------------------------------------|
| 南溟守風客 | 남쪽 바다 끝 바람을 지키던 나그네 |
| 如被祝融噴 | 마치 남해신의 노여움을 산듯하구나. |
| 高浪連千里 | 높은 물결 천리에 이어져 |
| 孤舟繫兩旬 | 외로운 배 20일을 매어있네. |
| 敢忘王命急 | 감히 왕명의 급함을 잊겠는가마는 |
| 惟恃聖朝仁 | 다만 성조의 어지심을 믿을 밖에! |
| 殘燭難成睡 | 꺼져가는 촛불 잠을 이루지 못해 |
| 相看每到晨 | 매번 서로 바라보며 새벽에 이르네. ¹⁴⁸⁾ |

나)

| | |
|---------|---|
| 忽聞風信放船催 | 홀연 바람소리 잠잠하여 얼른 배를 띄웠더니 |
| 風到前洋又逆來 | 바람이 앞바다에 이르자 역풍이 불어오네. |
| 風伯不知王事急 | 풍백은 왕명의 위급함 모르는 듯 |
| 戲人三泊望洋臺 | 사람을 희롱하여 세 번이나 망양대에 머물게 하는구나. ¹⁴⁹⁾ |

가)와 나)시 모두 왕명의 위급함에 대하여 아랑곳하지 않고 거세지기만 하는 풍우 앞에서 자신의 노심초사한 심정을 드러내려 하였다. 일면 풍백에게 애걸하는 듯 보이기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작자가 처한 당시 상황을 대변해 주는 것 같다.

148) 신광수, 『石北集』 권7, <遭颶 回泊滯病三旬 憫得一律>.

149) 신광수, 『石北集』 권7, <二月十九日 第三發回 泊 悶吟>.

(3) 愛民意識의 詩的 表出

石北은 하층민이나 위항인과도 교유하였다. 龔啞丐者나 占術家 劉雲泰 및 劍舞妓 秋江月 그리고 月溪樵客 丁峰 등과 관련된 시가 있으며, 毫生館 崔北에 대한 시도 있다. 특히 書吏 朴壽禧는 제주도에서 留館하며 지낼 때 더불어 많은 시를 짓기도 했다. 이와 함께 노비에게 보낸 편지나 노비와 관련된 시 등에서 따뜻한 인간애를 엿볼 수 있다. 石北의 詩에서 하층민에 대한 연민의식은 이 같은 인간애의 발로라고 하겠다. 布衣로 關西에서 노닐 적에 關西伯 鄭翬良은 邸舍에서 한번 사귀기를 원했으나 石北은 끝내 사양했다. 그리고 英祖가 집과 노비를 내렸으나 모두 받지 않은 謙德兼介한 성품의 소유자이기도 하였다.

石北은 몰락한 기호 남인 출신이다. 그가 50이 넘은 나이에 탕평책에 의해 관료에 들어서게 되었지만, 그 자신 처절한 인고의 세월을 보냈다. “양반도 농사를 지어 생계를 이어가야 한다”는 星湖 李瀾의 말에서 대변되듯 간간히 벼슬살이가 이어졌고, 검약한 생활 속에 누대로 물려오는 적은 토지지만 체면유지 정도는 할 수 있었던 영남 남인들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토지를 가지고 척박한 환경 속에 생활을 이어야만 했던, 기호 남인들의 처지는 이대 이상 벼슬이 끊어지면 생계조차 망막해지기 일쑤였다. 이러한 주변적 체험의 상황이 오히려 그에게 백성들의 생활을 사실대로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다.

清絶蘇安島
船頭望白沙
入林無海色
經麓始人家
商舶春通米
村盤夕有鰕

말쭙한 외딴 소안도
뱃머리에서 바라보니 모래사장 펼쳐졌네.
숲으로 들어서니 바다색 전혀 없고
기슭을 지나니 비로소 인가들이 보이네.
상선들이 봄이 되어 미곡을 실어 나르건만
시골 저녁 밥상에는 달랑 새우뿐이네.

夜聞官吏語
官稅到天涯

밤이 되어 관리들의 말을 들으니
관세가 천정부지로 뿔다하네.¹⁵⁰⁾

뱃머리에서 아무생각 없이 바라보면, 그야말로 얼마간 모래사장이 펼쳐진 여느 곳과 다를 것 없는 고즈넉한 어촌의 풍경이다. 하지만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 백성의 생활을 들여다보면, 상선들이 부지런히 실어 나르는 쌀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고, 달랑 새우 몇 마리뿐인 조출한 저녁 밥상에서 현실적 아픔이 그대로 전해진다. 더하여 이러한 상황이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욱 더 치솟는 세금 때문에 더 이상 기대할 것조차 없는 가난한 농촌의 무기력함이 작자에 의해 너무도 뾰뚱하게 형상화되었다.

조선왕조 말기의 사회는 세도정치로 인한 제반 폐해와 계속되는 재난 때문에 국가재정은 위축일로에 있었고, 삼정의 문란으로 인한 세정의 불공정과 지방 관리의 불법 수탈로 말미암아 농가 경제는 과탄에 직면하고 있었다. 반면에 민중의 지식수준은 날로 향상되어, 그들의 경제의식도 차츰 높아가고 있었다. 이와 같은 부조화현상은 철종 때로 접어들면서 더욱 더해 갔고, 그 가운데서도 三南地方의 그것이 가장 심했다. 전라도 관찰사 鄭獻教가 그의 狀啓에서 “濟州 民亂의 직접 요인은 오로지 長吏의 貪虐때문이었다”고 하였던 것이 반증이 되지 않을까 싶다.¹⁵¹⁾ 조선후기의 제주 민란을 石北이 형상화한 관점 아래에서 보면 얼마간 예고된 결과라고 하더라도 논리의 비약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 시 두 편을 보자.

가)

石田頻歲海民饑

자갈밭 잦은 흉년 남도 백성 주리고

150) 신광수, 『石北集』 권7, <宿蘇安島>.

151) 김진봉, <哲宗祖의 濟州民亂에 대하여>, 『풀빛2』.

滿目淒涼物色悲
從古魚鹽無市國
如今風雨絕船時
長毛鎮卒偷廚肉
黃面蕃姑剝樹皮
我亦王人來此地
每當朝夕自停匙

눈 가득 처량한 물색 슬프기도 하구나.
예로부터 어염으로 장이서지 않는 나라
지금처럼 풍우가 뱃길을 끊을 때면
장모 진 역졸들이 부엌고기 훔쳐내고
황달 색 변방 아낙 나무껍질 벗기네.
나 또한 신하로 이곳에 와서
매번 조식을 대할 때면 절로 순갈 멈춘다네.¹⁵²⁾

나)

三縣三周供
荒年久客難
日邊頻有詔
海外不無官
草食民啼路
鶉衣吏繞盤
青衫貧使者
何術救饑寒

삼현에서 세 번 돌아가며 식사를 대니
흉년에 오래묵기 난처하구나.
서울에선 자주 조서 내리고
바다 밖 관리 없는 것 아니네.
풀을 먹고 백성들이 우는 길에
누더기 입은 관리들 밥상에 둘러앉았네.
청삼 걸친 가난한 사신이
어떻게 기한을 구휼한다 할 수 있으랴!¹⁵³⁾

石北은 문학적 능력과 지식 경륜 등을 펼쳐볼 기회를 늦도록 가져보지 못했으므로 그의 시는 自憐自哀의 서글픔이 주조를 이루지만, 한편으로는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풍자, 대상에 대한 事實的이고 세부적인 묘사에 있어서도 탁월한 시재를 발휘하고 있다.

당시 흉년을 만난 제주도 백성들의 참상은, 가)의 <憫荒>에서 ‘長毛鎮卒偷廚肉/ 黃面蕃姑剝樹皮(장모 진 역졸들이 부엌고기 훔쳐내고/ 황달 색 변방 아

152) 신광수, 『石北集』 권7, <憫荒>.

153) 신광수, 『石北集』 권7, <又憫荒>.

낙 나무껍질 벗기네)’로 나타났고, 나)의 <又憫荒>에서는 ‘草食民啼路/ 鷄衣吏繞盤(풀을 먹고 백성들이 우는 길에 / 메추라기 옷 입은 관리들 밥상에 둘러 앉았네)’라고 표현하였다. 세 고을에서 세 번 돌림으로 식사를 대왔을 정도로 관가도 어려운데 흉년에 오래 있기가 어려운 것이 관리의 심정이다. 관리가 있음을 굳이 말한 것은 관리가 백성을 다스린다는 사고의 반영이다. 그러나 풀을 먹고 살 수밖에 없는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듣고도 현실적으로 구제할 방법이 없다. 백성들의 비참한 참상에도 불구하고, 그 饑寒을 구제할 수 없는 관리의 괴로움을 통해 愛民意識을 표출한 것이다.

탐관오리의 횡포와 포악상이 잘 드러난 <金馬別歌>의 내용을 부분적으로나마 살펴보면, 그의 愛民意識에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다.¹⁵⁴⁾ ‘탐관은 구휼물자인색하여서/ 송곳으로 부황 든 백성 찌르더니만/ 암관은 아전들 손아귀에 놀아나/ 고을엔 기와집이 많기도 했네(貪官愛賑財/ 持錐刺浮黃/ 暗官入吏袖/ 邑中多瓦屋)’라고 하였는데 어리석은 赴任官들이 자신들의 욕심에 눈이 멀어 아전들의 손아귀에 놀아나기 때문에 민정을 밝게 살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기가 똑바로 확립될 수도 없었다. 아전들은 그 틈을 이용해 苛斂誅求를 일삼아 私腹을 채우고 있다.

154) 신광수, 『石北集』 권4, <金馬別歌>.

IV. 流配客의 漢詩世界

앞장을 이어 본 장에서는 내도한 목적에 따라 流配客 중에 鄭蘊, 金春澤, 金正禧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제주에 유배되어 머무르며 제주에서 지은 작품을 고찰하여, 流配客이 남긴 제주 관련 한시의 온전한 모습을 살피려고 한다.

사전적으로 보면 流配는 죄인을 멀리 귀양 보낸다는 뜻이다. 하지만 어원적으로 流와 配는 그 뜻이 조금 차이가 있다. 流는 아주 먼 곳으로 보내어 살게 한다는 뜻이다. “죄가 綱常을 범하여 속사정이 아주 깊은 자는 태장 100대를 치고, 3000리 밖으로 보내는 형에 처한다(罪犯綱常情理深重者杖一百流三千里 『大典通編』)”라고 한 것이 流刑을 보내는 법조문이고, 配는 먼 곳으로 보내어 어느 곳에 배속시킨다. 즉 자유롭게 외출할 수 없게 장소를 한정시킨다는 뜻이다. “역적의 아버지가 나이가 80이면 사형을 감하여 먼 곳 섬에 가두어 살게 한다(逆賊父年八十者減律絕島定配 『大典通編』)”, “주인을 배반한 노비를 본 역을 따라 먼 곳 섬에 가두어 살게 한다(叛主奴婢仍本役絕島定配 『大典通編』)”는 조목의 말처럼, 가두어 살게 하면서 자기의 본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配刑을 보내는 법조문이다. 또한 “추자도와 제주 목에는 특별한 명이 없으면 정배하지 못한다(楸子島濟州牧特教外勿爲定配 『大典通編』)”는 조목이 있다. 이러한 조목들이 제주가 유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끔 강요했던 합리적인 근거가 되었다. 그리고 “제주 삼읍에 유배된 이는 삼 읍 안에서 서로 비등하게 정배한다(濟州三邑流配者三邑內互相定配 『大典通編』)”라는 조목을 통해, 모든 유배 자들을 제주 안에서 자체적으로 분산 배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곧 같은 제주 유배라도 제주 목, 대정 현, 정의 현의 구별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조선조 동안에 삼 읍중에서 가장 적은 수의 유배객들이 거쳐 간 정

의현에 유배 왔던 사람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산군 4년(1498)에 洪裕孫, 광해군 4년(1617)에 金德龍, 9년(1617)에 元悰, 인조 원년 (1623)에 徐旻, 6년(1628)에 李珙(仁城君)의 처자, 7년(1629)에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4명, 25년(1647)에 洪茂績, 효종 5년(1654)에 宋之濂, 현종 15년(1674)에 李鼎基, 숙종 29년(1703)에 閔時俊, 경종 1년(1721)에 趙鼎彬, 2년(1772)에 申鉉, 같은 해 趙聖復 李壽民, 3년(1723)에 金善材, 다음 해에 金一鏡 李時弼 金聖鐸, 영조 4년(1728)에 尹鳳朝, 27년(1751)에 李存中, 31년(1755)에 노예가 된 德福과 趙榮恒, 沈鼎淵, 沈來復, 32년(1756)에 崔鶴令, 34년(1758)에 李亨達, 36년(1760)에 申思運, 다음 해에 千光福, 45년(1769)에 金履禧, 47년(1771)에 黃德惠와 愛連, 다음 해에 金致三, 정조가 즉위한 (1776)에 洪纘海, 姜德輝, 이름을 알 수 없는 흑산도의 죄인, 4년(1780)에 洪柱翼, 6년(1782)에 趙貞喆, 14년(1790)에 정배 중인 李會遂와 中 信圭, 현종 14년(1848)에 李承憲이 위리안치 되었다.¹⁵⁵⁾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정의현 한 곳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나름의 이유로 유배되어 머물렀다. 이것은 제주 전체의 경우를 놓고 볼 때 적은 수이지만, 이것을 근거로 제주 유배의 대강을 파악할 수 있다. 어쨌든 조선조의 제주 유배는 현실적으로 중죄인의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나 대부분 사화나 당쟁과 관련되어 있었으므로 기회가 오면 사태가 반전되어 재 등용될 수도 있다는 의식이 작용하여, 본인이나 수용자인 도민의 입장에서조차 결코 절망하거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무게가 얹힌 과객으로서의 대우였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趙貞喆은 12년간의 제주 유배를 거쳐 해배된 이후, 다시 제주목사가 되어 제주를 찾았고, 정은 역시 10년간의 유배 이후, 인조반정을 통해 복권되어 현달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삶 역시 마음을 수양하고, 주위를 돌아보아, 그 결과를 시문으로 드러내는 일상적인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였다.

155) 오문복, 『정의군지』, 남제주문화원, 2005.

마땅히 이들 모두의 작품을 자세히 분석하여, 면면에 흐르는 그들의 삶의 어려움, 제주에 체류하는 과정에서 관심을 가졌던 일들과 그들의 눈에 비친 진솔한 제주의 모습을 두루 다 살펴야만 한다. 그리하여 글 전체의 주제를 아우를 수 있는 모습을 도출해야만 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그 중에 제주 五賢의 한 인물로 현재까지 숭배되고 있고, 유배 시절 남긴 작품이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이 많은 桐溪 鄭蘊을 고찰하였다. 이어서 누구보다 노소의 갈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였고, 여러 가지 문학적인 성과를 남겼으며 부자간의 유배라는 독특한 전력이 제주의 유배 상황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인물로 꼽히는 北軒 金春澤이 남긴 『囚海錄』 속에 담긴 작품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조선후기 예술사를 대표하고, 문학적으로도 큰 성과를 낳은 秋史 金正喜가 제주 유배 기간 동안에 추사체를 완성하며 지은 작품들을 살피는 것으로 제주와 관련된 한시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배객들의 작품 세계를 살피려 한다.

1. 桐溪 鄭蘊

桐溪 鄭蘊(1569-1641)은 남명의 경의사상을 철저히 계승하여, 엄격한 출처관, 사회적 실천 정신, 현실 지향적 학문 성향을 지향하면서, 철저히 남명을 사숙하고 행동하려 했던 인물이다. 그는 주지하듯이 광해군 대에 출사하여, 동왕 5년 그의 나이 46세에 부사직으로 영창대군을 죽인 정향을 처형하고, 대군의 위호를 복위할 것을 주장한 <甲寅封事>를 올렸다가, 제주 大靜縣에 10년 동안 위리안치 되었다.

현재까지 그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¹⁵⁶⁾ 그리고 그는 인생의 황금기인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의 10년 동안 제주에 위리안치 되어,

156) 오수창, <동계 정은의 정치활동과 그 이념>, 『남명학 연구』 11집, 한명기, <동계 정은의 행적과 그 역사적 의의>, 『남명학 연구논총』 9집, 2001.

많은 고초를 겪으면서도 문학적인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제주 관련 한시 작품을 많이 남겼다. 그의 시 세계를 밝히기 위한 일환으로 제주 流配詩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¹⁵⁷⁾ 특히 그의 제주 유배기는 유배라는 극한 상황 하에서 어떤 식으로 삶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극복하는가의 중요한 분기점이라 할 수 있다. 필자가 이 시기에 지어진 그의 작품에 주목하는 이유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동계의 진솔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고, 부차적으로 제주를 다녀간 많은 조선조 문인들 가운데, 그가 五賢으로 숭앙되고 있는 실체가 비취지리란 기대를 가진다.¹⁵⁸⁾ 논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먼저 그의 ‘義’로 일관된 삶에 대하여 살피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의 제주와 관련된 시 속에서 한 유배객의 그리워했던 인간적인 모습과 悔恨의 情緒를 돌아보고, 결국 그가 현실을 벗어나 求道者의 삶을 살려했던 모습을 고찰하려 한다.

1) ‘義’로 일관된 삶

그가 출사한 이후의 시기를 네 단계인 流配 以前 初期 出仕期, 流配 時期, 解配 以後 再 出仕期, 현실을 벗어나 求道를 향한 은둔기로 나눌 수 있다. 桐溪는 이러한 삶의 과정 속에서 ‘義’로 일관된 삶을 살았다. 그의 유배 시기는 이러한 의리에 바탕 한 삶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의 의리에 기초한 삶의 과정을 돌아보는 것은 그의 유배를 이해하는 단초가 되리라 생각한다.

桐溪는 선조 39년(1606) 38세에 진사를 거쳐, 광해군 1년(1609) 광릉참봉을 받아 출사하고, 사간원 정언을 거쳐, 광해군 5년(1613) 계축옥사에 부사직으로 있으면서 영창대군의 문체를 주장한 <甲寅封事>로 인해 제주 大靜縣에 위리안치 되었는데, 이 시기를 초기 출사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 그는 강경한 원

157) 여운필, <동계 정온의 삶과 시>, 『한국한시작가연구』 9집, 2004.

158) 참고로 제주 五賢은 冲庵 金淨, 圭庵 宋麟壽, 淸陰 金尙憲, 尤庵 宋時烈. 桐溪 鄭蘊이다.

척론자로서의 명성을 얻게 된다. 이러한 명성의 기저에는 그의 好善惡惡의 마음이 기반 한다.

다음을 살펴보기로 한다.

從事 朴明搏가 「郭越傳」을 찬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자세하고 정확하여 거의 유감이 없다. 다만 한스러운 것은 白士霖의 죄상이 간략하여 자세치 않음이니 이것이 어찌 勸善懲惡의 방법이겠는가? … 君子는 “郭越을 죽인 자는 왜놈이 아니라 바로 士霖이다.” … 사람이 죽인 사람은 郭越 뿐만이 아니다. 세 고을의 아들을 고아로 만들고 세 고을의 아내를 과부로 만든 것이 그 얼마인지 모른 즉 士霖의 죄는 참으로 용서받을 수 없다. … 아아! 公論이 밝혀지지 않고 邪論이 제멋대로 생겨나서 士霖의 목이 오래 부지하게 하였으니 통탄할 만하다.¹⁵⁹⁾

1597년 정유재란 때, 趙宗道, 郭越 등이 金海府使 白士霖과 함께 黃石山城을 지키다가 白士霖이 성이 함락되기도 전에 몰래 도망함으로 해서, 趙宗道와 郭越은 물론 안음, 함양, 거창 고을의 백성들이 무수히 죽었다. 이 글은 1600년에 쓴 것으로 되어 있으니, 당시 桐溪의 나의 32세였다. 桐溪는 비겁한 白士霖의 행위를 단호하게 응징하는 표현을 쓰지 아니한 朴明搏의 글로는, 白士霖의 죄상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 정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밝히기에 부족하다고 여겨, 자발적으로 이 글을 지었던 것이다. 자기의 명예나 출세를 위한 글이 아닌 오로지 정의 구현을 위해 이러한 글을 지었던 것이다.

아무튼 그는 본격적인 벼슬살이 이전에 이미 임해군의 의문의 죽음에 대하여 스승인 정인홍에게 편지를 보내, 국왕의 지친에 대한 은혜를 온전히 할 것을 주장하면서 ‘임해군의 평일 소행은 처형할 만하지만 역모의 허실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하였다.¹⁶⁰⁾ 그러나 정인홍은 그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임

159) 鄭蘊, 「書郭義士傳後」 『桐溪集』 2권 33~35장 (『韓國文集叢刊』 75권 189~190쪽), 朴從事汝昇, 傳郭越事蹟, 甚詳且的, 殆無餘憾. 獨恨夫白士霖罪狀, 略焉不詳, 斯豈勸懲之道乎?… 君子曰 殺越者 非倭也, 乃士霖也. … 士霖所殺, 非徒越而已. 孤三邑之子, 寡三邑之妻者, 不知其幾何 則士霖之罪, 固不容誅. … 嗚呼! 公論不白, 邪議橫生, 使士霖 久保首領, 可痛也已.

160) 정은, <與鄭仁弘書>, 『桐溪集』.

해군을 역신으로 규정하고 토벌할 것을 주장하였다.¹⁶¹⁾ 이러한 스승 정인홍과의 정치적 견해 차이는 얼마간 수면 아래에 있는듯하다가, 그가 영창대군이 살해당한 직후에 올린 <甲寅封事>에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게 된다. 그는 영창대군을 살해한 강화부사 정항을 처형하고, 대군의 위호를 회복하라고 주장하였다. 영창대군이 '禍本'이 될 가능성을 인정하더라도, 여덟 살 밖에 되지 않은 대군이 죄가 있을 리 없으며, 국왕의 뜻 또한 그를 없애려고 한 뜻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¹⁶²⁾

결국 그의 <甲寅封事>는 광해군의 격노를 샀고, 스승과도 결별하게 되는 지경에 놓이게 되어 위리안치 되었다. 얼마간 桐溪를 두둔하려는 세력이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어진 인목대비 廢妃論은 서인 남인의 축출, 복인 일각의 도태를 수반하였으며, 그러한 역학 관계 위에서 서인들의 거사 빌미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정국의 흐름 속에서 桐溪는 스승과의 관계의 틀을 벗어나 대의명분론을 고수하였다. 임해군 문제도 그가 왕가의 첫째 왕위 계승자라는 명분을 담았고, 영창대군 문제도 왕실의 어린 지친을 보호해야 한다는 맥락에서였다. 폐비 문제도 그가 광해군을 향해 '인목대비와의 모자관계를 잘 유지하라'고 당부한 내용은 이후 정국을 꽤 뚫는 통찰력에 기초한 것이다.¹⁶³⁾

桐溪는 인조반정 이후 재 출사하게 되는데, 광해군 시절 <甲寅封事>를 올렸을 때와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 선조의 7남인 인성군은 평소에 인망이 있어서 서인들이 반정을 모의할 때, 추대 논의가 있었던 인물이다. 그랬던 만큼 인조의 정통성에 위협을 끼치는 존재였으며, 실제로 인조 대의 많은 역모에서 그를 왕으로 추대하려 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그가 광해군 시절 폐모청정에 참여했다는 사실 또한 불리하게 작용되었다. 그리하여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161) 『광해군일기』, 광해군 즉위년 7월 신묘.

162) 정은, <甲寅封事>, 『桐溪集』.

163) 『光海君日記』, 광해군 6년 2월 갑진.

공신 등의 서인 세력은 인조 원년 李貴(1557-1633)가 그를 처벌하자고 주장함으로써 시작하여, 인조 6년 유효립의 역모 처리에 이르도록 공격을 계속하여, 마침내 제주에 유배한 후 사사하고 말았다.¹⁶⁴⁾ 이처럼 민감한 정치적 사안을 가지고 桐溪는 <甲寅封事>를 올려 영창대군을 보호하려 했던 때와 마찬가지로 仁城君(1588~1628)을 두호하였다.¹⁶⁵⁾

지난 날 永昌을 죽이기를 요청한 것과 오늘 인성을 죄 주기를 요청하는 것이 과연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르겠습니까? 만약 의리의 당부와 형적의 허실을 물어보지도 않고 한결같이 역적의 공초에만 의지하여 벌을 준다면 아마도 역욕이 일어나지 않는 해가 없을 것입니다. 인성이 비록 제거되더라도 어찌 다른 인성이 없겠습니까? 선왕의 아들이 아아! 다 없어지겠습니까? …殷鑑이 멀리 있지 않고 바로 廢朝에 있습니다. 廢朝에서 비록 혼란한 정사가 있더라도 만약 동기를 죽이지 않고 母妃를 폐하지 않았더라면 전하처럼 어진 마음과 성대한 덕을 지니신 분이랴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임금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¹⁶⁶⁾

桐溪의 주장은 인조반정이 일어나게 된 것은 광해군의 昏政 때문이 아니라, 그가 동기를 죽이고 母妃를 폐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이는 다른 말로 보면 반정을 한 인조도 동기인 仁城君을 죽이면 폐출당할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였던 것이다. <甲寅封事>로 인하여 10년간의 고초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았고, 더욱이 그것은 자신을 구제해 주었다고 해도 과연이 아닌 서인 정권의 정치 논리와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었다. 그러나 桐溪는 이러한 여건에 굴하지 않고, 인조를 향하여 ‘인성군을 죽일 경우 광해군처럼 나라를 잃을 수

164) 오수창, <인조 대 정치세력의 동향>, 『한국사론』 13,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85.

165) 참고로 인성군은 『濟州風土記』를 지은 이건의 아버지이다. 당시 아버지의 일에 연좌되어 제주에 유배되었었는데 전술한 것처럼 그는 이 시기의 제주 유배의 체험을 해배 이후 『濟州風土記』에 담았다.

166) 鄭蘊, 「甲子啓事」 『桐溪集』 3권 10장 (『韓國文集叢刊』 75권 207쪽), 襄時之請殺永昌, 今日之請罪仁城, 果孰是孰非乎? 若不問義理之當否, 形迹之虛實 而一以賊招而已乎 則逆獄之興, 殆無虛歲. 仁城 雖除, 豈無仁城? 先王之子, 噫! 盡之矣?… 殷鑑不遠, 只在廢朝. 若使廢朝, 雖有昏亂之政 而不殺同氣, 不廢母妃 則雖以殿下之至仁盛德, 不能一朝居此位也.

있다'고 경고하였다.¹⁶⁷⁾ 결국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인성군이 죽은 이후에도 '인성군의 죄를 사면하고, 그의 가족에게 은혜를 베풀라'는 주장을 폈다.¹⁶⁸⁾ 실제로 이러한 그의 주장이 얼마간 받아들여져, 인성군의 아들인 圭窓 李建을 포함한 식솔들이 해배되어 서울로 돌아올 수 있었다.

桐溪의 일생은 그의 아버지 嶧陽 鄭惟明이 起兵有司로 倡義함에 영향을 입었다. 이후 임해군과 영창대군의 일에서부터 인성군 역옥사건에서의 강력한 논의,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때 '國君死社稷'의 정신을 인조에게 끝까지 강조하면서 '大夫死官守'의 정신으로 자결을 시도한 일까지 한결같이 '義'로 일관된 삶이었다.¹⁶⁹⁾

2) 作品의 世界

桐溪의 시는 총 519제 554수가 남아 있다. 그 중에 주목되는 것들은 현전시의 절반을 훨씬 상회하는 280제의 제주 유배기의 작품들과 정묘 병자 두 호란과 관련된 30여제의 작품들로 보인다. 이것들에는 시인이 당면한 상황에 대한 투철한 인식과 현실에 대한 적극적 발언이 담겨 있다. 나머지 경성관관으로 좌천된 시기의 100여제의 작품과 비교적 평온한 시기에 지어진 100여제의 작품에서는 단순한 기행 시, 경물 시가 태반이고, 나머지도 應酬, 次韻, 사대부적 삶의 자세를 가다듬고자 한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필자는 제주 유배시기의 詩에 나타난 다양한 정서에 주목하였다.

(1) 戀情

桐溪가 제주에서 그리워하는 대상은 크게 가족, 그중 특히 어머니, 세 아들과 고향 벗, 임금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는 어머니와 임금을 동일 선상에 놓

167) 정운, <甲子啓辭>, 『桐溪集』.

168) 『仁祖實錄』, 인조 8년 4월 乙丑.

169) 이상필, <남명학파의 형성과 전개 (사상과 학파의 추이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1998.

고 작품의 소재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城上煙雲屯 성 위에는 연기구름 머물렀고
林間鳥雀喧 숲 사이엔 새들이 재잘대네.
斜陽獨依柱 석양 노을에 홀로 기둥에 기대어
千里未歸魂 천리 멀리 고향 간 마음 돌아오질 못하네.¹⁷⁰⁾

마을에서 피어오르는 저녁연기는 오붓한 가족의 정서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유배객의 눈에 비친 이러한 정다움은 간절하기 그지없었을 것이다. 거기에다 온 종일 먹이를 찾아 들과 산을 돌아다니다가 저녁이 되어 등지로 돌아와서, 마치 그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정히 얘기하듯이 재잘대는 새들의 모습에서 그리운 가족의 모습이 클로즈업 되었을 것이다. 석양이라는 소재가 주는 표면적인 이미지로도 얼마든지 작자의 심정을 대변할 수 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유배 현실은 작가로 하여금 우두커니 서서 천리 멀리 마음을 놀릴 뿐이다. 이러한 고향, 혹은 가족을 향한 그리움의 정서는 최치원이 당나라에서 고향을 그리며 지은 <秋夜雨中>이라는 작품에서 비롯되어, 이후 나그네의 대표적 정서가 되었다. 그리고 桐溪는 “이것은 분명 고향 산천의 물건인데/ 너는 어디에서 구하였단 말이냐(此是故山物/ 汝從何處求)”라며¹⁷¹⁾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기도 하고, “잠이 안 오는 이 밤 님 그리는 마음/ 눈과 달보다 단연코 더 하리(耿耿戀君心/ 較居雪月右)”이라며¹⁷²⁾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더니, “길고 짧은 노래 같지 않지만/ 모두 임금과 어머니 생각이네(長短雖不齊/ 俱是君親思)”라며¹⁷³⁾ 임금과 병약한 형에게 말기고 온 늙은 어머니를 함께 그리워하기도 하였다.

170) 정운, <斜陽>, 『桐溪集』.

171) 정운, <同奴進山葡萄>, 『桐溪集』.

172) 정운, <夜坐偶吟>, 『桐溪集』.

173) 정운, <夜歌>, 『桐溪集』.

다음을 보자.

| | |
|---------|----------------------------------|
| 如何鶴洞幽棲客 | 아! 원학동에 살며시 깃들던 나그네가 |
| 病臥東門第二橋 | 동문 제이교에서 병들어 누웠는가. |
| 世路自安常入險 | 세상 길은 절로 편안하거늘 항상 험지에 들어서고 |
| 要津在近每求遙 | 나루터가 가깝거늘 매번 멀리서 구하였네. |
| 短長日異宜圖郡 | 자그마한 재주 때가 아니니 지방관을 도모하고 |
| 補拾才虧愧在朝 | 보필할 만한 그릇이 아닌지라 조정에 남기 부끄럽네. |
| 牢掩紫扉春寂寂 | 잠긴 사립문이 봄인데도 적적하니 |
| 客中心事轉蕭條 | 나그네 심사 더욱 쓸쓸하구나. ¹⁷⁴⁾ |

작자는 기구에서 고향에 있어야 할 내가 어찌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가의 질문을 자신에게 던졌다. 그리고 곧이어 승구에서 자신이 이제까지 살았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한마디로 현실에 오활하여 늘 험준한 데로 자신을 이끌었다고 회상하였다. 전구에서 작중 화자는 자신의 그릇을 명확히 세상을 구제하기에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동시에 지금까지 그런 사실을 알았건 혹은 몰랐던지 분수에 맞지 않는 모습이었다고 돌아보았다. 마지막 결구에서 그는 이러한 앞의 사실로 인해서 아무도 찾아 주지 않아, 쓸쓸하게 지낼 수밖에 없다고 자신을 모질게 타박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이러한 표면의 뜻과 다른 무엇인가를 느끼게 된다. 물론 거침없었던 지난날의 자신의 모습, 예컨대 전 장에서 언급되었던 ‘義’에 기본해서 절대 타협이 없었던 삶을 후회하는 듯 보이지만, 그가 현재 결론지어진 유배의 현실을 달관하고, 그동안 그냥 스쳐 버렸던 지난 것들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 있다. 마치 “귀양 온 이 몸이 항상 먼저 듣다가/ 일어나매 눈물이

174) 정은, <無題>, 『桐溪集』.

뺨에 흥건하다오(遷客常先聽/ 推衾淚滿腮)¹⁷⁵⁾ 구절에서처럼 쓸쓸한 현재의 삶이 그리움으로 승화되어, 조금 더 고조된 분위기가 드러난다.

(2) 悔恨의 情緒

사십이 넘어 출사한 이후 경험이 없었기도 하겠으나 어쨌든 임금에게 버림을 당해 제주에 귀양 온 桐溪에게 悔恨의 情緒는 당연한 정서였을 것이다.

다음을 보자.

| | |
|-------|--------------------------------|
| 屈指計春秋 | 손꼽아 그 세월 헤어 보니 |
| 三時已徂隔 | 삼시 동안 외부와 단절되었네. |
| 幾作錦衣囚 | 거의 금의옥의 죄수가 되었더니 |
| 還爲窮途客 | 도리어 귀양 가는 나그네 되었네. |
| 鬢霜欲滿梳 | 흰머리 빗에 가득 묻어나고 |
| 年光將半百 | 나이는 장차 쉰 줄이 되었네. |
| 賦性一何愚 | 타고난 성품이 한결같이 어리석으니 |
| 如何恥人役 | 어찌 인역을 부끄러워하리. ¹⁷⁶⁾ |

작자는 두보의 시를 차운하여 자신의 심정을 이입시키려 하였다. 그는 시작 부분에서 1614년(광해군6) 2월에 올린 <甲寅封事>로 인해, 그해 3월에 추옥하여 국문을 받았다. 제주의 대정 현에 안치되기 위하여 7월에 출옥하여, 제주에 온 봄 여름 가을 동안 세상과 단절되었다고 하였다. 곧 지금의 옥사가 명나라 때, 황제의 직속으로 두었던 錦衣衛獄이라고 하면서 악명 높은 刑獄이라 규정하였다. 그리고 전환부에 와서 이러한 악명 높은 형옥의 희생양이 되어, 나이

175) 정은, <城門阜角>, 『桐溪集』.

176) 정은, <次杜詩韻>, 『桐溪集』.

선 줄에 났는데도 흰머리 털을 빗 가득 빗으며 고달픈 상황이 된 현실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드러내었다. 마지막 결론 부분에 와서 마음을 가라앉히려 노력하지만, 평정심을 찾기 어려워하였다. 다만 상대에게 돌리지 않고, 어리석은 자신의 성품을 질책하고 부끄러워하였다.

결국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이 지난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이다. 임해군 사사에서 출발하여, 영창대군 문제로 위리안치 되는 현실 앞에서 얼마간 세속적이지 못하는 자신이 밋고, 대충 시속을 따라 보신하는 무리들 속에서 자신의 진정이 통하지 않는 현실을 한스러워하였다.

| | |
|-------|---|
| 日暮村煙起 | 해 저물녘 마을에 연기가 피어오르니 |
| 鴉鳴老樹疏 | 갈 까마귀는 성긴 고목에서 우는구나. |
| 濁醪知妙理 | 막걸리에 묘한 이치 있음을 알겠나니 |
| 枯恨覺驅除 | 매마르고 한스러운 마음 사라지게 하는구나. ¹⁷⁷⁾ |

해 저물녘에 가족과 함께 할 수도 없고, 성긴 고목에 앉아 우는 갈 까마귀와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돌아볼 때, 자연스럽게 가슴이 답답해짐을 억누를 수 없었을 것이다. 다만 막걸리에 의지하여 달래며 씻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로 하여금 연거푸 잔을 들이키게 한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아쉬움은 후회로 남아 “나의 삶은 도리어 이와 같지 못하여/ 부나비의 위험을 끝내 알지 못했구나(吾生反不若/ 終昧赴燈危)”라며¹⁷⁸⁾ 부나비처럼 무모했다고 나무라기도 하고, “이것을 누가 금하고 막았기에 끝내 저버렸나/ 십년 세월 돌이켜 생각함에 얼굴이 붉어지네(伊誰禁禦終辜負/ 十載追思面發燠)”라¹⁷⁹⁾ 얼굴을 붉히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는 “매파에 인연하지 않고 (시집 가

177) 정은, <斜陽獨酌>, 『桐溪集』.

178) 정은, <有感>, 『桐溪集』.

듯이) 남쪽으로 귀양 왔으니/ 다만 영주의 바다 마을에서 신선의 도를 구하려 한다(不緣媒得南州謫/ 只爲求仙瀛海耶)¹⁸⁰⁾ 자신의 悔恨의 情緒를 求道로 승화시키기도 하였다.

(3) 求道

지극한 그리움과 悔恨의 情緒는 유배라는 제한된 환경 속에서 털어낼 수 있는 뾰족한 방법도 없었다. 후대 北軒이나 秋史에게 나타나는 방법이기는 하여도, 결국 유배라는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선비로서의 구도적 삶에 몰입할 수밖에 없었다.¹⁸¹⁾

| | |
|-------|-----------------------------------|
| 混混原泉上 | 세차게 솟아나는 원천 곁에 |
| 誰知勝景閒 | 한가한 승경을 그 누가 알리요. |
| 亭聲聞落子 | 정자에는 바둑 소리 들리고 |
| 塘影見青山 | 연못에는 청산 그림자 비취네. |
| 人是煙霞裏 | 이곳은 분명 연기노을 속이니 |
| 地非塵世間 | 이 땅은 티끌세상이 아니로세. |
| 梧桐明月到 | 오동나무에 밝은 달이 뜨면 |
| 彷彿兩岡還 | 두 갈림길을 서성이다 돌아오네. ¹⁸²⁾ |

한가한 승경을 배경 삼아, 정자에서 바둑을 두고 연못에 비친 청산을 내려다보며, 사색에 잠기기도 하였다.¹⁸³⁾ 실제로 桐溪는 대정 현감이 謫所에 서재

179) 정운, <憶松溪>, 『桐溪集』.

180) 정운, <次成觀明韻>, 『桐溪集』.

181) 줄 고, <北軒金春澤의 囚海錄의 한 局面>, 『한문학 연구』 계명한문학회 17집, 2002.
<秋史 金正喜의 濟州 流配詩 考察>, 『영주어문』, 2005.

182) 정운, <題原泉亭>, 『桐溪集』.

를 지어주었는데, 그곳에서 가지고 온 경사 수백 권을 읽기도 하고, 유생들을 가르치기도 하였다. 그리고 같은 謫居人 宋象仁(1569~1631) 李灃(1579~1624) 등과 함께 시문을 교류하기도 하고, 중국 성현의 행적을 적은 『德辯錄』을¹⁸⁴⁾ 만들어 自省書로 쓰고, 매년 3월 원단에는 自警箴을 지어 수양에 힘썼다.¹⁸⁵⁾

이러한 삶의 모습은 유배 이전 혼탁한 세상을 등지고, 몇 번이고 은둔하려 하다가 시행하지 못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는 제주에 유배 오게 된 경험을 아로새기며 “산신령에게 말하노니 너무 원망 마시라/ 살아서 돌아가면 이전 약속 지킬 터이니(寄語山靈莫深怨/ 生還準擬赴前期)”라고¹⁸⁶⁾ 표출하고 있는 바, 그는 해배 이후 남한산성 사건을 계기로 덕유산에 은둔하게 된다. 이는 마치 자신의 삶을 예단하는 것 같은 모습이기도 하다.

그리고 달관의 모습을 드러내었다.

| | |
|---------|--|
| 朝於北海暮南天 | 아침에는 북쪽 바다로 저녁에는 남쪽 바다로 |
| 蹤迹飄飄任自然 | 떠돌아다니는 이내 종적 자연에 맡겼네. |
| 浮世榮枯拋壯志 | 뜬 세상 영고성쇠에 장대한 뜻을 던져버렸고 |
| 高堂喜懼過稀年 | 고당의 어머니 일흔을 넘겼네. |
| 孤臣遠慕悲吟裏 | 고신은 임금을 그리며 서글피 읊조리고 |
| 遊子秋懷淚眼邊 | 유자는 가을을 느끼며 상심하네. |
| 今古賢才俱不免 | 고금의 현인 재사도 모두 면하지 못했거늘 |
| 況如微末更誰憐 | 나처럼 못한 사람이야 뉘라서 가련히 여기겠는가! ¹⁸⁷⁾ |

183) 참고로 바둑을 두는 과정을 소재로 지은 夫根錫 <圍碁>, 梁性弼 <圍碁>, 金奎彦 <圍碁>, 洪錫寶 <圍碁> 등 제주 관련 한시 작품이 다수 남아 있다.

184) 동계가 제주 유배 중 중국 은대부터 남송시대에 이르기까지 곤액과 우환이 있더라도 정적을 잃지 않았던 본받을 만한 인물 59인의 사적을 모아 편집한 것.

185) 고정우, <동계 정온의 유배한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대학원, 1986.

186) 정온, <憶松溪>, 『桐溪集』.

187) 정온, <次贈吳而混>, 『桐溪集』.

작자는 도입 부분에서 북쪽이든, 남쪽이든 억 매이지 않고, 자신의 종적의 결모습에 연연하지 않으려 하였다. 다만 자연스런 흐름을 타서 큰 어김이 없다면 그것에 만족하려 하였다. 더 나아가 뜬세상의 헛된 욕구에 대하여 포기하였다고 하면서, 자신이 펼치려 했던 장대한 뜻을 던져버렸다는 말로 대신하였다. 그러나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이다. 일견 그러한 것조차도 지극한 미련의 소산이 아니냐는 반문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다 던져버리고 나니, 활기분한 기분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다. 전환 부분까지 임금을 향한 끝없는 충정심을 드러내고 있어 혹여 현실에 대한 얼마간의 미련이 있는 듯 보이지만, 작중화자 스스로 상실의 계절 가을이라는 이미지를 통해 마무리하려 하였다.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예나 지금의 현인 재사들도 면하지 못한 것을 미천한 나의 경우야 말해 무엇하겠는가하면서 조용히 자신의 달관한 모습을 드러내었다.

2. 北軒 金春澤

주지하듯이 제주는 조선조 동안 본토와 얼마간 격리할 수 있다는 위정자들의 생각으로 인하여 19세기말까지 유형지로 주목받았다. 따라서 위험이 도사린 바다를 건너 제주도에 파견된 관리들 제외하고 대부분 유배되어 到來한 사람들이었다.

유배객들은 제주의 토착 원주민들과 원만하게 접촉했고, 때로는 일방적인 자신들의 시각으로 그들의 고유한 문화 전통 등을 개조하려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 상황에서도 일부 인사들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준다. 이를테면 조세 제도의 문란과 끝없는 관리들의 수탈 속에서 피폐해져 가는 민심을 어루만지려는 지식인들의 고발과 관리로 임무수행 중 목민관의 일에 충실하여 잘못된 제도에 대해 상소를 통한 역할을 수행하려는 것

이 그것이다.¹⁸⁸⁾ 이것은 조선후기 士의 역할 재고와 궤를 같이 한다. 아무튼 어떤 유형의 인물일지라도, 제주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보고 듣고 느낀 것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여 세상에 알리려 하였다. 여기에서는 유배 생활 동안 지식인들의 역할 수행에 대해 규명하려는 의도의 하나로 北軒 金春澤의 경우를 살피려고 한다. 왜냐하면 北軒이 5년 유배기간 동안 창작한 『囚海錄』은 당시 제주도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囚海錄』의 체제와 특징 및 北軒의 생애, 문학과, 문학사적 가치에 대하여는 이미 연구 발표된 바가 있다.¹⁸⁹⁾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기왕의 선행 연구들을 수렴하면서, 北軒이 22세에 해배된 부친을 모시러 제주에 들어갔다가, 부친의 문하생들과 함께 산천을 유람하며 지은 작품들과 그의 나이 37세에 제주에 이배되어, 5년 동안 적거하면서 지은 225수의 시와 29편의 문장 속에 내재되어 있는 두 시기의 현실인식의 차이를 직접 대비시켜, 차이점과 변모 양상에 대해 살피려고 한다. 이러한 논의는 北軒의 『囚海錄』에 대한 검증이 될 뿐만 아니라, 제주도 유배기의 한 단면을 이해하는데 일정하게 기여할 것이다.

1) 作品의 世界

北軒은 그의 나이 22세에 해배된 부친을 모시러 제주에 들어갔다가, 부친의 문하생들과 산천을 유람하며, 제주를 묘사한 여러 편의 작품을 남겼다. 그리고 그의 나이 37세 제주에 이배되어, 제주 朝天關에 도착한 1706년 9월 29일부터

188) 金尙憲, 『南槎錄』. “金尙憲이 임란 후 제주 안무어사를 맡는 동안 견문한 기록 수록. 임란 후 민중사회의 한 단면과 민심 동향을 알게 해줌”

李源祚, 『耽羅錄』. “李源祚가 29개월 간 제주 목사로 있으면서 날마다의 사건이나 사안을 중심으로 기록. 상, 중, 하 세 권의 방대한 기록”

189) 梁淳珽, <北軒 金春澤의 濟州流配漢詩考>, 제주대학교 『白鹿語文』, 제6집, 1989.

蔡奘鐘, <北軒 金春澤의 文學論>, 『芳村 俞睿根博士 華甲紀念論叢』, 간행위원회, 1990.

鄭雨峰, <北軒 金春澤의 生涯와 文學觀>, 『金萬重文學研究』, 국학 자료원, 1993.

金英珠, <北軒 金春澤의 文學論 研究>, 『大東漢文學』, 2001.

1710년 7월23일 別刀浦를 떠나기까지 5년 동안 제주에 적거하면서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이러한 작품들을 모아 『囚海錄』이라 명명하였다.

주지하듯이 그의 생애는 노소론 당쟁의 정점 즉 노론이 점점 쇠퇴해 가는 시기에 노론의 삼대 가문 중 하나인 광산 김씨 가의 적장자 신분으로 소론의 수많은 견제와 감시 속에서 유배로 점철된 짧은 생을 살았다. 그의 나이 18세에 조부인 광성부원군 金萬基가 5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그의 나이 20세에 己巳換局으로 인해 남인이 득세하게 되어, 宋時烈과 金壽恒이 사사되었고, 종조부 金萬重은 남해로 유배되고, 부친 金鎭龜는 제주도로 유배되었으며, 여러 족친들이 유배되거나 고문 속에 죽임을 당하였다. 특히 尤庵의 사사는 그에게 충격 그 차체였으니, 그의 혼란스런 젊은 날들을 지탱해준 정신적 지주의 소멸로 받아들여졌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는 처지도 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어찌면 역설적으로 그의 내면세계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그는 그 뒤 유배 기간 동안 자신을 돌아보고, 지식인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자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그에게 5년 동안의 유배지였던 고립된 제주의 환경은 오히려 좋은 계기를 제공하였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 시기에 창작된 『囚海錄』을 유배시기 현실인식의 바탕 속에서 제주민의 질고에 대한 지식인의 역할 수행이라는 관점 하에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그 당시 제주 민의 질고에 대한 인식의 틀을 마련하려 한다.

(1) 流配時期의 現實認識

北軒이 처음 제주에 온 것은 제주의 유배에서 풀려난 선친 晚求窩 金鎭龜를 모시기 위해 방문했던 22세 때인 1691년(숙종 17)이었다. 그는 제주에 대한 첫 인상을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水拆三分國 물은 셋으로 나뉜 나라를 갈라놓았고

| | |
|-------|---------------------------------|
| 天排八字山 | 하늘은 팔자 모양의 산을 펼쳐놓았다. |
| 驩騰盈野牧 | 준마는 들에 가득하고 |
| 橘柚滿秋澹 | 귤 유자 가을 밥상에 가득하네. |
| 杵唱聞朝暮 | 절구질 노래 아침저녁으로 들리고 |
| 商帆報往還 | 商船이 왕래하는 소리 들리네. |
| 獨憐滄海月 | 다만 푸른 바다에 뜬 달 사랑스러우니 |
| 流影照長安 | 달빛 흘러 長安을 비추겠지. ¹⁹⁰⁾ |

그 어디에도 고립된 제주의 환경이 주는 막막함 내지는 답답함이 나타나 있지 않다. 아버지의 유배 환경에 대한 얼마간의 언급이 있음직 한데 그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남국의 이국적 풍치에 도취된 것 같은 느낌으로 점철되어 있다.

바다로 멀리 떨어진 제주도는 마치 八字처럼 산줄기가 넓게 벌려 있다. 한라산 중턱에 있는 드넓은 초원에는 준마들이 자유로이 노닐고, 가을이 되니 과수원에 귤은 벌써 익어 저녁 밥상에 올라 있다. 아버지가 계신 제주 성 嘉樂泉가 東泉洞엔 아침저녁으로 아낙들이 곡식을 찧으며, 노래를 부르고, 저 멀리 제주 산지 포구에선 상선들이 분주히 드나든다. 푸른 바다 위에 밝게 떠있는 달은 은은히 제주 성을 비추는데, 이 달빛은 멀리 임금 계신 서울도 비출 것이라고 말하며, 밤의 정취를 전하고자 하였다.

이 시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매우 밝고 긍정적이다. 작자는 제주의 풍경에 놀라워하면서 질곡의 땅이 아닌 이 나라 국토의 일부로 사람이 살 만한 제주를 노래하였다. 유배에서 풀려난 부친을 모시러 왔다지만, 약관을 조금 넘긴 나이에 이제까지 직접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세계에 대한 느낌은 절실할 수 없다. 오히려 이국적인 경치가 살만한 곳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北軒 자신이 1706년 제주에 적거하면서부터 제주 민과 제주라는 섬

190) 『北軒集』, 卷1, <囚海錄>, <濟州>.

은 달리 형상화된다.

| | |
|-------|-------------------------------------|
| 窮溟吾兩世 | 바다 끝에 우리 두父子가 |
| 接踵古無如 | 잇달아 건너온 일 옛날에는 없었네. |
| 舍館還仍舊 | 머무는 집조차 옛날 바로 그 집이니 |
| 山川豈改初 | 산천이야 본 모습 어찌 바꾸랴. |
| 眞甘化虫鼠 | 진실로 충서로 변화된 것 달게 여기니 |
| 敢恨傍蛟魚 | 어찌 교어를 이웃하는 것을 한스러워 하리오. |
| 善和京中宅 | 善和坊에 있는 서울 집에는 |
| 塵生手澤書 | 아버님 쓰시던 책에 먼지만 쌓였네. ¹⁹¹⁾ |

北軒의 선친 金鎭龜가 1689년에 己巳換局으로 제주에 유배 왔을 때는 조부 김만기의 喪을 당한 직후였다. 그런데 16년이 지난 1706년에 北軒도 蒙喪中에 誣告를 얻어, 제주에 유배 오게 되었다. 우연히 부자간에 부친상을 전후하여 제주도에 적거하게 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 시는 제주 유배시기에 지은 첫 작품으로 北軒이 선친 金鎭龜의 상을 마친 후에 오래도록 시를 짓지 않다가, 선친 金鎭龜가 除服후에 자신에게 글을 배웠던 제주 유생 吳廷賓에게 지어준 시를 보고서 지은 것이다.

작자는 앞의 시에서 杵唱, 商帆 등의 시어들을 통해, 풍요롭고 이국적인 풍광을 노래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시에서는 제주의 모습을 虫鼠, 蛟魚 등의 시어에서 나타나듯이 원시적이고, 미개한 모습들을 부각시켜,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드러내려 하였다. 이제 이곳은 더 이상 그에게 이국적인 정취와 풍물을 지닌 곳으로 살만 한 곳이 아니었다. 현실 속에 깊이 받아들여야 할 삶의 현장이다. 국토의 끝 바닷가 아무도 찾지 않는 텅 빈 집 속에서 미개한 사람들과 더불어 언제 끝날지 모를 고립된 세월의 질곡이 그의 삶 속의 일부가 되고 만

191) 『北軒集』, 卷2, <囚海錄>, <制除. 其一>.

다. 그러나 이후 그의 유배 생활은 이러한 막막함보다는 한층 여유로웠다. 선친 金鎭龜가 1689년에 己巳換局으로 제주에 유배 와서 많은 영향을 끼쳤고, 그 역시 부친이 해배되어 모시러 왔을 때, 제주 민과의 밀접한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유배 온 신분이면서도 제주목사와 유생들로부터 많은 편의를 제공받아,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었고, 말과 한 명의 가노도 둘 수 있었다. 또한 유배 기간 중 40세 되던 해, 1709년에 동생과 함께 아내 한산 이씨가 제주에 왔다. 이후 임피(지금의 군산)에 이배되었다가 해배될 때까지 이씨는 함께 생활하였다. 이러한 정황 속에서 그의 유배 생활은 다른 유배객들에 비해 조금 덜 곤궁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금의 여유로움은 어쩌면 그에게 한곳에 편중되지 않는 객관적 시각을 제공하였고, 사실을 직관할 수 있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다음 시를 보자.

| | |
|-------|------------------------------------|
| 安排羨莊叟 | 자연과 함께 함은 莊子가 부럽고 |
| 變易驗眞如 | 변화하는 것이 眞如임을 실감하네. |
| 敢道由人故 | 어찌 사람 때문이라 말하라 |
| 應從賦命初 | 응당 처음부터 부여받은 운명에 따르리라. |
| 傷弓無定鳥 | 활시위 소리에 불안해하는 새처럼 |
| 涸轍有窮魚 | 마른 바퀴자국에 곤궁한 고기와 같은 신세. |
| 要似冰消夏 | 마땅히 얼음이 여름에 녹는 것과 같으니 |
| 虞卿且著書 | 虞卿도 어려움 속에 글을 지었네. ¹⁹²⁾ |

천하에 가장 곤궁한 신세가 된 자신의 처지를 돌이켜 생각해 보니, 인간 세상의 是非를 분별함이 무상함을 느낀다. 莊子처럼 자연의 변화에 순응하여 사는 삶이 한편으로 수궁이 가면서, 세상 만물은 모두 변화한다는 참 진리를 실감하

192) 『北軒集』, 권2, <囚海錄>, <制除久而未有詩偶覽先君子在謫除服後贈吳興叔詩感次其韻>.

였다. 작자 자신은 활시위 소리에 놀라 불안해하는 새와 같은 신세이고, 수레바퀴 자국 웅덩이에 사는 물고기와 같은 신세이지만, 작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따르려 하였다. 虞卿이 가장 곤궁한 처지에 있으면서 최후의 선택으로 著書를 택했듯이 자신도 우경처럼 글을 지으며 살겠다고 노래하였다. 작자에게 더 이상 갈등과 미련은 없다. 오히려 지극한 현실인식 속에서 모든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 낙관적으로 자신의 가야 할 길을 찾으려 하였다.

제주의 고립된 환경은 秋史의 ‘세한도’의 경우처럼 한 분야에 몰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그리고 “탐라는 바다 밖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질박하고 촌스러워 관숙과 채숙의 당이 되지 않아서 겨우 周公이 周公됨을 알아볼 수 있었으니, 또한 탐라인의 슬픔이 진실임을 알 수 있다”라는 언급에서처럼 사실을 객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¹⁹³⁾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이런 기회가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北軒은 제주 유배 동안 여러 차례의 내면의 여과 과정을 통해, 자신을 진정으로 돌이켜 보고,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지금 이 시기에 자신을 객관화하고, 제주 민의 절고에 대해 낭만적이고 추상적인 느낌이 아닌 사실적인 현장감 속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2) 고단한 濟州 民의 삶에 對한 情緒

北軒은 제주 유배 기간 동안 제주 민이 생활 속에서 겪는 고통과 괴로움을 직접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들을 형상화하였다.

或有宦遊客 여기에 부임해 온 관원들은

193) 『北軒集』, 권13 『囚海錄』, <山池洞金還尋家記>. 耽羅, 以海外故 其人, 朴而野, 不足以爲管蔡之黨 而僅足以知周公之爲周公, 又可見耽人之悲之誠也.

| | |
|-------|------------------------------------|
| 留連不憶歸 | 머물고 돌아가려 하지 않는구나. |
| 醇醪添氣象 | 아름다운 술로 기상을 더하고 |
| 紅粉倍光輝 | 기녀들은 광휘를 배로 한다. |
| 良馬常多取 | 良馬는 항상 많이 빼앗고 |
| 潛珠亦暗飛 | 진주도 몰래 빼앗아 가지. |
| 島氓何所望 | 섬사람들 무엇을 바라리오 |
| 御史有霜威 | 어사가 서릿발 같은 위엄 있으니! ¹⁹⁴⁾ |

제주는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또한 사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 있어, 이웃한 고을이 없었다. 그러므로 중앙에서 파견된 관원들의 횡포와 가렴주구로 백성들의 고생이 막심하여도 쉽사리 해소연할 방법이 없었다. 이러한 관원들의 횡포에 대해, 1601년 안무어사로 이곳에 왔던 淸陰 金尙憲은 5개 조항의 민폐를 들어 말하였다. 이 외에도 갯가에 살면서 바다 일로 생계를 꾸리는 浦作人들에 대한 혹독한 징발 등이 자주 열거되고 있다. 그리고 역대 제주에 대한 폐단을 지적한 글 중에는 馬政에 대한 폐단 또한 늘 지적의 대상이 되었다. 1426년 金爲民의 조사에도 ‘권세가들이 마소를 방목하면서 함부로 백성들의 농작물을 손상시킨다.’는 지적과 1490년 金勿의 상소에도 ‘관원들이 사냥하면서 백성들의 말을 징발하여, 피로하게 달려서 죽게 한다’라는 지적에서처럼, 말에 대한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었다.¹⁹⁵⁾

작자는 이 시에서 제주의 상황을 제주 민의 입장에서 당시 제주 민의 고통을 노래하려 하였다. 백성들은 흉년과 기근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관리들은 술로 여흥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지적하였다. 또한 당시 가장 심각했던 馬政의 폐단과 潛女의 어려움을 함께 꼬집었다. 실제로 시기는 다르지만 해남 사람 李喜豊의 문집인 『松坡先生遺稿』에는 <濟州貢馬歌>가 남아 있는데, 당

194) 『北軒集』, 卷2, <囚海錄>, <濟州雜詩>.

195) 김봉옥, 『增補 濟州通史』, p.125, 도서출판 世林, 2000.

시 공마의 실상을 살필 수 있는 주요한 자료로 파악 된다.¹⁹⁶⁾ 아무튼 이러한 질곡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공명정대하고 위엄 있는 어사 임을 말하였다. 이 시에서 더 이상 낭만적이고 추상적인 느낌은 없다. 다만 현실의 절감을 통한 지식인의 자성만이 시 전반을 뭉뚱하고 있다.

『囚海錄』 속에는 포작인의 폐단을 지적한 <潛女說>이 있는데, 이 작품에서 제주민의 질곡에 대한 고발은 더욱 더 구체화된다.

<前略> “무릇 전복 하나를 캐다가 거의 죽을 지경에 처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한 바다 밑에 돌이 혹시 날카롭게 나있어서 거기에 찢리면 죽고, 벌레와 뱀처럼 해로운 짐승이 물면 죽기도 합니다. 때문에 저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급살을 맞아 죽기도 하고 추위로 죽기도 하고 돌과 벌레와 같은 여러 짐승에게 죽은 자들을 흔히 볼 수 있으니 제가 비록 다행히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시험 삼아 모습을 바라보십시오”라고 말하니 나는 이 때문에 가엾게 느껴졌다.¹⁹⁷⁾

<潛女說>의 도입 부분 중 일부이다. 작자는 문답식의 대화체 서술방법을 가지고 사실을 들려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상을 보여 주려 하였다. 직접 당사자들로 하여금 고변하게 하여, 현장의 사실감을 더하려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논찬 부분에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구성방법으로 마무리하였다.

이 글을 통해 潛女들의 채복의 환경이 얼마나 고통스런 일인 줄을 잘 알 수 있다. 실제로 17세기 후반 제주에 유배 왔던 尤庵 宋時烈은 채복의 과정은 仁者로서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이 일은 潛女들이 늘 겪어야만 하는 위험이었기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이러한 고통에 대한 보상은 고사하고, 오히려 매복의 고통까지 감내해야 하는 현실

196) 참고로 말을 소재로 지은 金聲久 <送歲貢馬有感>, 李元鎮 <閱馬牛羊>, 李海朝 <驅馬篇>, 李海朝 <山屯牧場點馬留宿村舍>, 蔡濟恭 <蒙賜濟州貢馬>, 趙觀彬 <馬屯> 등 제주 관련 한시 작품이 다수 남아 있다.

197) 『北軒集』, 卷13, 『囚海錄』, <潛女說>, “凡採一鮑, 其幾死者多. 且水底之石, 或廉利, 觸之則死, 其虫蛇惡物噬之則死 故與吾同業者, 以急死, 以寒死, 以石與虫物死者 相望, 吾雖幸生而苦病焉. 試觀吾容色也” 余爲之憫然.

이 그들을 더욱 더 막막하게 하는 것이다.

또 나와서 얘기하기를 “공께서는 전복을 캐는 어려움만을 알고 계시지 제가 전복을 사는 일이 매우 어렵다는 것은 모르시는군요.”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길 “그대는 지금 전복을 캐는 사람이니 또한 그대에게 전복을 사면 될 터인데 어찌 그대는 전복을 사려고 하는가?”하니 말하길 “저는 평민이고 전복은 맛있는 음식입니다. 평민이 맛있는 음식을 채집하면 그것을 가지고 세금을 충당하고 여러 官人の 음식에 올리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여러 官人이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는 것을 공급하니 이것이 저의 일입니다. 제가 비록 저의 의식주의 물품으로 쓸 수는 없지만 매번 官人和 官人들이 선물할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비록 최하위의 평민이지만 마땅히 저에게 주어진 일이니 내가 감히 공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비록 병폐라고 하더라도 감히 한탄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여러 관인들이 깊이 좋아하는 것이어서 오직 그 말을 따르지 못하는 것과 그 기대에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천하고 비루하다 할 수 있지만 저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오직 화장을 하고 비단옷을 입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전복을 총애하기 때문에 저는 전복을 항상 관인들을 위해서 모아두어야 하고, 그들의 말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더욱 요구와 독촉이 끊이지 않으니 반드시 많이 모아서 가득 채우고도 더욱더 많은 전복을 모아두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산해서 팔면 부유함에는 보탬이 되지만, 제가 만약 병들어 채집할 수 없거나 혹시 채집하려 해도 채집할 수 없는 경우에 세금 독촉이 압박하게 되면 때로는 모아둔 사람에게 가서 전복을 사서 도리어 관아에 보내야 합니다. 무릇 팔고 사는 것은 각각 원하는 바이지만 지금 우리의 처지를 안다면 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가격이 높다고 팔게 되면 저는 파산하게 됩니다. 전복 하나에 대해서 採鮆하는 화를 입게 되면 제 몸에서 그치지만 買鮆하는 화를 입게 되면 가족 모두를 보존할 수 없으니 어찌 저에게 크게 곤란하고 매우 심한 어려움이 아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내가 생각하기에 태산의 호랑이와 영주의 뱀은 다행히 가혹한 정사와 무거운 세금이 없지만 지금 그대는 採鮆과 買鮆의 고통이 있으니 진실로 가엾다고 할 만하다.¹⁹⁸⁾

제주는 전복, 미역, 옥돔 등 바다에서 생산되는 특산물들이 중요한 進上物이

198) 『北軒集』, 卷13, <囚海錄>, <潛女說>, 又前而言曰 “公知採鮆之難, 不知吾買鮆之甚難” 余曰 汝今採鮆人, 且從汝而買, 何汝之自買爲?” 曰 “吾小民也, 鮆美味也. 以小民取美味, 以充上供, 以備諸官人之食, 又以給諸官人之所餽於人者, 是吾職也. 吾雖不得以爲吾衣食之資, 每思官人與其所餽之人者. 雖其最下, 當有加於吾, 吾敢不恭? 雖病, 敢以恨乎? 惟諸官人之所甚寵 而惟恐其言之不從, 其欲之不能滿者. 其賤而可鄙 無以異於吾. 惟塗朱粉被錦綺異矣 而以寵之故 吾之鮆, 常爲其所聚, 以言之從故 尤徵督不已, 必其多聚而滿, 欲以聚之多 故散而賣之, 以益其富, 吾苟病不能採, 或採而無所得 而被徵督之迫焉 則時就其所聚而買之 還以輸於官. 夫賣與買, 各以所欲也, 今知吾之勢, 不得不買 故極其價之高而售之, 吾於是破產焉. 鮆一也 而其採之患 則止於吾身, 其買之禍 則家族皆且不保, 吾豈不大困而甚難哉?” 余以謂泰山之虎, 永州之蛇, 幸無苛政虐賦, 今汝兼有採鮆買鮆之苦, 誠可憫也已.

었다. 해산물의 진상을 위하여 浦作人과 潛女를 특별히 두어서 이들로 하여금 진상에 필요한 해산물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이들은 진상용뿐만 아니라, 관아에서 쓰이는 물품들도 모두 담당하였다. 당시 浦作人과 潛女의 고통은 이루다 말할 수 없었으며, 제주에서는 이 役이 모두 苦役으로 인식되어, 6苦役 중에 하나로 불리었다.¹⁹⁹⁾

실록에서도 ‘1년 동안 관아에 바치는 것이 浦作은 20疋을 밑돌지 않으며, 潛女도 또한 7-8疋에 이르게 되니, 한 가족 안에서 부부가 바치는 바가 거의 30疋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전복과 각종 해산물 등을 따는 役이 모두 이로부터 경영되고, 본 고을의 장수와 병졸에 대한 支供과公私의 酬應은 또한 이 숫자 이외에 있으니, 만약 별도로 變通하지 않는다면 이 무리들이 수년 동안 지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라는 의논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당시 潛女에 대한 폐단은 극심하였다.²⁰⁰⁾

이 부분에서는 潛女에 대한 폐단 중에 買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당시 潛女는 공물로 바치는 세금 이외에 관인과 심지어 관인이 선물하는 물품까지도 충당해야만 했다. 그럼에도 潛女의 고통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그들이 전복을 충애하기 때문에 나는 전복을 항상 모아두어야 하고, 그들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 독촉이 끊이지 않으며, 반드시 많이 모아서 가득 채우고도 더욱더 많이 전복을 모아두어야 하는데, 그것을 훔쳐 팔아서 부유함을 더하지 못합니다”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官人들은 潛女들의 전복을 납품해야 하는 의무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치부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내가 만약 병들어 채집할 수 없거나 혹시 채집하려 해도 얻을 수 없는 경우에 세금 독촉이 압박하게 되면, 때로는 모아둔 사람들에게 전복을 사서, 도리어 官衙에 보내야 합니다”에서처럼 전복을 캐는 潛女임에도 불구하고, 아전에게 높은 가격으로 다시 전복을 사야하는 현실을 述懷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당시 潛女들은 국가의 주요한 세수원임에도 불구하고

199) 국립제주박물관, 『濟州의 歷史와 文化』 150면, 국립제주박물관, 2001.

200) 『肅宗實錄』 28年 7月 12日 條, 참조.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관리들의 착취로 인해 採鮑과 買鮑의 이중고를 겪어야만 하는 부조리한 현실적 고통을 감내하였음을 알 수 있다.

北軒의 경우 또한 노소 당쟁에서 실권한 뒤 현실에 대한 강한 기대와 책임의식의 발로에 의한 역할 수행을 모색하려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느 이유에서이건 『囚海錄』에서 그는 지금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지식인으로서의 자신의 일에 충실하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秋史 金正喜

새로운 학문을 추구하여 조선조 후기 실학의 한 줄기를 형성한 학자라면 주저 없이 秋史 金正喜(1786~1856)를 손꼽을 것이다.²⁰¹⁾ 그는 새로운 학문, 사상, 예술 등에 걸쳐 실로 다양한 업적을 남겼다. 여기에서는 그 중 그가 55세 때인 1840년(헌종6) 9월에 尹尙度の 獄事에 연좌되어, 제주도 大靜懸에 圍籬安置된 이후, 63세인 1848년(헌종14) 12월 6일에 해배될 때까지의 작품을 살펴보았다.

현재까지 秋史에 대한 연구는 그가 펼친 천재적 예술성과 맞물려 활발히 전개되고 있고, 그의 문학에 대한 연구도 문집이 번역됨과 함께 일정한 성과를 낳았다.²⁰²⁾ 그리고 최근 들어 과천문화원에서 현재까지 남아 있는 그의 문집 異本들을 모아 출판하였다.²⁰³⁾ 그의 제주 유배 시절 작품에 대한 연구도 유배

201) 한철희, <阮堂金正喜藝術攷>,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국문학과, 1969.

202) 이우성, <金秋史 및 中人層의 性靈論>, 『韓國漢文學研究』 제5집, 한국한문학 연구회, 1980-1981.

김혜숙, <김정희의 시론 연구>, 『울산어문논집』 제5집, 울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9.

정동우, <阮堂 金正喜의 詩文學攷>, 『동악한문학논집』, 동국대학교, 1992.

양순필, <秋史 金正喜의 漢文書翰攷>, 『탐라문화』 제9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9.

옥영정, <秋史家の 藏書에 관한 一考(東濱文庫 所藏本을 중심으로)>, 한국서지학회 추계발표회, 2003.

정후수, <金正喜가 본 濟州道の 修學분위기>, 『동양고전연구』, 1995.

<秋史 金正喜 詩의 한 特性(典故를 중심으로)>, 『한성어문학』, 1994.

양순필, 양진건, <秋史의 濟州 教學活動 研究>, 『탐라문화』,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7.

강주진, <僻派家門 出生의 秋史 金正喜(濟州 流配動機를 중심으로)>, 『탐라문화』,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7.

김용태, <玉垂 趙冕鎬를 통해 본 秋史 金正喜>, 대동한문학회, 2005.

203) 김정희, 『阮堂全集』, 과천문화원, 2005.

문학을 밝히기 위한 일환으로 꾸준히 진행되고 있고, 얼마간 밝혀진 셈이다.²⁰⁴⁾ 따라서 여기에서는 그러한 흐름에 동참하고, 나아가 작품 배경으로서의 제주라는 독립된 환경에 주목하여, 배경에 따른 작자의 심경변화를 살피려 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우선 그의 제주 유배 시절 지은 제주 관련 전체 한시 작품을 내용과 형식에 따라 분류하고, 秋史 유배시의 전반적 특성에 대한 선행적 논의를 통해 본격적으로 그의 유배시의 세계에 접근하여, 內的 葛藤의 苦惱 表出, 流配地의 그리움 形象, 求道와 達觀의 情景이라는 세 가지 차트를 가지고 실제적 진실에 접근하려 한다.

이러한 논의에서 秋史의 제주 유배 시절 제주 관련 한시 작품이 가지는 우리 문학사적 가치는 물론, 좁게는 이방인들이 제주를 배경으로 한 한문학의 성과들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곧 조선후기 일정한 경향성을 띠는, 예컨대 제주민의 극심한 기아를 최선을 다해 구제하려 했던 만덕을 소재로 채제공(1720~1799)이 <萬德傳>을 쓴 이래로, 조수삼(1762~1849)이 이를 소재로 시 작품을 남겼고, 黃裳도 <耽羅妓>라는 제목으로 만덕을 형상화하려 했던 경향에 대해, 단일 소재가 작가 혹은 시대 상황에 따라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는 흐름을 파악하려는 논의와 北軒 金春澤의 『囚海錄』, 石北 申光洙의 『耽羅錄』 등 제주 관련 개별 작품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일정부분 성과를 드러내리란 기대를 가진다.²⁰⁵⁾

1) 作品의 全般的 特性

秋史의 제주 관련 한시 작품은 총 51제 81수가 그의 문집에 수록되어 있다.

204) 김태수, <추사의 유배 시 연구>, 『한국학논집』 제10집, 1992.

이철희, <추사 김정희의 시론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205) 진재교, <實學派의 漢詩>, 『이조후기 한시의 사회사』, 소명출판, 2001.

그의 작품을 주제별로 분류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秋史의 濟州 流配詩 分類

| 現實詩 | 戀悵詩 | 求道詩 | 考證詩 | 藝術詩 | 詠史詩 |
|---|--|---|--|---|-----------------------------|
| <偶作><偶作> <次癸詹>3수 <水仙花在在處處可以谷量田苗之間尤盛土人不知爲何物麥耕之時盡爲鋤去><年前禁水仙花><瀛洲偶吟>2수 <口號七絕贈江亭金生>6수 <尤齋遺墟碑> <題彝齋書許維扇面後><題慈妃便面> | <瀛洲禾北鎮途中><元宵述懷><海上重九無菊作瓜餅><偶題>2수 <失題><鵲巢> <和示台濟> <上元芻靈示商彦> | <水仙花><映山紅><玉美人><庭草> <馬磨>2수 <喚風亭><村舍><汲古泉試茶><詠雨>3수 <失題><江村讀書><小遊仙詞>13수 <咏棋> | <癸詹徒漂船歸人得日本刀而見示漫此走呼贈之><嘲金生如筠漆痂> <臘日戲題> <三御喜晴> <題蘭><戲題贈達峻> | <示島童><冬青葉大如手掌可以供書> <大靜村舍> <雪夜偶吟> <題小癡指畫> <題小癡墨芭蕉><題小癡指畫><又題小翠寫慈妃像>2수 <代台濟次題火畫作>2수 <韓生應者以紫霞書卷要余一語徒寫以示> <和題石帆本慈妃戴笠小像> | <示雲衲仍證明史><漢瓦當> <題贈延曦閣主人> |

<표 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는 제주 유배 이후에도 지속적인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얼마간 현실을 반영하기도 하고, 인간적인 연민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곧 자신의 본업으로 돌아가 求道에 열중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考證의 달견과 예술적인 안목, 역사적인 해박한 지식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처럼 자신이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새로운 작품 창작에 대한 모색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려 했던 것은 朴齊家의 경우에서도 발견된다. 그 역시 56세부터 시작된 4년 동안 이제까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北關의 유배 체험을 시에 담

음으로서 평생 보여주던 참신성의 행보를 지속했다.²⁰⁶⁾ 그리하여 『竟信堂夾袋』라는 시집을 남겼다.

물론 秋史의 경우 오랜 유배 기간에 비해 작품 수가 적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石北 申光洙가 45일 동안 금오랑으로 임무 수행 중 폭풍에 길이 막혀 지내는 동안 지은 100여수의 작품을 묶어 명명한 『耽羅錄』과 직접 비교해 보면, 秋史의 작품은 유배된 세월에 비해 매우 적은 수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것은 양적인 측면에서만 비교할 수 없는 문제이다. 각각의 작가들이 처한 당시 환경을 살펴보아야 할 일이다.²⁰⁷⁾ 실제로 秋史는 제주 유배 시절 권돈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저술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저는 평소에 저술로 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니다. 이런 문자는 원고를 남겨두고 싶지 않습니다.²⁰⁸⁾

권돈인 역시 <秋史先生眞像贊併小敍>의 뒤쪽에 쓴 시의 주석에서 이런 추사의 발언을 확인해 주고 있다.

공께서는 평소에 시 한편을 기록하여 상자에 남겨두지 않았다. 그래서 모두 없어지고 전해오지 않는다.²⁰⁹⁾

이러한 자료에서 얼마간 그의 작품이 생각 외로 적다는 의문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秋史의 제주 유배기는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에 이른다. 이 시기는 다른

206) 안대회, <朴齊家の 『竟信堂夾袋』와 北關風情>, 『韓國漢詩研究』 제12집, 한국한시학회, 2004.

207) 秋史는 고증적 달견을 가진 완벽주의자였다. 그가 남긴 예술 작품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 작품 한 작품을 혼신의 힘을 다해 그의 예술적 천재성을 실현하려 하였던 것처럼, 시를 창작함에 있어서도 어느 한 부분 소홀함이 없이 완벽한 작품을 남기려 하였으니, 이러한 그의 철저한 작가 정신은 그가 제주 유배지에서 남긴 많지 않은 작품들 속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최근 들어 박철상은 추사는 상당한 분량의 저술을 남겼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자신이 저작을 후대에 전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전하는 저작은 시문집과 편지 몇 권이라고 주장하였다.

208) 김정희, <與權彝齋敦仁>18, 『阮堂先生全集』 권2(영생당 1934). 小人之於平生, 不欲以著述自見. 如此文字, 便不欲留稿.

209) 권돈인, <秋史先生眞像贊併小敍>, 公平日, 不以記著吟詠一篇留篋 故皆零落無傳.

말로 ‘知天命’의 후반기에서 ‘耳順’으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해당된다. 이 시기를 지나면 ‘從心所欲不踰矩’의 결말의 단계로 접어드는 중요한 갈림길에서 秋史는 제주 유배기를 맞는다. 따라서 그는 유배의 상황에 대한 비판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아마 그의 유배가 얼마간 예견된 부분도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가 양자로서 집안에서 長子の 역할을 받아들여, 가문내지 당파를 대표했을 때, 이미 정치적 희생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그가 남긴 작품에서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 연민하는 모습이 형상화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비판의 심경 표현이 아니라 耳順으로 가기 전 마지막 내면의 성숙을 위한 단련기이고, 그리워하는 참된 한 인간의 진정한 모습인 것이다. 그렇다면 秋史에게 제주가 주는 의미는 ‘耳順’을 통해 ‘從心所欲不踰矩’로 가기 위한 전초기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에게 유배 시기가 없이 평탄한 생을 살았더라도 실질적인 모습이 지금과 큰 테두리에서의 변화는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평생 동안 내면의 쌓임이 외면으로 나타나는 것이니 이미 그의 내면에는 ‘耳順’으로 이행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 제주 유배는 좀 더 치열한 내면의 성숙을 요구했고, 그 역시 이러한 상황을 순전히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성숙된 모습이 들여다보이는 작품을 살펴보기로 하자.

一點冬心朶朶圓
品於幽澹冷雋邊
梅高猷未離庭砌
清水眞看解脫仙

한 점 겨울 마음 떨기떨기 둥근데
그윽하고 담담한 품격 냉기를 뚫고 돋았네.
고상하다는 매화 뜰 섬돌을 떠나지 못하는데
맑은 물속에서 진실로 해탈한 신선 보겠구나.²¹⁰⁾

당시 수선화는 제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귀한 꽃이었다. 그래서 당시 사대부들은 수선화에 대한 애착이 매우 강하였다. 따라서

210) 김정희, 『阮堂全集』 권10, <水仙花>.

유배지 제주에서 수선화의 발견은 그에게 진흙에서 진주를 발견하는 기분이었을 것이다. 이것은 작자가 남긴 수선화를 소재로 한 여러 편의 작품들 속에서도 잘 알 수 있다.²¹¹⁾ 결국 작자는 수선화가 가지는 의미를 得道의 상태로 받아들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求道의 삶을 살지만, 서울에서 아무리 구하려 해도 아무나 쉽게 얻을 수 없는 수선화를 제주에 유배된 자신만이 즐길 수 있는 것처럼, 제주 유배지에서 획득된 자신만의 세계로 형상화하여, 공간을 초월하려 하였다. 주지하듯이 수선화는 相思花라 불리기도 한다. 이 꽃은 특이하게도 8월에 잎이 시든 뒤 홍자색의 육판화가 피어나고, 꽃과 잎이 등져 있어서 서로 보지 못한다고 상사화라고 불린다. 이러한 외형의 특성은 선비의 삶이 군더더기를 털어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치 잎사귀를 털어낸 뒤 꽃잎을 피우는 相思花처럼 삶의 걸치레를 벗어나야 비로소 진정한 우주 간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자신을 느끼게 되므로 곧 도를 터득한 수도자에 비유되기도 한다.

작자는 한 겨울 냉기를 뚫고 돌아나는 수선화의 강인함을 통해, 그것이 가지는 진정한 모습을 살피려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서울의 선비들이 애지중지하는 매화가 실제로 뜰 밖을 벗어날 수 없는 한계점을 들어 수선화와 직접 비교하며, 수선화를 자신의 처지와 동일시하고, 해탈한 신선으로 치켜세우고 있다. 결국 자신의 이상인 物我一體의 세계에 접근시켜 대상을 관찰하려 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圍籬安置라는 제약된 공간 속에서 소재의 다양성을 추구하기보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면서도 아무나 볼 수 없는 것들에 자신을 투영하여, 현실을 탈피하려는 강한 의지의 소산으로 보인다. 결국 그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더욱 더 학문 수련을 강화하여, 속박된 구속의 세계를 탈피하려 하였다. 따라서 그는 다른 시인들이 유배지에서 쓴 일련의 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의지와 내용을 담으려 하였다. 결국 그는 완전히 달라져 버린 현실 앞에

211) 참고로 수선화를 소재로 지은 작품으로, 吳廷賓 <水仙花>, 吳泰稷 <水仙花>, 金左根 <咏水仙花>, 愼鴻錫 <水仙花>, 失名氏 <水仙花>, 金亮洙 <三月見水仙花> 등 제주관련 한시 작품이 다수 남아 있다.

절망하지 않고, 이제까지 추구하려 했던 사회적 이상실현이라는 꿈을 접고, 참된 자아의 발견이라는 자기만의 명제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려 하고 있는 것이다.

| | |
|---------|-------------------------------------|
| 花紅強字映山紅 | 꽃이 붉어 억지로 영산홍이라 이름 하였지만 |
| 品格元來自不同 | 품격은 원래부터 같지 않네. |
| 火樹圖中須一補 | 붉은 꽃 그림 속에 한 가지를 보충하니 |
| 別有春風點施工 | 특별히 봄바람에 공력을 베푸는구나. ²¹²⁾ |

사물을 보는 시각은 작자의 현재 상황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지닌다. 곧 작자의 처지에 따라 대상물이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영산홍이 꽃이 붉다는 점에 주목하다보니, 봄바람과 조화를 이루는 그만의 공력을 간과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이미지와 일치시키려 하였다. 작자는 영산홍이라는 사물에서 이미 중요시 되어 왔던 詩意와 氣에 자신의 意와 氣를 결부시켜 新意를 표현하고자 하였다.²¹³⁾ 작자는 외로운 유배지의 생활 속에서 영산홍이라는 대상물을 남과 다른 시각으로 형상화하고, 자신과 동일시하여, 유배의 상황에도 의연한 자신의 이미지로 배가시키고 있다.²¹⁴⁾

이러한 그의 구도적 삶은 마치 『大學』의 ‘三綱領’에서 ‘明明德’의 과정을 통해, ‘親民’의 단계로 넘어가는 것처럼, 수양의 과정에서 획득된 修身의 상태를 조직적으로 구현하려 주변을 돌아보기도 하였다.

212) 김정희, 『阮堂全集』 권10, <映山紅>.

213) 김태수, <추사의 유배시 연구>, 『한국학논집』 제10집, 1992.

214) 참고로 제주의 산천에 계절 따라 피는 색깔의 꽃, 단풍, 버들을 소재로 지은 吳泰稷 <蘆花八首>, 金汶株 <鳳仙花>, 高性謙 <菊花>, 金日海 <菊花>, 李辰珩 <詠菊>, 金孟玉 <梅雨>, 金滢植 <早梅>, 夫祐承 <詠梅>, 金鎔均 <榴花>, 金萬容 <榴花>, 高永昕 <木棉花>, 南九明 <冬栢雪中半開>, 安宅承 <蕙草生>, 安宅承 <側壁松林>, 梁奉洽 <丹楓>, 朴子春 <楊柳>, 吳啓默 <南草> 등 제주 관련 다수의 한시 작품이 남아 있다.

人十能之馬一之
三家村裏詫神奇
大機大用元如此
還笑宗風老古錐

열사람 뭇을 한 마리 말이 하니
삼성이 사는 마을 신기함을 자랑하네.
연자방아 큰 쓰임 원래 이와 같으니
도리어 바람에 의지한 노고추를 비웃는다.

引泉爲碓亦巖材
嘔嘶春歌莫見猜
似向先天探至象
悅疑龍馬負圖來

샘을 끌어 들인 물레방아 거친 재주이나
조잘대는 방아 노래 시기하지 마라.
선천을 향해 지극한 형상 탐지하듯
아마 용마가 그림을 지고 나오는 듯하구나.²¹⁵⁾

작자의 삶이 밖으로 구현되었을 때, 실사구시를 주창한 실학자다운 모습을 십분 발휘하기도 하였다. 일반인의 눈으로는 그냥 지나쳐 버리기 십상인 제주의 말이 끄는 연자방아의 효용성을 물레방아와 절구를 가지고, 요목조목 따져가며 濟民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작자가 제주를 살만한 곳으로 인정함에서 시작되는데, 변방민의 생활에서 가능성을 느끼고, 자신의 소망과 연결시키려 하였다. 나아가 연자방아의 힘찬 모습을 주역의 河圖洛書와 직접 연결시켜 先天의 세계로 형상화하려 하였다. 연자방아를 돌려야하는 구속된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에 열중하는 말의 모습에서 유배의 굴레 속에서도 物我一體의 세계를 통해 현실을 극복하려는 자신의 의미지로 표현하려 하였다.

이상에서 秋史 유배시의 전반적 특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그는 꽃이나 연자방아를 통해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의미를 부여하여, 외물의 본성을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窮物之情의 신묘함을 다하여, 物我一體를 통한 超越志向을 추구하고자 하였다²¹⁶⁾.

215) 김정희, 『阮堂全集』 권10, <馬磨> 2수.

216) 김태수, <추사의 유배시 연구>, 『한국학논집』 제10집, 1992.

2) 作品의 世界

앞서 秋史의 유배시절 지은 시 세계를 다루기 전에 공간을 초월하려는 그의 의식세계를 선행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제 그의 제주 관련 한시 작품에 관해서 內的 葛藤의 苦惱 表出, 流配地의 그리움 形象, 求道와 達觀의 情景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본격 논의해 보려 한다. 그 결과 秋史가 어떻게 유배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무슨 갈등에 괴로워하고, 누구를 그리워하고, 무엇을 이루려 하였으며, 이러한 작업들을 수행하기에 제주라는 공간이 그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려 한다.

(1) 內的 葛藤의 苦惱 表出

제주란 지역적 고립성 때문에 조선시대 관리, 유배객, 나그네건 나눌 것 없이 수많은 문인들의 작품 속에서 내적 갈등을 표현한 것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예컨대 금오랑으로 임무 수행 중 풍랑으로 뱃길이 막혀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石北의 『耽羅錄』을 통해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유배객의 경우 제주에서 겪는 내적 갈등은 그 어느 경우와 비교할 수 없는 홀로 떨어진 것 같은 느낌, 그 자체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원인을 나 아닌 다른 것에서 찾으려는 비판적 시각을 쉽게 접할 수 있다. 하지만 秋史의 경우는 좀 다른 것 같다. 우선 그가 유배 시절 남긴 작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여러 분야를 포괄하여 창작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예술적인 시각도 완성도를 가일층 높였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 역설적인 접근인지 몰라도 그는 제주의 고립된 환경을 잘 이용하여, 참된 자기를 발견하는 마지막 시험대로 삼으려 한 것 같다. 물론 北靑 유배라는 별도의 단계가 있고, 얼마간 갈등하고 그리워하기도 하지만, 그것들 역시 참된 자기를 찾으려는 방법의 일환으로 쓰이고 있다.

朱鳥天邊大海湄
 神山蜿蜒走西支
 野中小治僅如斗
 靑石郭連短竹籬
 汞鉛寶氣靑霞碣
 松竹勁節東門祠
 人家盡依壽星下
 水仙千朶復萬枝
 元祐罪人惠州飯
 笠屐風雨忘居夷
 島童海丁近相熟
 有時叩玄兼問奇
 獨豹勝似花豬肉
 麥麩新醅酒一鷗
 五雲多處夢如縷
 破悶春山橫翠眉

붉은 새 하늘 멀리 망망대해를 날고
 삼신산이 꿈틀꿈틀 서쪽으로 자리했네.
 들 가운데 작은 마을 하늘에 보이는 북두성 같으니
 푸른 돌 성곽 짧은 대 울타리와 이어졌네.
 붉은 보기 푸른 노을 같은 비같이니
 송죽 같은 굳은 절개 동문의 사당이네.
 인가들은 모두 수성아래 옹기종기 모여 있고
 수선화 천 떨기 다시 만 가지 갈래지네.
 원우죄인 혜주에서 밥 먹으며
 비바람에 샷샷 나막신 신고 오랑캐 땅을 잊었네.
 섬 아이 바다 장정 근자에 서로 익숙하여
 때때로 나를 찾아 어려운 글자 묻곤 하네.
 거위가 돼지고기보다 나은 듯하니
 보리누룩 새로 빚어 한 잔 술 보내오네.
 오색구름 서리는 곳 실오라기 같은데
 답답함 깨는 봄 산에 푸른 눈썹 가로놓였네.²¹⁷⁾

작자는 우선 작품의 전반부에서 유배지의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예술가적 기질을 십분 발휘하였다. 한 폭의 그림을 그리듯이 망망대해에 가로놓인 삼신산 아래 옹기종기 모여 있는 마을이 성곽에 둘러 쌓여 있는 모습을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다. 그러나 후반부 들어서 소동파의 유배 생활 모습을 형상화하여, 자기의 현재 모습과 동일시하려 하였다. 작자는 자신이 머무르고 있는 玄亭으로 어린아이들과 어른들이 술과 고기를 가지고 찾아와 기이한 글자들을 묻는다면서, 현재 자신의 처지를 은자처럼 묘사하고 소동파의 유배 시절과 대비하려 하였다. 특히 그의 시에 등장하는 ‘笠屐’이라는 시어는 실

217) 김정희, 『阮堂全集』 권9, <偶作>.

권하여 초라하게 귀향하는 정객의 상징적인 모습인데, 이것은 소동파를 묘사한 것이다. 작자는 유배지에서 유배라는 현실을 염두에 두지 않고, 정처 없이 떠도는 자유인이 되려 하였다. 작자는 마지막 구에서 좀처럼 풀릴 것 같지 않은 실오라기처럼 가느다란 해배의 꿈을 암시하였다. 속박된 자신의 처지를 순응하여 받아들이지만, 일견 이곳에서 벗어나고픈 애절한 심정을 드러낸 것이다.

| | |
|---------|-------------------------------------|
| 不算晷中與苦邊 | 속은 달고 가는 쓰다는 것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
| 天風一笠亦隨緣 | 삿갓에 부는 바람 인연을 따르네. |
| 飄零白髮三千丈 | 나부끼는 백발 삼천 길에 이르고 |
| 折磨紅塵六十年 | 홍진에 허덕이며 육십년을 보냈네. |
| 我愛沈冥頻中聖 | 내가 깊은 바다를 사랑하며 자주 술잔을 드니 |
| 人憐遠謫漫稱仙 | 사람들이 먼 귀양살이 가엽게 여겨 신선이라 부르네. |
| 蹢躅簷底時行藥 | 찢찢거리며 때때로 처마 밑에서 약을 내리고 |
| 消受茶鑪伴篆烟 | 차 끓이는 연기와 세월을 보낸다네. ²¹⁸⁾ |

작자는 제주에 머무르는 동안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하였다. 이 작품은 그가 제주 유배 마지막 해에 지은 것이다. 시간적인 배경으로도 알 수 있듯이 작자는 이미 현실을 초월하고 있다. 그러한 모습이 첫 구에서 잘 드러난다. 이해에 얽매이지 않았다고 유배 이전을 추억하고, 현재의 처지를 인연이라 달관하였다. 심지어 홍진에 허덕이던 자신의 지난날을 되돌아보다가, 다시 삼천장의 백발이 휘날리는 신선의 모습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그 역시 나약한 인간이다. 어쩔 수 없는 그리움에 술잔을 드는 모습을 남들은 가엽게 여겨 신선이라 부르지만, 정작 자신은 약에 의지하고, 차를 마시며, 기약 없는 현실을 애써 외면하려 하였다.

218) 김정희, 『阮堂全集』 권9, <偶作>.

이 시의 전반부를 통해 일견 달관한 모습이 그려지기도 하지만, 후반부에 들어 다시 현실로 들어가, 약과 차에 의지하는 나약한 모습으로 대비시키고 있는 것이 얼마간의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는 듯 보인다.

| | |
|---------|-----------------------|
| 東風雨後換西風 | 동풍이 비 내린 뒤 서풍으로 바뀌고 |
| 卷盡繁雲碧漾空 | 몽게구름 걷히니 파란 하늘 열렸네. |
| 雨雨風風如是好 | 비 내리고 부는 바람 이처럼 적당하니 |
| 似隨人意補天功 | 사람 뜻을 따라 하늘이 돌보는 듯하네. |

| | |
|---------|------------------------|
| 離合悲歡十二時 | 원 종일 슬픔과 기쁨이 오락가락하는데 |
| 一廻圓缺一廻思 | 둥글고 이지러질 때마다 생각이 분분하네. |
| 前身本自來天上 | 전신이 본래 하늘에서 내려왔으나 |
| 除却君王總不知 | 임금을 제외하곤 알아보는 이 없네. |

| | |
|---------|--|
| 行當騎馬過桑田 | 종당에 말을 타고 상전벽해를 지나니 |
| 可笑秦童弱水船 | 진나라 아이들의 배를 탄 것 가소롭구나. |
| 始識神山非別處 | 비로소 삼신산이 특별한 곳 아님을 알겠으니 |
| 聖恩不死卽神仙 | 성은이 그치지 않으면 곧 신선이 사는 곳이라네. ²¹⁹⁾ |

작자는 유배의 상황에 늘 당당하려 하였다. 이 작품은 세 수로 이루어진 연작시인데 제1수와 2수에서 현실에 순응하려는 뜻을 담고 있다. 작자는 비 온 뒤에 동풍이 서풍으로 바뀌고, 온 천지를 뒤덮었던 구름이 일순간 걷히고, 비와 바람이 적당하여, 마치 하늘이 사람의 뜻을 따라 공력을 베푸는 것 같다며 차분히 주변을 관조하였다. 그러나 하루에도 열두 번씩 바뀌는 유배객의 심경 속에서도 공자가 양화와 닮았다고 광 땅에서 곤욕을 치를 때, 초연히 “하늘이

219) 김정희, 『阮堂全集』 권10, <次癸詹>.

이 文章(禮樂 法度)을 버리지 않고 나에게 계속 맡긴다면 광 땅의 백성이 하늘의 뜻을 어기고 나를 해치지 못할 것”이라며 의연했던 모습을 재현하려는 듯이 자신은 천상에서 내려왔고 군왕만이 알 것이라며 애써 유배의 현실에 당당하려 하였다. 그러다가 어느 샌가 고향으로 돌아갈 꿈에 사로잡히더니, 다시 조정의 간신배들을 진시황에게 아첨하려고 불사약을 구하러 동남동녀를 배에 태워 보냈던 사람들에 비유하며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신선의 자리로 돌아가서 현실에 연연하지 않는 달관된 모습으로 마무리하였다.

| | |
|---------|--------------------------------------|
| 碧海青天一解顏 | 푸른 바다 파란 하늘에 한번 낮빛을 펴니 |
| 仙緣到底未終慳 | 신선의 인연 도저히 끝내 아까워하지 않았네. |
| 鋤頭棄擲尋常物 | 호미 끝에 버려진 심상한 물건들을 |
| 供養窓明几淨間 | 밝은 창 궤 사이에 두고 공양한다네. ²²⁰⁾ |

사물은 대상을 인지하는 상황이나 처지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 작자가 수선화를 仙의 心象으로 인지하고, 仙緣을 다하려 하지만, 당시 농민들의 눈에 비친 수선화는 먹지도 못하고, 오히려 농사에 불편을 끼치는 무가치한 존재인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그것들을 호미로 제거해 버렸던 것이다. 그는 이 작품의 제목에서 ‘土인들이 그것이 무슨 물건인지 모르고 호미로 제거해 버린다.’ 고 아쉬워하고 있다. 수선화는 秋史가 구속되어 있는 제주도라는 공간 속에서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식물이다. 하지만 이곳을 벗어나면 흔히 구할 수 없는 꽃이기도 한 바, 그런 점에서 이중적 표상을 지닌 소재였다. 따라서 작자는 이것을 실제로 잘 보호하고 가꾸려 하였다. 실제로 작자는 수선화를 통하여 자신의 심경을 토로했던 작품들이 상당 수 있다. 그만큼 수선화와 작자의 심사와는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220) 김정희, 『阮堂全集』 권10, <水仙花在在處處 可以谷量 田苗之間尤盛 土人不知爲何物 麥耕之時盡爲鋤去>.

그런데 전술한 것처럼 특이하게도 8월에 잎이 시든 뒤 홍자색의 육관화가 피어나는 수선화는 꽃과 잎이 등져 있어서 서로 보지 못한다고 相思花라고 불린다. 이러한 외형의 특성은 선비의 삶이 군더더기를 털어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치 잎사귀를 털어낸 뒤 꽃잎을 피우는 相思花처럼 삶의 걸치레를 벗어나야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인식하게 되므로 곧 도를 터득한 수도자에 비유되기도 한다. 결국에서 수선화를 모셔놓고 공양하면서 멀리서 내려다보며, 작자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찌꺼기를 제거하여, 마음의 위안을 삼으려는 모습에서 현실에 초연하려는 마음의 자세를 느낄 수 있다.

| | |
|---------|------------------------------------|
| 行人下馬短碑前 | 길 가는 나그네 짧은 비석 앞에서 말에 내려 |
| 金煥心家舊躡傳 | 김환심 집에서 오랜 자취 전하였네. |
| 一酌橋林明志事 | 굴림서원에 잔을 올려 심사를 밝혔으니 |
| 至今彈淚種薑年 | 오늘에 생강 심던 해를 눈물짓네. ²²¹⁾ |

제주에서 尤庵 송시열(1607~1689)의 유허비를 보았을 때, 그에게는 만리타향에서 뜻하지 않게 친한 이를 만난 느낌이었을 것이다. 주지하듯이 尤庵은 숙종 15년(1689) 세자 책봉 문제를 반대하다가 제주로 유배되었고 재 국문을 받기 위해 얼마 안 되어 상경 도중 정읍에서 사사된 인물이다. 작자에게 있어 尤庵은 마음의 스승과 같은 존재였다. 그러므로 더구나 그의 유허비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에서 내려 예를 표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뿌듯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흐뭇한 마음이 순간 尤庵이 유배당한 직후에 ‘橋林書院에 자신의 심사를 밝혀 고하게 한 사실’에 마음이 옮겨 갔을 때, 자신의 처지를 尤庵의 무릎 앞에 하소연 하고 싶은 심정을 억누르기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작자는 尤庵이 여든의 노구로 짧은 기간 동안 유배되었지만, 현실을 달관하며 평상으로 돌아가, 태연히 생강을 심던 모습을 추억하며 닦으려 하였다. 실제로

221) 김정희, 『阮堂全集』 권10, <尤齋遺墟碑>.

‘생강’은 중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상시 복용하던 필수 음식이었다. 공자도 속이 좋지 않아 상시로 복용했다고 한다. 결국 尤庵이 생강을 심으며, 달관된 마음으로 현실에 순응하려 했던 것처럼, 작자도 자신이 처한 현실을 받아드리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작자의 내적 갈등이 일반인과 다른 모습을 느끼게 된다. 작자는 열악한 유배 환경 속에서 얼마간 비판적이기도 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미련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러다가 결국 본연의 모습인 구도자의 자세로 돌아간다. 이것은 아마 서두에도 언급하였지만, 작자의 유배 시기가 삶의 궤적에서 ‘耳順’에 해당되고 작자의 평상시 삶이 求道와 맞물려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2) 流配地에서의 日常情感의 表出

秋史의 유배 시기는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계기가 되어 내면적 자아를 발견하기 위한 열정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것 자체가 어쨌든 참 인간 즉 자기를 발견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삶을 달관한 그에게도 다른 사람과는 조금 구분되지만 늘 인간적인 고뇌에 기대어 끈끈한 그리움과 연민을 표출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 | |
|---------|------------------------------------|
| 村裏兒童聚見那 | 마을 아이들 누굴 보러 모였는지 |
| 逐臣面目可憎多 | 내 쫓긴 신하 얼굴 가증스럽네. |
| 終然百折千磨處 | 끝내 백 천 번 꺾이고 갈린 곳에 |
| 南極恩光海不波 | 임의 은혜 바다 물결 가라앉혔네. ²²²⁾ |

작자의 그리움은 제주에 도착하며 소회를 드러낸 작품에서부터 드러난다. 우선 작자는 君恩을 잊지 않았다. 험준한 파도를 헤치고 이곳 탐라까지 무사

222) 김정희, 『阮堂全集』 권10, <瀛洲禾北鎮途中>.

히 도착한 것이 임금의 덕택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감정은 약간의 모순성을 가진다. 어떻게 보면 자기를 이러한 지경에 놓이게 한 장본인에 대하여 어쩔 수 없이 형식적인 면에 주목하여 臣禮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작자의 현재 심정을 그렇게 딱딱한 윤리적 관점으로 바라보기 보다가는 그동안 가까이 모시면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임금의 은혜를 이억 멀리 머나먼 외딴 섬에서 간절히 느끼고 있다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君 師 父의 절대적 개념 하에 살았던 조선 사회에서 戀君, 感君은 일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유배지에서 느끼는 감정은 더욱 심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작자의 제주 유배 시에서는 그리 많이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경루 옥우의 둥근 달은/ 은혜를 나누어 바다까지 이르게 하네(瓊樓玉宇團團月/ 分得恩光到海中)”라고²²³⁾ 읊조리는 정도이다. 이것은 아마 작자가 현실을 초월하려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작자는 이 곳 제주에서 직접 백성들의 생활을 돌아볼 수 있었다. 자신의 얼굴을 보려고 모인 섬 속의 愚民들의 모습을 정면으로 쳐다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어쩌면 제주의 백성들에게서 유배지의 이런 모습은 얼마간 흥미를 유발할 수도 있었겠지만 평범한 일이었을 것이다. 늘 잡혀 오고, 해배되어 떠나는 모습 속에서 식상함을 느꼈을 수도 있는 자신의 현재 모습을 관심 있게 바라보는 백성들의 모습에서 그간에 보고도 못 본 듯이 스쳐 지나쳤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얼마간 들여다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어쨌든 이러한 감정은 그간에 곁에 밀접히 있었으면서도 전혀 소중함을 느끼지 못했던 또 다른 대상물, 예컨대 血肉, 至親, 朋友, 夫婦 간으로 옮겨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南瓜餅賽菊花糕

호박떡은 국화 경단에 비기니

村味爭教野席高

마을 마다 맛을 다뤄 찬치 한창이네.

223) 김정희, 『阮堂全集』 권10, <元宵述懷>.

癡想平生銷不得
茱萸紅到舊鬢毛

어리석은 생각 평생토록 사라지지 않아
붉은 수유 꽃 옛 터럭에 꽃았다네.²²⁴⁾

유배지에서 중앙절을 만나 제주의 풍속을 묘사하였다. 그러면서 그것을 보고 있자니 고향의 형제들이 너무도 보고 싶다. 부질없는 생각이라고 치부하고 잊어버리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강하게 다가오는 형제들의 정을 마지막 구에서 옛날에 ‘높은 곳에 올라 수유 열매를 머리에 꽂으면 사특한 기운을 물리친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지런히 수유 열매를 찾아 온 산을 뒤흔던 어린 시절에 대한 생각이 이르자 절정을 맞는다. 구속된 환경 속에서 어린 시절에 대한 아련한 추억은 온통 그리움의 대상일 것이다. 구도자를 자임하며 달관된 모습을 지향했던 작자이지만, 작자의 이러한 그리움은 매우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인다. 그동안 너무나 가까이에 있었는데도 느끼지 못했었다는 아쉬움이 오늘날 오히려 작자에게 더욱더 간절한 그리움으로 사무치게 하고 있다.

我家金鯽舊橋東
紅者開兼白者同
獨對水仙支瘦腦
未從玉妃笑春風
夢迴淺水黃昏際
吟斷荒村暮雪中
近聞虎兒詩意足
鄉園物色漫書空

우리 집은 옛날 교동에 살았는데
붉은 것이 하얀 것과 어울려 함께 피었네.
깡마른 수선화 가지 독대하고
봄바람에 웃음 짓는 옥비를 따르지 못하네.
황혼이라 얇은 물에 꿈의 혼이 돌아오고
아득한 시골 저물녘 내린 눈 속에 읊조림 끊겼네.
근자에 들으니 호아가 시의가 넉넉하다 하니
향원의 물색을 허공에다 써 갈기네.²²⁵⁾

224) 김정희, 『阮堂全集』 권10, <海上重九無菊作瓜餅>.

225) 김정희, 『阮堂全集』 권10, <失題>.

봄바람에 살며시 자기 곁에 다가온 수선화를 보고, 마치 고향에 온 것인 양 호들갑을 떨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일 뿐 활짝 핀 수선화를 보고, 늘 그리워하며 속절없이 세월을 보내야하는 현실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기도 하고, 세상에 어떤 물건으로도 이러한 애잔한 심정을 달랠 수 없다고 푸념을 늘어놓기도 한다. 이러한 작자의 그리움이 황혼녘이 다 되어서는 조금 진정된 것 같다가, 끝내 자신의 이러한 행동이 부질없는 짓이라고 체념한다. 하지만 정작 체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들어 더욱더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이러한 그의 애뜻한 그리움은 다른 작품에서 “오래도록 이 잔을 잊지 말 것이니/ 봄 돛은 반드시 좋은 바람 따라 돌아올 것이네(長毋相忘此一杯/ 春帆定逐好風回)”라며 해배를 암시하기도 하였다.²²⁶⁾

이 작품에서 작자는 이조년의 <梨花에 月白하고>라는 시조에서 月白, 子規, 多情이라는 시어를 사용하여 나그네의 애뜻한 정을 점층적으로 드러냈던 것처럼, 秋史 또한 苦惱, 黃昏, 吟斷이라는 시어를 적절히 사용하여, 자신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단계적으로 표현하려 하였다.

| | |
|---------|--|
| 那將月姥訟冥司 | 어찌먼 장차 월로에게 애원하여 |
| 來世夫妻易地爲 | 내세에선 서로 처지 바꾸고 싶네. |
| 我死君生千里外 | 내가 죽고 그대가 천리 밖에 살아 있어 |
| 使君知我此心悲 | 그대로 하여금 나의 이 슬픈 마음 알리고 싶네. ²²⁷⁾ |

그리움 중에 가장 큰 그리움은 내외간의 애뜻한 정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일생동안 함께하며 파란 만장한 30여년의 세월을 아무 구김살 없이 인내했던 부인의 訃音을 접하고, 당장이라도 뛰어 올라가 부인의 시신을 부여잡고 솟구쳐 오르는 애절함을 마음껏 드러내고 싶은 심정을

226) 김정희, 『阮堂全集』 권10, <偶題>.

227) 김정희, 『阮堂全集』 권10, <悼亡>. 이 시는 『완당 선생문집』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끈으로 발을 묶어 부부의 연을 만들어 준다는 월로에게 애원하여, 현재의 처지를 바꾸어 달라고 매달리고 싶다고 애절하게 토로하였다. 이러한 억누를 수 없는 작자의 심정은 현재의 기가 막힌 이 심정을 易地思之하여 부인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울부짓음으로 변하여, 이 시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끊임없는 슬픔에 잠기게 하였다. 7언 절구라는 28자의 제약 속에 하염없는 자신의 심정을 함축적으로 드러낸 점은 그야말로 秋史가 자신이 처한 현실이 그만이 가진 문학적 천재성으로 한 없이 발휘되었으니 哀悼詩의 백미라고 하여도 전혀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것이다.

작자는 부인이 타개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부인이 별세한 그날과 7일 뒤에도 언간을 썼다. 현존하는 그의 언간 33통 중에 31통이 부인에게 쓴 것이며, 시기로 보아도 33세에서 59세 부인이 죽을 때까지 놓여 있다. 그 중 13통이 제주 유배 시절에 쓴 것이라 하니, 유배라는 극한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부부애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²²⁸⁾

이상에서 秋史의 그리움을 戀君之情, 兄弟之情, 故鄉之情 마지막으로 夫婦간의 애뜻한 情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그가 제주 유배라는 인생의 전환기에서 내면의 성찰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그 간에 도외시 하던 진솔한 삶의 모습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求道와 達觀의 情景

이제까지 선행 논의에서 작자의 인간적인 내적 갈등의 고뇌를 표출한 부분과 그동안 잊고 지냈던 그리움이 형상화된 모습을 살피려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눈에 비친 유배지, 제주의 모습에서 앞서의 선행 논의에서 파악되듯이 현실에 대한 달관을 통한 진정한 구도자의 경지를 조화롭게 구현하려 하였다.

228) 김일근, <諺簡에 投影된 秋史의 人間論>, 『탐라문화』 제6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7.

| | |
|---------|--|
| 喚風亭接望洋臺 | 환풍정이 망양대와 맞닿아 있어 ²²⁹⁾ |
| 俯見紅毛帆影來 | 굽어보니 홍모처럼 돛 그림자 펼쳐지네. |
| 眼界商量容一吸 | 눈앞의 경계 헤아려보니 한 눈에 들어오는데 |
| 兩丸出入掌中杯 | 손에 든 잔 사이로 두 개의 달이 교차하네. ²³⁰⁾ |

작자의 유배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 대정현이고, 게다가 활동 범위를 제한한 圍籬安置이다. 따라서 아무리 尤庵의 유배에서 시작된 노론의 인맥으로 인하여 편리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작자의 작품 속에 그윽한 남국의 정취를 담아내기에는 일정한 제약이 있었다.²³¹⁾ 결국 喚風亭에 올라 눈앞에 펼쳐지는 국한된 모습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²³²⁾

작자는 이러한 제약된 환경 속에서도 제일 먼저 喚風亭에 올라 望洋臺와 맞닿을 것 같은 주변 배경을 그리고, 나아가 아득한 원경까지 묘사하려 하였다. 마지막으로 작자는 喚風亭에서 펼쳐지는 주변 풍경을 바라보며, 하늘에 떠 있는 달과 술잔에 어린 달을 벗 삼아 자신의 내면의 경지를 드러내려 하였다. 그렇지만 작자는 경물의 제시에 집착하지 않으려 하였다. 다만 내면의 경지를 드러내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선두기에 그쳤을 뿐이다.

이러한 시선두기가 가능했던 배경은 아마 작자가 예술가적 경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글씨를 쓰듯이 그림의 구도를 잡는 것처럼, 주변 환경을 바라볼 수 있기에 가능했으리라 생각한다.

229) 참고로 喚風亭은 제주 목 안의 화북 진 부근에 있었던 객사로 제주를 드나들던 사람들이 묵었던 장소인데 현재에는 유허지 만이 남아 있다.

230) 김정희, 『阮堂全集』 권10, <喚風亭>.

231) 실제로 北軒 金春澤은 제주유배 시절 선대의 후덕으로 인해 말과 종의 편리함을 얻을 수 있었고 심지어 유배 마지막 해에 동생과 함께 왔던 부인이 임피로 이배될 때까지 같이 지내다가 해배되어 돌아 왔다.

232) 참고로 喚風亭을 소재로 지은 金成鐸 <次濟州喚風亭板上韻>, 李海朝 <喚風亭待風>, 李起渙 <禾北喚風亭遇雪> 등 제주 관련 한시 작품이 다수 남아 있다.

| | |
|---------|--------------------------------------|
| 數朶鷄冠醬甌東 | 장독대 동쪽 맨드라미 몇 떨기 피어 있고 |
| 南瓜蔓碧上牛宮 | 호박 넝쿨 파랗게 외양간을 오르네. |
| 三家村裏徵花事 | 고 양 부 삼성의 마을 꽃이 핀 곳 찾으니 |
| 開到戎蔡一丈紅 | 해바라기 일장 홍이 활짝 피어있구나. ²³³⁾ |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시골 풍경을 묘사한 것 같지만, 그 중에서 제주라는 제한된 환경에 주목하려 하였다. 맨드라미, 호박 덩굴, 해바라기 같은 動的인 소재와 장독대, 외양간, 三乙那의 토속 마을과 같은 靜的인 감미로운 시어를 사용하여 마치 예술가적 안목을 가지고 구도를 잡듯이 적절히 배치하여, 靜中動의 한가롭고 조용한 情景를 그리려 하였다. 앞서 언급하였지만 시인들에게 있어 자연은 작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매우 다를 수밖에 없다. 천명에 순응하며, 성명을 보전하려는 장으로서의 전원, 일시적 환경 극복으로서의 전원, 미적 관조와 구도를 위한 전원으로 나눌 수 있다.²³⁴⁾ 이 작품은 마지막에 해당될 것이다. 철저한 예술가적 통찰력에 의지하여, 빨강, 파랑, 노랑, 삼색의 조화가 어우러진 촌가의 情景를 묘사하여 ‘詩中有畫’를 실현하려 하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왜 詩書畫를 군자 삼절이라 했으며, 또한 畫가 그 속에 어떤 구실을 하며, 더 나아가 예술가의 천재적 기질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더욱이 어째서 작자의 제주 관련 한시 작품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도 아울러 이해할 수 있다.

| | |
|---------|----------------------|
| 福星十九社中光 | 복별이 옹기종기한 마을 비추니 |
| 大麥扮黃四野香 | 누런 보리 내음 온 들 진동시키네. |
| 近日官家無外事 | 근자에 관가에서는 다른 일이 없는 듯 |

233) 김정희, 『阮堂全集』 권10, <村舍>.

234) 김상홍, 『茶山 丁若鎔 文學研究』, 단대출판부, 1986.

| | |
|---------|-----------------------------------|
| 婆婆樹下午眠長 | 축 늘어진 나무 아래에서 오수를 즐기네. |
| 大好新晴碌礪場 | 새로 개인 들녘 보기 좋은데 |
| 兩岐何似去年長 | 양기는 작년과 어찌 그리 비슷한지 |
| 空中不斷連糶響 | 공중에 도리깨질 이어지니 |
| 天上人間麥飯香 | 천상의 인간 보리밥이 향기롭네. ²³⁵⁾ |

농촌의 평범한 일상을 묘사하려 하였다. 첫 수에서 보리가 노랗게 익은 평화로운 시골의 情景 속에 오수를 즐기는 일 없는 관리의 모습에까지 靜的인 모습을 그리려 하였다. 그러다가 돌연 두 번째 수에서 도리깨질하는 動的인 농부의 모습을 등장시키더니, 동분서주 농사일에 전념 했던 兩岐를 자기와 동일시하여 고뇌와 근심어린 눈으로 농촌을 바라보려 하였다. 특히 두 번째 수에서는 평소 관심이 없던 농사일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을 드러내어, 내면의 구도자적 자세가 밖으로 조직화된 모습을 나타내려 하였다. 이와는 다르지만 “성 안팎의 샘물 맛 시험해보니/ 올라 땅에서도 차를 품평할 수 있겠네(泉味試分城內外/ 乙那亦得品茶無)”라고²³⁶⁾ 하면서 忙中閑의 그것과는 차별화된 유배지의 외형적 답답함에서 벗어나 유유자적하려는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상에서 작자는 예술가적 관점을 가지고 자연을 관조하고, 내면의 조화를 추구하여 진정한 삶의 자세를 견지하려 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고뇌를 털어내고, 그리움을 삭이면서 유배 환경을 받아들이고, 더 큰 삶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려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235) 김정희, 『阮堂全集』 권10, <打麥二絕寄北青明府便面>.

236) 김정희, 『阮堂全集』 권10, <汲古泉試茶>.

V. 濟州 關聯 漢詩의 性格과 意義

이제까지 전 장에서 제주와 관련된 한시 문학 작품들을 概括적으로 정리하고, 그것을 赴任官과 流配客으로 나누어 조금 더 세분화하였으며, 樣式과 類型 살펴보았다. 그리고 赴任官과 流配客이 남긴 제주 관련 한시 작품을 각각 세 작가를 선별하여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본 장에서는 이제까지 상론한 작품 속에 내재해 있는 성격을 설명하고, 그러한 작품들이 가지는 漢詩史의 意義를 적시하여, 이러한 작품들의 위상을 제고하려고 한다.

1. 濟州 關聯 漢詩의 性格

제주와 관련한 한시 작품들은 크게 내용적으로 비슷한 정서를 공유한다. 여기에 소재의 공통성이 결부되어 일정한 경향성을 띤다. 이것은 창작 문인 층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대략 제주와 관련된 작품의 담당 층은 전술한 것처럼 내도한 이유에 따라 赴任官, 流配客으로 갈리는데, 이것은 분명한 목적성을 수반한다. 따라서 작자들은 정서적으로 자기의 내도 목적과 부합된 시각으로 제주를 바라다볼 수밖에 없었다. 대부분의 제주를 찾은 赴任官들은 목민관의 심정으로 제주 백성들의 생활을 들여다보고, 그것에 따른 牧民官의 심정을 작품에 드러내었다. 유배객들은 얼마간 비판적인 시각으로 당시 변방의 아픔을 공유하려는 의식을 드러내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입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식인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인식의 측면에서 비슷한 정서적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공통적인 정서를 반영하는 작품에는 제주만이 가지는 이국적인 소재들이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민폐의 원인이 되는 제주에서 중앙에 바치는 공물, 예컨대 말, 전복을 포함한 해산물, 감귤 등의 토산물을 가지고 작품 창작

의 소재로 많이 활용하였다. 제주라는 고립된 특수한 환경에서 제주만이 가지는 절경들은 이방인의 눈에 새롭고 신기함 그 자체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내도한 사람들은 그것들에 폭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역시 작자들은 이러한 소재를 간과하지 않고 작품의 소재로 적극 활용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전통적으로 전래되는 경향성을 띠기도 한다. 예컨대 제주를 들어오는 과정에서의 해로를 거치면서 겪었던 경험들을 적절히 묘사하였고, ‘濟州十景’이라고 일컬어지는 절경들과 그 밖의 한라산과 산재되어 있는 瀑布, 公廡, 防護所 등 많은 제주만이 가지는 독특한 절경들은 새로운 것을 찾아 해매는 작자들의 눈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제주와 관련된 한시 작품들 중에 내용상으로 공통적인 정서를 지닌 작품들은 시대를 거치면서 계승되어 창작되었다. 그 중에서 특히 전술한 것처럼 林梯의 <迎郎曲>, <送郎曲>은 제주의 풍속을 잘 드러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1679년 濟州按察兼巡撫御使로 임명되어, 제주를 찾았던 李增과 1711년 제주판관을 지냈던 南九明 등에 의해 계승 창작 되었다는 점은 특이할 만하다. 그 외에도 申光洙는 지방의 착취 현장을 직접 목도하고, 비분강개한 심정으로 <潛女歌>, <濟州乞者歌> 등의 시를 지어 당시 변방의 황량한 모습을 거름 없이 드러내었다. 이 작품들은 지식인으로서의 불합리한 사회고발의 시대정신을 반영한 것이고, 중앙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는 사람들이 직접 목도하지 못해서, 현실감이 어두워 묵과되는 부분들이 철저하게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달하려는 작가정신을 드러낸 것이다. 한편으로는 지방으로 파견되는 관리들이 지방의 모습을 여과 없이 임금에게 보고하려는 『詩經』 이래 나타나는 ‘採詩觀風’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선후기에 오면 문화적으로 지방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적지 않게 이루어진다. 중앙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무수한 지식인들이 赴任官, 혹은 流配客으로 제주에 유입되어 생활하는 한편, 이들은 변방 민중의 고달픈 삶, 내면의 갈등, 道心の 함양 등을 문학 작품화하여 드러내기도 한다. 이러한 경향

은 선초부터 지속되어온 결과이기도 하다.

예컨대 金淨은 적거지의 황량한 모습을 통해 자신의 심경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었다.

| | |
|-------|----------------------------------|
| 落日臨荒野 | 지는 해는 거친 들로 내려가고 |
| 寒鴉下晚村 | 갈 까마귀는 저문 마을에 내려앉네. |
| 空林煙火冷 | 빈 숲에 저녁연기 썰렁한데 |
| 白屋掩衡門 | 초가집에 사립문에 닫혀 있네. ²³⁷⁾ |

주지하듯이 己卯諸賢의 일인이었던 그는 정치적으로 고난의 길을 걸었고, 시문이 모두 뛰어난 문사였다. 작자는 작품에서 지는 해, 저녁의 갈 까마귀, 빈 숲, 은사의 초가집 등 쓸쓸한 느낌을 주는 시어를 선택하고 있다. 작자는 눈앞에 비친 쓸쓸한 저녁마을의 풍경을 담담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작품의 분위기로 보아, 작자가 유배지에서 지은 것으로 보인다.²³⁸⁾

石北은 49~50세에 걸쳐 관서지방을 여행하고 『關西錄』을 남겼다. 여기에서 고독과 비애, 향수, 풍속과 세태, 유적지에 대한 감회 등을 읊었다. 이러한 점들이 부분적으로 <關西樂府>에 투영되고 있으며, 평양, 남포, 장림, 성천이나 그곳의 대동강 부벽루, 연광정, 강산루, 등 공간적 배경도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다음을 보자.

| | |
|-------|-------------------|
| 蝗蟲殺晚禾 | 황충이 늦은 벼를 다 죽이는데 |
| 新官問何人 | 새로 온 사또는 어떤 인물인가? |
| 官人多愛錢 | 관리들은 몹시도 돈을 좋아하여 |

237) 김정, <感興>, 『冲庵集』.

238) 강석중, 강혜선, 안대회, 이종묵, 『허균이 가려 뽑은 조선시대의 한시』, 문헌과 해석사, 1999.

<金馬別歌> 제 32수이다. 새로 부임한 관리의 탐학과 포학 상을 그림으로서 당대의 부조리한 사회상을 고발하였다. 마치 『春香傳』에 나오는 변 사또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蝗蟲이 늦벼를 모두 죽이듯이 신관 사또가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다. 蝗蟲은 宋代의 朱子가 지방관으로 나가 있는 동안 박멸에 사활을 걸었을 정도로 민생에 해를 끼친 해충이다. 蝗蟲은 이처럼 민생과 밀접한 관련성을 띠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蝗蟲을 잡아 없애야 할 관리가 오히려 蝗蟲과 같은 짓을 하고 있다. 백성들에겐 고통과 시련이 중첩되는 장면을 포착하였다. ‘蝗蟲이 하늘 가득히 날아올 때 물러가도록 빌기도 하고, 때려잡기도 하여, 백성의 재앙을 덜어준다면 역시 인자하다는 명성을 듣게 될 것이다.’에서 볼 수 있다고 제시한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²⁴⁰⁾ 선정에 대한 갈망은 금마백성들만의 소망이 아니라 당 시대 백성들의 보편적 소망이었는데 여기에서 탐관오리의 횡포를 묘사함으로써 역설적으로 형상화하였다. 이러한 작자의 비판적 작가정신은 그대로 제주 관련 한시 작품인 『耽羅錄』의 <潛女歌>, <濟州乞者歌>에 재현되었다.

이러한 작품들은 얼마간 시대적 변화와 관련이 있다. 주지하듯이 조선 사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방면에 걸쳐 봉건 말기의 징후를 드러내고 있었다. 특히 18세기 이후에는 봉건 지배질서의 완만한 붕괴가 진행되는 한편 이와는 상대적으로 근대 지향적인 역사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서로 충돌하는 시기였다. 특히 사회 경제적 격변으로 인해 사회적인 모순이 심각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격변속의 士의 존재는 관료 사회의 특수성, 정치사회의 변화, 경제적 몰락 등의 원인으로 그들의 경제적 삶은 말이 아니었음이 역사적 사정이었다.

239) 신광수, 『石北集』, 권4, <金馬別歌> 其三十二.

240) 정약용, 『牧民心書』 愛民六條 第六條<救災>, 飛蝗蔽天, 禳之捕之, 以省民災, 亦可謂仁聞矣.

그리하여 생업을 가질 수 없는 신분 사회의 특수성은 독서인으로서의 지식밖에 갖지 못한 士에게 생존의 위기를 맞아 행동 양태를 달리하게 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그들은 일정부분 권위주의에 대해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일부 士계층은 당시 학문이 변화하는 현실을 옳게 인식하고 설명할 기능을 상실한 채,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이론으로서의 虛學이 절대불변의 고정적인 것이 되어, 그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비판 부정하고, 학문은 모름지기 실제 사물에 나아가서 거기서 참다운 이치를 찾아내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²⁴¹⁾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조선후기의 시는 조선 초기 이래 한시의 발전 양상에 비할 때 변화가 많고, 그 속도 또한 매우 빠르다. 기존 시의 범주에서 이탈한 새로운 내용과 형식, 사고가 다채롭게 등장하고 있다. 이 시기 시가 보인 다종다양한 양상의 요인을 사회적으로 분석해 보면, 작가의 신분 상, 지위 상의 다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됨을 알 수 있다.

고려 이후로 시인은 대체적으로 ‘士’이면서 ‘大夫’였다. 즉 공부하는 선비이면서 관리 그것도 대체적으로 고관인 경우가 많았다. 물론 예외적 존재가 적지 않지만 큰 테두리는 그러하였다. 조선중기만 하더라도 그 틀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조선후기의 상황은 그러한 작가적 여건이 크게 바뀌었다. 빼어난 시인이면서 동시에 고관인 작가가 없지는 않지만, 중요한 시인의 사회적 지위가 예전 시인의 그것과는 현저하게 다른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났다. 시인의 사회적 위상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시인의 사회적 위상이 격화된 현상은 그대로 시의 내용과 정서, 형식에 반영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선후기 들어 시인의 사회적 지위와 관련하여 다음 변화가 주목된다. 지배 권력층으로부터 소외된 시인 군의 대거 등장을 들 수 있다. 17세기 중반 이래 격화된 당쟁으로 인하여, 실제적으로는 노론이 정국의 주도권을 잡으면서, 소론이나 남인에 속한 사대부는 정치적으로 몰락의 길을 걷게 되며, 경제적으로

241) 김혈조, 『박지원의 산문문학』, 대동문화연구총서22,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2.

도 그에 상응하는 처지가 되었다. 노론에 속한 사대부라 하더라도 별열과 인적 관계를 맺지 못한 경우는 권력과 경제적 이득으로부터 소외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권력과 경제력을 독점한 당의 인물들이 정치적, 경제적 이득에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는 동안, 정치적으로 몰락한 당에 속한 인재들은 학문과 문학에 힘을 기울임으로서 조선후기 학술과 문학의 중요한 성과는 이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사대부 문학으로서 한시는 안정되고 여유 있는 삶과 아름다운 자연 경물의 음영이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사대부의 정치적, 경제적 기반이 튼튼하였던 조선중기의 한시에서는 그것이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나 조선후기에는 그러한 한시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음을 여실하게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조선후기 시인 군의 사회적, 신분적, 정치적 기반이 변화한데 기인한다. 조선후기 시의 기본적인 주제의 하나인 상실감과 소외감은 시인의 사회적 기반 변동에 정서적으로 상응한다. 시인들은 불평의 심경, 민간의 삶에 대한 친화감, 엄격한 격식으로부터의 이탈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데, 그러한 특징은 시인들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처지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요컨대 조선후기는 시인의 사회적 지위의 分岐가 어떠한 시대보다 촉진되었던 시기다. 시인들의 사회적 분기는 시인들이 세계를 보는 관점과 그들이 시를 대하는 태도의 상이함을 낳게 되었다. 조선후기 한시의 다채로운 발전에는 이러한 요인이 숨겨져 있다.²⁴²⁾

산문에 있어서도 白湖에 의해 제주 곽지리의 천민인 千德의 남편을 향한 숭고한 절개가 <千德傳>으로 입전되었고, 樊巖에 의해 제주의 기갈을 해소한 만덕이 <萬德傳>으로 입전되었다. 凝窩에 의해 <朴孝子傳>이 입전되었는데, 본문 외에 서와 논찬부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²⁴³⁾ <朴孝子傳>에서 볼 수 있듯이 제주도의 보잘 것 없는 백성인 박계곤과 그 후손이 지극한 효와 충으

242) 안대회, 『18세기 한국 한시 사 연구』, 소명출판, 1999.

243) 李源祚, 「耽羅錄」中.

로 입신한 이 이야기를 입전하였는데, 이것은 아마 白湖의 <千德傳>의 영향을 받았으리라 짐작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제주 관련 한시의 성격을 얘기하면, 조선시대 다양한 시 흐름의 이국 풍물을 묘사한 풍속시의 하나로 지방문학의 가능성을 열었으며, 특이한 풍물과 자연풍광을 통한 한시의 지역 내지 '민족'적 특성을 가지고, 동시에 조선시대의 한시와 기록문화의 특징과 지리지로서의 성격과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濟州 關聯 漢詩의 詩史的 意義

제주와 관련된 한시들이 가지는 조선시대 漢詩史의 意義를 설명하려면 우선 제주 관련 한시의 지방문학적 의의를 설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주 관련 한시 작품이 집중되어 있는 시기인 조선후기 시사적 흐름과 연결시켜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첫째, 지방문학에 대한 연구는 종합화와 차별성의 구체화라는 관점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개념상으로는 기존의 연구들을 종합하여 시각을 새롭게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 자료와 대상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각 지방의 역사적 조건을 무시한 선부른 일반화의 경향을 지양하고, 개별 작가나 작품의 특수한 상황을 완전히 인식한 상태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의 결과물들로 인해서 문학 연구 대상이 지방으로 확대되어, 각 지방의 차별성을 구체화하는 작업은 해당 지방의 문학을 복원하는 과정이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문학 전체에 대한 이해를 풍부하게 하는 한 방편이 될 것이다.

조선시대의 문인들 속에는 지방문화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러한 관심은 여러 형태로 작품화되었는데, 지방문학이란 틀 속에서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문학이란 용어는 이제까지 우리 문학사의 흐름 속에서 생소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문학의 개념에 대한 설정은 중요하다.

우선 지방문학에 대한 인식은 우리의 세계관의 변화에 기초하여야 한다. 조동일은 지방문학의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우리나라 지도를 그릴 때, 제주도를 네모 칸에 가두어버리는 현상에 대하여 우리의 내면에 숨어 있는 고착화된 지방을 무시하는 세계관의 표출이라고 꼬집었다. 곧 이것을 미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보면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한국에 초점을

맞추면 한국이 한 가운데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문학도 서울 경기지역의 문학이 우리 문학의 중심으로 인식되어 왔고, 그것이 고착화된 틀 속에서 지방 문학에 대한 연구 활동이 제한적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지방 고유의 문학이 현실화되어 완전한 규모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지도를 그릴 적에 제주도를 네모 칸에 감금시켜 부산 밑에 끼워 넣는 세계관의 속박된 틀 속에서 벗어나, 각 지방을 중심으로 등고선 식으로 그려서 각각의 지방이 전면에 드러나게 그려야 함이 지방화 시대를 활성화시키는 밑 걸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처럼, 우리의 문학도 각 지방의 문학을 작은 단위 별로 성숙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작업은 그 지방의 특색을 결정지을 수 있는 작품, 그에 따른 작가, 시대별, 장르별 구분이 선행되어야 함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아직까지 걸음아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지방문학의 연구 결과물을 가지고, 그것의 개념을 이 짧은 지면에서 완전히 설명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생각된다. 조동일은 우리의 문학 연구의 단위를 상, 중, 하 세 단계로 나누고, 지방문학을 하위 단위의 문학으로 설명하였다.²⁴⁴⁾ 그는 지방문학 연구의 방향에 대하여 지방사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의 하나이므로 다른 분야와 긴밀하게 연관되어야 한다. 문학을 그 자체로 고립시켜 폐쇄되는 잘못을 시정하고, 다른 학문의 관심사와 광범위한 연관 관계를 가지고, 총체적으로 연구하는 작업을 내실 있게 진행하여, 학풍의 전반적인 전환에 적극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다. 그리고 비교 연구를 통해 문학의 서로 다른 양상을 밝혀, 민족문화사의 다양한 발전을 인식하고, 중앙 집중의 획일화 때문에 잃어버릴 수 있는 지방문화 유산을 찾아내어, 오늘날의 문화를 더욱 풍요롭게 하여, 각 지방마다의 장기를 살려 서로 도움 되는 길을 찾자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용어를 갈래지어야 한다. 사전적인 의미로 지방은 특정 방면의 땅, 혹은 서울 이외의 지역을 나타내며, 지역은 정치, 경제, 문화

244) 조동일, 『地方文學史』,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상에서 일정한 특징을 가진 공간을 가리킨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지방은 지역보다 탈 중앙적인 의미를 내포할 때가 많다. 따라서 지방이나 향토보다 사용 주체를 누구로 해도 상관없는 지역이란 가치중립적인 용어에 주목하기도 한다. 곧 지방은 정치 인위적인 경계이고, 지역은 자연적인 특성으로 구획된 영역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지방은 행정구역 등에 의해 구분된 영역으로, 서울과 대립적인 개념은 아니다. 문제는 지방과 지역을 어떠한 기준에 따라 나눌 것인가 하는데 있다. 이는 매우 난해한 문제이고, 다양한 기준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기준의 엄밀성을 무시할 경우, 전체 국가를 구성하는 작은 영역을 의미하는 용어로 지방이나 지역 모두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할 수 있다.²⁴⁵⁾ 따라서 필자는 별도로 지역 지방을 구분하지 않고 지방문학이라고 표기하였다.

지방문학의 단위가 되는 지방은 그 범위를 미리 한정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당연하다. 호남문학, 영남문학 같은 대단위, 전남문학, 대구문학 같은 중 단위, 고창문학, 통영문학 같은 소단위, 그보다 더 작은 단위가 모두 의미가 있다. 서울도 한 지방이고, 서울의 안국동이나 가회동도 한 지역이다. 지역을 지리산 일대, 한강변 등으로 설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격적인 지방문학에 대한 연구는 지방문학의 생성과 변천을 그 현장의 사회와 관련시켜 다각도로 다루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문학을 그 자체로 독립시키지 않고, 다른 영역과 함께 다루는 방법을 제시한다. 지방문학에 대한 연구는 지방의 역사, 지방사회, 생활, 예술 등의 문제들과 주객의 구분이 없이 혼연일체를 이루어야 한다.

작품에 등장하는 자연배경, 역사적 사건, 사회상이나 생활상, 사고방식이나 정서가 모두 다룰만한 주제들이다. 그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문제 삼기보다는 서로 관련되어 있는 양상을 총체적으로 검토하는 편이 더욱 바람직하다. 그 지방에 머물러 사는 작가, 자기 지방을 떠난 작가, 일시 방문자가 된 외지 작

245) 권내현, <조선후기 지방사의 모색과 과제>, 창작과 비평사, 2000.

가의 작품 가운데, 어느 것이라도 특정 주제를 다루는데 긴요하다고 판단되면 다 다를 수 있다. 취급 범위는 미리 정할 수 없고, 어떤 주제를 다루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21세기는 새로운 의미를 지닌 시공간이다. 따라서 한문학 연구는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새롭게 만날 필요가 있다. 시간의 연속성과 관계없이 한문학을 탐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지만, 연구방법과 연구대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전과 다를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예스런 한문학의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휩쓸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우리가 학문을 하는 것은 언제나 그 시대적 요구와 동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산업화를 넘어 정보화로 접어들어 간다는 새로운 시대의 한문학에 대한 요구는 무엇인가? 시대적 요구라고 하면 한문학 연구의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문학 외적인 사회의 변화와 그에 따른 필요에서 비롯된 것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1970년대나 80년대의 한문학 연구에서 사회의식을 다룬다거나, 사회 비판적 내용을 지닌 작품들에 크게 주목하였던 것도, 당시의 시대적 흐름과 관련되어 있었다.

따라서 오늘날의 시대적 요구에 따른 한문학 연구 방법론이 필요할 때이다. 오늘날 한문학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야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사회의 여러 분야에 친 환경이라는 말이 있듯이 자연과의 친화가 중요한 테마가 되어가고 있고 그에 따라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많은 한문학 작품들은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렇게 한문학의 내용이 새롭게 다가오는 것과 아울러 또한 연구의 단위를 새롭게 설정하고 주목하는 지역단위의 문학연구를 개척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필자는 앞으로 한문학 분야의 지방문학 연구는 자료의 조사와 발굴, 정리와 보존, 전시와 활용이라는 순서에 따라 지방단위의 문학 자료가 구축되어야 한

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문학 자료가 정리되면서 동시에 문학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방문학 연구 가운데 진행하여야 할 연구 주제는 매우 다양하다.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그래왔듯이 지역과 직접 관련된 문인들에 대한 연구가 우선 일차적인 주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 한문학 연구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였던 연구 대상이 몇몇 작가들에 너무 편향되어 있던 점을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특정 지방과 관련된 작가들에 눈을 돌리면 문학작품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조명을 받지 못하는 작가나 작품이 매우 많기 때문이다. 최근 한문학 연구는 국문문학 연구가 연구 자료의 부족이라는 문제에 봉착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연구 자료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지방문학 자료의 조사와 발굴이 가속화되면 새롭게 연구되어야 할 작가나 작품이 상당수 나타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 한문학 연구 방법론은 기존의 제한된 연구 영역의 틀에서 벗어나 다각적으로 연구의 영역을 점검하고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한문학 연구자면 누구나 그 동안 한문학 연구의 제한된 연구의 범위에 대한 문제점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기에, 새로운 연구 방법은 연구자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본다. 최근에 논의되고 있지만 한문학 연구에 있어서 문체의 다양한 분야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은 문학 작품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또한 어떤 한 작품에 대하여 좀 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살펴보는 것도 문학 작품을 깊이 있게 바라보는 것이어서 오래 전부터 강조되고 있는 바이다. 이러한 점은 한문학 연구의 넓이와 깊이에 대한 연구이므로 늘 새로운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시각으로 오늘의 시대적 요구에 따른 지방 한문학에 대한 연구를 심도 있게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제주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자들이 소재에 무게를 실어 제주방언, 제주설화, 제주민요에 연구가 집중되었던 것을 탈피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출신을 따지지 말고, 제주와 관련된 작가와 작품을 포괄적으로 찾아

내어,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진행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여, 제주와 관련된 한시에 대한 연구가 원활하게 진행되어, 그것을 기반으로 전체 제주 한문학이 온전하게 형상화될 수 있도록 시각을 달리 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되리란 생각이 든다.

둘째, 제주 관련 한시들은 여러 시기에 걸쳐 다양하게 창작되고 있지만 아무래도 조선후기 들어 풍성하게 지어지고 있다. 따라서 제주 관련 한시가 가지는 시사적 의미는 조선후기 한시사와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조선후기 한시사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제주 관련 한시의 맥락을 파악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한다.

조선후기의 한시는 복잡한 조선시대 한시 전개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시대의 시단은 수많은 작가가 출현하여 다채롭게 개성을 발휘함으로써 百花齊放의 성대하고 복잡한 규모를 자랑한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만을 가지고도 조선후기의 한시는 실로 위대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기에 충분하다. 조선후기 漢詩史는 그만큼 다양하고 많은 작가에 의하여 복잡한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어떠한 시기의 시와 견주어 봐도 조선후기 작가의 시는 일정한 방향성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다기한 지향을 보인다. 조선 사회가 근대로 이행하는 기로에 있던 시기, 인간의 개성을 찾으려는 노력이 경주되던 시기, 자유의 사상이 싹트던 이 시기의 지적 고민들이 시에 충실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증거이다.

조선후기의 시단은 중기 시단의 시풍을 부정하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중기가 전통 준수의 시대라면 조선후기는 전통을 벗어나 새로움을 추구하는 시대라고 간명하게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보면 조선후기의 시는 전통 부정의 정신이 매우 강하게 표명되고 있다. 그런 만큼 매우 역동적인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시대의 한시는 기존 시의 규범과 상투성으로부터 탈피를 끊임없이 추구한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지적 할 수 있다. 문학은 이래야 한다는 어떠한 규범

을 부정하는 데서 새로운 세계의 창조가 시작되는 법인데, 조선후기의 시는 이전 시기에 규범으로 여겨졌던 것을 부정하고 새로운 것을 찾는 노력을 부단히 가하였다.

이전 시기의 문학에는 배워야 할 대상으로서의 모범이 존재하였다. 杜甫, 盛唐, 漢魏六朝詩, 蘇東坡, 黃山谷 등 배워야 할 모범으로 추앙되던 존재가 있었다. 또 시에서 따라야 할 규범과 격식이 이것저것 있어 시인들은 시를 지을 때, 그것을 준수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조선후기의 변화를 주도한 시인들에 이르면, 그러한 법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으며 배워야 할 대상을 설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 주장은 시에서 법을 버리고, 시를 변화시키고, 시에서의 忌諱를 피하지 말라는 요구로 요약된다. 험한 것도 쓰고 기이한 것을 만들어 내라고 하면서, 중국에는 작가의 개성을 독자가 감지할 수 있게 쓰라고 요구하였다. 이러한 요구는 규범을 준수하고, 최고의 작가를 배움으로서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미덕이었던 조선중기의 전통에서 보면 참으로 커다란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조선후기에도 여전히 그러한 작법을 미덕으로 여긴 보수적인 시인들이 존재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그러한 규범을 질곡으로 여기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시단의 전반적인 흐름은 변혁에 중점이 주어지고 있다.

전통과 규범의 질곡을 벗어나려 한 시인들은 시에서 자기 목소리를 만들어 내는 것을 중시하였다. 이처럼 상투성을 벗어나 자기만의 것을 찾아보려는 노력은 매우 치열하였다. 작가적 개성의 확보는 조선후기 시인들의 화두와 같았으므로 이 시대의 시단은 개성 찾기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한 노력은 시의 내용이나 서정, 시체의 선택, 작풍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울여지고 있다. 시의 주제는 개인 서정을 읊거나 멋진 경물을 음영하는 전통적 범주를 벗어나 현실의 다양한 부면을 반영하였다. 서정의 측면에서도 작가의 다양한 존재 양태에 걸맞게 폭이 넓어진다.

예컨대 樂府詩, 詠史詩와 같은 특별한 주제와 형식의 시가 많은 작가들에 의해 선호되어, 조선의 역사를 음영하고, 독특한 자연 풍토, 인정세태, 풍속,

생활을 읊은 작품이 출현한다. 이러한 특징은 서정적 양식으로서의 한시가 조선후기에 그 폭을 크게 넓혔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예들이다. 이는 단순한 서정적 양식의 틀에서 벗어나 敍事性을 담으려는 한국 한시의 모색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주와 관련된 한시도 이러한 흐름에 적극 호응한 바 있거니와, 이 점에서 제주 관련 한시는 일정 부분 이러한 시대적 흐름의 범주와 선을 같이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해 볼 때, 조선후기 들어 급격한 사회 변동 속에서 士의 시각과 인식의 대상도 전과 같이 앓은 경우가 많다. 일부 문사들은 기왕의 중앙을 벗어나 지방의 역사와 풍속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이러한 것을 새롭게 조명하는 시각과 인식 태도를 보여주기도 한다. 이러한 자세의 연장에서 지방과 지역 문화에도 남다른 가치를 발견하고 지방 특유의 풍속에 시선을 두기도 한다. 그들은 문학 소재와 대상의 확대를 통해 지방의 고유문화에 관심을 보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하였다. 제주에 대한 관심과 문학적 표출 역시 같은 선상에 있다. 곧 그것은 변방의 문화, 아니 제주의 고유한 문화나 풍물이 작품화되어, 중앙에 알려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 시사적 큰 의의라고 할 것이다.

○. 結論

앞의 논의를 요약하는 것으로 논문의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제주도는 지형학적으로 중앙과의 교통이 소원하였던 곳이다. 자연적으로는 기상이 불순한 지역으로 흉년이 잦아 생활조건이 좋은 편이 못되었다. 따라서 제주 민의 생활 조건도 그다지 좋지 못하였다. 문화적으로도 타 지역과의 소통이 적었기 때문에 자체적인 島嶼 문화를 계승해 왔다. 따라서 제주에 온 赴任官이나 流配客들은 지금까지 겪어 보지 못한 많은 새로운 경험들을 하였고, 여기서 겪은 체험의 기록을 자세히 남긴 바 있다.

赴任官이나 流配客들이 제주에 들어온 것은 일상적인 일이라기보다 특별한 체험에 속하였다. 이들이 평생 무탈한 삶을 살았다면 새로운 공간에서 체험하면서 창조적 저술활동을 할 기회가 적었을 것이다. 그들은 절해고도인 제주에 들어온 것을 계기로, 이곳에서의 특별한 체험과 정서를 문학으로 포착함으로써, 주옥같은 작품을 남긴 바 있다. 이러한 문학의 산생은 한문학의 발전에도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문학이란 생활의 반영이며, 작가의 생활적 체험을 문학적으로 표출한 것이기도 하다. 더욱이 그 체험의 농도와 곁에 따라 작품의 성취도 달라진다고 할 때, 이 점에서 제주와 관련된 작품들은 다른 문학에서 찾아볼 수 없는 지역민의 삶과 생활 정서의 진실성을 찾아 볼 수 있는 점은 소중한 성과일 것이다.

제주와 관련된 문학은 제주에 들어 온 赴任官과 流配客들이 제주에서 직접 겪은 체험과 현실에서 획득한 정서적 분위기를 문학화한 것이다. 따라서 제주와 관련된 작품은 작가 자신의 인식과 인간적 고뇌, 더러 한계 상황을 문학으로 표출한 것이라 하겠다. 자신의 현실적 고뇌와 한계 상황이 절실하면 절실할수록 그 인식은 강열해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점에서 역설적으로 제주와 관련된 한시 작품들은 조선조 한문학의 중심이 아닌, 주변을 이해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 생각한다. 이제 앞의 논의를 몇 개 항으로 묶어 종합적으로

맺고자 한다.

현재까지 역사적으로 제주를 다룬 다양한 형태의 문학과 인문지리지 등에는 濟州와 관련된 중요한 한문산문, 한시작품 등이 실려 있다. 이는 주로 제주의 山水 地理, 歷史와 古蹟, 物産과 民衆生活의 소재를 통해 창작되었다. 반면에 제주에 직접 가보지 않은 사람들은 전별시를 통해 제주의 이모저모를 우회적으로 드러내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제주와 관련한 문학적 형상은 시대적 분위기와 맞물려 적지 않게 창작되었거니와, ‘瀛洲十景’과 관련한 많은 연작시가 그러한 예이다. 특히 제주와 관련된 한시 문학 작품을 남긴 작가들은 제주에 있는 동안의 체험을 일기체 형태로 기술하였다. 기행 문학의 측면에서는 冲庵의 『濟州風土錄』이 있는데, 이를 이어받아 白湖가 『南溟小乘』을 지었다. 이후 이러한 전통 위에서 淸陰은 『南槎錄』를 저술하고, 이어 葵窓이 『濟州風土記』를 남기고, 凝窩와 勉菴은 각기 『耽羅錄』과 <遊漢拏山記>을 창작하여 기왕의 흐름을 이었다.

제주와 관련된 문학 양상의 경우, 문학 담당층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그들이 남긴 다양한 작품을 보다 심층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들테면 제주를 다녀간 赴任官들은 공무를 보는 틈틈이 제주를 둘러보고, 혹은 백성들의 고단한 삶을 지켜보면서 그들에 대한 애환과 삶의 실상을 포착하여 문학작품으로 형상화하여 일정한 성취를 내었다. 또한 절해고도 제주도는 유배지로서도 적격이었다. 유배객들은 척박한 지리적 조건 속에 살면서 육지와 전혀 다른 생활과 이국적 정취를 느낀바 있다. 이들이 이러한 체험을 문학으로 남긴 경우는 여느 것보다도 많다.

淸陰은 제주안무사로 있는 6개월여의 기간 동안 제주의 곳곳을 돌아보며, 보고 느낀 점을 일기체 형태의 기록인 『南槎錄』으로 남겼다. 淸陰은 여기에서 제주로 들어오는 해로의 과정에서 느낀 점과 제주만의 풍속, 제주민의 실정을 소상히 파악할 수 있는 여러 편의 제주 관련 한시 작품을 남겼다. 그는 일련의 기록을 통해 제주에서 자행되고 있는 오대 폐단을 상세히 기록하였으

며, 굴의 조공 수도 기록으로 남겨, 당시의 생생한 상황을 포착하여 드러내었다.

제주목사로 부임했던 瓶窩는 耽羅의 陋俗을 개혁하고, 미신을 타파하여 백성들을 미혹하지 않도록 하려 하였다. 그가 현장에서 儒敎의 精神을 실천하려 하였음을 알 수 있다. 瓶窩는 제주에 부임한 일여 년의 기간 동안 남긴 한시 작품에서 목민관으로서의 자세를 드러내기도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느끼는 현실적 회의를 드러낸 것들이 많다.

石北은 금오랑으로 임무 수행 중 풍우로 뱃길이 막힌 45일 동안 제주에 체류하며 『耽羅錄』을 남겼다. 여기에는 그가 제주의 이국적인 소재들로 풍류 의식을 드러내기도 하고, 빨리 복명하고픈 심정으로 전전궁궁하는 관료의 모습을 형상화하였으며, 제주의 걸인들과 해녀들의 고통스런 삶을 통해 애민의식을 나타낸 작품을 많이 남기고 있다.

제주에 유배 왔던 桐溪는 누구보다 독특한 삶을 살았던 바, 그는 여기에서 자세를 흐트리지 않고 오직 義로 점철된 삶을 살았다. 그는 해배 이후 환달하였으나, 남한산성의 굴욕을 목도하고는 이후, 은둔의 삶을 살 정도로 일관된 삶의 자세를 유지한 인물이다. 특히 그는 유배 기간 동안 많은 수의 제주 관련 한시 작품을 남겼다. 여기에서 그는 유배객으로 그리움과 悔恨의 情緒를 드러낸 작품을 남기는 한편, 이것을 승화하고 求道로 연결시킨 작품들도 적지 않게 남긴 바 있다.

北軒은 부자간 謫客으로 제주 유배사의 얼마 안 되는 인물이다. 그는 제주 유배 생활 동안 자신을 돌아보고, 지식인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자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그에게 5년 동안의 유배지였던 고립된 제주의 환경은 오히려 좋은 계기를 제공하였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 시기에 창작된 『囚海錄』을 통해 유배시기의 현실인식의 바탕 속에서 제주 민의 질고에 대한 지식인의 역할 수행에 대해 돌아보는 삶의 과정을 느낄 수 있었다.

秋史는 제주 유배기 동안 유배의 상황에 대한 비판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제주의 산천을 배경으로 자신의 삶을 총괄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 기

간 동안 그가 남긴 한시 작품에서 얼마간 내적 갈등을 드러내기도 하고, 그리움을 형상화하고, 이러한 삶의 과정에서 얻은 달관의 경지를 표현하였다.

이상의 성과들을 종합해 볼 때, 조선후기 들어 급격한 사회 변동 속에서 士들은 기존의 틀인 중앙 집중적 집필 태도에서 벗어나 소재와 대상의 확대를 통해 지방의 고유문화를 그들의 전문적인 역량으로 변방의 문화, 아니 제주의 고유한 문화나 풍물이 작품화되어, 중앙에 알려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 문학사적 큰 의의라고 할 것이다. 현대적 측면에서도 그 간에 중앙에 집중되었던 연구의 역량을 지방으로 분산 배치하여, 제주 한문학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이상의 논의에서 언급하지 못한 부분이 몇 가지 남아 있다. 첫째 본 논문에서 다루지 못한 수많은 문인들의 다양한 한시들이 수렴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바, 이는 후일의 재고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부록의 도표로 제시한 바 있지만 제주 관련 한시와 그 작가는 대단히 풍부하다. 또한 제주 관련 한시 전체를 자료집으로 정리하여 학술적 자료로 제공하고, 이를 번역하여 독서 대중에게 읽을거리로 제공하여 제주를 이해하는 문학적 자료로 만드는 일 역시 스스로의 다음 과제로 삼는다. 둘째 제주에서 자생한 한문학에 대한 논의도 본고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이다. 비록 그 양적인 면에서는 육지에서 온 인물들이 남긴 량에 비한다면 절대적으로 적은 분량이고, 그들 작가는 중앙 문단이나 문학사에 뚜렷이 자기 족적을 남긴 분들이 아니지만 제주도라는 척박한 인문학 토양 속에서 자생적으로 한문학 작품을 남겨 놓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히 소중한 것이다. 제주와 관련된 한문학의 온전한 모습 특히 제주 한시문학만의 특질을 드러내려면 반드시 거론할 부분이다. 근대 이후 제주도민 출신들이 특히, 일본으로 건너가 제주도 특유의 정취나 문화를 소재로 문학작품을 창작함으로써 제주도의 고유한 정체성을 드러낸 것처럼, 제주도 출신이 창작한 한시 작품을 통해 그러한 점을 밝히는 것은 육지인의 한시 작품과의 변별성을 찾기 위해서도 필수 불가결한 작업이다. 이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긴다.

【參考文獻】

1. 자료

1) 개인의 문집과 저서

과천문화원, 『阮堂全集』.

권 근, 『陽村集』, 한국문집총간7, 민족문화추진협의회.

김상헌, 『淸陰集』.

김윤식, 『續陰靑史』.

김인택, 『大靜縣衙中日記』.

김정희, 『秋史集』.

김춘택, 『北軒集』.

김춘택, 『北軒集』.

신광수, 『石北集』.

이 건, 『葵窓集』.

이 행, 『容齋集』.

이상정, 『大山先生文集』, 영인본, 대산선생문집중간사무소, 1972.

이형상, 『瓶窩全書』, 영인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이형상, 『瓶窩集』.

임 제, 『南溟小乘』.

정 온, 『桐溪集』.

조관빈, 『悔軒集』.

조정철, 『靜軒瀛海處坎錄』.

채제공, 『樊巖集』.

최두찬, 『江海乘槎錄』.

홍종우 서, 『濟州觀風案』.

2) 국역서

- 김동주, 『금강산 유람기』, 전통문화연구회, 1999.
- 김봉옥, 『增補 濟州通史』, 도서출판 世林, 2000.
- 김익수, 『南槎日錄』, 제주문화원, 2005.
- 김익수, 『譯註增補耽羅誌』, 제주문화원, 2005.
- 김정희, 『國譯完堂全集』, 고전국역총서245.
- 김찬흡 외, 『역주 탐라지』, 푸른역사, 2002.
- 김희동, 『南槎錄』, 영가문화사, 1992.
- 오문복, 『영주십경』, 제주문화, 2004.
- 오문복, 『耽羅詩選 2, 3』, 이화문화출판사, 2006.
- 오문복, 『謹齋北學日記』, 북제주문화원, 2005.
- 오문복, 『旌義郡誌』, 남제주문화원, 2005.
- 이정재, 『瓶窩年譜』, 청권사, 1979.
- 이형상, 『國譯瓶窩集』, 1, 2, 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 이형상, 『瓶窩著書目錄』, 문화재관리국, 1978.
- 임형택, 『李朝時代 敘事詩』, 창작과 비평사, 1992.
- 정석달, 『國譯涵溪先生文集』, 풍년종합사, 1993.
- 최익현, 『勉菴集』, 민족문화추진회 고전 국역 총서 125, 1978.

2. 저서

- 강석중·강혜선·안대회·이종묵, 『허균이 가려 뽑은 조선시대의 한시』, 문헌과 해석사, 1999.
- 권영철, 『瓶窩 李衡祥 研究』, 한국연구원, 1978.
- 김덕룡, 『人物韓國史』 4, 박영사, 1965.
- 김동윤, 『제주도지』 「학술부문(인문학)」, 2006.

- 김명순, 『조선후기 한시의 민풍 수용 연구』, 보고사, 2005.
- 김병택, 『제주현대문학사』, 2006.
- 김상홍, 『茶山 丁若鎔 文學研究』, 단대출판부, 1986.
- 김혈조, 『박지원의 산문문학』, 대동문화연구총서22,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2.
- 김흥규, 『朝鮮後期 詩經論과 詩意識』,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82.
- 송재소, 『茶山詩 研究』, 創批新書76, 창작과비평사, 1986.
- 심호택, 『高麗中期 文學論 研究』, 한국학총서(4),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 안대회, 『18世紀 韓國 漢詩史 研究』, 소명출판, 1999.
- 안대회, 『윤춘년과 시화문화』, 소명출판, 2000.
- 안대회, 『조선후기 小品文의 실제』, 태학사, 2003.
- 안대회, 『韓國 漢詩의 分析과 視覺』,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0.
- 오성찬, 『제주토속지명사전』, 민음사, 1992.
- 유명중, 『朝鮮後期 性理學』, 이문출판사, 1988.
- 이민홍, 『士林派 文學의 研究』, 형설출판사, 1987.
- 이수건, 『嶺南士林派의 形成』, 영남대학교, 1979.
- 이영권, 『제주 역사 기행』, 한겨레신문사, 2004.
- 이우성, 『韓國의 歷史像』, 창작과 비평사, 1984.
- 이은순, 『朝鮮後期 黨爭史 研究』, 일조각, 1988.
- 이종묵, 『한국 한시의 전통과 문예미』, 태학사, 2002.
- 이혜순 외, 『조선중기의 유산기 문학』, 1997.
- 임형택, 『韓國文學의 視角』, 창작과 비평사, 1991.
- 조동일, 『세계-지방화 시대의 한국학 1』, 계명대 출판부, 2005.
- 조동일, 『지방문학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 조윤제, 『韓國詩歌史綱』, 을유문화사, 단기4283.
- 진재교, 『李朝後期 漢詩의 社會史』, 「實學派의 漢詩」, 소명출판, 2001.
- 퇴계연구소, 『응와 이원조의 삶과 학문』, 역락출판사, 1999.

- 한우근, 『李朝後期 社會와 思想』, 을유문화사, 1980.
- 황위주, 『在嶺南日記』,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6.
- 황패강 외편, 『韓國文學研究入門』, 지식산업사, 1987.

3. 논문

- 강재언, 「제주도 유배기의 김윤식」, 『탐라문화』 제7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8.
- 강전섭, 「병와 이형상의 한역가곡 소고」, 국어국문학 제102호, 1989.
- 강주진, 「벽과기문 출생의 추사 김정희(제주 유배동기를 중심으로)」, 『탐라문화』, 탐라문화연구소, 1987.
- 고정우, 「동계 정온의 유배한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대학원, 1986.
- 공근식, 「병곡 권구의 생애와 시세계」,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 권내현, 「조선후기 지방사의 모색과 과제」, 창작과 비평사, 2000.
- 김남형, 「조선후기 근기실학파의 예술론 연구 -이만부·이익·정약용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8.
- 김대현, 「지역문학 연구에 대한 몇 가지 문제」, 『동방한문학』 제21집, 2001.
- 김만선, 「동계 정온의 학문과 정치활동」, 석사학위논문, 한국고원대학교 대학원, 1998.
- 김문기, 「권호문의 시가 연구」, 한국의 철학 제14호, 1986.
- 김상조, 「충암 김정의 ‘해도록’ 연구」, 『탐라문화』 제 17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7.
- 김상조, 「충암 김정의 ‘제주풍토록’과 규창 이건의 ‘제주풍토기’ 비교 연구」, 대동한문학 13집, 2000.
- 김영숙, 「상촌과 병와의 악부연구」, 어문학 제46호, 1985.
- 김영주, 「북한 김춘택의 문학론 연구」, 『大東漢文學』, 2001.
- 김용태, 「옥수 조면호를 통해 본 추사 김정희」, 대동한문학회 하계학술발표대회, 2005.
- 김윤조, 「강산 이서구의 생애와 문학」,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 김일근, 「언간에 투영된 추사의 인간론」, 『耽羅文化』 제6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7.
- 김진봉, 「철종 조의 제주 민란에 대하여」, 『풀빛2』, 1991.
- 김창식, 「임제 시 연구」, 한양대 박사논문, 1991.

- 김태수, 「추사의 유배 시 연구」, 『한국학논집』 제10집, 1992.
- 김혈조, 「연암 박지원의 사유양식과 산문문학」,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2.
- 김혜숙, 「김정희의 시론 연구」, 『울산어문논집』 제5집, 울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9.
- 김흥규, 「강호자연과 정치현실」, 안동문화2, 1992.
- 박윤수, 「백호 임제의 시문학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논문, 1999.
- 박입규, 「임제의 한시 연구」, 전남대 박사논문, 1991.
- 백원철, 「병와약부소고」, 공주사범대학 논문집 제22집, 1984.
- 소재영, 「임제의 ‘남명소승’ 고」.
- 송민선, 「병와 이형상의 예론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 안대회, 「박제가의 ‘경신당협대’와 북관풍정」, 『韓國漢詩研究』 제12집, 한국한시학회, 2004.
- 안병학, 「최경창의 시세계와 삶의 안정성에 대한 회의」, 『湖南의 文學과 思想』, 圓光漢文學 제6집, 2002.
- 양순필, 「북헌 김춘택의 제주유배한시고」, 제주대 『白鹿語文』, 제6집, 1989.
- 양순필, 「추사 김정희의 한문서한고」, 『탐라문화』 제9호, 제주대탐라문화연구소, 1989.
- 양순필·양진건, 「추사의 제주 교학활동 연구」, 『탐라문화』,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7.
- 여운필, 「동계 정온의 삶과 시」, 『한국한시작가연구』 9집, 2004.
- 오수창, 「동계 정온의 정치활동과 그 이념」, 『남명학연구』 11집.
- 옥영정, 「추사가의 장서에 관한 일고(동빈 문고 소장본을 중심으로)」, 한국서지학회, 2003.
- 유명중, 「함계 정석달의 이 병와 이기설 비판」, 유교문화 제6집, 1988.
- 윤주필, 「임제시 연구」, 한국정신문화 연구원 석사논문, 1981.
- 윤치부, 「임백호의 ‘남명소승’고」, 『탐라문화』 7, 탐라문화연구소, 1987.
- 이가원, 「석북 문학 연구」, 『동방학지』, 1958.
- 이경수, 「석북 시 연구」, 국문학 연구회, 1978.
- 이기현, 「석북 신광수 문학 연구」, 보고서, 1996.
- 이기현, 「석북 신광수의 ‘금마별가’연구」, 『한국한문학』 제17집, 1994.
- 이동영, 「조선조 영남시가의 연구」, 성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3.
- 이상순, 「청음 김상헌의 ‘남사록’ 고찰」, 충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8.
- 이상은, 「유학과 동양문화」, 『범학도서』, 1975.

- 이상필, 「남명학파의 형성과 전개 (사상과 학파의 추이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1998.
- 이우성, 「김추사 및 중인층의 성영론」, 『韓國漢文學研究』 제5집, 한국한문학연구회, 1980-1981.
- 이원주, 「퇴계 선생의 문학관」, 『한국학논집』 제8집, 계명대 한국학연구소, 1981.
(『中齋 李源周 教授 遺稿集』 上, 中齋 李源周 教授 追慕事業會, 1994. 재수록)
- 이종문, 「高麗前期 漢文學 研究 -文藝意識과 詩 世界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논문, 1991.
- 이종문, 「정지상의 시세계」, 한국학연구 제6집, 1990.
- 이철희, 「추사 김정희의 시론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 정 민, 「석북 신광수의 생애와 시」, 『석북 신광수 시선』, 평민사, 1993.
- 정동우, 「완당 김정희의 시문학 고」, 『동악한문학논집』, 동국대학교. 1992.
- 정우봉, 「북헌 김춘택의 생애와 문학관」, 『金萬重文學研究』, 국학자료원, 1993.
- 정확성, 「임백호 문학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85.
- 정후수, 「추사 김정희 시의 한 특성(전고를 중심으로)」, 『한성어문학』, 1994.
- 정후수, 「김정희가 본 제주도의 수학분위기」, 『동양고전연구』, 1995.
- 줄 고, 「동계 정운의 제주 유배 시 고찰」, 『동아인문학』 제11집, 2006.
- 줄 고, 「백호 임제의 ‘남명소승’ 연구」, 『영주어문』, 제12집, 2006.
- 줄 고, 「병와 이형상의 한시 연구」, 『계명한문학』 제14집, 2000.
- 줄 고, 「북헌 김춘택의 수해록의 한 국면」, 『한문학 연구』 계명한문학회 17집, 2002.
- 줄 고, 「석북 신광수의 ‘탐라록’ 고찰」, 『영주어문학』 제8집, 2004.
- 줄 고, 「일제 강점기의 지역 선비의 삶-낙에 채병원 선생의 삶을 중심으로-」, 『동양예학』, 제16집, 2007.
- 줄 고, 「지방문학으로써 석북의 한시」, 『동아인문학』 제6집, 2004.
- 줄 고, 「청음 김상헌의 ‘남사록’ 고찰」, 『탐라문화』, 제29호, 2006.
- 줄 고, 「추사 김정희의 제주 유배 시 고찰」, 『영주어문』, 제11집, 2005.
- 진갑곤, 「병와 이형상의 시경의식에 나타난 반주자적 요소」, 한국의 철학 제21호.

- 진갑근, 「병와 이형상의 자학서설」, 복현한문학, 1993.
- 채경자, 「백호 임제 연구」, 원광대 석사학위논문, 1991.
- 채환중, 「북헌 김춘택의 문학론」, 『芳村 兪睿根博士 華甲紀念論叢』, 간행위원회, 1990.
- 최진원, 「국문학과 자연」, 성균관대학교, 1977.
- 한명기, 「동계 정은의 행적과 그 역사적 의의」, 『남명학연구논총』 9집, 2001.
- 한철희, 「완당김정희예술고」,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국문학과, 1969.

【附錄】

〈濟州 關聯 漢詩의 概況〉

| 作者 | 作品名 |
|----------|---|
| 姜共七(父子間) | 梧川集 |
| 姜共七(父子間) | 我石集 |
| 姜琦奭 | 和李梅溪韻 |
| 姜斗奎 | 龍頭岩 |
| 康萬植 | 挽高先生 |
| 姜栢年 | 送別李濟州 次李濟州元鎮韻 李濟州挽 |
| 姜師孔 | 漢拏山賦 |
| 康聖翊 | 壬戌冬迎上候平復赦識喜 硯 |
| 姜再恒 | 又贈姜世興 耽羅姜二子者坐法謫來禮安姜同姓也耽羅有三本姜一自我國 一自大元一自西番未知二子者何本而謂之同姓來訪我遂賦長 句一篇贈之 金濟州挽七首 |
| 姜泰宗 | 輓李丈 |
| 康鶴瑞 | 齋宿 |
| 高景洙 | 雪裡松 金剛山 |
| 高景峻 | 次望京樓原韻 巡杯 |
| 高得宗 | 上國登極吟 歸觀濟州遇風漂海作 上國觀風 |
| 高鳴鶴 | 題吳義士傳後 厥包橘柚 題吳義士傳後 |
| 高炳五 | 壬申春見倭虜築陣地於本縣憤懷而吐 聞倭虜勒弟戕士民却賦 聞革命辛丑四月二日己酉 讀春亭金公永相却倭金獄中致命遺文 |
| 高士進 | 慟哭奉挽祖父主 |
| 高錫九 | 題吳門烈婦閭 |
| 高性謙 | 菊花 三姓穴 |
| 高淳 | 示辛德優 |
| 高順欽 | 陪避巖先生共賦 |
| 高永夏 | 紗峰落照 正房夏瀑 古藪牧馬 山浦釣魚 瀛邱春花 靈室奇巖 橘林秋色 漢拏山 山房窟寺 鹿潭晚雪 |
| 高永昕 | 運籌堂 木棉花 彈琴 瀛洲十景 漢拏山 煮茶 感雪詩 |
| 高溶基 | 秋江 |

| | |
|-----|--|
| 高益吉 | 訪書房有詩 |
| 高才湜 | 五賢壇懷古 |
| 高適 | 觀風上國吟 |
| 高兆基 | 山莊夜雨 書雲巖 微時 |
| 高仲顯 | 講論 乳齋 |
| 高台翼 | 李牧使之耽羅 |
| 高台鼎 | 李牧使之耽羅 |
| 高台弼 | 巡到光州作 |
| 高衡博 | 天帝淵 |
| 郭期壽 | 方巖 |
| 具齡錫 | 具齡錫次(壬午三月) 山房山 |
| 權近 | 漢拏山 送濟州牧使李君元恒詩序 耽羅 |
| 金景鍾 | 《白首餘音》 西歸鎮老人星 雪夜小集 祝建國 |
| 金桂斗 | 瀛洲十景 |
| 金坵 | 嘲圓覺經 |
| 金奎彦 | 圍碁 |
| 金勻培 | 《謹齋北學日記》詠菊 秋夜 怪石 詠雪 謁武侯祠 初冬書懷 重陽會吟 |
| 金樂園 | 庚子春 己亥春 |
| 金樂行 | 耽羅烏 觀獵 記濟州城形 |
| 金大興 | 梅邨書齋陪浮海先生 題瀛軒(辛亥因回祿重構) 蜘蛛網 題瀛軒 |
| 金東式 | 癸酉冬與姜農隱哲鎬金瀛樵炳弼高眞齋衡博逐夜會集於要正 齋高炳五宅抽葉韻九首 聞列郡同胞水害罹災 靈室奇巖 金謫士及兵禮兩裨會飲運籌堂 |
| 金亮洙 | 瀛洲十景(城山出日) 山浦釣魚 正房夏瀑 山房窟寺 橘林秋色 題瀛洲十景後 戊寅春於大靜加波島沖英艦來侵時贈柳命祿 鹿潭晚雪 勤學 瀛邱春花 紗峰落照 古藪牧馬 三月見水仙花 茶煮 湖上三月奉別參判崔公贊謙 販魚 漁舟 樵夫 |
| 金良弼 | 明倫堂 |
| 金麟厚 | 漢拏山 |
| 金琳奎 | 客中秋夕 |
| 金萬容 | 榴花 |
| 金萬希 | 月浦釣魚 圃隱殉節後追感 革命(二首) 泊涯月浦 歲暮 蹈海 漢拏山 |
| 金孟玉 | 梅雨 上元玩月 |
| 金命獻 | 挽邊座首聖付 |

| | |
|-----|---|
| 金文植 | 與避 _○ 詞伯共拈 |
| 金汶株 | 《農隱文集》 鳳仙花 乙巳冬聞京報 |
| 金炳潞 | 題烈婦光山金氏閭 |
| 金秉旭 | 江雪 |
| 金炳胤 | 輓友 |
| 金炳弼 | 電線 乞人 影 汽車 瀛邱 |
| 金尙憲 | 馬屯 毛興穴 新橋二首 橋 次東坡渡海韻 老人星 城山 題草蘭島石壁 二首 山房山 天池淵 戀北亭春帖子 二首 斗泉 聞觀德亭梅花始開折數枝以來花心尙早忽起老杜梅蕊驚愁眼 分韻作五絕 瀛陽館(旌義客舍) 松岳山 元日 牛島 |
| 金錫翼 | 《心齋集》 謁遯巖書院有感四先生氣像互有不同而各臻其妙錄爲一絕 憶高樵狂景志 悼安公善東述 漢拏山 無題 |
| 金錫哲 | 觀德亭 |
| 金聲久 | 戲題 毛興穴次金清陰韻 次濟州觀德亭韻 登漢拏山絕頂 西歸所次壁上韻 西歸所次壁上韻 白鹿潭 送歲貢馬有感 詠懷呈李御史 遣興 新月 卽事有感 玩月 送濟州判官姜聖佐入拜訓練院正 |
| 金成鐸 | 謫露紀行二首 感吟 初度日 次濟州喚風亭板上韻 寄堂中儒生 夢還家鄉 渡海念卯君及濟兒歸事有吟 自旌義到濟州 二十七日八日夜夢拜戀氏有不安節覺後不勝憂思吟成一絕 漢拏山歌 冬至日次康節詩 讀心經附註有感二絕 謫中述懷 次故瀛州伯金公三泉書堂韻 二十七日夜夢登經筵密邇天顏感而賦之 和晉兒述懷詩 和晉兒耽羅烏歌 我有家七章 和晉兒南海歌 作鄉書將付濟州便吟成二絕 和晉兒玉溝歌 |
| 金壽翼 | 正方淵 觀德亭 |
| 金淳生 | 秋日卽事 小春 怪石 |
| 金時學 | 輓洪君 |
| 金永綬 | 望京樓 |
| 金永昌 | 偶吟 團扇 驟雨 喜晴 |
| 金鎔均 | 榴花 怪石 小春 登瀛洲摩天閣 |
| 金容植 | 呈安金二人 白鷗 次梅溪韻 歸帆 |

| | |
|-----|--|
| 金源中 | 見訪柳佳亭 別柳佳亭 |
| 金有實 | 挽詞 |
| 金允植 | 《續陰晴史》 |
| 金應南 | 濟州有吟 瀛安館 |
| 金應洙 | 遊漢拏山 |
| 金宜鍾 | 紗峰落照 白鹿潭 |
| 金日海 | 菊花 放牛 |
| 金宰鎬 | 客中端午與文夢篆昌來共賦 |
| 金淨 | 《海島錄》 |
| 金正國 | 送濟州趙使君士秀 |
| 金廷彥 | 巴里長書記念 初冬書懷 小春 |
| 金鐘殖 | 輓梅溪 |
| 金宗直 | 次李節度使赴鎮韻 毛羅歌 次李濟州赴任詩卷 |
| 金鐘炫 | 哭挽陶軒先生 呈瀛雲先生 |
| 金鐘勛 | 初月 |
| 金左根 | 吟水仙花 |
| 金佐明 | 別李錫爾耽羅繡衣之行 |
| 金鎮龜 | 《東泉唱酬錄》 |
| 金 攸 | 月臺七星圖 正房瀑 天池淵 延教亭 禾北鎮 別防鎮 漢拏山 |
| 金贊遠 | 與枕泉李夏準共賦 |
| 金昌震 | 楸子島懷古 |
| 金昌鉉 | 瀛洲十景 耽羅竹枝詞 |
| 金春澤 | 《囚海錄》 |
| 金忠烈 | 遮歸鎮次林節制韻 |
| 金 緻 | 白鹿潭 觀德亭 己酉 靈室 漢拏山 登瀛邱 登絕頂 |
| 金致鏞 | 挽李丈 |
| 金泰廷 | 愛梅軒 弘化閣 |
| 金太休 | 松岩之新北 |
| 金弼遠 | 陪避巖先生共賦 |
| 金 浹 | 屏溪棹歌 十首 |
| 金滢植 | 《革菴散稿》 妍妍行 瀛洲十景 輓洪君 山居 朝鮮文藝社與崔梅下先生共賦 夜泊閑山島謹次李忠武公刀字韻 述夢 早梅 春日與三從時範共賦十首 |
| 金弘鉉 | 山中卽事 |
| 金 徽 | 送李御使按濟州 |
| 金熙敦 | 偶吟 自嘲 水隱齋 |
| 金熙斗 | 穴祭 三泉齋山餞春 瀛洲十景 |
| 金熙璿 | 木枕 商船 |

| | |
|------|--|
| 金熙殷 | 白鷗詩 呈金學洙 |
| 金羲正 | 瀛洲十景 漢拏山 和栗下韻 |
| 南九明 | 補毛羅歌 并序 朝天館送小妓 迎郎曲 送郎曲 冬栢雪中半開 重補毛羅歌 又補毛羅歌 送奴北歸待風別刀浦 卽事 |
| 南洙 | 日觀軒 |
| 南壽賢 | 潤經堂 |
| 南龍翼 | 別濟州李使君翊漢 |
| 南有容 | 書濟州新牧韓太叔億增扇爲別 |
| 女流宋氏 | 鮑作嘆 |
| 女流洪氏 | 偶吟 |
| 羅寅永 | 望京樓 |
| 琉球太子 | 臨刑詩 |
| 陸仁培 | 望京樓 |
| 陸長欽 | 朝天 |
| 文景天 | 無題 |
| 文新周 | 賞菊 |
| 文璉生 | 春晴二首 |
| 文昌來 | 和金革菴饋酒韻 初夏 木浦客懷 漢拏山 |
| 閔粹 | 耽羅題詠 旅愁 耽羅題詠 |
| 閔暉 | 觀德亭 |
| 朴繼崑 | 謹次龜石樓原韻 |
| 朴祥 | 次濟州牧使所遣希剛韻 |
| 朴成珩 | 禾北鎮 |
| 朴子春 | 楊柳 |
| 朴長復 | 望京樓 |
| 朴正行 | 金陵客朴正行次吟 |
| 朴齊家 | 送萬德攷濟州詩 登瀛州二十韻應令 |
| 白泳鎮 | 望京樓 |
| 邊景鵬 | 聽蟬 |
| 邊聖遇 | 題洪孝子傳後 |
| 夫根錫 | 圍碁 |
| 夫達善 | 望鄉 |
| 夫斗琳 | 七夕憶避齋先生 |
| 夫性準 | 賀金旌義汶株畔辰 三姓祠 |
| 夫時齊 | 桃源行 |
| 夫祐承 | 詠梅 春晴 |
| 夫璉龍 | 輓李丈 |
| 徐居正 | 送濟州牧使金同年好仁 耽羅題詠 |

| | |
|------|---|
| | 送濟州李判官之任兼簡李按撫同年 題姜景愚畫屏 送濟州節度使梁公詩序 寄濟州崔敬差 寄濟州崔敬差溥二首 寄濟州姜分臺遇文李敬差健 濟州題詠 |
| 徐榮輔 | 領耽羅般票到所安島候風發送 |
| 釋慧日 | 題詠 妙蓮寺 濟州 逝川庵 |
| 釋喚松 | 呈梅溪 |
| 成大中 | 瀛州沈伯天善觀命駕委訪用其韻 用放翁韻別伯天 |
| 成石璘 | 濟州都按撫使金廷雋携詩卷來索和人詩韻 |
| 邵必升 | 輓梅溪先生 |
| 宋龜浩 | 延曦閣 |
| 宋斗玉 | 潤經堂設宴老人 題東軒 |
| 宋麟壽 | 濟州有吟 |
| 宋相琦 | 蒙賜袖復用前韻示僚友 |
| 宋時烈 | 萬德寺次朴生韻 李濟州挽 耽羅道中寄示畏齋玄石 耽羅舟中 耽羅謫所 萬德寺次安生韻 |
| 宋載恒 | 禾北鎮 |
| 肅宗大王 | 耽羅地圖 賑民 |
| 申癸生 | 採薇 金寧萬丈窟 飛行機 冬蠅 |
| 申光漢 | 送濟州牧使任錦湖亨秀 |
| 愼尙欽 | 題戀北亭 三泉書堂 |
| 申光洙 | 《耽羅錄》 |
| 申叔舟 | 寄濟州節度金同年好仁 寄濟州安撫使汝良 寄金濟州好仁 寄濟州金按撫好仁 寄濟州御史姜公遇文 |
| 申翊聖 | 訊海外謫人 |
| 申䄇 | 李統制挽詞 |
| 申纘 | 拱辰亭 |
| 愼鴻錫 | 瀛洲十景 明倫 瀛邱春花 水仙花 賀漂船生還 自行車 搗衣 政房瀑布 橘 麥浪 潛水女答歌三十九韻 潛水女歌三十九韻 在石 老人星 巫鼓 煮茶 採鮑 掃墳 水仙花 採薇 巫祝 自鳴鐘 紗羅烽 母鷄將雛 島 |
| 沈東巨 | 延曦閣 |
| 沈樂洙 | 延曦閣 |
| 沈演 | 觀德亭 延曦閣 明月鎮 別防所 瀛安館 |
| 沈連源 | 觀德亭 |
| 沈英錫 | 延曦閣 |
| 安慶運 | 望京樓 |
| 安達三 | 輓友 |
| 安秉宅 | 《浮海文集》 |

| | |
|-----|--|
| 安塾 | 題壁上 |
| 安永綏 | 輓李參奉 |
| 安宅承 | 側壁松林 怪石 示諸益 得二瓜呈白山花巖二丈老 復月夜吟 自戲 無題四十一首 蕙草生 和三坡過牛山詩 宿明述家 雪裏山 |
| 梁甲錫 | 松岳山 |
| 梁國恒 | 褒李斯文啓徵 |
| 梁奉洽 | 溪聲 偶吟 丹楓 |
| 梁性弼 | 圍碁 |
| 梁聖廈 | 挽鄭別監 筆 踏田歌 |
| 梁元橋 | 秋日卽事 |
| 梁應祥 | 瀛邱 |
| 梁仁鉉 | 歸雁 |
| 梁濟博 | 光州客館 棄官自光州歸木浦車中作 |
| 梁璨休 | 初月 |
| 梁憲洙 | 望京樓 |
| 嚴昕 | 答趙濟州李任寄韻 |
| 吳卿魯 | 輓友 輓李老人 |
| 吳啓黯 | 筆耕 聽鶯 南草 地歸鳥 墨 葛山 |
| 吳基權 | 七夕 偶吟 |
| 吳箕南 | 潛婦 |
| 吳琪斗 | 奉設老親回婚筵 雪夜小集 |
| 吳道一 | 贈別耽羅伯李令公喜龍 |
| 吳邦烈 | 城山出日 臘 途中作 逢友人 詠秦史 |
| 吳秉杓 | 追賀文淵社建立後 |
| 吳鳳祚 | 敬次烏川洪孝子贊 |
| 吳成南 | 疏開令 |
| 吳承鉉 | 偶吟 在漢陽時 |
| 吳時宗 | 挽詞 |
| 吳仁煥 | 詠月 |
| 吳章獻 | 御乘生 家家橘柚(賦) |
| 吳霑 | 夜靜海濤三萬里 |
| 吳廷賓 | 山房山 水仙花 戀師 秋晴 |
| 吳周彥 | 地 |
| 吳眞祚 | 漢孛山 聽前流水枕邊書 愁 秋日 城山出日 明朝有意抱琴來 |
| 吳泰稷 | 雪夜 蘆花八首 瀛洲八景(瀛邱晚春) 紗峯落照 靈室晴曉 龍淵夜泛 紗峯落照 靈室晴曉 登孛山觀海 水仙花 瀛邱晚春 孛山觀海 龍淵夜泛 正房瀉瀑 山浦漁帆 |

| | |
|-----|--|
| | 龍淵夜泛 城山出日 秋興三首 |
| 吳澄 | 輓李丈 |
| 吳亨純 | 過旌義廢邑 |
| 元相堯 | 山房窟 |
| 柳京寶 | 漁翁 |
| 俞棨 | 送濟州李致欽 瀛洲道上與英甫分岐有贈 |
| 劉澹 | 瀛洲十景 組練 白鷺吟 和梅溪韻 瀛洲 行路難 處女家 |
| 柳得恭 | 耽羅 |
| 柳思瑗 | 遮歸鎮次林節制韻 旌義題詠 |
| 柳瀟 | 寄濟州令公 |
| 俞漢雋 | 送瀛州尉之任 |
| 尹文學 | 李錫爾瀛洲御使之行 |
| 尹鳳朝 | 正月十二夜舟人執風生移行李出禾北浦 望洋亭觀海四首 夜酌 除夕次朔州除夜韻 守歲無寐又志感八首 又賦 上元夜出城樓 謁橘林書院感五先生舊事五首 毛興穴次清陰先生韻 宿濟州城中夢拜尤庵先生先生己巳會配是島豈或有相感者否 浦口乘船 禾北浦 舟行一晝夜曉泊瀛島 自寶吉島發船向耽羅 少病後獨坐 |
| 尹善道 | 送李濟州序檣 |
| 尹深 | 延曦閣 |
| 尹元學 | 贈濟州使君李 |
| 李家煥 | 送金萬德 |
| 李健 | 除夕 九日 有感 秋思 次人韻 乞管城子 詠隻鷗 聞改定配于襄陽感而作之 七夕 清明 歸夢 送奴還京 寓懷 自遣 泛海水疾之苦 呈舍兄病中 放舡至中洋遇送風還碇于別刀浦 寄舍弟病中 月夜登戀北亭次板上韻 寓意 有感呈舍兄 上朝天館 上戀北亭 次人歸夢韻 述懷贈弟 感春 聞大靜官舡致敗 耽羅人寄橋 霽後 述懷遣憫 八日 別刀浦待風遣憫 謝兄贈詩 中秋既望酒醒卽吟 贈盲人 次人韻 上漢拏山 次舍兄病中遣寄韻 附元韻 次舍兄韻 望隣家轆轤 上望京樓 望鄉 次同病韻 海望 山中 秋日雜詠 秋怨 放舡至洋中又值飄風而還 八月十五夜 閑居 祖席贈歌妓 九日 |

| | |
|--------|--|
| 李慶億 | 濟州御使餞別詩集 客館東軒(瀛洲館) 尊者庵 靈室遇雨 |
| 李慶徽 | 贈別錫爾耽羅之行 |
| 李啓徵 | 次金郡守韻 輓李丈 |
| 李觀命 | 題瀛州圖 |
| 李光庭 | 金濟州士達輓 |
| 李奎報 | 次韻濟州守崔安以前所寄詩韻問訊兼睨青橋三首 濟州太守崔安以洞庭橋見寄以詩謝之三首 次韻李侍郎需餞庚濟州弘益迴文二首 |
| 李起渙 | 禾北喚風亭遇雪 |
| 李端相 | 寄濟州牧使李侯序 |
| 李德懋 | 百年三萬六十一日須傾三百盃七言排律二十韻(耽羅國) 登瀛州七言排律二十韻 |
| 李東(秉)淵 | 望京樓 |
| 李亮載 | 瀛安館 |
| 李明漢 | 瀛州記遊口號 送李御使耽羅之行 航海朝天 |
| 李美 | 寄舍兄 |
| 李民成 | 松嶽山 過末峴 題朝天館 兩餘題旌義館壁 瀛洲途中 過蓮花亭 海上 朝天 耽羅 觀德亭 浮海耽羅 戀北亭次金御史叔度韻 |
| 李奉石 | 蒙帖自述 |
| 李逢春 | 秋水 |
| 李選 | 天池淵 戀北亭 |
| 李承召 | 耽羅題詠 送濟州梁牧使 |
| 李承憲 | 偶吟 感懷 宿新豐書齋 |
| 李安訥 | 寄贈濟州金繳判官 |
| 李約束 | 觀德亭 題濟州觀德亭 靈泉館 題旌義靈泉館 牧濟州時和諸君子送行韻 次宣慰使鄭廣元題弘化閣韻 弘化閣 |
| 李養鼎 | 延曦閣 |
| 李禮延 | 倚斗亭(依斗亭) |
| 李容植 | 瀛洲十景 |
| 李容鎬 | 題營門冊室 |
| 李友植 | 謹次金清陰先生戀北亭韻 |
| 李羽晉 | 日觀軒 |
| 李源達 | 登瀛邱 演武亭 |
| 李源祚 | 城山出日 瀛洲十景題畫屏(瀛洲春花) 倚斗亭 橘林霜顆 鹿潭雪景 正房觀瀑 紗峰落照 大藪牧馬 山浦釣魚 山房窟寺 靈室奇巖 次吳生泰稷水仙花十絕 耽羅十謠(潛女) |

| | |
|-----|---|
| | <p>耽羅十謠(織涼) 耽羅十謠(春磨) 耽羅十謠(放牧) 耽羅十謠(踏田) 耽羅十謠(除草) 耽羅十謠(汲膏) 耽羅十謠(築場) 耽羅十謠(棹船) 耽羅十謠(房妓) 詠橋四絕(其二) 詠橋四絕 三姓穴 重力日見擎頂白雪 擬見老人星雲暗不果 宿西歸鎮曉見老人星 瓷瓶貯水插兩芙蓉 靈室石 白鹿潭 滯宿水望村 橋來路中 正房淵 都近川獵魚 果園冬栢花爛開綠葉紅萼無異陽春極爲奇絕</p> |
| 李元鎮 | <p>方巖 天池淵 正方淵 望京樓 同李繡衣登高 尊者庵 閱馬牛羊 山房 觀德亭 瀛安館 延曦閣 瀛洲館 運籌堂 明月所 別防所 登高 友蓮堂 愛梅軒 拱辰樓 演武亭 首山城 遮歸城 朝天 涯月所</p> |
| 李膺鎬 | <p>弔吳君大鉉斥洋教 鄉賢祠吟 題吳義士興泰傳後</p> |
| 李義謙 | <p>登瀛邱 戊子 四月初一日</p> |
| 李益泰 | <p>漢拏山 登瀛邱 次板上韻 次板上韻(遮歸鎮) 次李繡衣天池淵韻</p> |
| 李翊漢 | <p>次鄭桐溪韻 正房淵 明月鎮 涯月鎮 愛梅軒 瀛安館</p> |
| 李緯 | <p>別濟州牧使尹子固令公植</p> |
| 李載廈 | <p>膾魚 秋聲</p> |
| 李鼎相 | <p>《越中漫錄》</p> |
| 李齊賢 | <p>小樂府</p> |
| 李增 | <p>效林白湖迎送郎曲 次明倫堂壁上韻 正方淵口占 祭罷登絕頂次金令丈韻</p> |
| 李辰珩 | <p>初冬書懷 詠菊 秋夕 玄鳥至</p> |
| 李燦雨 | <p>與金丈巨卿姜友世現共吟 木浦客館與金丈澧植高友順欽共吟</p> |
| 李昌廈 | <p>陪郭儻字先生與諸益</p> |
| 李昶義 | <p>留新豐戀鄉而吟</p> |
| 李夏準 | <p>光州旅懷</p> |
| 李漢雨 | <p>楮旨七星屏 京館聞吳銀溪運樞過鏡湖製送挽詞三首 題秋史先生壽星草堂 失鶴 感興 偶吟 題瀛洲十景後 瀛洲十景(城山出日) 古藪牧馬 山浦釣魚 山房窟寺 紗峰落照 靈室奇巖 瀛邱春花 鹿潭晚雪 正房夏瀑 橋林秋色 樂志 待舟 雪夜</p> |
| 李海朝 | <p>明月鎮樓夜坐偶題 大風 泛海 旌義客舍偶題 城山</p> |

| | |
|------|---|
| | 別方鎮樓夜坐 牛島 觀獵 驅馬篇 山屯牧場點馬留宿村舍 客館偶吟 橘林堂 登漢拏山 漢拏祭壇 瀛洲客館 旌義客舍遇雪 朝天館 喚風亭待風 丙戌九月以耽羅試才兼巡撫御史辭朝行至完山主守呂師仲龍 潭守伯溫已來待飛飛亭相與劇飲臨分口占 天池淵 羔屯果園 天帝潭 慕瑟浦鎮樓望日入 立春日感懷 濟州客舍寫懷 賦六十韻記島中山川風俗 正方淵 望京樓與主牧設小酌 朝天館暮坐 沖庵書院 |
| 李熙 | 倚斗亭 |
| 李希雍 | 觀德亭 |
| 任觀周 | (蒼川)丁亥秋 (龍淵)丁亥季秋 (天帝淵)丁亥秋 (白鹿潭)丁亥秋 山房山 |
| 任相元 | 送耽羅御史尹玄通深 |
| 任承烈 | 望京樓 |
| 林泳 | 《南溟小乘》 送濟州牧李君瑞喜龍 |
| 任徵夏 | 《南遷錄》 《囹圄錄》 《柑山錄》 |
| 任泰瑜 | 己酉暮春 |
| 林亨秀 | 遮歸防護所 瀛陽館(旌義客舍) 龍頭巖 |
| 張寅植 | 老人星 |
| 張昶奎 | 江天暮雪 湘靈鼓瑟 |
| 鄭慶龍 | 烽火 偶吟 |
| 鄭岐源 | 望京樓 |
| 鄭道傳 | 走筆送高少尹 送高將軍奉使還鄉 |
| 鄭斗卿 | 送李濟州檜 觀濟州貢物三首送濟牧金星老壽翼 |
| 鄭麟趾 | 觀德亭 |
| 鄭壺 | 朝天 |
| 鄭晚錫 | 馬羅島 |
| 鄭曙 | 延曦閣 |
| 鄭實 | 戀北亭 |
| 鄭運經 | 山房窟 |
| 鄭在三 | 題烈婦金氏閭 |
| 正祖大王 | 詠橘 |
| 鄭敞選 | 題館伴軍官扇面 四月十五日病情彌留忍痛述之 答對馬島留番軍官 漂到日本客中有作贈長崎島館主 六月初三日在玉鈞島 |
| 鄭澈 | 寄瀛洲使君 |
| 鄭太戊 | 仲秋玩月 |

| | |
|-----|--|
| 鄭太和 | 李濟州挽 |
| 鄭必寧 | 延曦閣 |
| 鄭澹 | 寄申尙書耽羅之行 |
| 趙綱 | 送濟州牧使李子方檜 |
| 趙觀彬 | 次他集韻書卽事 登漢拏絕頂口號 次他集韻書卽事 遣悶 漢拏山 次他集韻書卽事 馬屯 卽事 遣懷 拈韻書卽事 歸意 閒興 枕上聽雨 卽事 自慰 拈韻遣懷 效古歌述懷 睡後 古劍歌 次金掌令士寬寄示韻 老人星歌 夜坐 夕後散步次他集韻口號 漫興次他集韻 得鄉書 入島後欲卽上漢拏絕頂居人云山上甚寒非夏日不可登宜少遲 也余故中止而山在眼中殊覺神往口號古體詩十六韻 追次伯氏寄海中韻 苦蠅 二月十七日亡弟再忌也書此志哀 拈韻口號 次他集韻書懷 偶書遣懷 閒興 效栗谷集感君恩體書首尾吟 次他集韻書卽事 漫書 新寓卽事 渡海後尙無鄉信頗覺紆鬱以韋蘇州詩風波朝夕遠音信往來遲 爲韻 濟州牧 卽事 到配大靜邑底次秦州詩韻 拈韻書卽事 睡後次農巖集韻 迎春 土俗 島中有思美獄感恩川書此寓戀闕之忱 耽羅雜詠 夜坐次他集韻 雜詠 次秦州詩韻書卽事 遣懷 入島後風色甚惡無往來船尙未傳越海消息家人之憂鬱可知也 書此寓歎 書懷 次他集韻書卽事 雜詠 二月初二日亡室再忌也書此寓悼亡之懷 夕後散步口號 書懷 拈韻書卽事 登屋後小坡夕眺 觀圍墓 書卽事 拈韻口占 客懷 夜坐以唐詩遠客坐長夜爲韻 春早 睡後書六言 夜坐 述懷又用前韻 |
| 曹南窩 | 《筆寫本》 宿上川書齋 瀛洲十景 |
| 趙德鄰 | 贈耽羅使君南箕瑞九明 |
| 曹墨窩 | 墨窩詩集 |
| 趙士秀 | 觀德亭 |
| 趙誠立 | 戀北亭 |
| 趙緯韓 | 贈送吳進士暹南歸 |
| 趙貞喆 | 《靜軒瀛海處坎錄》 題洪娘墓 |
| 趙持謙 | 李濟州挽 |

| | |
|-----|---|
| 趙泰采 | 耽羅題詠 |
| 趙羲純 | 次壁上韻 望京樓 |
| 蔡洙馨 | 漁父 |
| 蔡濟恭 | 上元陰嘯無月閉戶濤寂十六夜雲陰盡捲月色明甚李侍郎公會 權承宣東野崔承宣稚晦李檢討士興惠然來訪相與出十字街步 逍遙鷄幾鳴乃還懷黃驢使君士述 蒙賜濟州貢馬 |
| 蔡彭胤 | 寄濟州牧使 |
| 崔啓翁 | 延曦閣 |
| 崔斗燦 | 濟州觀德亭次板上韻 別刀浦得高字 挽夫使君宗仁 臨別和金字成李光濂韻 |
| 崔溥 | 耽羅詞 |
| 崔錫鼎 | 寄濟州判官尹世礎 謝濟州判官朴學季書惠全鰓水茸 |
| 崔元淳 | 《雪夜小集》 題三姓祠崇報堂 |
| 崔益鉉 | 有客携酒見訪(文集見漏詩) 過新豐村(文集見漏詩) 過吳義土廟(文集見漏詩) |
| 崔海山 | 弘化閣 |
| 韓鼎運 | 次壁上韻 次壁上韻(丁卯) 山房窟 次壁上韻 |
| 韓禎裕 | 自挽 |
| 韓昌裕 | 玉溪 玉溪逍遙 |
| 許鉀 | 挽禾菴先生 |
| 許濯 | 望京樓 |
| 許慙 | 別離 |
| 玄景廈 | 偶吟 |
| 玄癸平 | 哭輓先生 秋夕 靈室奇巖 |
| 玄德聞 | 泰仁迷路卽吟 |
| 玄鳳俊 | 偶吟 |
| 玄舜圭 | 弔吳君大鉉斥洋教 |
| 洪錫寶 | 圍碁 |
| 洪暹 | 送眉壽牧濟州 |
| 洪汝河 | 送李濟州子方檜令公 |
| 洪宇遠 | 送舍弟熙叔之任耽羅二首 |
| 洪裕孫 | 旌義縣監厚遇有感 泛海 海島述懷 茅亭謁 居海錯漢之廬 |
| 洪重徵 | 登瀛邱 望京樓 登瀛丘(己未夏) |
| 洪羲純 | 己巳 四月吉日 |

Ph. D. Thesis

**Study on Sino-Korean Poems Regarding
Jeju in Chosun Dynasty**

Young - geun Boo

Dept. of Korean Literature in Chinese

Graduate School

Yeungnam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Hyul-jo Kim)

Abstract

Jeju island is far away from the mainland, so it was very difficult for other people than public officials or special visitors to visit the island across the sea before the marine transportation means was improved approximately 100 years ago. Accordingly, the island had to accommodate many exiles during the Chosun Dynasty because the top statesmen thought the isolation as a good condition of banishment.

As for the brief history of Jeju island, until Goryeo dynasty the central government could not control the island completely because of poor transportation means, and resistance of local powers, and this ironically contributed to the formation of unique culture of Jeju. In Chosun dynasty, however, it became subject to the central government completely, and was exposed to the exploitation and despotism. This made Jeju a hopeless land, impoverishing the life of the local inhabitants. We can still find the remnant of such evil practices conducted in the

Chosun dynasty here and there.

Anyway, during the period of Chosun dynasty, some officials, exiles and several visitors had been to Jeju, and they left many works regarding Jeju. To understand what Jeju actually looked like at that time via study of Sino-Korean poems regarding Jeju, it is inevitable to survey the entire works regarding Jeju. In this context, this thesis, aiming to identify the faithful shape of ancient Jeju, classified the types of visitors to Jeju into three groups - officials (represented by Kim Sang-Heon and Lee Hyung-Sang and Shin Gwang-Su), exiles (Kim Choon-Taek and Kim Jeong-Hee) and analyzed the Sino-Korean poems contained in their collections of works, or the individual works contained in separate collections or transcribed ones which depicted Jeju's landscape.

As a result, the present author could see what Jeju really looked like in those days, and widened the understanding of Jeju's special culture. I think that the result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local culture in the age of localization, and help us, the modern people to have an insight into the past. Finally, I hope that many subsequent and excellent studies would follow based on such information so that we can appreciate the literature of Jeju from the even higher level, by studying not only the Sino-Korean poems describing Jeju's landscape but also the many works across the entire genres.

Key words: local literature, official literature, exile literature, Kim Sang-heon, Lee Hyung-sang, Shin Kwang-soo, Jeong On, Kim Choon-taek, Kim Jeong-hee